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6



열왕기상 주해 지혜와 우매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 드 바 로 주 경 연 구 소

1 KINGS

The Wisdom and the Folly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ISBN 978-1-84550-251-5

© Dale Ralph Davis

10 9 8 7 6 5 4 3 2 1

First published in 2002 Reprinted in 2003, 2007, 2008, 2010, 2013, 2016

in the 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series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Great Britain.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그의 아내와 테네시 시골에 살고 있다. 그 이전에 그는 미시시피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였다. 그 이전에 그는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ISBN 978-1-84550-137-2),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사무엘하**(ISBN 978-1-84550-270-6), **열왕기하**(ISBN 978-1-84550-096-2)에 대한 주해들과 **구약 내려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ISBN 978-1-84550-192-1)도 썼다.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려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주해와 사사기 주해와 사무엘상 주해**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서문 (Preface).....	vi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vii
약자 (Abbreviations).....	ix
서론 (Introduction).....	1

제 1 부 황금 시대 (The Golden Age)

1. 왕국, 왕국, 누가 그 왕국을 차지할 것인가? (왕상 1 장 Kingdom, Kingdom, Who's Got the Kingdom?).....	5
2. 어떻게 왕국이 안전할 수 있을까? (왕상 2 장 How Can a Kingdom Be Safe?).....	14
3. 듣는 마음 갖기 (왕상 3 장 To Have a Hearing Heart).....	22
4. 지혜의 정권 (왕상 4 장 The Wisdom Regime).....	32
5. 성전을 위한 계획들 (왕상 5 장 House Plans).....	39
6. 성전 건축 보고서 (왕상 6 장 Construction Report).....	46
7. 실내 장식 (왕상 7 장 Interior Decorating).....	56
8.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왕상 8 장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65
9. 건축 검사 (왕상 9 장 Surveying the Construction).....	80
10. 열방의 빛 (왕상 10 장 A Light to the Nations).....	86
11.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왕상 11 장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95

제 2 부 분열왕국 (The Torn Kingdom)

12. 왕국의 오물 (왕상 12:1-24 Kingdom Crud).....	109
13. 사이비 종교 (왕상 12:25-33 Bootleg Religion).....	118
14. 두 선지자의 이야기 (왕상 13 장 A Tale of Two Prophets).....	128
15.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왕상 14:1-20 The Beginning Has Been the Beginning of the End).....	139
16. 예루살렘에 있는 등불 (왕상 14:21-15:24 A Lamp in Jerusalem).....	148

17.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악한 사람들 (왕상 15:25-16:7 Evil Men in the Hand of a Good God).....	158
18. 우리 세 왕 (왕상 16:8-28 We Three Kings).....	167
19. 적그리스도가 그림자를 드리우다 (왕상 16:29-17:1 Antichrist Casts His Shadow).....	177
20. 하나님 전쟁의 시작 (왕상 17:2-16 The Beginning of a God War).....	186
21.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왕상 17:17-24 Dare We Trust God?).....	197
22. 참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인가? (왕상 18:1-40 Will the Real God Please Stand Up?)...205	
23. 기도하고 달리는 선지자 (왕상 18:41-46 In Prayer and on the Run).....	222
24. 심리치료사들이 이길 것인가? (왕상 19:1-18 Shall the Psychotherapists Win?).....	232
25. 농장 떠나기 (왕상 19:19-21 Leaving the Farms).....	251
26.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0 장 Getting Clear about God).....	258
27.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1 장 Getting Clear about God's Justice).....	274
2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2:1-40 Getting Clear about God's Word).....	288
29. 우매와 우매 (왕상 22:41-53 The Folly and the Folly).....	305

서문 (Preface)

열왕기상은 왕으로 말하면 다윗의 죽음에서 아합의 죽음까지, 선지자로 말하면 나단으로부터 미가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왕들에 대한 보고, 자세한 묘사, 반복되는 공식,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등이 잘 어우러진 역사적 내러티브이다. 나는 무미건조하게 역사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신앙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나의 이전 주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열왕기상 본문의 신학적 핵심을 파악하여 강해 형식으로 적응에 너무 과민하지는 않으며 그 핵심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은 항상 감사를 빚지고 산다. 나는 나의 히브리어 석의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열왕기상의 가장 흥미롭지 않은 본문을 씨름하도록 하여 우리가 그것을 설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적이 있다. 그들은 훌륭하게 해냈고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리폼드 신학교는 8 개월의 안식 기간을 줌으로써 이 주해를 쓰는 나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켄 엘리엇과 존 맥카티는 '그들의' 도서관의 연구 공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루스 베넷의 날카로운 눈을 통해 수많은 결함과 어리석음이 제거된 후 원고가 송달되었다.

이 책의 출판은 한 이정표와 때를 같이 한다. 나의 동료 신약학 교수 녹스 챔블린은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의 전임 교수직에서 곧 은퇴할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 책을 챔블린 박사에게 작은 선물로 바친다. 우리는 그가 엄격한 학자요 감동적인 설교자요 장난기 많은 동료요 은혜로운 친구이기 때문이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

2000 년 종교개혁일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데이비스 박사의 열왕기상 주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매우 즐겁고 복된 일이었다. 저자는 역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도전을 주었다. 강단에서 선포된 이 주해를 듣던 청중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데이비스 박사의 통찰들 가운데 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솔로몬 내러티브(왕상 1-11 장)를 보는 관점이 비극으로 끝나는 마지막 장(왕상 11 장)의 영향을 받아 앞선 장들(왕상 1-10)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왕상 4 장, 왕상 9:10-28, 왕상 10:14-19 등을 포함한 왕상 1-10 장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어조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저자의 의도와 달리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며 말한다. “열왕기상 1-10 장이 솔로몬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열왕기상 11 장을 분명하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1 장은 부, 사치, 강압, 지혜, 인기, 명성, 화려함, 성취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신들(일계명)이 문제라고 선언한다.”

저자는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에 대한 아히야의 예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왕상 14:16)”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후렴구가 된 것, 그리고 르호보암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유다가 ...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왕상 14:22-24)”는 말씀이 보여주는 북 왕국과 남 왕국의 국외추방이라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는 예리한 시각의 제목을 달았다.

저자는 왕상 13 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어구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 등장 인물의 관계를 살피며 대지를 만들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였으나 그는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 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 보장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버렸다. 벤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문 업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남용했다.” 자비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여로보암은 그의 집이 멸절되는 벌을 받았다. 안전 보장의 말씀을 내 던져 버린 유다 선지자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다. 바르게 사역해야 할 말씀을 남용한 벤엘 선지자는 다른 하나님의 종을 죽게 하였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이(마 7:22) 마지막 날에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에게 자랑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 7:23)'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고, 통제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저자는 이세벨의 위협이 있는 후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에 대하여 1) 본문을 따지고(왕상 19:3 "그가 보았다" "그가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그가 보았다"), 2) 지도상 거리에 유의하고, 3) 모세와의 유사성을 숙고하고, 4) 천사들의 말을 믿으며, 5)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꾸짖음인지 아니면 초대인지 선택하고, 6) 엘리야의 말을 경청하고, 7) 뒤따라 심판과 은혜가 선언되는 문맥에 비추어 해석학적 온당함에 이르라고 제안하며, "내 견해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언약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왕상 22:41-53 처럼 타협의 길을 걸은 의인의 우매와 거역의 길을 걸은 악인의 우매로 끝나는 것이 책을 끝내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칠십인역 전통을 따라 이렇게 상하로 구분되어 열왕기상이 끝나는 것을 그대로 따르며 이 끝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대한 중간 보고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열왕기에 아주 제한된 정보만 주어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들과의 화친이란 조그만 교제를 했을 뿐이지만 다윗 왕조에 악영향을 미쳐 바알 숭배가 더 만연하게 하고 다윗 왕가의 멸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산시킬 뻔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타협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정신차리고 돌아서야 할 것이다. 아하시야처럼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에 집착함으로써 여호와를 노엽게 하면,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선언된 심판을 듣고 회환의 모습을 보인 아합에게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시기이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한 심판과 더불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칠천명을 남기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길을 견도록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한다.

아무쪼록 데이비스 박사의 **열왕기상 주해**를 통해 열왕기 저자가 의도한 대로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여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일이 널리 확장되기를 바란다.

2021 년 부활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약자 (Abbreviations)

ABD	<i>Anchor Bible Dictionary</i>
ANET	<i>Ancient Near Eastern Texts</i> , 3rd ed.
BDB	Brown, Driver, and Briggs, <i>Hebrew and English Lexicon</i>
DCH	<i>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i> (ed. D. J. A. Clines)
IDB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i>
IDBS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i>
ISBE	<i>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i>
JB	Jerusalem Bible
JSO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KJV	King James Version
LXX	The Septuagint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BD	<i>New Bible Dictionary</i>
NIDOTTE	<i>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i>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JB	New Jerusalem Bible
NJPS	Tanakh: A New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1985)
NKJV	New King James Version
NLT	New Living Translation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REB	Revised English Bible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TDOT	<i>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i>
TEV	Today's English Version
TWOT	<i>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i>
ZPEB	<i>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i>

서론 (Introduction)

지혜와 우매라는 책 표제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책의 표제를 권세와 영광으로 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죄의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그것을 금한다. 권세와 영광은 아직 없다. 확실히 영광의 섬광(솔로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만다.

과감하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대면하여 전체를 읽어본 독자들은 때때로 세부 사항의 명백한 미로에 당황한다. 특히 저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을 교차적으로 제시할 때 그렇다. 한 왕국에 두 명의 여로보암이 있고 한 명의 르호보암이 그 둘 중 한 명과 동시대인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두 명의 아하시야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동시대에 각 왕국에 여호람(혹은 요람)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역사적 과부하에 걸린다. 그 모든 것은 따뜻한 젤로처럼 절망적인 혼란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역사!”라며 우리는 한숨 짓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저자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며 의도적으로 두개골 피로를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하여 찰스 마틴보다 더 잘 말한 사람은 없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 다윗이 부유하고 광대한 왕국을 물려준 때부터 최후의 멸망 때까지 히브리 왕정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5 만이 조금 넘는 단어들로 4 백년의 세월을 묘사했다는 것은 세부 사항을 대폭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¹

다시 말하면, 열왕기 저자는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의 대부분을 생략했다! 5 만이 조금 넘는 단어들로 4 백년을 묘사했다! 우리 미국의 역사는 그 길이의 절반이 조금 넘지만 열왕기상하와 같은 짧은 소책자가 아니라 두꺼운 책들로 쓰여 있다. 마틴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세부 사항을 대폭 줄인 것을 의미한다. 열왕기(상하) 저자는 매우 **선별적**이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그가 **정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는 암시를 준다. 이것은 또한 저자가 완벽한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언—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버전—을 제공하려고 한 것임을 의미한다.

열왕기상하를 주해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계획적인 방임 정책을 세웠다. 본문에는 언제나 유혹이 숨어 있어서, 우리는 관심과 해결을 요구하는 모든 연대기적, 역사적, 비평적 문제들에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강해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¹ “1 and 2 Kings,”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425.

우리는 그것들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자비해야 한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데서 잘 다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나는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왕기(상하)는 학술 용어로 신명기에서 열왕기하(룻기 제외)까지를 포괄한다고 하는 신명기적 역사의 일부이다. 한 영향력 있는 견해에 의하면, 이 '역사'는 두 가지 판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요시아 시대(주전 622 년경)에 나온 더 희망적으로 묘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로기(주전 550 년경)에 나온 정죄의 주제가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주소에 살았던 한 명의 신명기 사가를 상정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종종 신명기 "학파"를 상정하고 이 신명기적 편집자들이 주전 7 세기 후반부터 포로기까지 활동했다고 여긴다. 이 "신명기적 역사"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이 책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은 그것의 가정들과 그것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이 한정하는 말에 유의하라),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명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신명기 책 자체의 주장대로)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전 7 세기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 이론의 주창자들이 성경 본문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 이론을 사용할 때 본문을 엉망으로 만드는 방식에 주로 반대한다. 그때 우리는 이 한 부분을 추가한 "선지자적" 신명기적 사가, 이 한 절 혹은 반 절을 덧붙인 "율법주의적" 신명기적 사가 등으로 이루어진 신명기 사가들의 집단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는다. 본문은 여러 기고자들이 자기의 전문화된 신명기 사가적 축들을 갈아 만든 산물인 모음집이 된다. 이러한 상세한 이론화는 대체로 추측이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참아줄 수 있다. 만일 그런 학자들이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다른 용어들도 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문맥에서 그것들이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때때로 독자들은 "해석학(hermeneutics)" 혹은 "해석학적(hermeneutical)"과 같은 용어들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비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전자는 해석의 과정을 가리키고, 후자는 "해석적(interpretive)"이란 의미이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우리는 저자(어떤 사람들은 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함)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는 그의 작품을 위해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했지만 그 전체 작품은 주전 560 년보다 더 일찍 완성되었을 리 없다. 왜냐하면 최종 저작은 열왕기하 24-

² 우선 David M. Howard, Jr.,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Moody, 1993), 169-229 을 참고하라.

25 장에 묘사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격파 이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하는 세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 황금 시대, 왕상 1-11장

II. 분열 왕국, 왕상 12장-왕하 17장

III. 마지막 시대, 왕하 18-25장

자, 이제 서둘러 본문으로 가보자.

제 1 부

황금 시대

열왕기상 1-11 장

1. 왕국, 왕국, 누가 그 왕국을 차지할 것인가? (왕상 1 장 Kingdom, Kingdom, Who's Got the Kingdom?)

여러 날 동안 그는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로 오랫동안 그저 앉아있곤 했고 국가 문제들은 나빠질 뿐이었다. 이것은 1724 년 피터 대제의 모습이었고 그는 1 년 뒤에 죽었다. 피터의 모터가 움직이며 업무를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의 모터는 중립에서 공회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외교관은 자국 정부에 편지를 써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벼랑 끝에 다다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¹

우리는 주전 970 년경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왕상 1:1-4 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늙고 몸이 차가운 왕이 있다. 우리는 아리따운 아비삭에 의해 행해진 온열 요법이 효과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² 희망적인 시작은 아니다.

열왕기상 1 장의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와 이야기 전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한다.

열왕기상 1 장의 구조

배경, 왕상 1:1-4

아도니아의 등극 행사, 왕상 1:5-10

모르고 있는 왕에게 알림, 왕상 1:11-27

계획, 11-14

밋세바의 말, 15-21

나단의 말, 22-27

왕의 결정, 왕상 1:28-37

밋세바에게 선언, 28-30

(밋세바의 반응, 31)

¹ Robert K. Massie, *Peter the Great: His Life and Worl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865.

² 나는 많은 학자들이 왕상 1:1-4 을 다윗이 실패한 정력 테스트로 간주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심히 아리따운 아비삭이 다윗을 흥분시킬 수 없었다면, 그의 성적 능력 상실은 그가 통치할 수 없다는 신호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더 선정적인 견해는 본문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다윗의 문제는 체온의 문제이지 성 기능 장애가 아니다. 왕상 1:4c 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 불능이 아니라 단순한 제한 사항/단서 조항처럼 읽어야 한다. [역자 주: 아비삭은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의 왕위 계승에 관한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비삭이 “심히 아리따다”는 것은 창 6:2; 삼하 11:2; 13:1 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불길한 전조로 보인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에게 선언, 32-35

(브나야의 반응, 36-37)

왕의 결정에 대한 실행, 왕상 1:38-40

모르고 있는 참주(僭主)에게 알림, 왕상 1:41-48

행사의 끝, 왕상 1:49-53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이렇다. 첫째로, 저자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주요 등장 인물들의 말을 통해 전한다. 따라서 대화(밋세바, 왕상 1:15-21; 나단, 왕상 1:11-14, 22-27; 다윗, 왕상 1:28-31, 32-35; 요나단, 왕상 1:41-48)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로, 저자는 다윗의 결정을 다윗의 말(왕상 1:33-35)과 저자 자신의 보고(왕상 1:38-40)와 요나단의 선언(왕상 1:43-48)을 통해 3번 반복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셋째로, “왕위에 앉아” 다스린다는 지배적인 개념이 9번 언급되고 있다(왕상 1:13, 17, 20, 24, 27, 30, 35, 46, 48). 다른 반복되는 어휘들도 있지만 누가 왕국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마지막 주제가 중심 주제이다. 본문의 핵심 주장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불안정한 시기에서 그분의 나라를 유지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몇 가지 강해적 설명을 하려고 한다.

I.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 (왕상 1:1-10 The Peril that Threatens the Kingdom)

모든 왕이 왕상 1:1-4의 다윗처럼 노쇠한 것은 아니다. 1절과 5절의 대조를 주목하라. 아도니야는 다윗이 아닌 모든 것이다. 여기에 왕이 될 강력한 왕이 있다! 그는 야망(5a), 스타일 (5b), 이미지(6b), 지위(6c, 분명히 출생 순서에 따라 다음 순서), 지원(7, 9 – 군사적 지원, 종교적 지원 등)이 있다.

어떤 면에서 저자는 단순히 아도니야와 그의 행위를 묘사한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사실들이 여기에 있다는 식의 묘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아도니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가 우리로 이전의 본문이나 전통에 비추어 아도니야를 보도록 의도했다면 더욱 그렇다. 아도니야의 멋진 외모에 대한 저자의 묘사는 사울(삼상 9:2; 10:23-24)과 엘리압(삼상 16:6-7)의 묘사뿐만 아니라 압살롬(삼하 14:25-27)에 대한 광택 있는 언어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이 모든 왕적인 혹은 잠재적 왕적인 인물들은 육체적으로 인상적이었지만 재앙을 가져왔거나 거부되었다. 저자는 아도니야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암시한다. 더욱이 아도니야에게 징계가 없었다는 것(왕상 1:6a)은 다윗과 아도니야를 반영하고, 분비선은 높았지만 두뇌와 자제력은 낮았던 암논의 범주(삼하 13:21)에 그를 속하게 한다.³

³ 우리가 REB(Revised English Bible;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 DRA=Douay-Rheims America Edition; GW=God's Word Translation 등)처럼 칠십인역을 따라서 삼하 13:21 을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그러나 그는[다윗은] 암논이 장자이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 본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이 세상에서 위태로운 시기를 통과한다. 그것은 요셉의 죽음과 노예 생활의 시작(창 50장-출 1장),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 전환(신 34장-수 1장), 여호수아의 죽음과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수 24장-삿 2장)일 수 있다.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도 그런 시기들 중의 하나이다. 다윗이 죽어가는 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전환 시점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움직임, 틀린 조치, 어리석은 전환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들 중 하나이다. 현대 교회는 이 본문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 곧 교회가 전례 없는 도덕적 퇴폐, 윤리적 상대주의, 세계적인 격변 등의 시기에 직면해야 하는 위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쇄도하는가! 나는 열왕기상 1장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어느 때라도 있는 위기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는 반복적으로 재난의 가장 자리 위를 걸어야 했던 그러한 시기들을 잘 통과했다. 분명히, 교회를 안정시키는 손이 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격이 없는 지도력으로 인해 시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터 대제(나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허용하라)가 백해의 아케인젤에서 러시아 해군을 창설하길 원했을 때, 그는 동지 세 명을 각각 제독, 부제독, 후방 제독으로 임명하면서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다. 그 셋 중 처음 두 사람은 배를 타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 사람 패트릭 고든은 피터를 섬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항해 경험이 있었다. 그는 고작 해야 영국 해협을 건너는 배들의 한 승객이었다!⁴

(이전에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저자는 아도니야가 왕국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내가 왕이 되리라(왕상 1:5)”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력의 표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를 위해 적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모데전서 3 장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 곧 장로, 집사, 여집사 (또는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격을 정한다. 그러한 자격이 거의 전적으로 재능보다는 경건함, 기술보다는 인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아도니야가 교회에서 죽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는 아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요한삼서 9-10 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왕적 횡포를 보이며 위세를 부리고 회중을 쥐고 흔들었던 디오드레베에게서 아도니야를 보고 있지 않은가? 아도니야는 여전히 교회에서 뽐내고 있다. 그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장로일 수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경우, 암논과의 이러한 비교는 더 분명해진다. [역자 주: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한 것은 신 17:15 의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하는 말씀에 어긋난다. 그것은 사사기의 아비멜렉이 걸었던 길이다. 욕심으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의 말로는 항상 파멸이다.]

⁴ Massie, *Peter the Great*, 134.

있다. 그는 집단, 곧 교회를 운영하는 한 '가족'일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지배적인 여인, 곧 눈에 띄게 혹은 비밀리에 대장 노릇을 하는 여인일 수 있다.

II. 왕국을 사랑하는 종들 (왕상 1:11-27 The Servants who Love the Kingdom)

아도니야의 파티는 다윗시에서 남쪽으로 수백 야드 떨어진 샘인 엔로 겔(왕상 1:9)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도니야의 파티나 그의 행렬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밋세바에게로 가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이 내러티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밋세바에게로 가는 나단 부분(왕상 1:11-14)이고, 둘째는 다윗에게로 가는 밋세바 부분(왕상 1:15-21)이고, 셋째는 다윗에게로 가는 나단 부분(왕상 1:22-27)이다. 밋세바는 진행 중인 아도니야의 쿠데타에 대해 왕에게 먼저 알릴 것이고, 나단이 나중에 들어와 최소한 두 명의 증인 요구 조건(민 35:30; 신 17:6; 19:15)에 따라 그녀의 말을 확증할 것이다(왕상 1:14).

분명히 다윗은 밋세바에게 맹세하며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녀를 확신시켰었다(왕상 1:17). 그러나 다윗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윗이 추위를 타서 몸을 떨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동안, 아도니야는 움직여서 이스라엘에게 기정 사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아도니야는 또한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총애를 받는 후계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솔로몬을 그의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을 설명할 수 없다(왕상 1:10, 19, 26). 이 사실로부터 나단과 밋세바는 아도니야가 집권하면 솔로몬은 제거될 것이라고 바르게 추론했던 것 같다(왕상 1:12, 21).⁵ 따라서 이제(왕상 1:27의 끝에서야) 다윗 왕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의 충실한 종들 그리고 특히 밋세바와 솔로몬이 처한 위험을 알게 된다.⁶

⁵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84: "엔로겔의 식사 자리에 나단과 브나야와 그의 용사들 ...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배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도니야가 '평화적 공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고대 셈족 관습에 따라 그러한 식사를 통해 그것에 대한 헌신을 나타냈을 것이다. 명백히 그는 반대편을 숙청할 그의 편을 신뢰했다(참고, 왕상 1:12)..." [역자 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Jedidiah= beloved of Yahweh)라고 하라 하셨다(삼하 12:25). 아도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배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배제하고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것을 드러낸다.]

⁶ 나는 나단의 개입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적 접근을 알고 있다. 그러한 해석자들은 나단을 "뇌쇄한 왕에게 속임수를 쓰는(넬슨)" 무자비한 음모자로 간주한다. 다윗이 맹세했다고 하는 서약(왕상 1:13, 17)은 나단 그리고/또는 밋세바가 연약한 왕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 지어낸 사실 무근의 이야기로 간주한다. 이런

이 이야기에서 나단의 역할(왕상 1:11 이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심지어 밋세바에게도 알려야 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단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행동으로 이끌 계획도 갖고 있었다. 나단은 몸으로 막은 사람이었다. 그의 경계로 인해 다윗은 자극을 받아 소파에서 일어났고, 밋세바와 솔로몬은 거의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왕족이 아닌 한 신하가 그런 차이를 만들고 왕국을 보존한다.

리치몬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1863 년이었고 남부 연방 수도의 일부 여성들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격분했다. 그들은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6 피트의 키를 가진 정육점 조수 미네르바 메레디스가 해군 권총과 보위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300 여명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뽕! 뽕!”을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고, 판유리 창문을 부수고, 상점에서—놀랍지도 않게—식료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끌고 나갔다. 그들은 시장의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발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민병대도 무시했다. 그때 그들 중 몇 명은 회색 옷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걸어 올라와서 짐을 실은 수레에 올라타서 폭도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연설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가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들의 방향으로 던지는 것을 보자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배가 고프고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가진 전부가 있습니다.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져 가십시오.” 그런 다음, 손에 시계를 들고 민병대를 바라보며, 그는 분노한 여성들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확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멈춰야 한다. 그는 시계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해산할 수 있는 5 분의 시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해석을 위해서는 Walter 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4-6, 그리고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19-20, 그리고 Tomoo Ishida, ‘Solomon’s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 A Political Analysis,’ in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ed. Tomoo Ishida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2), 178-79 을 보라. [역자 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다윗이 노쇠하였고,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쇠한 다윗에게 전에 그가 맹세한 것처럼 주입시켰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다윗이 왕위 계승에 대한 맹세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다윗은 육체적으로 노쇠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깨어 있었다. 왕상 1 장에서 아도니야의 반역이란 긴급 상황에서 단호하고 지혜롭게 바로 대처하였고 왕상 2 장에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단은 밋세바에게 먼저 말하고 다윗에게 나가 말하는 밋세바의 말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계획과 행동을 보인다. 여기에 무슨 불순한 의도라도 있었는가? 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위기 사항에 대한 현명한 긴급 대처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침묵의 논증은 설득력이 약하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윗의 맹세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맹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을 통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전해 들은 다윗이 밋세바에게 후계자가 될 것을 맹세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침묵의 논증을 하는 학자들이 나단을 거짓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 나단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그들에게 발포할 것이었다. 그 여자들은 그가 말뿐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5 분 안에 모든 표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남부 연방의 제프 데이비스 대통령은 폭도들을 해산시켰다. 그 차이를 한 사람이 만들었다.⁷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 장의 상황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나단에게 달려 있다. 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기독교의 응원이나 종교적 응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본문이 나의 옷깃을 잡고 나에게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의 봉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누구도 한 종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물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주님(마 9:41)은 크든 작든 우리의 신실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III. 왕국을 보존하는 열심 (왕상 1:28-40 The Zeal that Preserves the Kingdom)

얼마나 큰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났는가! 밋세바가 처음 들어왔을 때(왕상 1:16),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것처럼 히브리어의 두 음절을 사용하여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엇을[마]—당신에게[라흐]”) “무슨 일이오?”라고 묻는다. 그러나 왕상 1:28 에서 그는 열정이 넘친다. 그는 밋세바를 불러(왕상 1:28) 그녀에게 이전에 했던 자기 맹세를 재확인하고(왕상 1:29-30),⁸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왕상 1:32) 기름을 부어[역자 주: 정통성 확보, 왕상 1:34, 39]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상세한 명령을 내린다. 이 모든 것은 활기차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실행된다(왕상 1:38-40).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왕상 1:35, 볼드체—히브리어에서 강조된 것 표시).” (이 강의의 서두에서 다룬 문학적인 특징들과 주제들에 대한 부분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실

⁷ Shelby Foote, *The Civil War: A Narrative*, vol. 2: Fredericksburg to Meridian (New York: Vintage Books, 1986), 163-64.

⁸ [역자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지켜져야 했다. 삼하 21:1-9 에 의하면 사울은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 년 기근이 있었고 그의 후손 7 사람이 죽게 되었다. 저자가 왕상 1:13, 17, 30 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밋세바에게 한 다윗의 맹세를 다루며 밋세바와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맹세대로 즉시 시행한 것을 묘사한 것은 다윗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켰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기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선지자 사독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아도니아의 모습과 대조된다.

분이셨지만(삼하 7:12-16), 그 확신은 인간적 책임의 요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왕국을 다스릴 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왕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숙고할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로, 다윗을 행동하게 움직인 것은 (느슨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왕국의 운명이었다. 왕국의 종으로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사로잡는가? 우리의 포트폴리오인가? 나의 병든 차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리하지 못한 자동차 정비소인가? 적절한 커튼을 찾지 못하는 무능력인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축구 팀이 지구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인가?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청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붙잡고 자극하는가?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안락 지대만이 자주 우리 안에 어떤 진정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을 갖는다고 고백해야만 하지 않는가?

둘째로, 이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체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인간의 활동만을 설명하는지를 주목하라. 아도니아의 왕위 추구는 나단의 경계에 부딪치고, 기운 차린 다윗의 명령으로 반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로널드 월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사에 극적으로 기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아도니아를 쳐서 쓰러뜨리지도 않으셨고,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축하연을 망치지도 않으셨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상황에서 그분은 단순히 그들 마음에 그들을 움직이는 생각을 영감하셨고,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말들을 주셨다.⁹

왜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분의 길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가? 왜 그분은 일을 바로잡기보다는 일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그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연약한 인간의 손에 맡겨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인자의 날들 중 하나라도 보기를 계속 갈망하는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가(참조, 눅 17:22)?

⁹ Ronald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7. 요하네스 피히트너(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46)는 일제 엄호 사격과 같은 인간 활동의 연속 속에서 주관적인 일의 암시들을 잘 지적한다.

IV. 왕국을 특징짓는 복종 (왕상 1:41-53 The Submission that Marks the Kingdom)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성읍 중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지만[역자 주: 기혼과 엔로겔의 거리는 약 650 미터 정도],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할 때까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요나단은 솔로몬 대관식의 대부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머리를 써서 대화하고 진술하는 지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왕상 1:43)”라는 그의 첫 마디 말은 핵심을 담고 있다. 파티가 끝나버린다(왕상 1:49). 모든 사람들은 서두르거나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아도니아 자신은 복종하며 스스로 왕국을 차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왕상 1:50-53).¹⁰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아도니아가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요구되는 전부이다. 그가 이러한 복종을 계속하는 한, 그는 안전할 것이다(왕상 1:52).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내적인 복종과 거리가 멀게 걸으려만 하는 외적인 복종, 곧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이는 복종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복종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다섯 시간의 연설 중에 받았던 67 번의 기립 박수와 같은 것이다.¹¹ 이 경우에서 아무도 그런 지루한 연설이 정말로 진정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왕도심을 포함한 믿음의 교리와 규칙을 가르친다. 그들은 대개 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 십대 시절에도 배우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수공이 있다. 그것은 실망스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증명하기 위해 가서 바알 숭배자가 되어 보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미묘한 우려가 있다. 배운 것이 단순히 인식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교리 문답의 내용이 체험적인 것으로 될 것인가? 외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인가?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 갈 것인가?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왜 저자는 아도니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¹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은 다윗 계보의 최종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이든 필연적이든 모든 무릎이 꿇을 때(사 45:23; 빌 2:9-11)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이해될 수 있다.

¹¹ Paul Johnson, *Modern Times*, rev.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761.

2. 왜 아도니야는 솔로몬과 나단을 그의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는가?
3. 다윗에게 아도니야에 대해 귀뜸해 주는 데 있어서 나단은 얼마나 중요한가?
4.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가? 그분은 배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5. 아도니야는 솔로몬의 등극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2. 어떻게 왕국이 안전할 수 있을까? (왕상 2 장 How Can a Kingdom Be Safe?)

워싱턴 타임즈는 최근 한 경찰관의 납치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라인홀드라고 불리던 경관은 메릴랜드 마을의 여러 곳에서 순찰차에 앉아 과속 운전자들을 제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라인홀드 경관은 경찰 순찰대 복장을 하고서 순찰차의 운전석 뒤에 앉아 있는 마네킹에 불과했다. (그는 대개 12 시간마다 이동했었지만) 이를 동안 연속해서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차창을 부수고 그를 훔쳐갔다. 궁극적으로 경찰 업무는 수동적으로(다시 말하면, 인형과 함께) 할 수 없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지 수동적인 주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2 장에서 솔로몬의 왕국이기도 한 여호와의 왕국이 안전하게 되려면, 능동적이고 바짝 경계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라인홀드 경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기 전에, 본문의 몇 가지 문학적 특징을 빠르게 살펴보기로 하자.

1. 문학적 특징 (Literary Features)

나는 여러분이 다음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첫째로, 열왕기상 1 장의 중간쯤에서 다윗이 밋세바에 대한 응답으로 맹세를 했던 것처럼(왕상 1:29-30), 여기 열왕기상 2 장의 중간쯤에서 솔로몬은 밋세바에 대한 응답으로 맹세를 한다(왕상 2:23). 둘째로, 열왕기상 1 장에서 나단이 밋세바를 통해 왕(다윗)에게 접근하였듯이(왕상 1:11 이하), 여기 열왕기상 2 장에서 아도니아가 밋세바를 통해 왕(솔로몬)에게 접근한다(왕상 2:13 이하). 셋째로, “건고하다, 세워지다”란 뜻의 어근 [쿤]이 4 번 사용된다(왕상 2:12, 24, 45, 46). 이 반복되는 어휘는 열왕기상 2 장의 주제를 제공한다. 열왕기상 1 장의 관심은 왕국의 승계에 관한 것이었고, 열왕기상 2 장의 초점은 왕국의 안전에 있다. 넷째로, 열왕기상 2 장의 후반부는 일련의 죽음, 곧 실제로 처형을 보고한다. 그러므로 왕상 2:24 이하에서 “죽다”란 뜻의 동사 [무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왕상 2:24, 25, 30, 34, 37, 42, 46), “죽음”을 뜻하는 명사 [마베트]가 한 번 사용된다(왕상 2:26). 우리는 이러한 죽음들이 왕국이 건고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항목들로 충분할 것이다. 열왕기상 2 장은 세 개의 주요 부분, 곧 1-12 절, 13-35 절, 36-46 절로 나눌 수 있거나, 더 넓지만 더 적절하게 두 개의 주요 부분, 곧 1-12 절, 13-46 절로 나눌 수 있다. 주제를 암시하는 동사 “건고하다, 세워지다”란 [쿤]이 이 두

주요 부분의 각 끝(왕상 2:12, 46)에 나오는 것을 주목하라.¹ 왕상 2:5-9 에 나오는 다윗의 충고의 대부분이 왕상 2:13-46 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해는 주로 왕상 2:1-4 과 왕상 2:13-46 을 다룰 것이다.

II. 강해 (Expository Discussion)

열왕기상 2 장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왕국이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대답한다.

i. 언약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왕상 2:1-4 By Obeying the Covenant Law)

다윗은 자기가 죽음을 눈 앞에 둔 것을 알고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도록 맡긴다.² 솔로몬은 대장부다움과 힘을 보이며(왕상 2:2) “여호와와 길로 행해야” 한다(왕상 2:3). 여호와와 길은 (그분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이 모든 용어들은 전체성, 곧 **모든** 여호와와 말씀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명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되므로) **이용 가능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익하다**. 사실, 솔로몬과 다윗 계보의 다른 왕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왕상 2:4). 요점은 분명하다. 곧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향유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자가 왕상 2:12 에서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그의 왕국에 대해 인지된 모든 위협이 제거된 왕상 2:46 에 이르러서야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이야기의 방식이다. 여호수아 10 장에서 비교적 간결한 이야기 후에, 저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수 10:15)”고 묘사한다. 그런 다음, 그는 즉시 남부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투를 자세히 설명하고(수 10:16-4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수 10:43)”고 언급하며 남부 전투 묘사를 마무리했다.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 진영으로 자주 돌아왔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길갈로 돌아왔다. 그러나 저자가 수 10:15 에 길갈 진영에 돌아온 것을 언급한 것은 수 10:43 을 미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의 처음 간결한 부분(수 10:1-14)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나의 책 *Joshua: No Falling Word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86-87[= **여호수아 주해**, 73-74(9 장 IV. 정복의 방식)]을 참고하라. [역자 주: 왕상 2:12, 46 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묘사는 삼하 7:12 의 성취를 잘 보여준다.]

² 지상 생활을 마감할 시간이 가까웠던 다른 인물들, 곧 요셉(창 50:24-25), 모세(신 31:1-8), 여호수아(수 24:1-28) 등의 권면에 주목하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모세의 율법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본다. 그것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그것들은 완벽하게 서로 양립할 수 있다.³ 나는 사람들이 삼하 7:14-15에 근거하여 솔로몬(혹은 다윗 계보의 어느 왕)의 불충이나 불순종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은 왕이 신실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의 복을 **향유**하지 못할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다윗은 왕상 2:4에서 이 모든 것, 곧 순종이 왕국 안보의 내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글썄, 왕국은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좋은 동맹을 맺거나, 상당한 규모의 최첨단 군대를 유지한다면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자존심이 강한 정치학자는 그것이 국가 안보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현명한 사람과 같다. 인생의 폭풍과 홍수와 바람이 그를/그것을 때릴 수 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마 7:24-25).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 서류 일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주최한 치유 사역, 그들이 설교한 성경 집회, 그들이 운영한 전도 프로그램 등을 다시 내세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마지막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마 7:21-23).

이것이 왕상 2:1-4의 요점이다. 다윗 계보의 왕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진정한 안정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온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된 것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 왕국의 안정은 우리의 경험이나 직업, 우리의 교육이나 혈통, 우리의 사역의 업적에 닦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소유해 온 분명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만 닦을 내린다.

³ [역자 주] 삼하 7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고 왕상 2장은 왕의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느 한 쪽이 강조되었다고 하여 다른 한 쪽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삼하 7장은 무조건적이고 왕상 2장은 조건적이라고 보며 다윗 언약의 본질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고 다만 강조를 위한 수사법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였던 것이고, 열왕기 저자는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왕들에게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의 믿음 강조와 야고보서의 행위 강조의 차이와 비교될 수 있다.

ii. 왕국의 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왕상 2:13-46 By Eliminating the Kingdom's Enemies)

여기서 우리는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외적 수단을 본다. 여기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충고(왕상 2:5-9)를 그대로 실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되는 사형 집행을 만난다. (한 경우는 감형되어 추방 그리고/혹은 유배가 이루어진다.) 제거된 주요 인물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도니아, 왕상 2:13-25

아비아달, 왕상 2:26-27

요압, 왕상 2:28-35

시므이, 왕상 2:36-46

아도니아는 왕좌를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형된다(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아비아달이 직무에서 추방되고(왕상 2:26-27) 요압이 처형된 것(왕상 2:34)은 그들이 여전히 아도니아와 한 통속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또한 요압이 저지른 살인들로 인해 그가 처형되기를 원했다(왕상 2:5-6; 31-33).⁴ 시므이가 다윗의 제거 목록에 포함된 것은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 도망할 때 다윗 왕에 대한 그의 장황한 욕설 때문이었다(삼하 16:5-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유예를 허락했다(삼하 19:18b-23).⁵ 그러나 시므이의 입은 그를 낙인 찍힌 사람으로 만들었고, 솔로몬은 그를 적절한 위협을 하며 예루살렘에 가두었다(왕상 2:36-37).

⁴ 다윗이 아브넬(삼하 3:27)과 아마사(삼하 20:10)를 살해한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너무 약해 요압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자 주: 율법 준수를 권면하는 배경에서 요압의 처리는 평화시에 악의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두 장군을 죽인 요압에게 솔로몬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역할을 함으로써(참조, 민 35:16-21)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⁵ [역자 주] 출 22:28(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를 어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천 명과 함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지혜롭게 유예를 주었다. 다시 환궁하는 도중이었고 천 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 앞에서 시므이를 처단했다면 환궁 후 통치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이 쉽게 진압된 것도 시므이에 대한 용서가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기응변식 처세에 능한 시므이를 그대로 둔다면 다윗 왕국에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솔로몬의 왕위가 정의롭게 견고히 세워지려면 시므이의 죄가 적절하게 공의롭게 다루어져야 했다.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라는 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다윗이 바르실래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한 것은 복수에 집착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다윗은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을 선대하는 공의로운 통치를 당부하며 악인 심판보다도 충성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는지도 모른다. 요압 심판과 시므이 심판 사이에 바르실래 아들들 배려가 나오는 구조는 다윗의 유언이 균형 잡혀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왕상 2:1-

아도니야는 밋세바에게 나아갔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자기의 요청이 왕의 어머니를 통해 중재된다면 솔로몬이 그것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⁶ 그는 아비삭(왕상 1:1-4)을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은 아도니야가 왕좌를 위한 또 다른 음모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아비삭이 다윗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왕상 1:4) 그녀는 다윗의 아내나 첩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왕의 아내를 얻는 것은 그 왕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았다(삼하 3:7; 12:8; 16:21 참조). 그러므로 아도니야의 요청은 왕좌를 위한 또 다른 (사악한) 움직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다윗과 솔로몬은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해석학적인 구타를 당한다. 이 내러티브가 솔로몬의 “모든 위협에 대한 냉정하고 조직적인 제거”를⁷ 전하며 솔로몬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추구하며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간 도덕적인 이야기로 가장된 권력 정치에 대한 상당히 추악한 이야기”라는⁸ 것이다.

9(유언의 말)과 삼하 23:1-7(유언시)은 구조가 비슷하다. 도입부(삼하 23:1-2; 왕상 2:1), 왕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삼하 23:3-5 “공의, 하나님 경외”; 왕상 2:2-4 “율법 준수”), 왕국의 걸림돌/도움되는 사람들(삼하 23:6-7 “사악한 자”; 왕상 2:5-9 “요압과 시므이”)을 비교하라. 사악한 자에 대한 유언이 다윗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선지자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였듯이(신 31:23)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남자가 되라”고 격려한다(왕상 2:2).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역개정版的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번역보다는 “강하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는 취지로 “강하고 남자가 되어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는 번역이다.

⁶ 어떤 해석자들은 마치 아도니야의 이 요청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밋세바를 당황시키지 않은 것처럼 그녀를 수동적이고 순진한 인물로 본다. [역자 주: “한 가지 작은 일, 내 청”이란 말이 밋세바의 순진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순진하기보다는 정중했을 것이다. 그녀는 아도니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고 그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 동조하는 척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Paul R. House, *1,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5), 100 을 보라.

⁷ Walter 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5. 브루게만(4 쪽, 7 쪽)은 또한 솔로몬의 “영민하고 무자비한 조언자들”(나단, 브나야, 사독)에 대하여 말하며 “교활한 밋세바, 피에 굶주린 브나야, 추악한 아도니야”라고 언급한다.

⁸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40.

나는 이 반 솔로몬적 견해를 따를 수 없다. 나는 다윗이 이 문제들(예: 요압의 살인 행위들)을 더 일찍 다루었어야 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우리가 솔로몬이 정치적 불협화음이 아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냉정하고 무자비하다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본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아도니야가 아비삭을 요청한 것은 체제 전복적일 수 있었고[역자 주: 왕상 2:15의 아도니야의 말에 유의하라], 솔로몬은 그 요청을 정확히 평가한 것에 불과할 수 있었다. 본문은 이 이론에 “불쌍하고 취약한 아도니야” 이론만큼 많거나 그 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설령 아도니야의 요청이 사악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아도니야가 약간의 분별력만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의 요청을 솔로몬이 체제 전복적으로 해석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아도니야가 살고 싶다면,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다(왕상 1:52-53). 시므이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갇혀 살면서⁹ 예루살렘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바후림(삼하 16:5 참조)의 자기 옛 집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곳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였다(왕상 2:36-37). 솔로몬은 시므이를 그의 감시 아래 두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시므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일은 오직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도망친 노예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왕상 2:39-40). 이렇게 아도니야가 어리석었고 시므이가 부주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을 정말 혹평할 수 있을까?

아도니야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고 주장했다(왕상 2:24). 솔로몬이 아도니야, 요압, 시므이를 처형하고¹⁰ 아비아달을 추방한 후에, 내레이터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세워졌다[건고하여졌다].”라고 결론짓는다(왕상 2:46).¹¹ 이 진술들은 내러티브의 신학적 추세, 곧 왕국이 안전해지려면 그것에

⁹ 당시 예루살렘은 약 11 에이커의 부지와 그 자체 안에 약 2,000-2,500 명의 인구가 있었던 상당히 제한된 도시였을 것이다. Tomoo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Berlin: Walter de Gruyter, 1977), 130-35 을 참고하라.

¹⁰ [역자 주] 제단에 나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겠다고 한 요압을 그 자리에서 처형한 것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출 21:14 과 아달라 처형 때 여호야다가 한 말(왕하 11:15)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¹¹ [역자 주] 왕상 2:24 의 **וַיִּבְנֵה**[헤히나니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와 왕상 2:46 의 **וַיִּבְנֵה**[나호나 “그것이 세워졌다/건고해졌다”]는 그 어근이 [쿤]이고 전자는 히프일 어간이고 후자는 니프알 어간이다.

대한 위협들이 무력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왕국을 “세우는 것/견고하게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다.¹²

우리는 이것이 요구하는 심각성으로 인해 움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 나는 마지막 목회지의 교회 건물의 서재에서 연구하면서 조용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박쥐 한 마리가 형광등의 시원한 빛 아래로 급강하하여 휘휘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일로 내 연구를 방해받은 적은 없었다. 박쥐가 어떻게 서재에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방은 가로 12 피트, 세로 20 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침입자로부터 내가 숨을 곳이 없었다. 나는 무장을 하기 위해 급히 나갔다. 서둘러 교회 주방에서 먼지 걸레를 얻었다. 그것은 실수였다. 빙빙 돌고 있는 박쥐에게 한 번 휘두르자, 서재의 공기가 더러운 바닥에서 모은 걸레의 더러운 입자로만 채워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가서 빗자루를 들고 돌아와 그것으로 마침내 실내 하늘에서 박쥐를 때려눕히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카펫 위에서 기절했다. 거기서 나는 모든 목회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때려 죽였다. 고대의 금색 카펫은 박쥐의 피로 얼룩지고 말았다. 박쥐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다른 독자들은 내가 결국 과잉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왜 살아 있는 그대로 놔두는 정책으로 박쥐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서재에서 박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쥐가 죽었을 때 평화가 찾아왔다. 때때로 어떤 일은 그와 같고 그와 같아야 한다.

여기 열왕기상 2 장에서 상황은 그와 같다. 왕국의 안전은 그것의 적들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한다. 왕국은 그것을 파괴하고 훼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마지막 날” 차원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40b-43a 개역개정; 참고, 살후 1:9-10)

열왕기상 2 장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공유한다. 그것이 열왕기상 2 장이 그렇게 엄중한 본문인 이유이다. 다윗 계보의 마지막 왕께서도 마지막 날에 그분의 나라를

¹² 나는 월러스(Ronald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6-17)도 비슷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우실 때 동일한 원리를 따르실 것이다.¹³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안전 보장은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전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용어는 무엇인가?
2. 여호와에 대한 불성실이나 불순종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다룸에 있어서 현명했는가, 순진했는가, 아니면 무자비했는가?
4. 솔로몬은 왜 적들을 아끼지 않고 제거해야 했는가?
5.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적들을 제거하실 것인가?

¹³ [역자 주] 피의 심판을 통해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진 것은 종말에 무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이다.

3. 듣는 마음 갖기 (왕상 3 장 To Have a Hearing Heart)

학자들은 왕상 3:1 이 솔로몬을 주로 긍정적인 색상으로 그린 것인지 아니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길한 색조로 그린 것인지 논쟁을 벌인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나라 사이에서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징조인가? 아니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불신앙의 시작인가?¹

아니면 둘 다인가? 왕상 3:2-3 의 단서("다만 only")를 달아 놓은 절들은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운 산당들의 사용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신명기적 편집자들이 늘 하는 서투른 노력인가?²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암시"인가?³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산당 제사를 가상의 신명기적 편집자들처럼 충격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다. 만일 솔로몬의

¹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Ont.: Paideia, 1978), 2:197-98 을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위해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44-45 을 보라. 출 34:11-16 과 신 7:1-5 에서 여호와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족속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명시적으로 애굽인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프로반은 왕상 3:1 에 솔로몬의 왕궁이 여호와와 성전보다 먼저 언급된 것을 그의 잘못된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나는 그것이 너무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 전에 솔로몬이 이미 암몬 여인 나아마와 결혼했다는 것에 유의하라(참조, 왕상 11:42-43; 14:11).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John D.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7), 162-65 그리고 Abraham Malamat, 'The First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 *Biblical Archaeology Review* 5/4 (Sept.-Oct., 1979): 58-59 을 보라.

² 존스(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121-22)는 왕상 3:3 을 담당한 신명기적 편집자가 다소 무능하여 후대의 신명기적 편집자가 왕상 3:2 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존스는 또한 왕상 3:6-8 이 "침입" 구절이고 왕상 3:10 이 "불필요한 삽입"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조각 조각 난도질하는 비평은 많은 신학생들에게 구역 연구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말 지루하다는 인상을 주며 구역 연구를 죽이는 것이다.

³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44.

결혼에 어두운 암시가 있다고 하더라도(왕상 3:1),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왕상 3:3).”라는 분명한 선언은 그것을 가려버린다.⁴

열왕기상 3 장에 지혜의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라는 표제 아래 이 장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이다.

1. 지혜를 구하는 기도 (왕상 3:4-15 The Prayer for Wisdom)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왕상 3:5)”는 여호와의 초대는 이 부분의 주제를 제공한다. “구하다”라는 뜻의 동사 [샤알]이 8 번 나온다(왕상 3:5, 10, 11[5 번], 13).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의 기도를 기도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만난다.

i. 기도의 진정한 동기: 하나님의 관대하심 (왕상 3:5b, 13-14 The true incentive to prayer: the generosity of God)

솔로몬의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방적인 제의를 하시며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모티어(Alec Motyer)가 말한 대로, 여기서 여호와와 “언약의 복들의 관대한 샘(liberal fount)”을⁵ 제의하신다.

우리가 왕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수준의 왕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똑같이 아낌없이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 하나님은 약 1:5 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가? 거기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약 1:2-4 에 언급된 시련을 다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촉구한다. 야고보의 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문자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를 좋아한다. 이 “주시는 하나님”은 열왕기상 3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취지대로 왕상 3:13 에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마 7:11 의 하나님이 아닌가?

⁴ 피히트너(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71)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한 이것이 구약에서 한 개인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말했다(참조, 시 18:1). 이러한 태도는 솔로몬의 행위에 찬동하는 것이다.

⁵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70.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로 기도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는가? 그것은 나로 조지 핏필드의 호쾌한 태도에 매우 감명을 받은 뉴욕의 여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핏필드씨가 매우 **명랑해서** 나로 기독교인이 되고 싶도록 했다.”라고 외쳤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려는 그분의 열렬한 집요하심을 통해 우리로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존 뉴턴의 다음 말은 옳았다.

오 내 영혼아, 네 청원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사랑하신다**.

그분 자신이 너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ii. 기도의 참된 기초: 하나님의 신실하심 (왕상 3:6-7a, 8 The true foundation of prayer: the faithfulness of God)

솔로몬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주목하라. 그는 그의 요청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 곧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것으로 시작한다. “**주는**(=당신님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조)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큰 언약적 사랑/인애)를 베푸셨습니다(왕상 3:6a).” 왕상 3:6-7a 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최근 약속인 삼하 7 장의 다윗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 그는 다윗에게 약속된 왕조의 첫 번째 계승이 잘 이루어져 솔로몬 자신이 통치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왕상 3:6b-7a). 왕상 3:8 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더 오래된(천년쯤 더 이른)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암시한다. 이것은 “수효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왕상 3:8b)”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의 씨가 땅의 티끌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13:16; 32:12).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오래된 약속들이든 새로운 약속들이든,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지키셨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이다. 그의 기도는 여호와의 신뢰성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청원하는 일에 있어서 격려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기록을 읊조릴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청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찬양은 확신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지 못한다. 나의 한 아들이 8 살 혹은 10 살 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주

수영 파티, 소풍, 다른 과외 활동 같은 것을 약속하거나 예상 계획을 말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실행한 적이 없었다.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은 모(募) 부인(살아 계신 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생략)이 제안한 가장 최근의 과외 활동을 말할 때마다 항상 실망스러운 경멸의 태도로 말하였다. 그는 그것이 모두 산타 클로스처럼 가상의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 여호와와 지켜진 약속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빈 무덤까지, 그리고 공동체적 섭리와 개인적인 섭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항목화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다. 감사와 확신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 기억하는 일이다.

iii. 기도의 참된 염려: 하나님의 백성 (왕상 3:7b-9 The true anxiety of prayer: the people of God)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왕상 3:5)”는 여호와와 말씀은 관대한 초청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한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을 드러낸다. 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며 열왕기상 3 장을 읽고 있었다. 이 본문을 내 아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왕상 3:5 에 있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여섯 살된 아들이 “아스트로 잔디!”라고 불쑥 말했다.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야구광이었고 프로 경기장에 있는 (무릎을 망가뜨리고 피부를 상하게 하는) 그 균일한 녹색 잔디를 사랑했다. 그는 우리 뒷마당의 잔디가 그들의 끊임없는 구기 경기로 인해 맨 흙으로 변했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의 대답은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드러냈다. 그것은 그를 드러냈다.

솔로몬의 대답은 솔로몬을 드러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요청 배후에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와 막중한 책임을 말씀드리며 기도한다. 그는 “저는 작은 아이이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왕상 3:7b)”, 곧 “저는 지도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밝히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수효가 많아 셀 수도 없는 백성(왕상 3:8b, 9b)”을 통치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a).”라고 기도한다.⁶ 우리는 “마음”을 사람의 중심에

⁶ [역자 주] 개역/개역개정판은 왕상 3:9 의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를 바꾸어 번역했으므로 원문을 따른 저자의 9a 와 9b 의 순서와 다르다.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등은 원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했다.

개역개정: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있는 지성, 감정, 의지의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서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달리, 이 용어는 주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 '머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솔로몬이 듣는, 곧 분별력 있는 마음을 요청하는 것이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분별하기 위한 것임에 유의하라.

그러나 우리의 주된 요점은 하나님 백성의 복지가 솔로몬의 기도를 이끈다는 점이다. 내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동기이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모델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유익하게 할지를 걱정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솔로몬의 청원을 지배한다.

나는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감동적인 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 2:11 에 의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출 2:25 과 3:7 에 언급된 여호와와 보심처럼 단순히 사실 중심적 관찰이 아니라 동정적인 바라봄이다. 그 때 모세가 한 일(출 2:11b-14)이 옳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르든, 자신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것이었다.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분별력 있는 지도력을 가질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이 본문이 우리 또한 압박하지 않는가?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염려는 최악이지만 거룩한 염려, 곧 하나님 백성의 복지를 위해 가슴이 떨리며 항상 그들의 유익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있다. 여기에는 이 시대의 중국과 수단과 이란과 같은 장소에서 구타당하고 팔리고 찢소리도 못하며 고통 당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양 무리의 인내와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와 같은 기본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 솔로몬처럼 왕국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작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리길 원하는 장로가 있을 수 있다.

새번역: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iv. 기도의 참된 목표: 하나님의 기뻐하심 (왕상 3:10-14 The true goal of prayer: the pleasure of God)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왕상 3:10).”⁷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가 구한 것(왕상 3:11-12)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왕상 3:13)도 주셨다. 여러분이 기쁘게 해 주고 싶은 사람의 즐거움에는 무언가 아주 즐거운 것이 있다.

나는 나의 소년 시절에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어쩌면 디저트도 먹고, 저녁 식사 끝과 다음에 오는 것 사이의 짧은 휴식의 순간에 이르곤 했다. 그 때 사람들은 숙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그때—아주 자주—아버지께서 식탁보에 손을 얹고 “좋은 저녁 식사”였다고 선언하시곤 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이 꽤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선언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 나는 종종 그렇게 간단한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보곤 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식사가 아무거나 마구 칭찬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특히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셨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셨다.

나는 왕상 3:10 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 곧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의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교회는 바로 이 원리를 망각함으로써 엉망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 곧 고전적일지 아니면 현대적일지, 마이크 파워를 사용하는 경배팀을 둘지 아니면 찬양대를 둘지 등을 토론했다. 우리는 느끼는 필요를 예배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듣는다. 그러나 그건 모두 쓸모 없는 것이다. 예배의 목표는 유일하고 참된 청중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앤 오틀룬드는 우리에게 공적 예배 전에 드릴 올바른 말을 주었다. “주님, 이 교회 예배는 당신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⁸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왕상 3:5).” 그분의 관대하심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으니, 구하라. 지금까지의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구하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 구하라.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구하라.

⁷ [역자 주] 왕상 3:10 의 [바이타브 하다바르 브에네 아도나이, YLT: And the thing is good in the eyes of the Lord]는 삿 17:6; 21:25 의 [이시 하야샤르 브에나브 야아, YLT: each doth that which is right in his own eyes]와 비교할 만하며 “그 일/말이 주님의 눈에/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⁸ Anne Ortlund, *Up with Worship* (Ventura, CA: Regal, 1982), 137.

II. 지혜의 증거 (왕상 3:16-28 The Proof of Wisdom)

왕상 3:16-28 은 왕상 3:4-15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었다(왕상 3:9).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청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다(왕상 3:12).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할 법정 사건이 있다.

두 명의 창기가 그들의 사건을 솔로몬에게 가져온다. 고소인은 그 사건을 설명한다. 내러티브는 그녀의 이야기가 참되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가 말한 대로, 두 여인은 사흘 간격으로 출산했다. 그들은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만 거기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라고 말한 대로, 분명히 성관계를 위해 어울리던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임신 중이던 창기들을 홀로 남겨 두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어려움은 다른 증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동거인의 아기가 밤에 죽은 것은 동거인이 심중팔구 자면서 아기 위에 누우므로 질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자기가 자는 동안 피고소인이 일어나 자기의 살아 있는 아기를 훔치고 피고소인의 죽은 아기를 자기의 품에 누웠으므로, 약탈당한 아기가 자기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다(왕상 3:19-20).⁹ 고소인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고 하며 그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왕상 3:21). 그러나 다른 여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

솔로몬은 주장과 반대 주장을 간단히 되풀이하고서(왕상 3:23) 자기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한 후 살아 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각 여인에게 반반씩 주라고 명령했다(왕상 3:25). 이 명령은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를 매우 뒤흔들며 놀라게 하므로 그녀는 살아 있는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정의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녀는 자기 아기의 생명을 확보할 것이다(왕상 3:26). 이러한 감정의 분출은 솔로몬에게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진짜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왕상 3:27).¹⁰

⁹ 사람들은 고소하는 이 여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왕상 3:20)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어려운 것은 아닐지라도 사건에 대한 그녀의 재구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확실히 그녀 자신의 아기의 신원을 알고 있었고(왕상 3:21) 그래서 사건을 가상해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¹⁰ 왕상 3:27 은 실제로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녀”에 대하여 NIV 나 NASB 처럼 “첫 번째 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프로반(Provan, 1 and 2

이스라엘은 감명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왕상 3:28 개역개정).”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왕께서 **재판하신**[샤파트] **재판**[미시파트]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재판**[미시파트]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직역에서 강조된 볼드체 용어들은 모두 어근 [샤파트]에서 온 것이고 왕상 3:9 에 나오는 솔로몬의 청원에서 사용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리시포트 < 샤파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리시포트 < 샤파트] 수 있사오리이까(왕상 3:9)?”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왕상 3:12)”을 주시겠다고 확인하셨고 창기들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왕상 3:28)”가 그 속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모두 이스라엘 왕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스펀전은 엑스터 홀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나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젊은이, 당신이 끼고 있는 장갑은 값은 치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용주로부터 그것을 훔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창백하고 불안해하며 제의실(祭衣室)로 와서 스펀전과의 면담을 간청했다. 허락을 받고 들어온 그는 탁자 위에 장갑을 올려 놓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제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폭로하지 않으실 것이죠? 제 어머니가 제가 도둑이 된 것을 들으신다면 그것은 어머니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¹¹ 때때로 지혜의 길은 너무 기묘해서 이스라엘

Kings, 51-52)은 본문이 거짓말쟁이의 신원에 대해 우리를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렌즈버그(Gary A. Rendsburg, “The Guilty Party in 1 Kings III 16-28,” *Vetus Testamentum* 48 [1998]: 534-41)도 왕상 3:22 의 “다른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나는 프로반의 회의론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고소인(첫 번째 여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NIV 가 그 번역에서는 아닐지라도 그 해석에서는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셰들(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3:300)이 하는 다음 말을 참고하라. “아이의 진짜 부모에 대한 싸움에서 진짜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아이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세계 문학의 다른 많은 단락에서도 발견된다. 그레스만은 주로 인도에서 22 개의 사례를 수집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성경의 내러티브보다 기원에 있어서 보다 더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소아시아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발견된 적이 없다.”

¹¹ C. H. Spurgeon, *Autobiography*, vol. 2: *The Full Harvest, 1860-1892*, rev.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60.

왕에 의해서든 영국 설교자에 의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며 거기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III. 지혜의 약속 (The Promise of Wisdom)

솔로몬은 그 자신을 넘어서는 대상을 가리킨다. 열왕기상 3 장의 어휘—재판하다([샤파트], 그리고 연관된 어형들, 왕상 3:9, 11, 28), 분별하다([빈], 왕상 3:9 11, 12), 지혜로운/지혜([하함/호흐마], 왕상 3:12, 28)—가 이사야 11 장에서 다윗 계보를 통해 오실 왕(메시아)의 묘사에 다시 나온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루아흐 호흐마 우비나]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이시포트 < 샤파트]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샤파트]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 (사 11:2-4a)

더욱이 솔로몬이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왕상 3:9)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사 11:3) 메시아 왕과 유사하다.¹² 솔로몬의 지혜와 공의는 그것들 자체를 넘어 장차 오실 분을 가리킨다(참조, 시편 72 편).

나는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교체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상급 성경 수업에서 일어났다. 한 학생이 농담을 하면서 장래에 사람들이 그를 “랄프 데이비스의 학생들 중 한 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칼 케나드(농담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이름)의 교수들 중 한 명”으로 지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나를 가려버릴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상 3 장에 있는 힌트이다. 솔로몬의 지혜와 분별력과 공의는 솔로몬을 능가하실 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참조, 골 2:3) 분을 가리킨다. 그러하신 왕이 이미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면(엡 1:20-22),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상황에서 최고의 지혜이자 최선의 지혜와 일치하는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정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정해야 하지 않는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를 관대하셨는가?
2. 왜 솔로몬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기도를 시작했는가?

¹² 이러한 연결들을 더 많이 보기 원하면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125-26 을 보라.

3. 솔로몬은 여호와께 무엇을 구했는가? 어떻게 이것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가?
4.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는가?
5. “재판을 하기 위한/공의를 행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는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4. 지혜의 정권 (왕상 4 장 The Wisdom Regime)

찰스 스펔전은 바구니를 들고 차 1 파운드, 겨자 1/4 파운드, 쌀 3 파운드를 사기 위해 가게로 심부름 갔던 날을 기억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사냥개를 보고 그것들을 뒤쫓아가며 울타리와 도랑을 넘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활기찬 부산한 움직임으로 인해 차와 겨자와 쌀이 모두 섞여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이 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¹ 어떤 독자들은 열왕기상 4 장이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차와 겨자와 쌀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수집물처럼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각료와 지방 관료의 명단, 백성의 행복에 대한 설명, 왕의 식탁에 필요한 하루의 음식물의 명단, 말들을 위한 보리에 대한 보고, 무엇보다도 우슬초에 대한 언급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열왕기상 4 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각들의 바구니가 아니다. 지혜의 주제가 열왕기상 3 장을 지배했고, 그 주제는 다시 왕상 4:29-34 에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3 장과 4 장이 지혜의 주제 아래 함께 서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의 주제로 명백하게 되돌아가는 왕상 4:29-34 이 4 장의 모든 이전 부분(왕상 4:1-33)을 [3 장과 더불어] 그 주제 안으로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1. 지혜의 질서 (왕상 4:1-19 The Order of Wisdom)

왕상 4:1-19 은 두 가지 목록, 곧 정부의 각료 명단(왕상 4:1-6)과² 해당 관할 구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료의 명단(왕상 4:7-19)을³ 제시한다. 이 후자의 목록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지방 관료의 주된 기능은 명확하다.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왕상 4:7).”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이 왕실을 위해 지정된 것을

¹ C. 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2), 131.

² 이러한 직책(예: 서기관, 사관, 왕의 벗, 궁내대신, 노동 감독관)의 기능에 대하여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5), 1:128-32 을 참고하라.

³ 이러한 지방들을 묘사하는 유용한 지도를 위해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433 혹은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 en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308 을 보라.

⁴ 어떤 사람들(예: W. F. Albright,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3], 55-56)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지방들을 “재구역화”한 것, 즉 오래된 지파들의 유대를 허물고 가나안 사람들을 점점 더 중앙화된 체제로 흡수하려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 계획은 과세와 수입의 기초가 되었다. 브루게만(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16)은 “이 목록의 요점은 부유층의 과도한 풍요를 지원하고 특히 강력한 국방 예산을 강화하는

비축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였다. 왕의 식탁에 필요한 하루의 식량을 집계한 왕상 4:22-23 에 비추어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엿볼 수 있다.⁵ 이 지방 관장들 중 적어도 두 명은 솔로몬의 사위였다(왕상 4:11, 15).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는가? 사룻이 왕의 벋(개인적인 고문)이라는 것(왕상 4:4)과 아히나답이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마하나임을 다스리는 것(왕상 4:14)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도 있는가? 왜 이러한 목록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그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왕상 3 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선물이 삶과 일들의 질서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경의 지혜에는 광범위함이 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정확한 재판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무질서와 낭비를 막아주는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중 일부는 행정과 조직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 사람들은 삶을 아주 뻘뻘하게 구조화할 수 있어서 겨우 숨통을 틔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이나 명확한 명령 계통이 없는 직장에서 잠시만 보내면, 금방 질서에 대한 갈증이 생길 수 있다.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대부분의 수입이 소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한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본문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말라. 드 브리스(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71)는 이 점에 있어서 신선할 정도로 제정신이다. "양식을 조달하는 것이 이 지방 관장들에 대해 언급된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북부 전통을 경시하고 소중히 간직된 과거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단호하고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우리에게 역설하는 학자들의 자신감에 경탄해야 한다."

⁵ 메릴(Eugene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308)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궁궐의 필요량만 해도 매일 고운 밀가루 185 부셀, 거친 밀가루 375 부셀, 사육한 소 10 마리, 초장의 소 20 마리, 양과 염소 100 마리, 그리고 기타 야생 동물로 구성되었다." 고운 밀가루와 거친 밀가루의 추정치는 "고르"의 추정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올브라이트(Albright, *Biblical Period*, 56)는 한 달을 위한 그러한 식량은 어떤 지방들의 경우 매우 힘겨운 조달량이라고 생각하지만, 키친(Kenneth Kitchen, *The Bible in its World: The Bible and Archaeology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102)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수량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애굽과 마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 근동의 다른 궁정들을 위한 공급의 양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한 달 분량의 곡물은 약 424 에이커의 땅, 곧 약 4/5(오분의 사) 평방 마일의 땅에서 재배될 수 있다. 어느 한 지방에도 과도한 면적이 아니다! 여기에는 공상적인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사오 천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948 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동안 이스라엘 팔마흐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서쪽 접근을 통제하는 아랍 마을인 카스텔을 점령했다. 그 마을의 방어는 예루살렘 하가나의 70 명에게 넘겨졌다. 당연히 아랍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카말 이레카트의 지휘 하에 재편성되어 반격을 가했다. “알라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400 명의 남자들이 유대인들의 진지를 휩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참호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 채석장 건물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결국 마을 외곽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 후 문제가 시작되었다. 아랍인들은 지쳤다. 대부분은 24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었다. 마을 여성들을 보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동안 시간이 초과되었다. 다시 공격을 해야 했다. 그러나 마을을 공격하는 도중 탄약이 떨어졌다. 아무도 충분한 물자를 조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탄약을 사러 가는 동안 다시 시간이 초과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탄약을 얻은 후에, 유대인의 탄약은 그들의 지도자 이레카트를 발견했다. 500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과 구급 상자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 의사는 이레카트가 치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레카트는 자신이 그 마을에 없을 경우 공격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진작을 위해 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자는 없었다. 아랍군이 점점 줄어들고 전장을 떠났을 때 카스텔은 유대인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⁶ 물론 지혜가 모든 것을 바꾸었을 것이다. 지혜는 식량을 준비하고 탄약을 비축하고 의료품을 확보하고 추가 지도력을 훈련시켰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혜가 그런 지루한 일을 포함한다고 불평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승리와 실패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는 열왕기상 3-4 장이 우리에게 억압적인 정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솔로몬 왕국의 조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반영으로 보도록 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관점은 흔히 매우 평범한 능력과 은사로 생각되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가?

II. 지혜의 기쁨 (왕상 4:20-28 The Joy of Wisdom)

한 동료가 신문 칼럼에서 한 클립을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프록터 앤 갬블(P & G) 회사의 세탁 세제인 타이드(Tide)에 대한 진부한 농담으로 그 회사에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이야기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아내와 나는 에스키모인들이 타이드로(in Tide) 목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북극으로 차를 몰고 갔고, [타이드] 밖(outside→ outside)이 너무 추워서 에스키모인들이 [타이드] 안에서(in Tide→ inside) 정말로 목욕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P&G 의 소비자 관계 담당자로부터 편지를

⁶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Pocket Books, 1972), 279-82.

받았다. 타이드에 대한 그의 칭찬하는 말에 감사하며 아무도 그런 열정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한 후, “그래도, 우리는 타이드가 목욕을 하는 데 추천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릴 책임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기타 등등. 그녀는 핵심을 놓쳤다! 그것은 단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i. 본문의 어조 (The tone of the text)

그런 일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지만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요점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상 4:20-28 에서 본문의 어조, 저자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의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편견 없는 독자라면 왕상 4:20(“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에 나오는 백성의 즐거움과 왕상 4:25(“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에 나오는 백성의 안전과 만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의 범위(왕상 4:21, 24)에 대하여, 곧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국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며 사방에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는 것을 듣는다. 궁정의 식량 요구량에 대한 그의 집계에도 동일한 분위기가 있다. 마치 그는 “여러분, 단 하루에 필요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솔로몬의 말들의 비축에 대해 말할 때 솔로몬의 하늘에 먹구름을 그린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 정권이 인간적인 군사자원에만 신뢰를 두고 있다는 힌트인가(참조, 시 20:7; 33:16-17; 사 31:1)?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왕상 4:26-28 의 주된 강조는 지방 관리들이 궁정의 식량과 왕실의 말들의 먹이를 공급하는 일의 탁월한 효율성에 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자가 암시하는 대로, 그것은 인상적이지 않은가?⁷

⁷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18)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 구절들이 선전을 위한 은폐이고 “압제적이고 이기적인 정권”을 감추는 외관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그렇게 생각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는 본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성경 저자의 말을 듣는 해석을 위해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50-51 을 보라.

ii. 본문의 신학 (The theology of the text)

우리는 단순히 일반화(혹은 도덕화)하여 “본문은 현명한 통치자가 행복한 백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저자의 기쁨의 배후를 파헤치면 우리는 그것의 기초인 여호와와 언약 약속들의 성취를 발견한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약속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암시한다. 첫 번째 요소는 **백성**과 관련이 있다(왕상 4:20).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정확한 인구 조사의 수치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창 22:17))에서 나온 언약 코드이고 때때로 그 약속의 씨의 관점으로 불린다. 두 번째 요소는 **땅**과 관련이 있다(왕상 4:21, 24). 솔로몬의 통치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의 관점을 드러낸다. 땅의 관점은 시내산 언약에서도 확인되었다(출 23:31; 신 11:24; 수 1:4). 세 번째 요소는 **평화**(왕상 4:24b, 25),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아래 이스라엘을 위해 설계하신 안정과 안전(삼하 7:10-11), 곧 미래에 주어질 현실의 전조이다(미 4:4).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정권 아래 그분의 약속들에 대한 성취를 쌓아 올리셨다.⁸

이 모든 것은 이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볼 때마다 기쁨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 미사곡의 가사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곡을 붙이고 있었을 때, 그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마리 테레즈 황후에게 사과해야 했다. 하이든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이 그를 너무 행복하게 하여 그 진지한 가사에 즐거운 멜로디를 작곡했다고 설명했다.⁹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은 그렇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때, 그리고 여호와와 확언으로 다시 확신을 얻게 될 때,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본문은 우리의 기쁨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희열로 넘친다. 왜냐하면 솔로몬 치하의

⁸ 하우스(Paul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5], 118)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말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 장들(왕상 3-4 장)을 읽은 후에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어야 한다. 결국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땅과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창 12:1-9), 계승과 평화에 대하여 다윗에게(삼하 7:7-17), 그리고 지도력의 기술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7-28 장이 자세히 묘사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분명히 열왕기상 4 장은 여호와와 약속들의 최종 성취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는 실현된 약속론을 정말로 갖고 있다.

⁹ Patrick Kavanaugh, *The Spiritual Lives of Great Composers* (Nashville: Sparrow, 1992), 22.

이 잠정적 성취는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분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II. 지혜의 탁월 (왕상 4:29-34 The Excellence of Wisdom)

저자는 왕상 4:29-34 에서 “지혜”라는 명사를 총 6 번(왕상 4:29, 30, 34), “지혜롭다”는 동사 1 번(왕상 4:31), 그리고 동의어들(왕상 4:29)을 사용하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찬사를 퍼붓는다. 그의 찬가는 왕 송배의 일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것의 **원천** 때문에(왕상 4:29) 탁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원천이시다(참조, 빌 2:13). 이러한 깨달음은(언제 되었을 때) 지혜가 교만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지혜의 비밀에는 비밀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는 지혜를 설명한다.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저자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 **우월성**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주장했다(왕상 4:30-31). 그것은 지혜의 보루인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낳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지혜를 독점한다고 알려진 모든 유명 인사들보다 더 지혜로웠다(왕상 4:31; 참고, 대상 2:6).

마지막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 **범위**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제안한다(왕상 4:32-33).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왕상 4:32-33)

솔로몬의 지혜의 순전한 규모와 그의 관심의 범위는 그의 잠언과 노래의 양보다 더 인상적이다. 그는 도덕과 사물에 대하여 말하고 삶과 시 사이를 오간다. 그는 위풍당당한 것(레바논의 백향목)을 음미하면서도 하찮은 것(담에 나는 우슬초)에도 주목한다. 그의 관심사는 헛간에 있는 것과 호수에 있는 것, 하늘을 우아하게 하는 것과 부엌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지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정당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혜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기쁘게 탐구하고 묘사한다.¹⁰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것이 없듯이(시 19:6) 지혜의 관심에서 피할 것은 없다.

¹⁰ 그러므로 성경적 지혜는 참된 과학의 뿌리요 모태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의 지문을 어디에나 남겨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사고를 위한 원재료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장엄하든 평범하든 그분의 모든 작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엄청난 호기심에 사로잡혀야 한다. 지혜의 임무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기쁘게 조사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찰력에서는 솔로몬이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같은 데이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 목록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이 목록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가?
3. 저자가 왕상 4:20-28 에 나오는 정보에 대해 그토록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언급된 약속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5.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저자가 보내는 세 가지 찬사는 무엇인가?

5. 성전을 위한 계획들 (왕상 5 장 House Plans)

충실한 성경 독자들도 열왕기상 5 장에 이르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세 개의 장들에 관심을 갖는 척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고속도로 건설이나 수리를 바라보듯이 그것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공사 구간이 몇 마일이 계속되든지 단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견딘다. 우리는 건축가들이나 골동품 전문가들의 경우 계속 읽어 나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롬 15:4).”라고 쓸 때 그가 정말 진지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바울은 옳았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 감동된 바로 여기에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더 많은 땀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열왕기상 5 장에 특히 초점을 맞추기 전에 나는 열왕기상 5-9 장에 나오는 전체 성전 이야기에 대한 두 가지 비평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는 성경 외의 문헌에 나오는 매우 많은 건축 이야기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패턴에는 (1) 건축에 대한 결정/승인(참조, 왕상 5:1-5), (2) 건축 자재의 획득(참조, 왕상 5:6-18), (3) 건물 및 비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실제 건축 과정(참조, 왕상 6-7 장), (4) 봉헌 기도를 포함한 성전 봉헌(참조, 왕상 8 장), (5) 왕에 대한 신의 축복(참조, 왕상 9:1-9) 등이 포함된다. 후로비츠는 이것이 전형적인 고대 근동 건축 이야기의 패턴이라고 주장한다.¹ 성경의 이야기가 이 패턴에 들어맞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관되고 질서정연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² 고대의 표준에 따르면 그것은 통일된 이야기이다.

둘째로, 고고학적 증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 묘사가 모든 **진정성**의 표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시대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주전 587 년 바벨론에 의한 파괴, 주전 20 년경 헤롯 대왕의 완전한 성전 부지의 개조,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등이 서로 그 지역을 자기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한 광범위한 고고학 작업에 대한 제한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철기 시대의 다른 구조물들이 발굴되었고

¹ Victor Hurowitz,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the Bible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west Semitic Writings*, JSOT Supplemental Series (Sheffield: JSOT, 1992), esp. pp. 108-110, 126-28 을 보라. 그가 어떻게 이러한 패턴/구조가 단순히 건축 활동에 대해 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주목하라. 후로비츠의 작품을 요약하고 통합한 해설을 보려면 D. J. Wiseman, *1 &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42 을 보라.

² 이것은 성전 이야기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브루게만(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22)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러한 발견물들과 잘 어울린다. 솔로몬의 성전은 삼부 계획, 즉 그 치수(다른 것들의 범위 이내), 끝로 장식된 블록, 장식과 가구에 있어서 다른 표본들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데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장식들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조차도 이제 사실처럼 들린다. “박, 핀 꽃, 그릅, 종려나무(왕상 6:18, 29)” 등은 모두 유사할 수 있고 분명히 목조 벽 패널뿐만 아니라 벽돌과 특히 가구용 상아에도 조각되는 가장 좋아하는 모티브였다.³

데버는 “성경 본문, 적어도 열왕기상에 나오는 생생한 묘사가 초기의 실제 목격자의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⁴ 설명하며 그의 연구를 마감한다. 이것이 이 장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선전가의 조작이 아니라 냉철한 관찰자의 일람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 열왕기상 5 장이 이 성전 건축에 관하여 무슨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이 성전 건축 준비는 여호와의 약속을 확인시켜준다 (왕상 5:1-6 This temple preparation confirms Yahweh's promise)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왕상 5:1a). 히람은 다윗과 조약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에 대하여 노선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왕상 5:1b). 솔로몬은 신학적인 설명(왕상 5:3-5)과 요청(왕상 5:6)으로 히람에게 응답했다.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목재를 위한 주문과 연결시켰다.

솔로몬은 삼하 7:13a 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히람에게 그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강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말한다(왕상 5:5). 여호와의 섭리는 그분의 약속을 위한 길을 마련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군사적 승리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셨다.⁵ 솔로몬은

³ William G. Dever, “Palaces and Temples in Canaan and Ancient Israel,”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4 vols. (New York: Scribners, 1995), 1:608.

⁴ Dever, “Palaces and Temples,” 1:609.

⁵ [역자 주] 여호와께서 삼하 7:11 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표현할 때 왕상 5:4 은 הַיְיָ [헤니아흐 < 누흐의 히프일 어간]를 쓰고 왕상 8:56 은 הַיְיָ אֱלֹהֵינוּ [나탄 므누하]를 쓴다. [누흐]의 히프일 어간은 출 33:14; 신 3:20; 12:10; 수 1:14; 21:44; 22:4; 23:1; 삼하 7:1, 11; 대상 22:9 등에 나온다[개역개정은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음]. 안식과 성전은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인 성전이 없으면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성전이 없는 곳에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이 있으면서 성전이

이러한 조건들이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승인을 주었다고 말하며(왕상 5:5),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히람에게 부탁한다(왕상 5:6).

그렇다면 여호와와 약속이 솔로몬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의 진정한 기초는 거대한 돌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여호와와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성전을 단순히 구약의 “외형주의”에 대한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고, 성전을 보다 “영적인” 사람들이라 하면 기피했을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하 7:13의 약속은 여호와께서 성전이 적절한 때에 건축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전은 자기 백성 사이에 그분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여호와와 모든 종들을 위해 암시된 사역의 원리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왕국의 약속들이 왕국의 일을 장려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솔로몬의 모험적 사업에 대한 명분과 자극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분명한 확언이다(왕상 5:5). 항상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와 약속을 가지고 있기—그리고 믿기—때문이 아닌가? 그 원리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종말론은 사역을 주도한다. 우리가 일어서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바로 미 4:1-4, 합 2:13-14, 단 7:13-14, 마 24:29-31과 같은 왕국에 대한 큰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신의 입에서 나온 확고한 약속이 없다면 사역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매우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동의 CIA의 항공 감시 사진들과 같다. 그 사진들은 매우 선명해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은 시나이 경비 근무 중인 군인이 착용한 손목 시계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⁶ 이처럼 여호와와 약속은 매우 멀어 보이지만 매우 정확하다고 증명될 것이다. 그것은 왕국을 위한 일의 기초이다.

없을 수 없다. 우리 개개인도 성전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성전이 된다.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식이란 있을 수 없다. 신 12:10-12; 삼하 7:10-13; 왕상 5:4-5은 안식과 성전이 함께 가는 것을 밝히고 있다.

⁶ Jacques Derogy and Hesi Carmel, *The Untold Story of Israel* (New York: Grove, 1979), 293.

II. 이 성전 건축 준비는 여호와와 왕국을 고대한다 (왕상 5:7-11 This temple preparation anticipates Yahweh's kingdom)

히람은 솔로몬에게 재목, 곧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기꺼이 공급했다(왕상 5:8). 그가 역제안들을 했을 수도 있다—아마도 그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왕상 5:9; 참조, 왕상 5:6).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히람은 자기 궁정을 위한 식량 공급을 원했고(왕상 5:9), 이에 솔로몬은 밀 2 만 고르(아마 10 만—12 만 부셀)와 맑은 기름 2 십 고르(왕상 5:11;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을 따름)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적 거래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은가? 히람은 목재 공급자 그 이상이 아닌가?

잠시 왕상 4:34 로 돌아가서 장 구분을 무시하고 바로 왕상 5:1 까지 연달아 읽어보면 이렇다. "(4:34)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1)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듯 히람은 "천하 모든 왕들" 중 하나이고, 이방 왕으로서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해 여호와를 찬양한다(왕상 5:7). 확실히 성경 저자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이 찬양(형식적이든 진지하든 아니면 둘 모두이든)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르는 성전 자재에 대한 히람의 지원조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우호적이든 정복당했든,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시 24:1)." "나라는 여호와와 의 것이요 여호와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 22:28)."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시 72:11)." ⁷

우리는 히람이 여호와와 의 우주적인 왕국에 대한 노골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미묘한 예고라고 주장한다.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힐끗 보게 된다. 나는 (그 당시 나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전형적인 어리둥절해하는 신입생으로 보냈던 대학의 첫 주가 기억난다. 학교 당국은 여러 교직원의 집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일련의 모임들을 주선했다. 나는 우연히 괴짜 영어 교수의 집에 초대받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 아래서 나오는

⁷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56.

통제할 수 없는(통제되지 않는) 자기 아이를 계속 쫓아다녔다. 나는 어떤 교수들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내가 잊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한 여자 신입생을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는 심지어 한 게임에서 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과 수업들과 때때로 교육이 계속되는 중에는 누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파티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5 개월 후 섭리로 인해 또 다른 일련의 교내 만남을 통해 나는 동일한 여학생과 만나게 되었고 3 년 이상의 연애와 30 년 이상의 결혼 생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돌아보며 첫 주간의 대학 파티가 다가올 일들의 예표였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히람에 대하여 주장하는 전부이다. 그의 송영과 그의 목재는 여호와와의 확고하고 최종적인 작정, 곧 “**내게**(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사 45:23).”는 작정의 예고이다.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예표에는 엄청나게 스릴 넘치는 무언가가 있다.

III. 이 성전 건축 준비는 여호와와의 지혜를 보여준다 (왕상 5:12-18 This temple preparation exhibits Yahweh's wisdom)

왕상 5:9-12 에는 “주다[나탄]”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온다. 히람은 솔로몬이 그들의 조약에 따라 히람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왕상 5:9b). 내레이터는 요약하기 시작하며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을 “계속 주었고(왕상 5:10),”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주었고(왕상 5:11a),” 그것도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왕상 5:11b).”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저자는 또 하나의 주는 일, 곧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왕상 5:12a).”라는 말로 이 모든 주는 일의 절정에 이르게 한다. 나는 왕상 5:12 에 대한 카일의 평가에 동의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히람과 맺은 조약—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재목과 숙련된 일꾼들을 얻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 건축을 위해 그 자신의 신하들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도 가리킨다. 왜냐하면 왕상 5:12 은 솔로몬이 히람과 협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왕상 5:1-11)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들(왕상 5:13-18)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한다. 왕상 5:13-18 에는 솔로몬이 왕상 5:6 에서 히람의 종들과 함께 레바논에서 벌목할 그의 일꾼들에 대하여 암시했던 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⁸

⁸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61-62.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노동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조직한 것(왕상 5:13-18)을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일부 학자들에게 신경 과민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의 노동 제도가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왕상 5:15; 참조, 왕상 9:20-22) 이스라엘 사람들도 징집하여 강제 노동 체제로 편입시킨 점에서(왕상 5:13-14) 가혹하고 억압적인 정권이 하는 일의 표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강압 정책으로 백성의 권리를 짓밟는 왕실의 탄압 방식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어조와 외침(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주문(呪文))에 감동되지 않는다. 징집된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대로 복무하며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왕상 5:13-14). 우리는 이것이 영구적인 제도였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왕상 9:20-22을 믿을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의 짐꾼들과 돌 뜨는 자들(왕상 5:15-16)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 있던 여러 이방인 거주지에서 공급되었다. 어쨌든 그러한 징집 노동은 신전 건축이나 보수 작업에 흔히 있었다.⁹ 결국, 솔로몬은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었다.¹⁰

[역자 주] 학자들은 열왕기상 5장을 대개 두 부분(1-12 절, 13-18 절)으로 나눈다. 카일은 왕상 5:12을 야누스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열왕기상 4-5장의 절 구분에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과 대부분의 한글 성경 본문은 차이를 보인다. 히브리어 본문은 4장이 20절에서 끝나고 5장이 바로 시작된다. 따라서 히브리어 본문의 5:1-14은 한글 본문의 4:21-34이고, 히브리어 본문의 5:15-32은 한글 본문의 5:1-18이다. 한글 본문은 4장이 길고(34절) 5장이 짧지만(18절), 히브리어 본문은 4장이 짧고(20절) 5장이 길다(32절). 공동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절 구분을 따르고 있다.

⁹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 대하여 John F. Robertson,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of Ancient Mesopotamian Temples,"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4 vols. (New York: Scribners, 1995), 1:445-47을 보라. 왕상 5:15의 큰 수치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구절에 대한 키친(K. A. Kitchen, *The Bible in its World: The Bible & Archaeology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104-106)의 간결한 논의를 보라. 키친은 파라오 멘투호텝 4세가 어떻게 1만 명의 병력을 와디 하마맛 광야로 보내 석조 기념물 세트가 있는 단 하나의 석관과 뚜껑을 회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관 뚜껑만 3천 명의 선원들에게 운반하도록 위임되었다. 반세기 후 세소스트리스 1세(주전 1900년경)는 1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같은 지역에 파견하여 "(솔로몬이 레바논의 더 쉬운 환경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사원이 아니라 단지 60개의 스팅크스와 150개의 다른 조각상들을 위해 돌을 가져오도록 했다(150쪽)."

¹⁰ 솔로몬에 대한 맹비난의 일부(예: 그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조치들)의 근거는 왕상 12:3-4에 나오는 그의 이전 신하들의 불평에서 비롯된다. 학자들은 이 불평이 복음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바로 곧이듣는다. 그들은 그것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반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실만큼이나 많은 선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왕상 5:13-18 은 왕상 5:12 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요점으로 돌아가자.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을 모으고 감독하는 데 포함된 행정과 조직과 위임, 돌과 재목을 얻기 위한 주선—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지혜는 때때로 일을 완수하는 기술이다(예: 전 10:10). 그러므로 본문은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혜는 좀처럼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경시된다. 아마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제대로 인식될 것이다. 1862 년에 남부연방은 그것이 진수된 노스 캐롤라이나의 강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뉴스(Neuse)라고 불리는 거대한 철갑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것은 1864 년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두 개의 6.4 인치 브룩 소총 대포, 다른 배들을 치기 위한 뱃머리, 그리고 3 겹의 나무 널빤지 위에 4 인치의 압연 철판을 장착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의 8 피트되는 흘수(吃水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뉴스 강에 비해 너무 깊다는 것이다. 첫 순항에서 그것은 반 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강을 따라 내려가더니 모래톱에 즉시 좌초하고 말았다.¹¹ 조용하고 계산적인 지혜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상당한 차이가 나게 하였을 것이다.

교회들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가 “벽돌과 회반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벽돌과 회반죽—좀 더 본문에 가깝게 말하면, 돌과 재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며 우리로 여호와의 덜 화려하고 더 평범한 선물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정하건대 열왕기상 5 장은 우리를 열광시키지는 못한다. 그것은 단지 성전 건축 준비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한 책에서 그런 준비 사항들조차도 그분의 약속이 확고하고, 그분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와께서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2.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히람의 찬양은 어떻게 왕국 생활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가?
4. 성전 준비는 여호와의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5.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범한” 지혜에 의해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¹¹ Clint Johnson, *Civil War Blunders* (Winston-Salem: John F. Blair, 1997), 223-28.

6. 성전 건축 보고서 (왕상 6 장 Construction Report)

건축가들과 건축업자들은 열왕기상 6 장에 폭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치수, 재료, 비품, 장식품,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재고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그런 활동을 아주 조금이라도 할 때 어설픈 사람들 중 하나이고, 누군가가 옷장을 설치하거나 욕실을 개조할 것을 제안하면 두드러기가 돋는다. 우리의 기술 부족은 그러한 일에 대한 관심 부족을 결정한다. 따라서 열왕기상 6 장은 우리의 관심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 보고서의 형태로 그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열왕기상 6 장과 7 장을 함께 보며 잘 다룰 수 있지만, 열왕기상 6 장은 연대 공식으로 시작하고 마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따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본문의 강조점들과 그 강조점들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다.

1. 여호와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짜 (왕상 6:1 A date that celebrates Yahweh's redemption)

열왕기상 6 장은 신학으로 충전된 연대로 시작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왕상 6:1)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또 하나의 획기적 사건에 대한 연대 설명, 즉 출 12:40-41 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출 12:40-41).

이런 본문들은 구원을 이해하기보다는 연대 계산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특히 왕상 6:1 의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 그것은 연대를 알려주는 본문이다.¹² 그렇지만 대부분의 토론들은 연대에

¹² 왕상 6:1 의 480 년이 일반적으로 상징적인(예: 40 년 단위로 계산된 12 세대를 나타내는) 숫자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실제적인 숫자인지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이 있다. 실제적인 수치라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통치 4 년(주전 966)에서 480 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전 1466 년을 출애굽 연대(소위 “이른 연대”)로 계산한다. 나는 이 견해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480 년”에 대한 언급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라는 절이 매우 정확한 연대 계산을 보여주므로 나는 480 년도 비슷한 태도의 계산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인 논쟁의

너무 매료된 나머지 그것의 중요성을 무시해 버린다.¹³ 성경 저자는 분명히 왕상 6:1 의 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출애굽과 연관시키고 우리에게 출애굽기 본문의 430 년에 버금가는 480 년이란 중요한 수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¹⁴ 게다가, 그는 왕상 6:37-38 의 연대 공식에서 다시 (왕상 6:1 에 언급한) 솔로몬의 통치 “4 년/넷째 해”를 언급하며 이 연대가 그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연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출 12:40-41 도 마찬가지다. 이집트에서의 430 년(어림수 400 년으로 언급하는 창 15:13 참조)의 끝은 속박의 끝을 표시했고 자유의 선물을 기념했다. 왕상 6:1 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출애굽 후 480 년의 끝은 방황의 끝을 표시하고 안식의 선물을 기념한다.

본문	시간	배경	의의
출 12:40-41	430 년	창 15:13	속박의 끝/자유 선물
왕상 6:1	480 년	삼하 7:10-11	방황의 끝/안식 선물

이 설명은 다윗 언약의 구절, 특히 삼하 7:10-11 에 기초하고 있다. 거기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허둥지둥 피해 다니고, 오르내리고(주로 내리고),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종식시킬 의도가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렇게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실 것이었다(삼하 7:6-7).¹⁵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왕상 5:3-5).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처”가 건축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제이고, 내 생각에는, 정통 교리의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는 단지 이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 문제와 그에 대한 견해들을 탐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Jack Finegan, *Handbook of Biblical Chronology*, rev. ed. (Peabody, MA: Hendrickson, 1998), 201-206, 225-49 으로 시작할 수 있다.

¹³ 그러나 롱(Burke O. Long, *1 Kings,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84)은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크신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마치 하나님의 두 번째 능하신 행위인 것처럼 보게 한다.”

¹⁴ 나는 출 12:40 의 본문상의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논의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

¹⁵ 더 자세한 사항과 논의를 위해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71-77 [= 사무엘하 주해, 68-74(8 장 II-III. 여호와의 검양, 여호와의 은혜)]을 참고하라.

출애굽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착시키려고 하셨다. 그분은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때때로 우리는 **구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무대를 가리킨다. 우리가 그것이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랜 세월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그것은 괜찮다. 480 년처럼 말이다. 그것은 출애굽이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긴 시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확실하고 확고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방 달력에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 4 년 둘째 달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확실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신다. 480 년은 긴 시간이다. 그것은 종교 개혁과 우리 자신의 시대 사이의 간격이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내가 전에 가르쳤던 한 대학의 농구팀 감독의 전략이 기억난다. 그 당시는 35 초의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팀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슛을 날릴 필요가 없었다. 한 팀이 공격시 통제할 수 있는 한 얼마든지 오랫동안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러그 감독은 경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런 기회를 사용하곤 했다. 특히 우리 벨하벤 팀에 비해 뚜렷한 장신의 선수가 있고/있거나 득점 우세를 갖는 다른 팀과 맞서는 경우에 그렇게 하곤 했다. 내 생각에 그 이론은 벨하벤이 더 오래 공을 주고받고 몰고 다니며 득점하면 할수록 우세한 상대팀이 득점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감독은 시간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더 늦은 속도는 그의 작전의 일부였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경우인 것 같다. 여기 느리지만 꾸준히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건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우리는 새겨진 이미지, 곧 우리가 원하는 전자레인지 신을 선호한다. 물론, 복음에 대한 긴급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대적 본문은 왕국에 대하여 어떤 공황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¹⁶ 옛 바다의 노래(출 15:1-18)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출 15:17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1967), 177, 그리고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81-82, 그리고 C. F. Keil, *The Pentateuch*, 3 vol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4-6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n.d.), 2:55-56 을 보라.

II. 여호와와 화려함을 반영하는 묘사 (왕상 6:2-10, 14-36 A description that reflects Yahweh's splendor)

저자의 묘사는 외부, 내부, 입구, 안뜰의 순서를 따르는 것 같다.¹⁷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 너비 20 규빗, 높이 30 규빗(약 90 x 30 x 45 피트, 또는 27 x 9 x 13.5 미터)이고(왕상 6:2), 그 앞에 붙어 있는 현관은 너비 20 규빗(30 피트, 9 미터), 길이 10 규빗 (15 피트, 4.5 미터)이다(왕상 6:3). 이 치수들에는 안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성전의 부분들에 대한 용어는 영어 성경에 따라 다르다. 다음 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⁸

¹⁷ 참조, Donald J. Wiseman, *1 &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101.

¹⁸ [역자 주] 한글 성경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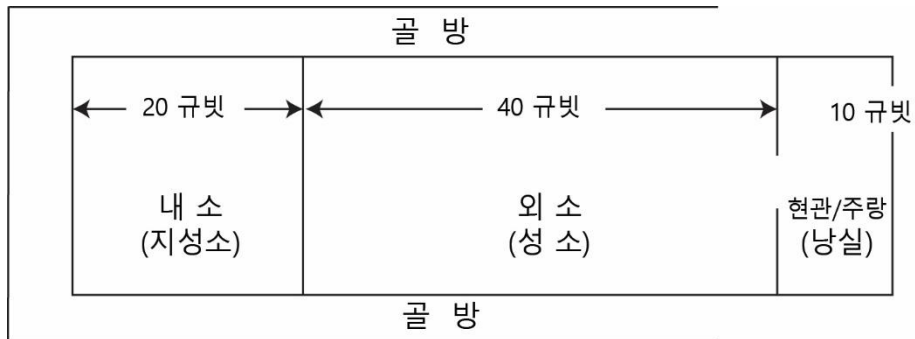
히브리어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울람	낭실	주랑	현관	현관	현관	출입구	낭실
헤할	외소	외소	외실	본전	(큰) 성소	성소/성전	성전
드비르	내소	내소	내실/지성소	밀실	지성소	안쪽 성소	지성소

	왕상 6:3 הָאוֹלָם עַל-פְּנֵי הַיְכָל הַבְּיֹתָ [하울람 알-프네 헤할 하 바이트]	왕상 6:16 וַיִּבֶן לוֹ מִבֵּית לְדָבָר לְקֹדֶשׁ הַקִּדְשִׁים [바이벤 로 미 바이트 리드비르 르코데시 하코다심]
개역	전의 <u>성소</u> 앞 낭실	전의 <u>내소</u> 곧 <u>지성소</u> 를 만들었으며
개역개정	성전의 성소 앞 주랑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새번역	성전의 <u>본당</u> 앞에 있는 현관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공동번역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쉬운성경	성전의 성소 앞 현관	그 곳은 성전의 안쪽 에 해당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우리말성경	성전의 낭실	성전 안에 안쪽 성소 ,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왕상 6:17 וְאַרְבָּעִים בָּאֵמָה הָיָה הַבְּיֹתָ הוּא הַהֵיכָל לִפְנֵי: [브아르바임 바아마 하야 하 바이트 후 하 헤할 리프나이]
--	--

히브리어	NRSV	NIV	NJPS	본문
울람	vestibule	portico	portico	왕상 6:3
헤할	nave	main hall	Great Hall	왕상 6:17-18, 33-35
드비르	inner sanctuary	inner sanctuary	Shrine	왕상 6:19-21, 23-28, 31-32

성전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개역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골 성소의 장이 사십 규빗이며
개역개정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골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빗이며
새번역	낭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마흔 자였다.
공동번역	이 낭실 앞쪽에 있는 본전은 길이가 사십 척인데
쉬운성경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사십 규빗이었습니다.
우리말성경	이 방 앞의 성소는 길이가 40 규빗이었습니다.
ESV	The house, that is, the nave in front of the <i>inner sanctuary</i> , was forty cubits long.
NIV	The main hall in front of <i>this room</i> was forty cubits long.
NASB	The house, that is, the main room in front of <i>the inner sanctuary</i> , was forty cubits <i>long</i> .
YLT	And forty by the cubit was <i>the house</i> , it [is] the temple before [it].

많은 세부 사항이 모호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독자의 마음이나 상상력에 필수적인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저자가 성전의 외부(왕상 6:1-10)에 비해 그 내부(왕상 6:14-38)를 묘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에 유의하라. 넬슨은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성전의 내부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오디오 투어”를 제공하여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독자에게 주면서” 그들로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한다.¹⁹ 그는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위한 백향목 널판을 묘사한(왕상 6:15-18) 다음에 그의 묘사에 마법의 단어, 곧 금을 주입하기 시작한다. 금은 왕상 6:20-22(세 개의 절)에서 6 번 사용되고 열왕기상 6 장에서 총 11 번(20[1 번], 21[3 번], 22[2 번], 28[1 번], 30[1 번], 32[2 번], 35[1 번]) 사용된다. 지성소와 성소는 전부 금으로 입혔고(왕상 6:20-22a),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도²⁰ 금으로 입혔다(왕상 6:22b). 지성소 안에 둔 감람나무로 만든 거대한 그룹들도 금으로 입혔고(왕상 6:28),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출입을 위한 문들은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다(왕상 6:32, 35). 성전의 바닥까지도 금으로 입혔다(왕상 6:30).²¹

¹⁹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44-45.

²⁰ [역자 주] 왕상 6:22b 의 אֲשֶׁר-לְדָבִיר וְכָל-הַמִּזְבֵּחַ אֲשֶׁר-לְדָבִיר [브홀-하미즈베아흐 아셰르-라드비르]는 ESV “the whole altar that belonged to the inner sanctuary”나 NASB “the entire altar which was by the inner sanctuary”나 ISV “the whole altar that was by the inner sanctuary”나 개역/개역개정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처럼 물리적으로는 외소(성소)에 있지만 기능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내소(지성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드렸다. 이 “분향을 위한 제단, 분향할 제단, 분향단, 금향단(참고, 출 30:1-10)”은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언약궤 앞에 있는 벽 밖에 두는(참조, 출 30:6), 곧 성소에 두는 것이다(참고, 출 30:1-10). 따라서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이란 새번역의 번역은 [드빌]을 보통 “내실”로 번역한 것과 달리 일관성 없이 “성소”로 번역했고 “제단들”은 원문의 단수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쉬운 성경의 “지성소에 놓일 모든 제단”이나 공동번역의 “밀실에 있는 제단”이나 우리말성경의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은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물리적으로 놓여있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므로 오역이다.

²¹ 일부 주석가들은 물론 이 모든 금이 “누군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S. J. 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96)”이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관한 후대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는 과장(왕상 6:21 에 관한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169)”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밀러드(Alan Millard, “Does the Bible Exaggerate King Solomon’s Golden Wealth?,”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5/3

우리는 이 모든 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불필요한 사치”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이다(참고, 마 26:8). 그들은 “그 모든 수익으로 어떤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금을 보고 속이 메스꺼워져야 하는가? 본문에 금에 대한 부정적인 어조는 없다. 무언가 있다면 오히려 경이감이 이 단락에 가득하다. 더욱이 우리는 많은 고대 신전이 국고와 국유 재산의 보고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왕하 18:14-16).²² 그런 자산들이 화려한 장식품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왜 어두운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성전의 화려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화려함을 반영하고 성전의 금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는 왕들이 그들의 신과 여신에 대한 적절한 공물로 호화로운 사원을 짓거나 개조하는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만 정부 대출 주택을 가진 할인점 신처럼 보이게 할 이유라도 있는가? 죄가 되는 사치가 있다면(참고, 눅 12:17-21), 경건한 사치도 있다(참고, 마 14:3-9). 성전의 금이 주는 메시지는 아마도 여호와께 값싼 것을 드려서는 안 되고 그분의 화려함에 상응하는 헌물만 드려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공적 예배에서든, 성경 연구하는 학문에서든, 일상 생활의 질에서든,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²³

III. 여호와의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삽입 (왕상 6:11-13 An intrusion that underscores Yahweh's priority)

왕상 6:11-13 을 잘 살펴보자.

11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구절들은 인접 본문과 분명히 다르다. 이 구절들 앞과 뒤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계시, 곧 약속과 권면의

[May-June 1989]: 21-34)는 비교할 만한 근동의 자료들을 인용하며 성경 기록이 확실히 그럴듯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²² ABD, 6:361, 371, 375-76 을 보라.

²³ 교회 건축 위원회는 교회 건축 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호화로운 성전 건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성전과 현대 교회 건물 사이에는 일대일 상응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에는 합법적인 성전이 하나뿐이었으나, 교회 집회를 위한 건물들은 많다. 우리는 회당 건물들과 교회 건물들 사이에 더 직접적인 유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과 교회 건물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사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만난다. 왕상 6:12a 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음이 틀림없다. 어느 독자라도 왕상 6:11-13 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비평주의자들은 이것이 왕상 6:11-13 이 본문에 들어온 후대의 삽입, 곧 소위 “신명기적 사가”의 삽입(J. 그레이), 더 정확하게는 율법 지향의 신명기적 사가들의 특별 그룹에 의한 삽입(G. H. 존스)에 대한 확실한 증표라고 믿는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지 볼 수 있다. 때로는 왕상 6:11-13 이 없는 칠십인역에 어필하며 그래서 그것이 “이차적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⁴

내가 제기하는 그러한 비평주의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본문 자체의 주장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단 본문에 “신명기적 사가의 것”이라고 표시하면 그들의 작업을 다했으며 본문 자체의 주장을 듣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문이 신명기적 사가의 것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주는 것이 있는가? 그러나 비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결코 도달하지 않는다. 본문을 “이차적인 것”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은 그것의 권위를 훼손하며, 그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논평들을 읽는다.²⁵ 그들은 한 “삽입적” 본문을 볼 때 이 삽입이 왜 삽입되었는지 묻지도 않는 것 같다. 우리는 본문의 현재 형태에 있는 목적이나 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왕상 6:11-13 은 문체와 관심사에 있어서 인접 본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구절들이 생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10 절 끝에서 바로 15 절 이하를 읽을 수 있고 그것들이 없음을 결코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열왕기상 6 장에서 자연스러운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왕상 6:1-10 은 성전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왕상 6:14-48 은 성전의 내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⁶ 그러므로 왕상 6:11-13 은 본문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중단시킨다.

²⁴ 그러나 칠십인역의 열왕기상 6 장 **전체**의 본문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칠십인역이 11-13 절을 생략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S. J. 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87, 89-90 을 보라.

²⁵ 예를 들어 G. H. Jones, *1 and 2 Kings*, 1:167(비평주의적 용어에 대한 도움을 위해 42-46 쪽)을 보라.

²⁶ Bezalel Porten, “The Structure and Theme of the Solomon Narrative (I Kings 3-11),”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8 (1967): 104.

그러나 왜 이런 중단이 있어야 하는가? 나는 중단이 우선 순위를 나타낸다는 유추를 제안한다. 어느 날 저녁 자치주 병원 응급실에는 상층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두 살 아이, 엄지 손가락에 톱날이 박힌 자칭 장인, 복부 혹은 장의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여자로 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 사고로 사지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있는 청년을 데리고 구급차가 도착한다면, 모든 주의와 노력과 활동이 그에게 집중되며 다른 경우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더 극심한 비상 상황은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전의 치료 패턴에 중단이 일어난다.

나는 열왕기상 6 장에서 11-13 절이 그런 식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건축 중인 성전을 묘사하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이런 묘사를 앞지르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왕상 6:11-13 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누리려면 여호와와 명령에 대한 왕 자신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왕과 그의 백성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전은 쓸모 없고, 혜택이 사라진 건물에 불과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암시하시지만(왕상 6:12b; 참조, 삼하 7:12-16), 왕상 6:13 은 그분이 약속하시는 은택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은택은 긍정적 용어와 부정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문학적 삽입 구절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왕상 6:12b)과 하나님의 임재(왕상 6:13)를 누리려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왕상 6:12a).” 왕조라는 집이 그렇듯이(삼하 7:11 이하), 성전이라는 집도 그렇다. 왕상 6:12a 에 나오는 2 인칭 단수 대명사들이 솔로몬의 어깨에 내려 앉을 때 얼마나 무거운가! 여호와와 언약법에 대한 솔로몬 자신의 충성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은혜롭게 임재하시기 위한 조건이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 보고는 중단되어야 했다.

왕상 6:11-13 은 하나가 다수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제시한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1863 년 7 월 2 일, G. K. 워렌 장군은 펜실베이니아 게티스버그 외곽에 있는 리틀 라운드 탑이라고 불리는 해협의 꼭대기로 갔다. 그곳에서 주들 사이의 고전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북군의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 지점은 신호 초소로만 사용되었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그는 남부 연합군이 리틀 라운드 탑을 차지하려고 측면에서 공격하며 북부 연합군의 왼편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그는 리틀 라운드 탑을 보유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한 사람의 경계는 전 군대를 재난으로부터 구했다. 그러나 조 스탈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군사 업무에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2 차 세계 대전에서 그의 야전 사령관들에게 어리석고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다. 1941 년에 그가 키예프의 대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들은 50 만명의 포로를 데려갔다. 1942 년 5 월에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고 또 다시 그의 사령관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공격하는 군대는 포위되었고, 스탈린이 후퇴를 금지한 후 또 다른 대규모의 소련 병사들은 독일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한 사람이 돌대가리이고 수만 명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²⁷

우리가 언약의 왕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주요 적용이 있다. 나의 순종이나 신실함은 전국민에게 복 혹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맥체인은 목회 신학에 대한 그의 짙막한 요약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반복함) 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규빗과 그룹, 골방과 백향목 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분의 화려함을 보고 우리의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연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느리심”이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는가?
3. 저자가 성전의 내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성전을 그렇게 많은 금으로 “입힌” 이유는 무엇인가?
5. 왕상 6:11-13 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며 개인적인 책임을 기대하는가?

²⁷ 이 예들을 위해 Clarence Edward Macartney, *Highways and Byways of the Civil War* (Pittsburgh: Gibson, 1938), 137-38 그리고 Robert Conquest, *Stalin: Breaker of Nations* (New York: Viking, 1991), 240, 254 을 보라.

7. 실내 장식 (왕상 7 장 Interior Decorating)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관찰만 해왔다. 우리 가족이 이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세를 낸 집이든, 교회 사택이든, 우리가 산 집이든, 결국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한 변화가 수반하는 힘든 일과 노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사를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여성은 정열적인 열병에 걸린다. (주택 전망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나의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한다. 왜냐하면 아내는 정복해야 할 광야, 곧 꾸며야 할 또 다른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는 줄자로 재고, 커튼을 선택하고, 색상을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한 남성—적어도 이 사람—은 화장실의 색상에 대하여 활기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확실히 샤워 실이나 욕조에 플라스틱 샤워 커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앞에는 장식용 커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벽지의 색상과 일치하거나 잘 어울려야 하고, 물론 목욕 타월과 수건도 앞서 말한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내 장식이 아내를 설레게 하면 아무도 아내를 못 말린다.

열왕기상 7 장은 주로 실내 장식, 즉 6 장에서 완성된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간 기구들에 관심이 있다. 나는 저자의 태도가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내 아내가 보인 태도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것들의** 실내 장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쓴 묘사를 해독하는 것보다 실내 장식에 대하여 흥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거의 3 천년이나 앞서 있고 그림이나 도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선 나는 여러분에게 NIV 의 열왕기상 7 장을 읽어 볼 것을 제안한다. NIV 의 각주에는 규빗으로 된 수치에 대해 피트와 미터로 환산한 대략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열왕기상 7 장은 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왕상 7:1-12 왕궁

레바논 수풀 궁(왕상 7:2-5)¹

¹ [역자 주]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은 **בֵּית יַעַר הַלְבָּנוֹן**[베트 야아르 할바논]으로 불린다. 왕상 7:2 에 대한 “One of Solomon’s buildings was called **the 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 이라는 NLT 번역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 별명 “**레바논 수풀 궁**”은 왕상 7:2; 10:17, 21; 대하 9:16, 20 에 나온다. 그런데 왕상 7:2 **בֵּית יַעַר הַלְבָּנוֹן** | **אֶת-בֵּיתוֹ**[바이벤 에트-베트 야아르 할바논]에 대해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ESV/NIV(“He built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처럼 “그가 ‘레바논 수풀 궁’을 지었다”라고 잘 번역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글 성경은 ISV(“He built his own palace out of timber supplied from the forest of Lebanon.”)처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잘못 번역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왕상 7:12 에서 “레바논 수풀 궁”으로 잘 번역하고 병행 본문 왕상 10:17, 21 과 대하

주랑[기둥 홀, 콜로네이드] (왕상 7:6)²

재판 주랑[재판 홀, 재판정] (왕상 7:7)

솔로몬이 거처할 궁 (왕상 7:8a)

바로의 딸이 거처할 궁 (왕상 7:8b)

건축에 대한 논평 (왕상 7:9-12)

왕상 7:13-51 성전의 기구들

히람의 놋 세공 (참조, 왕상 7:13-14)

두 놋기둥 (왕상 7:15-22)

바다 (왕상 7:23-26)

열 받침 수레 (왕상 7:27-39)

요약 (왕상 7:40-47)

솔로몬의 금 제공 (왕상 7:48-51)³

본문에 아주 자세한 세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왕궁들의 정확한 구조(왕상 7:1-12)와 성전과 관련한 그것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독자들은 예를 들어 ISBE 2:1007-1008 에 실린 윌리엄 라슬의 “예루살렘”에 대한 글을 통해 그것들에 대한 논의와 재구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나의 논의는 자료의 세부 사항보다는 본문의 의의에

9:16, 20 에서도 이 별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역/개역개정판은 왕상 7:2 의 경우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다”라고 오역했고, 이 두 병행 본문에서는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일관되게 번역했다. 쉬운성경은 왕상 7:2 의 경우 개역/개역개정판처럼 오역했고, 왕상 10:17, 21 의 경우 “레바논 수풀의 궁”으로, 대하 9:16, 20 의 경우 “레바논 숲의 궁”으로 번역했다. 우리말성경은 왕상 7:2 의 경우 개역/개역개정판처럼 오역했고, 왕상 10:17, 21 의 경우 “레바논 나무 궁”으로, 대하 9:16, 20 의 경우 “레바논 나무 왕궁”으로 번역했다.

² [역자 주] **엣센스 국어사전**(2137)에 의하면 주랑(柱廊)은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 콜로네이드”라고 풀이되어 있고, 홀(hall)은 “건물 안에서 집회장, 오락장 따위로 쓰는 넓은 공간”으로 풀이되어 있다.

³ [역자 주] 왕상 7:48-51 은 금으로 된 성전의 기구(list of gold articles, temple furnishings, 48-50 절)와 솔로몬이 성전 공간에 들여 놓은 보물(temple treasures, 51 절,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왕상 6:9, 14, 38 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사 [칼라]는 왕상 7:1 에서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마친 것과 왕상 7:40 에서 히람이 성전을 위해 한 일을 마친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왕상 7:51 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것을 나타낼 때는 그의 이름[실로모]과 언어 유희를 보이는 [살람]이 사용되며 정말로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이 완성된 것을 보여준다.

초점을 맞추는 쪽을 택했다. 자료의 세부 사항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들은 많이 있다.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열왕기상 7 장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보다 더 넓은 접근 방식이다.

1. 강조의 문제 (A Matter of Emphasis)

첫째로, 우리는 저자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물론, 왕상 7:1-12 은 왕궁을 묘사한다. 그것도 인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이다.⁵ 그러나 왕상 7:1-12 을 인접 문맥 안에서 보면 이 구절들이 성전 건물에 대한 부분(왕상 6 장)과 성전의 기구에 대한 부분(왕상 7:13-51) 사이에 끼여있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왕상 7:1-12 은 완벽하게 적절한 자리에 있다. 열왕기상 6 장에 나오는 성전의 외적 건물에 대한 보고 후에, 바로 성전의 내부 기구들에 대한 보고(왕상 7:13-51)가 나오지 않고, 왕궁에 대한 묘사(왕상 7:1-12)가 계속된다.⁶ 여기에 강조의 문제가 있다.

⁴ IDB, ISBE, ZPEB 와 같은 여러 권으로 된 성경 백과 사전들에서 “성전”, 특히 솔로몬 부분을 확인해 보라. 열왕기상 7 장 본문에 대한 명쾌한 논의를 위해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69-78 을 보라.

⁵ 예를 들어, 왕상 7:10 에 나오는 기초석이 길이가 8 규빗/10 규빗(12/15 피트)이나 되는 큰 돌인 것에 주목하라. 이 중 일부는 나의 신학교 사무실 공간보다 더 길다. 그레이(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181)는 이것들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서쪽 벽에 있는 헤롯의 유서 깊은 돌들이 가로 16 피트, 세로 13 피트가 넘는 것을 언급한다.

⁶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걸린 7 년(왕상 6:38)과 그의 왕궁을 짓는 데 걸린 13 년(왕상 7:1)을 나란히 놓은 것은 솔로몬의 왜곡된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예배보다도 그의 안락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석의를 통해 이 점을 주장하려는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69-70 을 보라. 그리고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5), 130 도 보라. 나는 이 추론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허스(Alfred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283)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성전을 완성하는 데 7 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약 두 배의 시간을 들인 것에 대해 솔로몬은 때때로 비난을 받는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왕상 8:10-11)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확실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장식하는 데 사용된 귀중한 목재와 금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건물은 크지 않았고(성전의 크기가 반드시 신에 대한 헌신을 가늠하는 표시가 아님에 유의할 것), 본관은 길이가 90 피트, 너비가 30 피트, 높이가 45 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 건물을 짓는 데 7 년은 넉넉한 시간인 것 같다.” 더구나, 패터슨과 오스텔이 지적하듯이(Patterson and Austel, “1, 2 Kings,” 69), 성전의 경우에 “광범위한 사전 계획과 자재 확보가 있었다. 궁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 등에는 매우 피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왕궁 건물들에 대한 묘사는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성전에 대한 커다란 두 단락에 둘러싸여 왜소해 보인다. 마치 저자는 “이것(왕상 7:1-12)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강조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책략이다. 루즈벨트는 이 기술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우리의 상대방” 혹은 “인디애나 출신의 신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절대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근거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득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대방 후보의 이름을 선전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⁷

나는 저자가 열왕기상 6-7 장에서 강조하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왕궁 묘사에 주어지는 지면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는 성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에 어떤 의의라도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나로 그것을 가장 심한 형태로 표현하게 하라. 성전 구조가 크게 묘사되고 왕궁이 최소한으로 묘사되었다면, 저자는 예배가 통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전이 어느 예배라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공적 예배의 길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더구나 성전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성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예배를 대표한다. 나는 열왕기상 7 장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어떤 이분법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왕의 통치도 역시 여호와와 지배와 기준 아래 있었다. 그러나 건축하는 데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매력적인 왕궁에 대해 묘사하는 시간을 축소할 때, 저자는 요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서구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예배는 통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애쓰며 신을 도외시하는 복지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심각한 현실임을 새롭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II. 증언의 말 (왕상 7:15-22 A Word of Testimony)

둘째로, 우리는 열왕기상 7 장에서 증언의 말을 발견할 수 있다. 히람이 만들어 성전 앞에 세운 두 개의 놋기둥을 보라. 그것들은 높이가 약 27 피트(8.1m, 18 규빗), 둘레가 18 피트(5.4m, 12 규빗; 왕상 7:15), 두께(놋 자체의 두께)가 약 3 인치(“네 손가락의 두께”)이고 속이 비어 있다(참조, 렘

⁷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Campaigns* (New York: Oxford, 1985), 256-57.

52:21). 기둥 꼭대기에 얹은 머리들은 높이가 7 피트(2.3m, 5 규빗)이었으므로, 기둥들은 그 머리까지 합친 높이가 약 34 피트(10.5m, 18+5 규빗)였고 독립적으로 서 있었다.⁸ 왕상 7:17-20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 정도는 비교적 분명하다. 히람은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명명하였다(왕상 7:21).⁹

기둥들은 무게를 지탱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징적일 것이다.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 곧 야긴과 보아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 아들 중 한 명은 여고생 농구 코치이다. 그런 팀들은 모든 상황에 맞는 특정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내 아들의 팀이 그들의 골대 밑에서 다시 패스할 공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여학생이 심판으로부터 공을 받아 던지려고 할 때, 내 아들 세스는 "다섯!"이라고 외칠 수 있다. 그것이 전부다. 다섯! 그것은 그의 팀 여학생들은 즉시 알아채겠지만 다른 팀은 (바라건대) 알아채지 못하는 특정한 유형의 인바운드[코트 밖으로 나간 공을 코트 안으로 다시 패스하는] 플레이의 코드이다. 한 단어이지만 그것은 동작과 임무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전달한다.

나는 "야긴"과 "보아스"가 그런 것이라고 제안한다. 나는 그것들이 단 하나의 단어들로서 (사전의?) 의사 소통의 한 부분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야긴은 "그분이[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혹은 기도로 간주하여 "그분이 세우시길 바란다.")라는 의미이다. 야긴이란 이름은 동사 [쿤]에서 유래되었다. 동사 [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세 번 사용되었고(삼하 7:12, 13, 16), 열왕기상 2장에서 특히 솔로몬이 왕국을 장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네 번 사용되었다(왕상 2:12, 24, 45, 46; 이 구절들에 대한 나의 논의 참조).¹⁰ 나는

⁸ 늦기둥들이 독립적으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Carol Meyers, 'Jachin and Boaz,' ABD, 3:597-98 그리고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102 을 보라.

⁹ 성전은 동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참조, 겔 8:16; Josephus, *Antiquities*, 8.3.2), 기둥들을 세울 때 우리 자신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 상상하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야긴은 남쪽(NIV)에 있었고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북쪽(NIV)에 있었다고 가정한다. (역자 주: NASB 는 right/left 로 번역했지만 ESV 는 NIV 처럼 south/north 로 번역했다.) IDB, 4:536 의 평면도를 참고하라.

¹⁰ [역자 주] 개역개정에는 이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삼하 7:12, 13, 16)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바하키모티 "and I will set up"]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바하히노티(히프일 바브계속법 완료)

야긴이 다윗 왕조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를 지상에 가져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요약하고 있다고 본다. 여호와께서는 그 왕통을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분[여호와] 안에 힘이 있다” 혹은 “그분[여호와]에 의해 그는[왕은] 강하다”라는 뜻인 것 같다. 어떤 저자는 이 이름을 시편 21 편과 연관시킨다. 시편 21 편에서 왕은 “당신님/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시 21:1; 참고, 시 21:13).¹¹ 이 이름은 왕의 의존성을 암시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의 가능한 유일한 의지가 여호와임을 강조한다.¹²

그렇다면 여기서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야긴과 “그분 안에 힘이 있다.”라는 보아스는 성전 본관 앞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야긴은 여호와의 약속을 강조하고, 보아스는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한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 야긴은 여호와의 말씀의 원래 뜻을 가리키고, 보아스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지속적으로 적합하신 것을 가리킨다(참고,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르게 말하면, 야긴은 왕과 백성이 의지해야 할 기초를 강조하는 반면, 보아스는 그들이 의지해야 하는 자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긴은

“and I will establish”]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브호난티(폴렐 바브계속법 완료)I will establish] ...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이흐에 나혼[니프알 분사] shall be established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셨다 하라

(왕상 2:12, 24, 45, 46) 12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건고하리라**[바티콘(니프알 바브계속법 미완료) “그것이 세워졌다”] ... 24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헤히나니(히프일 완료)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아싸 “그가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 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건고히 서리라**[이흐에 나혼[니프알 분사] “그것이 세워질 것이다”] ... 46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건고하여지니라**[나호나[니프알 완료] “그것이 세워졌다/건고해졌다”]

¹¹ 이 기둥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요약을 위해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182-83 을 보라. 스코트(R. B. Y. Scott, IDB, 2:780-81 에 있는 영향력 있는 기사)는 그 이름들을 기둥들에 기록된 비문들의 첫 단어들이라고 여긴다. 그의 견해의 이 특정 사항을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의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쪽이다.

¹² 이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 장들이 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성전과 왕권은 함께 묶여 있었다(참조, 삼하 7:13). 왕권이 진행되는 대로 성전도 진행된다.

여호와와 선물을 강조하는 반면, 보아스는 그들의 임무를 가리킨다(참고, 시 105:4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¹³

우리 중 누구도 공공의 예배 장소 밖에 세워진 돛기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둥들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증언을 간직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여전히 왕국에 대한 확신에 새롭게 사로잡히고(야긴), 그들의 암묵적인 무력함을 새롭게 각성해야 할(보아스) 필요가 있지 않은가?

III. 세부사항의 즐거움 (A Delight in Detail)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왕기상 7 장에서—무심코 읽는 독자에게도 분명한—세부 사항의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기만적일 수도 있다. 그 다양한 묘사들을 한 줄 한 줄 살펴가면서 우리는 저자가 복잡한 청사진을 이해하기 좀 힘든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은 틀렸다. 왜냐하면 드 보가 다음과 같이 옳게 말했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건축가 혹은 고고학자가 갖는 관심사가 없었고 재구성에 필수적일 세부 사항들(예: 벽의 두께, 외관의 배치, 지붕을 덮는 방식)을 생략했다.¹⁴

이처럼 저자가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그는 또한 많은 것을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것을 그의 돛 “바다”에 대한 묘사(왕상 7:23-26)에서 감지한다. 돛 바다는 직경이 10 규빗(15 피트, 4.5m)이고, 높이가 그 절반인 5 규빗이고, 둘레가 30 규빗(45 피트, 13.5m)이고, 두께가 한 손 너비(3 인치)이고, 용량이 2 천 바트(약 11,000 갤런 [역자 주: 대하 4:5 “3 천 바트를 담을 수 있었다” – 최대 용량])이고, 세 마리씩 각각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열두 황소의 등 위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열왕기상 6-7 장과 역대하 3-4 장의 비교를 통해 열왕기 저자가 성전의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¹³ 딤후 2:19 에 인용된 두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이란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 [역자 주: (새번역 딤후 2:19)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민 16:5]’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민 16:26]’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¹⁴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5), 2:313. 그리고 Roger Tomes, “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n and Why was 1 Kings 6–8 Writte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0 (1996): 39-41 의 몇 가지 논평을 참조하라.

성전 건축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설명은 실제로 열왕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 열왕기상 6-7 장의 (왕궁에 대한 설명인 7:1-12 을 제외한) 77 절은 역대하에서 40 절로 압축되어 3:1-5:1 에 나온다.¹⁵

이 모든 것은 매우 분명하다. 낫 기둥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역대기(대하 3:15-17)는 열왕기(왕상 7:15-22)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받침 수레들과 물두멍들에 대하여 역대기는 한 절(대하 4:6)을 할애하는 반면, 열왕기는 무려 13 절(왕상 7:27-39)을 할애한다. (실제로, 대하 4:6 은 물두멍에 대한 언급만 하고 물두멍을 놓은 받침 수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왕상 7:29-37 은 제의적 기구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열정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이다. 히람은 10 개의 낫 받침대(개역개정: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 매 받침대는 길이가 4 규빗(6 피트, 1.8 미터), 너비가 4 규빗, 높이가 3 규빗(4.5 피트, 1.3 미터)이었다(왕상 7:27). 각 받침대는 직경이 27 인치 되는 네 개의 바퀴가 있었다. 각 받침대 상단에 있는 지지대 위에 직경(분명히—NIV 의 “across”는 왕상 7:38 에 나오지 않음)이 6 피트(1.8 미터)되는 대야 혹은 두멍이 놓여 있었다. 이 대야/두멍의 용량은 40 바트, 곧 200 갤런이 넘었다. 어떤 저자는 받침대와 대야가 결합된 것의 높이가 7 피트가 넘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추정한다. 바퀴들(왕상 7:30, 32-33)과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으나) NIV 왕상 7:27 에 나오는 “움직일 수 있는 movable”이라는 단어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각각의 받침대는 낫으로 만들어졌고 200 갤런 이상의 물을 담고 있으므로 그 무게가 약 1 톤에 달했을 것이다. 한 레위인이 혼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을 것 같다.¹⁶ 패널과 지지대와 장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움직이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가? 서양의 성경 독자들은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인내심이 없는 것 같다. 지루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그 기둥 꼭대기에 석류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열 개의 대야/두멍이 얼마나 많은 바트의 물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왜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왜 우리는 낫으로 만든 기구들과 금으로 만든 기구들의 목록을 프린트해야 하는가(왕상 7:40b-50)? 하지만 이 질문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저자는** 그것을 힘들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¹⁵ Martin J. Selman, *2 Chronicl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4), 303.

¹⁶ William Sanford LaSor, “1 and 2 Kings,”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331 에 나오는 유용한 조사를 보라. 그리고 John Gray, *I & II Kings*, 193 도 참조하라. 사이프러스에서 유래된 한 이동용 성전 물대야의 예를 위해 1962 년도 판 *The New Bible Dictionary*, 1244 쪽, 그림 205 을 보라.

질문이다. 그 대답은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항목별로 그는 과학과 예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다.

알렌과 보러는 가장 웅장한 예배당에 가장 정교한 작업에 자기 삶을 바치러 미국에 온 한 유럽 장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그 건물을 둘러보며 이 장인이 바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어떤 상징에 그의 기술을 집중하며 천장 가까이에서 세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는 어떤 예배자도 볼 수 없는 천장을 마주한 한 세부 사항에 몰두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물었다. "아무도 이 먼 거리에서는 당신이 만들고 있는 세부 사항을 볼 수 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 바쁜 예술가는 "하나님께서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¹⁷

이것이 열왕기상 7 장의 저자의 입장이 아닌가? 그는 정교하고 세심하게 짜여진 **아름다움**이 성경의 하나님께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그토록 기이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너무 좋고, 너무 호화롭고, 너무 잘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결코 그분께 값싼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열왕기상 7 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예배"라고 부르는 경솔하고 예사로운 절차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전의 내부 치수와 장식을 기록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저자 데이비스는 열왕기상 7 에서 강조된 것과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가?
3. 성전의 두 기둥과 그것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격려의 원천이 될 것인가?
4. 저자가 성전의 세부 사항에 대한 묘사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5. 그런 세부 사항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¹⁷ Ronald Allen and Gordon Borrer, *Worship: Rediscovering the Missing Jewel* (Portland: Multnomah, 1982), 29.

8.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왕상 8 장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신학교에는 세 개의 캠퍼스가 있다. 이 중 하나는 새로 지은 시설로 막 이전한 것이다. 어제 그런 경우에 적합한 기품과 축하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 시설에는 눈에 띄는 두 개의 외부 스피커가 있었고 그것들은 서로 경쟁하며 소리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의식은 특히 교회적인 행사인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다. 새로 기증받은 의자 방석이 봉헌될 때 나도 참석했다. 추가된 편안함은 감사한 것이지만, 인정하건대 거룩한 분위기에 좌석 방석을 완전히 감싸며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점을 파악했을 것이다. 봉헌은 적절하고 재미있으며, 솔로몬의 성전의 경우도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8 장에서 성전 건축을 축하하고 봉헌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이 이런 봉헌식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 독자로서 여러분은 화가 났을 것이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6 장과 7 장에서 자세히 살펴온 모든 엄격한 세부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끝에 잔치가 없다면 여러분은 분노할 것이다.

1. 서론 (Introduction)

몇 가지 서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이 행사의 **배경**을 들여다보자. 그것은 일곱째 달(가나안식 이름은 에다님월이고, 후에 티시리월로 알려지고, 우리의 9/10 월에 해당함) 절기에 일어났다(왕상 8:2, 65). 이 절기는 분명히 장막절이고(참조, 레 23:33-43)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방황을 회상하는 축제이다. 그러나 성전은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왕상 8:56, [므누하] "rest", 새번역: "안식"; 개역개정: "태평")의 표징으로 이스라엘의 방황을 종식시켰다.

둘째로, 열왕기상 8 장의 **구조**를 살펴보자. 나는 포텐의 구조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¹ 내가 그의 구조를 약간 변경하여 제시하는 열왕기상 8 장의 전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축하와 제사, 왕상 8:1-13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여호와에 대한 송축, 왕상 8:14-21

솔로몬의 봉헌 기도, 왕상 8:22-53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여호와에 대한 송축, 왕상 8:54-61

축하와 제사, 왕상 8:62-66

¹ Bezalel Porten, "The Structure and Theme of the Solomon Narrativ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8 (1967): 107.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 샌드위치 구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강해에 있어서 이 점을 암시할 것이다.

셋째로, 열왕기상 8 장의 **가르침**은 대체로 이 구조로부터 전개될 수 있다. 다음 개요가 제시하듯이, 각 주요 부분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초점을 갖고 있다.

I. 기도의 배경, 왕상 8:1-13

초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에 주목할 것)

II. 기도의 틀, 왕상 8:14-21, 54-61

초점: (그분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III. 기도의 내용, 왕상 8:22-53

초점: 하나님의 은혜(용서의 필요성)

그러나 나는 이번 강해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열왕기상 8 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조합에 주목한다. 나는 그것들이 이 장의 신학을 듣는 데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주제 아래 열왕기상 8 장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²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짝지어 주셨는가?

² 유념하라! 나의 접근 방식은 현대 비평주의적 정통 이론에 반대된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나는 본문이 솔로몬이 행하고 말한 것을 충실히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솔로몬이 정교한 신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평주의는 이렇게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왕기상 8 장은 신학적 전쟁과 역공의 최종 산물이라고 본다. 솔로몬은 만남의 기쁨을 나눈 적이 결코 없는 가상의 신명기적 사가들과 제사장적 편집자들과 창조지향적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신학적 설명을 삽입한 것은 예리한 신학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본문에 들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한 추적은 Walter 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27-35, 그리고 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49-52 에서 볼 수 있다. 지루할지라도 모든 세부 사항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191-209 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왕상 8:54)이 아마도 솔로몬보다 더 늦은 시기에 속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설명해야 할 유일한 명백한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성경 본문이다. 비평주의자들이 본문 배후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재구성할 때, 자주 그들은 그 과정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것은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II. 강해 (Exposition)

i. 하나님께서는 명료와 신비를 짝지으셨다 (왕상 8:1-13 God has joined together clarity and mystery)

먼저 신비를 살펴보자. 우리는 왕상 8:10 에서 신비와 마주친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했다." 그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섬김을 연기해야 했다. 저자는 왕상 8:11 에서도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며 왕상 8:10 과 비슷한 진술을 한다. 이렇게 그는 구름과 여호와와 영광을 동일시한다. (출 40:34-35 에서 우리는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본다.) 구름은 가시적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지만 구름은 또한 감추는 역할도 한다. 그들은 총명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셨지만 그들은 (굳이 말한다면) 맨 얼굴로 대면하듯이 그분을 보지 못했다. 왕상 8:12 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기로 선택하셨다[JB]."라는 솔로몬의 말은 이 구름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왕상 8:12 에서 솔로몬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캄캄한 구름(dark cloud, NIV/NKJV; thick cloud, NSAB1995/OJB; a thick cloud of darkness, NLT)" 혹은 "흑암(thick darkness, ESV/NASB/KJV/HCSB)"으로 가까이 간 것을 묘사할 때 출 20:21 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 [아라펠]을 사용하고 있다.)³ 구름은 여호와와 영광이기도 하고 여호와와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구름과 짙은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숨겨진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뜻한다.

그러나 언약궤에 대한 절정적 언급이 나오는 왕상 8:9 에 주목하라. (언약궤는 왕상 8:1-9 에 8 번 언급된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왕상 8:9)." 언약의 준수 사항, 곧 열 개의 말씀(십계명)이 그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참조, 신 10:1-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십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암시하겠는가? 이것이 명료성이다.

³ 왕상 8:10, 11 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난]으로 "구름"에 대한 더 보편적인 단어이다. [역자 주] 왕상 8:12 의 [아라펠]에 대해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캄캄한 데"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쉬운성경과 현대어성경과 우리말성경은 "캄캄한 구름"으로 번역했다. 한편 출 20:21 의 [아라펠]에 대해 개역개정은 "흑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먹구름," 쉬운성경은 "짙은 어두움," 현대어성경은 "캄캄한 구름," 우리말성경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번역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라.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였고 그분의 뜻을 명백하게 하셨다. 언약궤는 읽기 쉽게 새겨진 히브리어 단어로 그분의 뜻을 기록한 글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구름 속에 감추고 자신의 존재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숨기신다. 언급했듯이 구름은 여호와의 화려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여호와께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 구름은 여호와의 모호함을 가리키고, 언약궤는 그분의 명료함을 가리킨다. 비록 후자는 우리가 그분을 적절하게 알 수 있음을 증언할지라도, 전자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알 수는 없음을 암시한다. 그분은 명료성에 대한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지만, 호기심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은 충족시켜 주지 않으신다. 신비와 명료의 조합에 유의하라.

몇 년 전에 나는 작은 회중의 목사였다. 우리의 계획은 땅을 사서 결국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거래 은행으로부터 우리는 1 만 달러의 익명의 선물이 우리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에 대한 많은 신비가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입금 경로가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자금은 진짜로 우리 계좌에 분명히 예금된 상태로 있었다! 신비함과 명료함이 나란히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있다. 성전 봉헌식에서 언약궤가 안치되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전하는 이 에피소드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암시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기심에 만족한다. 앞서 언급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어구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 정치가, 자동차 정비공, 혹은 다른 무엇이 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 혹은 저 대학에 입학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저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실 것인지와 같은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데 자주 사용한다.⁴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어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 곧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기록된 것(출 20:1-17)을 더 잘 묘사한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집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개조하든, 아니면 내가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하든 덤프빌 주니어 칼리지에 다니든,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⁴ 이 분야에 대한 좋은 지각을 갖기 위해 Garry Friesen (with J. Robin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Portland, OR: Multnomah, 1980)을 보라.

내가 간음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등에는 매우 신경 쓰신다고 생각한다.⁵ 그것은 명료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직하신 비밀을 간파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혹스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시를 주셨다.

ii. 하나님께서는 신실과 기대를 짝지으셨다 (왕상 8:14-21, 22-26 God has joined together fidelity and expectancy)

이제 왕상 8:23-24 에 나오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시작 부분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한 것을 살펴보자.

23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당신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24 주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솔로몬은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비교할 수 없으심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면에서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가? “...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⁵ 나는 이 모든 것을 정색을 하고 쓰고 있다. 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출애굽기 20 장에 있는 여호와의 도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들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율법주의이며 행위 구원을 위한 노력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십계명의 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율법(출 20:3-17)은 은혜의 맥락(출 20:1-2)에서 나온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 세우신 패튼은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deliver” 출 1-15 장)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demand” 십계명).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요구 사항**(requirements)을 주시기 전에 그분의 **구원**(redemption)을 먼저 베푸신다.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 자유가 어떻게 향유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도덕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러야 할” 예배 행위이다(참조, 롬 12:1).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와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으시고 맞먹는 자가 없으시다. 솔로몬은 그 예로 어떤 약속을 들었는가?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들었다(왕상 8:24). 그것은 무슨 약속이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과 여호와에 대한 송축” 부분인⁶ 왕상 8:14-21, 특히 19-20 절을 떠올린다. 거기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명시하고(왕상 8:19; 참조, 삼하 7:12-13) 여호와께서 두 가지 세부 사항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음을 시인한다(왕상 8:20). “(첫째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다. (둘째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것이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다. 그는 (왕상 8:15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왕상 8:24 에서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라는 놀라운 말을 한다. 여호와께는 진실의 격차가 없으시다. 여호와는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다.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주목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왕상 8:25; 참조, 왕상 8:26)

물론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이행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논리의 핵심을 보는가? “여호와여, 이 시점까지 주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동일한 신실하심이 미래에도 계속되도록 해 주십시오.” 요컨대,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거에 신실하신 것은 미래에 동일한 것을 기대하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은 신실과 기대를 짝지으셨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의 핵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점에서 있어서 여호와께 비교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의 요점이다. 우주의 구석구석, 모서리와 모서리,

⁶ 다윗이 왕상 8:14-21의 주된 초점일지라도, 성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5 번 나온다(왕상 8:16, 17, 18, 19, 20).

은하계를 아무리 살살이 뒤져보아도, 여러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왕하 8:23)” 여호와 같은 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토록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당혹스럽다면 이교도 신앙을 조금 생각해보라.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신실함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악명높게 신뢰할 수 없었다(현재 속어로 flaky 했다).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젊은 왕 길가메시가 악한 훔바바를 정복한 후 정돈하고 축제 복장으로 단장하였을 때 여신 이시타르의 감탄을 자아낸다. 그 여신은 길가메시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지만 길가메시는 그녀의 청혼을 가장 신랄한 말로 거절하며 그녀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대상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조목조목 말한다.⁷ 신성과 신실은 이교도 신앙에서 자연스러운 동료가 아니다. 사실, 이교도 신이 여러분에게 복을 보증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보증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신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보증된 것으로 생각한 혜택을 취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때때로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회의에 의해 운영될 때 책임이라는 것이 그러했다. 그것이 이교도들이 그들의 으뜸 패인 마법을 비밀로 간직했던 이유이다. 그들은 그것이 신들을 넘어서는 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수많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⁸

여호와와는 이런 신들 중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 그는 비교될 수 없으시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이 그토록 소망에 찬 사람들인 이유이다. 한마디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현재까지의 그분의 신실하심은 미래의 기대를 낳는다. 그것이 여러분이 롬 8:32 에서 만나는 신학이다. 아니면 그것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잃어질 것이다**”라고⁹ 하시는 여호와와의 간단한 중문(등위 접속사[“and”]로 이은 문인 사 46:4)에서 만나는 신학이다. 그분이 과거에 여러분을 불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과 기대를 짝지으셨다.

⁷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9), 7, 50-52.

⁸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1:234-35.

⁹ 사 46:4 의 히브리어 본문 אֲנִי עֹשֶׂה וְאֵינִי אֶשָּׂא [아니 아씨티 바아니 에싸]에서 인칭 대명사 [아니](“I 내가”)는 강조되고 있고, 첫 번째 동사 [아씨티]는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 동사 [에싸]는 미완료형으로 미래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I have made, and I will carry.”처럼 이탤릭체로 나의 강조를 표시했다.

iii. 하나님께서는 광대와 친밀을 짝지으셨다 (왕상 8:27-30 God has joined together immensity and intimacy)

이제 왕상 8:27-28 을 읽어보자.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상 8:13 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왕상 8:27 에서 솔로몬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 그는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범주를 부수시고 그분의 위엄을 둘러싸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땅에 거하실 것인가? 하늘, 심지어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용납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거대한 위엄을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행복한 실패로 인해 이 말은 흘러나온다.

그러나 접속사들은 우리의 가장 놀라운 신학을 제공한다. 솔로몬의 말을 따라 가보자. 그는 경이로움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한(왕상 8:27) 후 바로 “그러나[접속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십시오.”라고 말한다. 얼마나 대담한 가정인가! 참 하나님은 왕상 8:27 에 묘사된 것과 같으나, 여러분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그분께 말할 수 있다(왕상 8:28). 솔로몬은 (초월성이 친밀성에게 소름 돋음을 정말로 주지만) 초월성이 친밀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친다. 여호와와 초월적이시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친밀성은 귀(왕상 8:28)와 눈(왕상 8:29)의 친밀성이고 그것도 지속적(“주야로” 왕상 8:29a)인 것이다. 이제 왕상 8:30 이 이 역설의 양면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주목하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이 곳, 곧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실 것이다. 후자(하늘)는 여호와께서 수용 불가능한(uncontainable) 분임을 인정하지만, 전자(“이 곳”)는 여호와께서 접근 가능한(accessible) 분임을 보여준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거처에 대한 기념이다. 실제로 왕상 8:27 은 그분의 광대하심이 우주의 경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는 이 하나님께는 하늘조차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왕상 8:28!) 여러분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광대함과 친밀함을 함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숙고할 수 있지만, 그 조합은 우리의 신학적 탄력을 확장시킨다. 친구이자 장로교 목사인 톰

킵슨은 한때 조셉 휠러 장군의 특이한 경력을 부각했다. 휠러는 남북 전쟁 동안 남부 동맹에서 봉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앨라배마 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 후반기에 그는 미군의 소장으로 임명되어 스페인-미국 전쟁에 참전하며 자원 봉사 부대를 지휘했다 (스페인 군대를 “양키즈”라고 함). 휠러는 남부 동맹군에서 장군으로 복무한 후 연방군에서 그 장군의 직위를 유지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 남부 동맹 장군과 연방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고 상호 배타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하실 수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즐겁게도 그것은 사실이다.¹⁰

여기에 떨림과 기쁨의 이유가 있다. 여호와와 백성은 그분의 존재의 모든 충만하심에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의 웅장하심 속에서는 그분을 둘러쌀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 속에서는 그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참고, 사 66:1-2). 그분의 위엄은 우리의 우주를 왜소하게 만들지만,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왕상 8:28-30 에서 “듣다/경청하다”는 의미의 동사 [샤마]가 5 번 사용된 것에 유의하라).

iv. 하나님께서는 엄중과 자비를 짝지으셨다 (왕상 8: 31-53 God has joined together severity and mercy)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필요 상황에 대한 7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하는데, 그 중 5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솔로몬의 청원의 자료는 레위기 26 장과 신명기 28 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왕상 본문	필요 상황	저주
8:31-32	이웃에 대한 죄/맹세	
8:33-34	적에게 패배	레 26:17; 신 28:25
8:35-36	비가 없음	레 26:19-20; 신 28:23-24
8:37-40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거나 남, 메뚜기나 황충, 적의 포위, 재앙, 질병	레 26:25; 신 28:21-22, 38-39, 42, 58-61
8:41-43	이방인	
8:44-45	전쟁	
8:46-50	국외 추방	레 26:33; 신 28:36-37, 41, 49-50, 64-68

¹⁰ 구약 신학의 이 부분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성육신에 대하여 실제로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고 기적적으로 “여호와다우심”이다.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자.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게 최고의 특권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와 그의 백성에 대한 최고의 사실은 그들이 항상 죄를 짓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왕상 8:31, 33-34, 35-36, 38-39, 46-50). 그들의 모든 상황이 죄에 오염된 것은 아니지만(왕상 8:41-43, 44-45), 대부분은 그렇다. 그들은 항상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왕상 8:30, 34, 36, 39, 50).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가정들은 현대의 공적 축하 행사에서 하는 연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식을 생각해 본다. 각각의 졸업식에는 “졸업 연설”이 있다. 내가 직접 상당히 예외적인 연설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러한 연설은 대체로 아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6 학년 수준을 넘어가는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며 그 교육 기관에서 훈련받고 나가는 졸업생들이 우리 세계의 희망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성전 봉헌식에는 그런 과대 광고는 전혀 없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냉정하고 냉철한 사실주의가 있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왕상 8:46-53 에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에 시달리고 있음을 가정해보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한다고 가정해보라.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
(왕상 8:48-49a)

회복과 용서의 길이 있다(왕상 8:49b-50).

이것은 솔로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는 단지 모세오경으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왕상 8:46-53 은 레 26:40-45 과 신 30:1-10 을 기도 형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여기서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믿었다! 사자 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에게는 기도를 건너 뛰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상의 일이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왕상 8:48 이 명시한 땅, 성읍, 성전을 향하여—기도하고 있었다(단 6:10). 단 9:1-19 은 다니엘이 창가에서 드렸던 기도들, 곧 회복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들의 한 예를 보여준다.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른다. 느헤미야의 기도(느 1:4-11)는 레 26 장의 경고와 신 28 장의 약속, 특히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모을 것이다(참조, 느 1:8-9).”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¹¹ 솔로몬의 기도는 여호와의 경고(레 26:14-39; 신 28:15-68)와 약속(레 26:40-45)을 결합하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성경의 후대 기도자들이 따를 패턴을 그린다. (이 강해의 첫 부분에 있는 서론적 설명에서 제시한) 열왕기상 8 장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저자가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축으로 삼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엄중하심과 자비하심을 함께 붙잡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사실주의와 더불어 소망을 보는가? 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겪을 것이지만(왕상 8:46), 그 엄중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회개(왕상 8:47-48)와 회복(왕상 8:49-50)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죄는 그들을 절망적인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계속 머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그분의 자비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분의 엄중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성 바울 성당 안 플랫폼에 높이 서서 일하고 있던 그 최고의 화가에 대한 스펀전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는 신중한 평가를 하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작품과 그것의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플랫폼의 맨 가장자리에 있었다. 이 사실을 그의 조수 중 한 사람이 적절한 경각심을 갖고 주목했다. 그러나 그의 조수는 “선생님, 위험합니다.”라고 소리치면 그 화가가 일상적인 반응대로 뒤를 돌아볼 경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몇 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마음에 몰려 왔을지 짐작이 간다.) 소리치는 대신 그 조수는 붓을 잡고 페인트 통에 담근 다음 그 붓을 그림 위에 던졌다. 그 화가는 화가 나서 앞으로 돌진하며 그 조수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작품을 망친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음을 알아차렸다. 엄중과 자비의 결합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우에서 이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심판과 친절, 고난과 구원, 징계와 위로, 상처와 치료를 짝지으셨던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

¹¹ [역자 주] (느 1:8-9)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v. 하나님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짝지으셨다 (왕상 8:41-43 God has joined together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거의 대부분이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죄, 재앙, 필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왕상 8:41-43 에서 솔로몬은 국경 너머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요, 외부인이요, 이방인이요, 여호와께 매료된 이교도를¹² 위해 기도한다. “그는 주의 크신 이름 때문에 먼 지방에서 올 것입니다(왕상 8:41b).” 솔로몬은 그러한 개개인들이 적어도 열국이 여호와의 행위에 대하여 들을 증언 때문에 올 것임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왕상 8:42a).” 그러므로 이방인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왕상 8:42b).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럴 경우 국제 선교가 그러한 개종자들로 폭발할 것이다. 아니면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할 것이다(왕상 8:43b).”¹³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일종의 선교 기지가 될 것을 기대했다.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모든 민족이 모여들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민족이” 거기로 모여들(사 2:1-4) 날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여호와는 “자신들을 여호와께 연합시킨 이방인의 아들들[브네 하네하르]”을 격려하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사 56:6-7).¹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멀리 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속죄와 기도의 기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¹² 왕상 8:41 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거주 외국인인 [게르]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온 이방인인 [노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¹³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개역개정)”라는 왕상 8:43 의 마지막 절에 대하여 카일과 배르의 주석을 보라. 이것은 성전이 여호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소유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¹⁴ 막 11:15-18 에 의하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을 보시고 분통을 터뜨리셨다. 가축이 울어 대고 고객이 지겨워 대는 가운데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들에게 지정된 지역을 어떻게 기도하는 집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겠는가? William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402-408 을 보라. 열왕기상 8 장에서 기도는 성전과 관련된 최고의 행위인 것에 유의하라. 이 점에 대해서는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58-59 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이 결합된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비교적 작은 궤도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가족 안에서 그것을 본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한 가족 안에서 한 사람(아버지, 어머니, 아들, 혹은 딸)을 이끌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신다. 신실한 삶, 조용한 증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들어온다. 어쩌면 두세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때로 어떤 새로운 신자는 자기 가족 안에서 혼자서 믿는 자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기도에서 그분이 행하시길 바랐던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나 사무실 직원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특정 사람을 그분의 아들에게 인도하기 시작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특수성과 보편성을 짝짓고 계신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이것을 가정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뒷골목의 신이나 박물관에 소장된 신이나 이스라엘 교외의 신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시는 온 땅의 주님이시다.

vi. **하나님은 종말론과 실용성을 짝지으셨다** (왕상 8:54-61 God has joined together eschatology and practicality)

이 제목이 (마지막 일에 대한 연구인) 종말론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백성에 대한 축복, 특히 왕상 8:56-60 에서 이러한 이중적 언급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솔로몬의 전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히 다윗 언약을 전제로 한다. 왕상 8:56 에서 그는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가져오신 안식을 암시한다(왕상 5:3-5; 삼하 7:10-11). 여호와의 임재(왕상 8:57), 능력(왕상 8:58), 지원(왕상 8:59)에 대한 복을 비는 그의 기도는 장엄한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왕상 8:60)”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매일의 일들을 잊지 않았다. 왕상 8:59 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솔로몬은 이 기도가 여호와께 “기록으로”(“파일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사무적으로 들린다) 남아 있기를 구한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기도한다. 여기 “날마다 필요한 대로”라고 번역된 어구 [드바르 하욀 브요모]는 직역하면 “a matter of a day in its day 그 날에 있을 한 날의 일”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일용할(NASB:

a day's portion every day)" 혹은 "그날에 필요한(NIV: enough for that day)" 만나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출 16:4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어구이다. 그러므로 언약 계획과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그분의 끊임없는 시선 아래 솔로몬의 기도 말들을 간직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정기적이고 평범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매일 매일의 필요도 있다.

때때로 학교에서 한 학기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학생들과 마주친다. 이와 같은 학생은 모든 마감일과 특정 시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모든 작업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자신의 원대한 계획(또는 원래의 원대한 계획이 충족되지 않은 후의 대안적인 원대한 계획)을 생각해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매일 매일의 독서와 연구와 쓰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임신하는 것보다 분만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와 구속 사역의 웅장한 계획이 있고 그분의 백성의 일상적인 필요들이 있다. 후자는 전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종말론과 실용성을 짝지으셨다. 여호와는 마지막 날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9 월의 셋째 주에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돌보신다. 여러분은 이러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숭배해야 한다.

III. 마감하는 말 (Closing Word)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¹⁵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혼 관계의 신성함을 지지하는 데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신학의 연구와 표현,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우리는 여호와와 성품에 대하여 다른 측면을 희생시키며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참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교리적으로 새긴 우상으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룩한 긴장 속에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교정이 아닌가? 다른 것과 관련하여 존 브라이트는 아침에 외출할 때 그가 바지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셔츠를 입을 것인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¹⁵ 확신하건대 열왕기상 8 장을 다루는 나의 접근 방식은 마 19:6 에 관한 그레이엄 스크로기의 설교("분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나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접근은 주제적이지만 나의 접근은 강해하는 장에 국한되어 있다. 스크로기(Graham Scroggie)의 설교는 Robert J. Smithson, ed., *My Way of Preaching* (London: Pickering & Inglis, n.d.), 146-53 에서 볼 수 있다.

썼다. 품위는 바지와 셔츠를 짝지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시면서 그분이 짝지으신 것을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와 아름다움(참조, 시 27:4)”을 보는 것은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에서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고의 신학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캄캄한 구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가?
2.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어떻게 여호와와 명료하심을 그분의 백성에게 드러내는가?
3. 솔로몬은 어떻게 여호와와 신실과 기대를 짝짓는가?
4. 솔로몬은 어떻게 여호와와 광대하심과 친밀하심을 짝짓는가?
5.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9. 건축 검사 (왕상 9 장 Surveying the Construction)

얼마 전 나는 루이지애나 북부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직접 설계하여 건축하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큰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환대를 즐겼다. 바닥, 캐비닛, 문, 기둥 등 집의 모든 부분에는 역사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어설픈 소재는 없었다. 그들이 어디서 다양한 소재를 얻었는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매혹적이었다. 바닥이나 판넬은 철거 중인 도시의 1880 년에 지은 건물의 선반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앙의 편백 나무 기둥은 버려진 집 아래의 들보에서 나온 것이었다. 백향목 벽장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침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고 싶을 정도였다. 정말 즐거운 집이었다. 단순히 그들이 건축한 것을 다시 검사함으로써 그 안에서 가족이 누리는 적절한 기쁨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그것이 열왕기상 9 장의 배경이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관성 있는 한 부분의 본문(왕상 9:1-9)에 이어서 짜증내는 왕[히람]으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줄곧 단편적인 일들을 모아 놓은 부분(왕상 9:10-28)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짓다, 건축하다”는 뜻의 동사 [바나]가 9 번 나오며(왕상 9: 1, 3, 10, 15, 17, 19, 24 [두 번], 25) 열왕기상 9 장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 두 주요 부분은 똑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친 것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왕상 9:1, 10). 우리는 통치의 중간 시점에서(참고, 왕상 9:10) 그때까지 완성된 솔로몬의 건축을 되돌아보는 검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건축 용어는 열왕기상 9 장 전체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느슨하게 매우 지시적인 부분(왕상 9:1-9)과 대체로 서술적인 부분(왕상 9:10-28)을 결합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주된 강조 사항을 시사한다.

1. 신실함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왕상 9:1-9 The urgent need for faithfulness)

이것은 신호탄과 같은 경우였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왕상 9:2; 참조, 왕상 3:4-5).” 이것은 격주로 수요일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에피소드는 왕상 3:4-15 에 나오는 여호와와의 첫 번째 현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틀림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특권, 왕상 9:3

보증, 왕상 9:4-5

경고, 왕상 9:6-9

왕상 9:3 에서 여호와와 솔로몬의 봉헌 기도대로 성전을 이스라엘이 그분의 주권적이고 돌보시는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승인하신다.¹ 왕상 9:4-5 에서 여호와와 솔로몬에게 그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한 다윗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보증하신다. 그러나 왕상 9:6-9 은 더 불길해진다. 솔로몬 그리고/혹은 그의 후손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성전은 그 재앙을 널리 알리는 전시물이 될 것이다. 왕들의 불신실함(왕상 9:6)은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왕상 9:7). 백성도 확실히 왕들의 배도를 흉내 낼 것이다(왕상 9:9).

솔로몬에 대한 여호와의 “두 번째 현현”은 변칙 정신이 들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의 절반 이상이 경고로 이루어져 있다(왕상 9:6-9).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배도의 값비싼 대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셨다. 불충성은 **영토, 성전, 왕좌**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첫 번째 상실은 땅의 상실(왕상 9:7a)과 아브라함 언약(창 15 장)의 퇴색을 포함한다. 두 번째 상실은 성소의 상실과 솔로몬의 정권 아래서 막 절정에 오른 보이는 은혜의 수단의 상실을 포함한다(왕상 9:7b-8a). 세 번째 상실은 (왕상 9:4-5 이 암시하듯이) 왕권의 상실과 다윗 언약(삼하 7 장)의 퇴색을 수반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만이 경솔하게 믿음 없는 짓을 할 것이다.

소련 군대는 1945 년 베를린에 주둔했을 때 난폭해지고 있었다. 게오르그 헤네버그 박사는 러시아인들이 세링 화학 공장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침투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였는가? 러시아인들은 그곳에서 장티푸스 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실험용 달걀을 가지고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헤네버그가 한 러시아 대령을 찾아 군인들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잠그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² 그 군대는 그들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알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충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정말 친절하시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경고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의 긴급한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배교의 값비싼 대가를 계산하여 보여주시는 한 권의 온전한 신약 성경 책이 있다. 그분은 히 2:1-3 에서 시작하여 서신 내내(히

¹ “마음”은 열왕기 상하에서 51 번 나온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오직 왕상 9:3 뿐이다.

²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94.

3:12-13; 6:1-8; 10:26-31; 12:25-29) 계속 경고하시며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백성의 안전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다.

II. 왕정의 지속적인 사업 (왕상 9:10-28 The ongoing business of kingship)

이제 우리는 분명 솔로몬의 통치의 중간쯤 되는 시점에서(참고, 왕상 9:10) 그의 다양한 활동의 요약 부분을 만난다. 그것은 왕정의 자료로 가득 차 있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1. 외교, 왕상 9:10-14
2. 국방, 왕상 9:15-24
3. 종교, 왕상 9:25
4. 무역, 왕상 9:26-28

외교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라! 모든 사람이 그런 일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히람은 아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건축 자재와 금을 공급했다(왕상 9:11). 히람이 보냈었던³ 금은 실제로 4 톤이 넘었다(왕상 9:14). 분명히 솔로몬은 식량으로 값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참조, 왕상 5:9, 11) 그래서 20 개의 국경 성읍을 히람에게 양도했다. 이 성읍들이 가불 성읍 주변에 있었다면(참조, 수 19:27), 그것들은 두로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아셀의 땅에 있었다. 히람은 그 지역을 둘러보았지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는 반대하였다. 그는 솔로몬에게 그것들이 성읍의 유감스러운 표본으로 생각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⁴ 그러나 히람은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는 수익성이 좋은 해상 무역에 솔로몬과 합류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왕상 9:26-28).

저자는 또한 솔로몬이 일으킨 역군을 다룬 문서에서 한 부분을 떼어 우리에게 제시한다(왕상 9:15-24). 묘사된 건축의 대부분은 주요 군사 기지를 적절한 방비 상태로 두는

³ 왕상 9:14 의 동사 [바이실라흐]에 대하여 NIV 가 과거 완료, 즉 "had sent"로 번역한 것은 옳다. 이렇게 왕상 9:14 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금을 "보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⁴ 어떤 사람들(예를 들어, BDB, 459: קָבֹל[카볼] = כּ[크] as + לָ[불] = לָבֹל[발] not, i.e. as good as nothing)은 "가불(왕상 9:13b)"이란 이름이 그 성읍들이 "아무 것도 아니다(우리 식으로 한다면 제로스빌[Zerosville, 빵점 마을]이다)"라고 하는 히람식 재담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국방 사업이었다.⁵ 우리는 자주 주석가들 사이에 솔로몬의 정권이 매우 억압적이었다는 논조와 주장을 만난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지적한다. 사실, 솔로몬은 예를 들어 브리스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특별히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상 9:20-23 에서 저자의 요점은 솔로몬을 빈정거리는 말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국가 노예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던 정복된 민족들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신분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솔로몬을 위한 변증을 하고 있다.⁶

그리고 정통 신앙이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 번의 연례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솔로몬은 분명히 정통 신앙에 유의했다(왕상 9:25; 참조, 출 23:14-17). 개역개정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고 번역된 왕상 9:25 의 마지막 절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성전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NIV 의 번역이 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모세 율법에 의해 정해지고 중앙 성소의 건축에 의해 암시된 모든 종교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⁷

⁵ 하술과 므깃도(왕상 9:15)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의 고속도로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의 주요 요새였다. 하술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북쪽 출입구를 지키는 갈릴리 호수와 홀레 호수 사이의 거대한 지점이었다. 므깃도는 이집트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국제 고속도로가 동쪽으로 휩 돌아 이스라엘 북부를 가로지르는 지점, 곧 에스드랴론 평원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길들 중 하나를 통제했다. 게셀(왕상 9:15-17a)은 남북간 고속도로의 동쪽에 있는 유대 산기슭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얄론 계곡을 통과하여 벳호론과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244-46 을 참고하라. 나는 크티브 “다말, Tamar”[공동번역, ESV, NASB 등 대부분 영어성경]보다 크레 “다드몰, Tadmor”[개역개정 등 대부분 한글 성경, NIV, KJV]로 읽는 것을 선호한다. 다말/다드몰(왕상 9:18)은 아마도 사해의 남서쪽으로 헤브론과 엘랏(아카바 만의 항구) 사이의 도로에 있었을 것이고 엘랏을 통하여 남 아라비아와의 교역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화되었을 것이다. F. C. Fensham, “Tadmor,” NBD, 3rd ed., 1149-50 그리고 J. T. Butler, “Tamar,” ISBE, 4:725 를 참고하라. 솔로몬의 국고성들(왕상 9:19)에 대하여는 Alfred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284-86 을 참고하라.

⁶ 솔로몬은 건축에 대한 정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왕상 9:1, 19 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소원”을 표현하는 명사 [헤세크]가 나온다. 왕상 9:19 에는 “건축하기를 원하는[하샤크] 솔로몬의 소원[헤세크]”처럼 명사는 물론이고 동족 동사도 나온다. 명사 [헤세크]는 강력한 단어이다. 우리는 그가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atterson and Austel, “1 and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94 그리고 David Talley, NIDOTTE, 2:318-19 을 보라.

⁷ 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5), 159.

그런 다음 저자는 우리를 성전에서 해안으로 데려가서 홍해와 그 너머의 해운과 무역을 보게 한다(왕상 9:26-28). 그들은 에돔 남쪽의 아카바 만에서 출발하여 수완을 발휘해 오빌까지 이른다. 오빌이 어디에 있었는지⁸ 잘 모르지만 말이다. 히람의 페니키아 선원들은 해상 전문 지식을 제공했고, 이스라엘과 두로는 둘 다 이익을 챙겼다. 히람의 선원들이 얻은 금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을 때, 우리는 히람이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고대 근동의 교통 교차 지점에 있었고 그의 요새화된 성읍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통행료를 받으며) 모든 주요 육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하로니와 아비요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같은 강대국이 주요 시장들을 연결하는 모든 대상(隊商 카라반) 통로를 통제했을 때, 애굽, 메소포타미아, 남 아라비아, 아나톨리아, 그리스의 정교한 사회들 사이에 운송되는 상품의 유통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 사이의 동업은 양국에 풍성한 재정적 수익을 보장했다.⁹

나는 이 부분을 “왕정의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불렀다.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프로반이 보는)¹⁰ 솔로몬의 어리석음에 대한 명백한 징후를 보지 못한다. 열왕기상 4 장과 왕상 10:14-29 과 같은 대부분의 요약 구절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왕상 9:10-28 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은 외교에 관여했지만 히람을 계속 미소짓게 할 수 없었다(왕상 9:10-14). 그는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을 마음껏 발휘했고 대부분 국방을 위한 것이었다(왕상 9:15-24). 그는 모든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며 정통 신앙을 유지했다(왕상 9:25). 그는 세계 경제와 무역에 과감히 관여하여 수익을 얻었다(왕상 9:26-28). 나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이 특별히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왕들이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내 소년 시절 친구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 내 친구 톰과 나는 자동차와 트럭을 가지고 놀곤 했다. 톰은 보통 아이들이 그런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 때 내는 적절한 소리를 지르며 자기 장난감 트럭을 운전할 때 그가 “허니 디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것은

⁸ 오빌이 남 아라비아, 혹은 남동 아라비아, 혹은 소말리아, 혹은 인도 등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D. J. Wiseman, ‘Ophir,’ NBD, 3rd ed., 849-50 을 보라. 에시온게벨(왕상 9:26)의 위치에 대하여 Walter C. Kaiser, Jr., *A History of Israel from the Bronze Age through the Jewish War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8), 277-80 에 나오는 편리한 요약을 참고하라.

⁹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88.

¹⁰ 그러나 나는 언약의 땅을 이방 통치자에게 양도한 것(왕상 9:11)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톰의 아버지가 “허니 디퍼”였기 때문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장난감 트럭을 운전하며 내가 허니 디핑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나중에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니 디핑은 벌이나 식품 가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50 년경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우리 마을에는 아직 실내 배관 시설이 없어서 여전히 옥외 화장실이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톰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위한 옥외 화장실 아래 구덩이를 청소했다. 그것이 바로 “허니 디핑”이었다. 톰의 아버지는 트럭에 큰 탱크를 실은 채로 우리 집을 지나는 차선으로 올라가 마을 쓰레기장으로 가서 거기에 그의 보물을 쌓아두시곤 했다. 나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보곤 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혐오감을 느꼈을 필요는 없었다. 허니 디핑은 적절한 작업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허니 디퍼가 하는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왕상 9:10-28 에 부각된 이러한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왕들의 정당한 관심사였다. 그것들은 단순히 왕들이 하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소명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기 기사, 법무사, 회계사, 용접공,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일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활동은 완벽하게 적절하다. 따라서 그것들이 다소 언약보다 못한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왕상 9:6-9 이 러시모어 산처럼 왕상 9:10-28 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계명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완전히 성공적인 왕적(혹은 재정적 혹은 직업적 혹은 사역적) 경력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완전한 파멸로 끝날 수도 있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일의 주요한 요지는 무엇인가?
2. 솔로몬이 불충하면 그가 받게 될 대가는 무엇인가?
3. 여호와의 말씀은 왜 그렇게 많은 경고로 이루어져 있는가?
4. 솔로몬이 그의 건축 프로그램을 위해 그렇게 많은 노예를 가졌던 것은 “옳은” 것인가?
5. 솔로몬이 그의 빛을 갚기 위해 히람에게 언약의 땅을 양도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10. 열방의 빛 (왕상 10 장 A Light to the Nations)

몇 년 전 우리 시는 “성 피터스버그 궁전들”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후원자들은 일부 러시아 황제들의 호화로운 주변 환경을 보고 들으며 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열왕기상 10 장이 그와 같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놓쳤다면, 저자는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웅장함을 그저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그의 투어에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는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앉아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료 (Data)

스바¹ 여왕은 결코 시시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물건들의 목록을 잘 보라(왕상 10:2a). 그녀는 솔로몬이 재치와 지혜에 있어서 그의 명성에 완전히 부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왕상 10:1-3), 솔로몬의 스타일이 그야말로 낮을 앓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왕상 10:3-5).² 그러한 유형을 그녀는 본 적이 없었다.

내레이터는 우리를 계속 밀어붙인다. 왕상 10:14-22 에서 그의 핵심 단어는 10 번이나 나오는 “금”이다. 금 방패들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0 톤(666 달란트)이라고 알려준다(왕상 10:14).³ 물론 이 수치가 모든 금을 다 포함한 것은 아니다(왕상 10:15). 우리는 지금 “레바논 수풀 궁(= 솔로몬 왕궁)”에 있다. 이 금방패들을 보라. 우리 몸 크기의 방패 2 백개(왕상 10:17)와 손에 들고 다니는 더 작은 크기의 방패 3 백개(왕상 10:17)가 있었다. 큰 방패는 만드는 데 6 백 세겔(약 7.5 파운드)의 금이 들어갔고,

¹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바가 예루살렘에서 천 마일 이상 떨어진 남 아라비아, 곧 현재의 예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² [역자 주] 왕상 10:5 의 **וַעֲלֹתוֹ אֲשֶׁר יַעֲלֶה בֵּית יְהוָה** [브올라토 아세르 아알레 베티 아도나이]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KJV(“ascent”)/NASB/ISV(“stairway”)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번역했으나, 새번역을 비롯한 대부분 한글 성경은 ESV/NIV/HCSB(“burnt offerings”)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로 번역했다. Wiseman(130)은 이것이 번제를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층계를 의미한다면 나중에 “솔로몬 행각”으로 알려진 행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Olley(112)는 열왕기상 10 장에서 12 절의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라는 부분에서 성전과 왕궁이 나란히 오는 것을 제외하고 오직 5 절에만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예배)가 솔로몬의 영광의 표현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

³ 이 수치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K. A. Kitchen, *The Bible in its World: The Bible & Archaeology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101-102 에 나오는 논의를 보라.

작은 방패는 만드는 데 3 마네(약 3:75 파운드)의 금이 들어갔다.⁴ 국가의 행사에서 매우 세련되게 보였다. 이제 여기 보좌를 보자(왕상 10:18-20). 그것은 상아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힌 큰 보좌로서 여섯 층계가 있고, 앉는 자리의 양쪽에 팔걸이가 있다.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여섯 층계 좌우편에 12 사자가 서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⁵ 우리가 보관 창고 하나를 지나갈 때 안내자는 마시는 데 쓰는 금잔들을 지적한다. 그는 은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며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한다(왕상 10:21). 그는 솔로몬의 무역에 대한 몇 마디 설명으로 투어를 마친다. 이스라엘과 두로의 연합 무역선들은 정기적으로(삼 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심지어 원숭이와 공작새까지 싣고 돌아왔다(왕상 10:22). (원숭이와 공작새에 대한 언급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주전 12-9 세기의 몇몇 앗수르 왕들과 매우 흡사하게 동물학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⁶ 게다가 솔로몬은 무역상들을 통해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왕상 10:28-29). 그의 무역상들은 남쪽의 애굽과 남서쪽의 길리기아(쿠에)에서 말과 병거를 사 와서 북쪽에 있는 헷 사람과 북동쪽에 있는 아람 사람에게 팔았다.⁷ (솔로몬이 무기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병거들은 [전투용이 아니라] 왕을 위한 의전용의 고급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다[왕상 10:29: 한 병거에 은 600 세겔이고, 한 마리의 말에 은 150 세겔이었음]).⁸

투어가 끝났다. 물론 솔로몬의 왕국 어디에도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낼 기계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다. 어쨌든 솔로몬 왕국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스바 여왕처럼) “와, 내 생전에 이런 것은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외칠 것이다.

⁴ Richard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03.

⁵ W. J. Dumbrell, NIDOTTE, 1:1030-31: “보좌는 아마도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며, 일부는 금으로 입히고, 일부는 조각된 상아 패널로 장식되며 자주 나무 부분에 정교하게 조각되어 덧발라졌을 것이다.”

⁶ Yutaka Ikeda, “Solomon’s Trade in Horses and Chariots in Its International Setting,”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2), 219-20 을 보라. 어쨌든 솔로몬을 흉내 내었던 왕들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⁷ 이 시기의 헷 사람에 대해서는 Harry A. Hoffner, Jr., “Hittites,”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Baker, 1994), 131, 152 을 보고, 솔로몬의 무역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는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88 을 참조하라.

⁸ Ikeda, “Solomon’s Trade,” 221-38 에 나오는 흥미로운 토론을 보라.

II. 관점 (Perspective)

우리 독자는 이 모든 웅장함과 사치스러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저자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그는 솔로몬의 화려함을 조심스러운 주저함으로 묘사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열정으로 묘사하는가? 나는 후자라고 말하고 싶다.

열왕기상 10 장 전체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요 부분은 1-13 절로 여기서 스바 여왕은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주요 부분은 14-29 절로 여기서 내레이터는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외친다. 너무 지나친 과대 광고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나는 저자가 이 주요 부분들 안에 배치한 각각의 증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6-9 절은 스바 여왕의 증언을 담고 있고, 23-25 절은 내레이터 자신의 증언을 담고 있다. 이 증언들은 저자의 의도된 관점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바 여왕은 그녀가 보는 현실이 그녀가 들었던 모든 환상적인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감탄한다. 그녀의 칭찬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고백에서 절정에 이른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왕상 10:9)

그러나 왕상 10:6-9 이 스바 여왕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저자가 그녀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그녀는 분명 정치적으로 올바른 보도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다. 사람들은 일부 주석가들과 역사가들이 스바 여왕에게 은근히 실망하여 그들의 그녀의 연설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을 감지한다. 그들은 왕상 10:8 에서 그녀가 날카로운 아이러니를 담아 “당신의 종들은 복되도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기념비들을 짓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다!”라고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관심사로 돌아가자. 저자는 왕실의 웅장함에 대한 그의 묘사에 삽입한 짧은 독백인 자신의 증언(왕상 10:23-25)에서 스바 여왕의 감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녀의 평가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 24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25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왕상 10:23-25)

왕상 10:23 에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지혜와 부에 대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왕상 3:12-13)을 실제로 이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의 논평이나 보고를 통하여, 저자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여호와의 명성(왕상 10:1), 여호와의 사랑(왕상 10:9), 여호와의 주심(왕상 10:24)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적으로 월러스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평가했다고 생각한다.

열왕기상 10 장 전반에 걸쳐 저자 자신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 가졌던 동일한 종류의 열정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는 솔로몬의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예비적인 지상 스케치를 보았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요점에 이해할 만한 강조를 하기 위해 그의 설명에서 최상급의 사용에 의존하고 과장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이유이다. 그가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솔로몬 왕정에 대한 그의 묘사에 있어서 그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에게 그가 고려해야만 했던 솔로몬 왕정에 대한 더 어둡고 위협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 그의 설명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는 이러한 측면도 정직하게 다룰 것이다. 현재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솔로몬 통치의 실질적인 절정에 대한 특별히 인상적인 그림을 우리 마음에 고정시키는 것이다.⁹

저자의 긍정적인 관점을 가정하고 이제 이 본문의 의의를 살펴보자.

III. 의의 (Significance)

방금 앞부분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열왕기상 10 장이 **증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은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이라는 증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화하는 것을 막는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을 죄악시하며 경멸하는 것을 막는다. 열왕기상 10 장에서 후자, 곧 기쁨의 반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의 긍정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그 모든 금이 선할 리

⁹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69. (나는 저자가 “과장에 빠졌다[lapse to exaggeration]”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상 10:23, 27 에 나오는 과장법[hyperbole]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장이라고 한다면 저자의 증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신 17:16-17 이 열왕기상 10 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Patterson and Austel, “1, 2 Kings,” 104 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없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지평선에 드리운 구름을 강조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것은 나로 맥클루어 선교사가 수단에 있는 누어족에 대하여 전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어인은 우유가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음료라고 믿지만, 우유를 너무 좋아하므로 그 모든 것이 여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누어인은 소의 오줌을 더해서 한 입의 칵테일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남자의 음료가 된다.”¹⁰ 다시 말하면, 누어인은 우유를 먼저 망치지 않으면 그것을 즐길 수가 없다. 나는 우리가 열왕기상 10 장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복(참조, 잠 10:22)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것을 주셨다면 만족해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주의”와 그러한 풍요함으로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신음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예화를 유추로 확대하면, 우리가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녀와 동침하는 것을 피하려는 우리의 공황 상태에서 우리는 본문에 소의 오줌을 부어야 하는가?

둘째로, 열왕기상 10 장이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이 그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던 매력이 미래에 지상에 수립될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스바 여왕은 미래에 열국이 여호와의 언약 왕에게 와서 보일 경배의 표본일 뿐이다. 사실, 솔로몬 자신은 시편 72 편에 나오는 그의 기도에서¹¹ 언약 왕의 미래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보인다.

- 8 왕의 나라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 9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의 먼지를 핥게 하십시오.
- 10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해 주소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 주소서.
- 11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 15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 시편 72:8-11, 15)¹²

¹⁰ Charles Partee, *Adventure in Afric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44-45.

¹¹ 시편 72 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¹² NIV 는 시편 72:8-11 을 평서문으로 번역했으나 RSV 와 NASB 처럼 기원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과 우리말성경은 평서문으로 번역했으나 새번역과 쉬운성경은 기원문으로 번역했다.

이사야도 다가올 시대의 시온의 영광을 묘사할 때 동일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 7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사 60:5-8)

이사야의 낙타들은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부와 공물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이사야는 지도에서 지명들을 읽으며(참조, 사 60:7) “전 세계가 시온으로 몰려오는 느낌을 만든다.”¹³ (열왕기상 10 장에서와 똑같이) 스바에서 모든 금을 가지고 오는 낙타들이 있다. 열왕기상 10 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 막내 아들이 두세 살이었을 때, 그는 이미 야구에 뛰어 들어 왼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 방 한쪽 끝에 그의 “포수”로 쪼그리고 앉곤 했고, 그는 무해한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며 그의 왼손으로 그것을 나에게 던지곤 했다. 야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학 시절까지 수 년 동안 계속되었다. 대학 생활 4 년 내내 그는 팀의 선발 왼손 투수였고 그것도 1 등 투수였다. 대학에서 그의 투구는 결코 두세 살 때 던졌던 것의 정확한 복사판이 아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년 전에 그가 가족 방에서 연습하던 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가 되었다.

이것이 열왕기상 10 이 “예언”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스바 여왕(왕상 10:1-13)과 온 세상의 사람들(왕상 10:24-25)의 긴 여행은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오는 미래의 물결(사 2:2-3)에 대한 미리

¹³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3), 495.

보기이다.¹⁴ 그렇다면 열왕기상 10 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왕상 8:41-43, 60)가 벌써 응답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왕국으로 몰려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권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그 왕국에 대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설 수 있는 자리도 없다. 내가 6 살쯤 되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였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지역 감리교 교회의 지하실에 있었고 어떤 방문 음악가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우리들의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왜 그들은 항상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그 당시에 감리교 노래가 우리가 늘 부르던 시편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감리교 신자들의 찬양이 더 멋졌다. 그 아코디언 연주자가 새로운 곡을 연주하고 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손을 들고 “나는 연합 장로교 신자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건 최고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노래를 알고 있는 연합 장로교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놀라운 일이지는 하지만 나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읽는 이방인으로서 가져야 할 감각이다. 저것 좀 보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건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0 장은 **비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 장을 끝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직 스바 여왕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라(마 12:42)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부각시키는 두 개의 장(마 11-12 장)의 끝 부분에 나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주장을 증명해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표적을 요구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거부했다(마 12:39-40).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¹⁴ 포텐(Bezalel Porten, "The Structure and Theme of the Solomon Narrative [I Kings 3-11],"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8 [1967]: 111)은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성취와 복에 대해 감탄하거나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주제의 일부이다. 그들 가운데는 멜기세덱(창 14:18 이하), 헷 사람들 (창 23:6), 바로의 술사들(출 8:15 [19]), 애굽 사람들(출 9:20), 바로(출 9:27), 이드로(출 18:9 이하), 발람(민 23-24 장), 열국(신 4:6 이하), 라합(수 2:9 이하), 미디안 군사(삿 7:13-14), 나아만(왕하 5:15) 등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우리는 룻(룻 1:16-17)과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 왕들(단 2:46-49; 3:28-30; 4:34-37; 6:25-27)을 추가할 수 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스냅 사진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스바 여왕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정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수님의 논증은 스바 여왕이 더 적은 진리와 더 적은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멀리서 그에게 왔다. 이것은 분명히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던 이방인에게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곧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절했다. 이스라엘의 더 큰 특권은 그들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마 12:42). 이것이 예수님의 요점이다.

물론 우리는 늘어난 특권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로즈 케네디는 잭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영부인으로서 자기 역할에 기뻐하는 듯 보였다. 운전사인 프랭크 손더스가 운전을 하는 동안 그녀는 차 안에서 신문을 읽곤 했다. 신문을 다 읽었을 때마다, 케네디 부인은 그것을 차창 밖으로 던지곤 했다. 손더스는 그녀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 로즈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아, 프랭크,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¹⁵ 그녀의 말을 번역하면, 우리의 지위와 특권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던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분께 악의적으로 저항하든, 아니면 단순히 무심코 그분께 무관심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0 장을 읽고 감히 시바 여왕의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오래된 고전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여왕의 이야기를 본다. 고전 영화는 오락적 가치는 있지만 심각한 적실성은 없다. 그러나 이 여왕을 감히 깔보거나 매혹적인 문학적 암호로 보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녀가 심판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서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오늘날의 신자는 열왕기상 10 장에 드러나 있는 솔로몬의 화려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¹⁵ Ronald Kessler, *The Sins of the Father* (New York: Warner Books, 1996), 395.

2. 이것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가?
3. 스바 여왕의 말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증언이 되는가?
4.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증언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5. 예수님은 스바 여왕 그리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온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한 그림으로 사용하시는가?

11.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왕상 11 장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찰스 슐츠의 **땅콩**(Peanuts) 만화 중 하나에 루시와 라이너스가 함께 앉아 있을 때 루시가 이야기를 읽는 장면이 있다. 루시는 책을 읽어 내려간다. “그래서 왕은 그의 소원을 얻게 되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할 것이었다. 그 다음 날 ...” 이 시점에서 라이너스는 벌떡 일어나서 외친다. “그만!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 그는 걸어가며 “이런 일들은 항상 역효과를 내는 법이야!”라고 한탄한다.

이것이 열왕기상 1-11 장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이다. 솔로몬이 만지는 모든 것이 지혜, 건물,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왕상 11:1).” 이런 일들은 항상 역효과를 내는 법이다. 열왕기상 11 장은 소망이 고조되는 1-10 장 다음에 나오는 둔탁하게 쿵 하는 소리이다.¹

열왕기상 11 장은 43 절이나 되는 긴 장이지만,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 다루는 것보다 통째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강조점을 보기를 의도하고 있는가?

I.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마음 (왕상 11:1-13 The Heart that Yahweh Desires)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의 진상을 규명하기 전에 **범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자. 왕상 11:2 은 전에 여호와께서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논리(신 7:1-4; 출 34:11-16), 곧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언급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이 솔로몬의 노년에 일어났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왕상 11:4).”²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밀곰을 따랐다(왕상 11:5).” 그런 다음 솔로몬은 그의

¹ 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177-78 을 참고하라. 하우스(Paul R. House, *1, 2 Kings*,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5], 166)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솔로몬이 누리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에 대한] 열렬한 보고를 하는 왕상 10:14-29 에 이어서 나오는 왕상 11:1-13 은 문학적으로 얼굴에 타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도 참고하라.

² 신 17:17 에 의하면 왕은 비록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7 백 명의 후궁과 3 백 명의 첩을 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열왕기상 11 장에서 솔로몬의 범죄는 그의 아내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혼합적인 것이었다.

이교도 아내들을 위하여 아늑한 신전들을 지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모스와 몰렉 등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며 그들의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왕상 11:7-8).

이 점을 나는 자세히 설명해 왔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솔로몬의 풍요, 탐닉, 과잉, 사치, 착취, 억압 등에 관하여 간파한 것에 대해 너무 신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서 그러한 것들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10 장이 솔로몬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 열왕기상 11 장을 분명하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1 장은 부, 사치, 강압, 지혜, 인기, 명성, 화려함, 성취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신들이** 문제라고 선언한다. 그렇다. 문제는 일계명이다.

이제 우리는 **죄의 미묘함**을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은 그리도 미묘한가? 왜냐하면 그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락의 핵심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란 용어는 왕상 11:2-4 에서 다음과 같이 5 번이나 나온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왕상 11:2).”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왕상 11:3).”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왕상 11:4a).”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왕상 11:4b).”

그러나 성경은 현대 서구 문화가 단지 감성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³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을 그 일부로 포함하면서 더 광범위한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이 원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중심을 의미한다.⁴ 성경은 머리(혹은 두뇌 혹은 지성)와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는 마음에 있다. 이 본문이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곧 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말해준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여러분은 구약의 믿음이 얼마나 내적인 것인지 보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막 7:21-23) 그 모든 것의 근원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충을

³ 최근 한 영화의 절정 장면은 한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각각 그들의 머리(minds)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hearts)으로, 즉 생각(thinking)이 아니라 느낌(feeling)으로 결정하도록 호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⁴ Edmond Jacob,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Row, 1958), 163-66 그리고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89-91 을 보라.

매우 미묘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충은 사람의 숨겨진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밖에서 새로운 그모스 신전이 올라가는 것을 보기 훨씬 전에, 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이 불충은 또한 점진적이기 때문에 미묘하다. 왕상 11:4 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무서운 대목이 있다. 솔로몬이 이교도 에큐메니즘에 빠진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저항할 수 없는 공격이 아니었다. 아니, 수년이 걸렸다.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된 타협의 결과이고, 반복적인 허용으로 인해 둔감해진 양심의 산물이었다. 그 과정은 사람의 안경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안경을 지속적으로 또는 적어도 반복적으로 착용하고 자주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만지작거리거나 평소답지 않게 검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렌즈 주위에 안경테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미세한 나사가 약간 풀려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확인하다가 나사가 두어 바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렌즈가 그냥 튀어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안경테가 느슨하다는 것을 전혀 의식도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는 잠시라도 두려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라는 본문이 나이가 많은 신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마 6:13a)를 하도록 얼마나 크게 자극을 주는지! 이것은 청소년 사역에 집착하고 젊은 부부들 그리고/혹은 젊은 가족에 애정을 쏟는 교회들에게도 경고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60 대 이상의 청중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의 노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의 주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것이다.

이제 암시적이었던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보자. 그것은 솔로몬 **이야기의 비극**이다. 열왕기상 11 장은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에 비추어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보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왕상 11:1-2 에 나오는 사랑이란 용어에 주목하라.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11:1a) ... 솔로몬이 그들과⁵ 깊은 사랑에 빠졌다(11:2b).” 이것은 내레이터가 솔로몬의

⁵ 왕상 11:2b 에 나오는 “그들(they)”은 남성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행 명사 “그들의 신들”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남성 복수 대명사가 여러 나라 출신의 여인들을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자 주: 왕상 11:1 은 [아하브]를 써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loved”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왕상 11:2 은 [바헴 다바크 르아하바]를 써서 “clung to them in love, held fast to them in love,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았다,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우리말성경이 2 절을 1 절처럼 단순히 “사랑하다”라고 번역하거나 새번역이 “좋아하다”라고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3:3).”라고 한 논평을 생각나게 한다.

물론 왕상 11:1-2 의 “사랑”을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자료들은 거대한 하렘(왕상 11:3)이 솔로몬이 욕정에 흠뻑 빠져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결혼의 대부분은 다른 국가나 그룹과 맺은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본문은 솔로몬의 정치가 아니라 솔로몬의 애정에 관심이 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 많은 결혼이 정치적이었던 아니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본문의 명백한 주장을 본문에 대한 가능성 있는 배경 설명이 뒤집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이야기에 비극이 있다. 그 비극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왕상 3:3).”로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왕상 11:1).”로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가진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바짝 정신 차리도록 하는가! 나의 애정은 어디에 있는가? 수년 동안 감지할 수 없는 표류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로몬이 공적으로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왕상 11:4),”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왕상 11:6).” 분명히 그의 범죄는 그의 아내들을 위한 신전들을 건축한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왕상 11:5 은 적어도 솔로몬이 어느 정도는 이방 신전 의식에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사람이 일계명을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사람은 **여호와의 분노**를 사게 된다(왕상 11:9-13).

우리는 왕상 11:9-10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왕상 11:11-13 은 다음 부분에서 설명될 것이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왕상 11:9).”는 말씀을 읽을지라도, 성경 독자로써 우리는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해 선언하신 그분의 방침(신 6:14-15)을 따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분노는 자기 백성의 예배와 애정에서 차지하실 최고의 자리에 대한 질투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질투는 어떤 사랑이 배타적인 주장을 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그 사랑의 성격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주님의 분노에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의 표준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고대 근동의

번역한 것은 원문의 뉘앙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의 “연애하다”나 쉬운성경의 “사랑에 빠지다” 보다는 공동번역의 “깊은 사랑에 빠지다”가 2 절의 뉘앙스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신들과 여신들 사이에서 독특하시다. 어느 이교도 신이라도 자신의 숭배자들에게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성경의 여호와와 분노는 현대인을 괴롭힌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다원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시대와 사고방식에 맞으시지 않는다. (솔로몬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제의적 헌신을 널리 퍼뜨리거나, 다른 종교적 전통에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인간 영성을 조사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왜 유독 여호와께서만 그렇게 화내셔야 하는가? 우리 시대 사람들은 경쟁자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같으신 분과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갈릴리의 해안가에 앉아 불 너머로 응시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 점검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시는 성육신하신 여호와(요 21:15-17)와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⁶

II. 여호와께서 통제하시는 역사 (왕상 11:14-43 The History that Yahweh Controls)

우리는 이 본문 부분(왕상 11:14-40)이 너무 길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두 갈래(14-26 절 그리고 27-40 절)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 역사와 주권 (왕상 11:14-26 History and Sovereignty)

왕상 11:14-26 은 세 개의 핵심 구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주전 950 년경에 역사의 무대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⁶ 왕상 11:1-10 이 (암시에 의해) 전복시키는 가정들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때때로 사람들은 현 시대의 “영웅들”의 부재를 한탄하는 기독교 저자들의 책을 읽는다. 그들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모델이 아주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은 솔로몬이 훌륭한 모델, 곧 그의 아버지 다윗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왕상 11:4, 6). (이것은 다윗이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계명에 충실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막지 못했다. 이것은 **모범적** 오류를 드러낸다. 왕상 11:9 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일찍이 두 번(왕상 3:4-15; 9:1-9)이나 나타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추론에 유의하라. 하나님과의 가장 특권적이고 친밀한 경험조차도 불충으로부터의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험적** 오류를 악화시킨다. 왕상 11:10 은 여호와께서 이 다른 신들의 유혹에 대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언한다. 사회 정치 단체들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정보를 가지면 그것을 피할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가정하는가! [그들의 사고를 예를 들면 이렇다.] 만약 젊은이들이 그들의 뇌를 마약이 프라이팬에 있는 달걀처럼 튀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마약에 대해 그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녀에게 성경적 교리와 성경적 세계관을 주입시키기만 하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를 스승으로 가졌을지라도 타락했다. 이것은 **교육적** 오류를 드러낸다.

- (1)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왕상 11:14).
- (2)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왕상 11:23).
- (3)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왕상 11:26).

형식에 있어서 세 번째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다르지만,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또한 일으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신문들은 그런 식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문들은 여호와께서 사건 안에서 하신 역할을 말해주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과 관계들, 다양한 "요인들", 설명과 동기 등을 찾는다. 이것은 단지 뉴스 기자와 역사가들이 세속주의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연히 그들 중 대다수가 그렇기는 하지만,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어떤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자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확실한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들은 불투명하다. 어느 주어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다른 것이다. 성경 저자들은 "외부"에서 빛을 얻는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 곧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종류의 글을 읽는 데 너무 익숙해서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은 신문이나 역사책에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도 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열왕기상 11 장에서 성경 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것을 하셨고, 여기서도 하셨고, 여기서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닷, 르손, 여로보암은 역사적 동물원에 우연히 나타난 우발적인 방울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소, 그들의 시간, 그들의 영향은 여호와의 주권적 손가락의 움직임(손짓)에 의하여 일어났다. 우리는 예를 들어 히틀러, 스탈린,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별것 아닌 다른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정할 수 있다.

논의를 요구하는 다른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⁷ 우리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역사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그분은 항상 신실한 주권을 통해

⁷ 예를 들면, 첫째로, 분명히 하닷과 르손이 대적하게 된 뿌리는 다윗 시대(왕상 11: 15-17, 21, 24)에 시작되었지만 솔로몬 집권의 후반기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둘째로, 두 외부 적들 중 하나(에돔의 하닷)는 남쪽/남동쪽에 있었고, 다른 하나(다메섹의 르손)는 북동쪽에 있었다. 둘 모두 홍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내 말은 역사에서 여호와와 일하심은 그분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원리들, 즉 언약의 운영 방침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어떤 언약의 운영 방침인가? 열왕기상 11 장의 경우 다윗 언약의 운영 방침이고 적용될 부분은 삼하 7:14, 곧 “만일 그[언약 왕이 된 다윗의 모든 후예]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는 운영 방침이다.⁸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솔로몬이 불충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분이 이전에 선언하셨던 조치를 그대로 취하고 계신다. 솔로몬의 경우에 매와 채찍은 하닷, 르손, 여로보암을 통해 나왔다. 열왕기상 11 장은 여호와께서 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다윗 언약의 원리들을 신실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을 간단히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와는 참으로 한결같으시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한때 미국 하원에 있던 메인 주의 넬슨 딥리는 보호 무역의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관세 법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해외에서 구매함으로써 관습법의 엄격함을 회피한 미국인들을 비난했다. 그가 계속 떠드는 동안, 캔자스의 제리 심슨은 재빨리 딥리의 책상 밑으로 다가가 딥리의 실크 모자를 꺼내 들고서 모든 사람이 “Made in London(런던 산)”이란 라벨을 보게 하였다.⁹ 뚜렷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본문에서

각각 오가는 카라반(대상) 경로에 대한 솔로몬의 통제에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14 을 참조하라. 셋째로, 하닷이 요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가서 특히 바로의 궁정에서 호의를 얻고 잘 어울린 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메릴(Eugene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99)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유의하라.

어린 하닷과 그의 보호자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마침내 애굽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아마도 바로 아메네모페(주전 993-978) 아래 성역을 찾았을 것이다. 하닷은 시아문의 통치 때에 결혼 적령기가 되어 아마도 시아문의 처제와 결혼했을 것이다(왕상 11:19). 이것이 맞다면, 시아문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고, 자기 처제를 솔로몬의 원수에게 준 아이러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저자는 정치적 동맹의 무익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가 본디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는 솔로몬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딸을 주고(왕상 3:1), 그런 다음 솔로몬의 적을 과잉 보호해 주며 그와도 인척 관계를 맺는다. 그런 교활한 사람들과 정치적 흥정을 애써 할 필요가 있는가?

⁸ 매우 중요한 이 단락의 논의를 위해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77-80[= 사무엘하 주해, 74-78(8 장 IV. 여호와와의 항상성)]을 보라.

⁹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202.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가 보통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의 심판에서 신실하시고, 자신의 정벌에서 신실하시고, 자신의 분노와 질투와 엄중에서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모든 것, 곧 (사람들이 무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든)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 찬양 받으실 만하지 않은가?

ii. 역사와 예언 (왕상 27-40 History and Prophecy)

여로보암은 그의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정력적인 일꾼이자 타고난 지도자였던 것 같다(왕상 11:27-28).¹⁰ 어쩌면 그가 주말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때 실로에서 온 선지자 아히야가 그와 마주쳤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재촉하였다. 선지자들은 기이한 인물일 수 있다. 여로보암이 특이한 것을 기대하였을지라도 그를 실망시킬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다.¹¹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게 되자마자 그는 자기 새 옷을 찢어서 조각들로 나누고 있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조각들을 세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분명 그가 찢어 만든 조각들의 수는 중요했다. 아히야는 열두 번째 조각에서 멈추더니 그 조각들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며 통명스럽게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고 명령한다. 이제 여로보암이 셀 차례이다(왕상 11:30-31a). 그가 열 조각을 취했을 때 아히야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왕상 11:31).”

여기서 우리는 예언의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접한다. 첫 번째 특징은 **돌발성**이다. 아히야는 불쑥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다(왕상 11:29). 어디선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저자는 그를 실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냥 나타난다. 우리는 전에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아내가 누구인지, 자녀는 몇이나 되는지, 취미는

¹⁰ 왕상 11:28 에서 여로보암은 [기보르 하일]로 불린다. 이것은 NKJV 에서처럼 전통적으로 “a mighty man of valor”라고 번역된다. 여기서 그것은 그가 유달리 능력이 있거나 근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Robin Wakely, NIDOTTE, 1:810-11 을 보고 2:119-20 도 참조하라. [역자 주: 개역개정은 “큰 용사”로, 새번역은 “능력이 있는 용사”로, 공동번역은 “힘센 장사”로, 쉬운성경은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말 성경은 “뛰어난 용사”로, 현대어성경은 “유난히 힘이 세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

¹¹ 나는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가정한다. 내 의견으로는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왕상 11:29-30 은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엘리슨(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18)은 여로보암의 옷이 망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무언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전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특징은 **행동**(왕상 11:29b-30)이다. 예언의 말씀은 언어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이다. 행동은 말씀이 선언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구체화하는 말을 수반한다.¹² 세 번째 특징으로, 그런 다음 **해석**이 있다(왕상 11:31b). 그렇지 않으면 행동은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아히야가 그의 가시적인 행동과 함께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섬유 산업이 파멸로 치닫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아히야는 여로보암 부인이 자기 아내에게 누비 이불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그러므로 찢어질 왕국에 대한 이 설명적인 말은 예언적 행동이 혼란스럽게 하는 제스처 놀이가 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역사와 예언이다. 여기서 아히야는 여호와와의 계획 아래서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미리 선언한다.¹³ 사실, 예언은 (바로 앞에 있는 소제목에서 언급한) 주권 안에서 작용한다. 예언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주권이 역사의 어느 부분에서 취할 길을 나타내신다. 이제 그분은 왕국을 찢으실¹⁴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자면,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히야의 예언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리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아차린 것처럼 보이는 사실로 인해 고민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가 반역하도록 부추겼다.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을 들은 후 아무 짓도 없었다면, 솔로몬이 굳이 그를 처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겠는가(왕상 11:40)? (아히야가 “찢는 일”이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 때에 가서야 일어날

¹² 이것에 대한 더 많은 예들을 위해서 Alec Motyer, *Look to the Rock* (Leicester: Inter-Varsity, 1996), 103-106 을 보라.

¹³ 우리는 성경 예언의 예측적 요소가 평가 절하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선지자들에 대한 서론적 강의들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일차적으로 예언자(foreteller)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선포자(forthteller)였다는 것을 자주 강조한다. 어쩌면 이것은 종말론적 괴짜들을 격려하는 것에 대한 심한 공포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괴짜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포 때문에 예언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가 있는가? 성경의 예언은 일차적으로 살짝 스치는 정도의 예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사야 40-48 장과 함께 오후(한나절)를 보내야 할 것이다.

¹⁴ 우리는 왕상 11:11-13, 30-31 에 나오는 “찢다”는 의미의 [카라] 동사를 읽을 때 그것이 삼상 15:27-28 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역자 주] 개역개정판은 왕상 11:11-13 의 경우 [카라]를 “빼앗다”로 번역하고 왕상 11:30-31 의 경우 “찢다”와 “찢어 빼앗다”로 번역하므로 다섯 개의 절에 같은 동사가 사용된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구실 삼아 왕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삼하 24, 26 장 참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왕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뉴스 거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섬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요점은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상 11 장에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참되다는 것이다. 그렇다. 역사는 여호와와 통제 아래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교 신앙은 신들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린다. 신들이 인류에게 홍수를 일으키자마자

(심지어) 신들도 홍수를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도망하여 아누의 하늘로 올라갔다.

신들은 개처럼 겁을 먹고 괴로워서 웅크렸다.

이스타르는 산기(産氣)가 있는 여자처럼 외쳤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신들의 숙녀는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사실, 옛날은 진흙으로 변했다.

내가 신들의 모임에서 악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신들의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내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전쟁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들) 내 백성을 낳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¹⁵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이스타르와 그녀의 패거리들은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쳐) 폭주하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난 후 놀라는 침대와 비슷하다. 여호와는 그와 같지 않다. 틀림없이 열왕기상 11 장은 슬프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나라가 지상에서 성공의 정점에 막 이르렀을 때 그것을 찢으려고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심한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 하닷과 르손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격분한다. 그분은 여호보암이 10 개의 옷 조각을 움켜 쥐고 아히야에게서 멀어지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찢고 계실 때조차도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¹⁵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Chicago: Phoenix Books, 1965), 85.

III. 여호와께서 지탱하시는 소망 (왕상 11: 11-13, 31-39 The Hope that Yahweh Sustains)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파괴하시고 있는 것을 보존하실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우리가 찢길 왕국에 대한 아히야의 예언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 선언된 그분의 심판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이란 의도적인 강한 단어로 묶여 있는 그 확실한 약속(삼하 7:12-16)을 부정하는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왕상 11:11-13)과 여로보암(왕상 11:31-29)에 대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포함하신 분명한 수식 어구들에 근거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한다.

분명히 그 원칙은 여호와와 심판은 여호와와 약속을 무효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분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것에 두 가지 제한을 두셨다. 그 심판은 지금은 아니었고(왕상 11:12) 또한 전부는 아니었다(왕상 11:13).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이 동일한 제한 사항을 강조하였다(왕상 11:32, 34, 36). 그 심판은 시간에 있어서 지연되어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일어날 것이고, 범위에 있어서 제한되어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를 갖게 될 것이다.¹⁶ 왜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약속하셨고 이전에 선택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다윗, 왕상 11:34)과 선택하신 장소(예루살렘, 왕상 11:32, 36)를 갖고 계셨다. 언약의 왕과 언약의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이러한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왕상 11:35, 37-38).¹⁷ 왕상 11:39 에 나오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¹⁶ 열왕기상 11 장의 10+1 = 12 라는 암시적인 수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혹스럽다. “한 지파(왕상 11:13, 32, 36)”는 유다로 추정되지만(참조, 왕상 12:20-21, 23) 베냐민을 그 한 지파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08 에 언급된 시므온을 그 한 지파로 고려하는 레온 우드의 입장도 참고하라. [역자 주: Patterson 과 Austel(*REBC*, 3:731)의 설명을 좀 더 소개하면 이렇다. 왕상 12:21 의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라는 어구에서 유다와 달리 베냐민에 “온 족속”이 없는 것은 베냐민의 충성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벤엘, 라마, 여리고 등 베냐민 지파의 북부가 북왕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우드의 제안과 일치한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왕국이 분열되기 전 언젠가 북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 대하 15:9 과 34:6 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으로 나란히 나오는 것은 시므온이 북왕국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된 것을 암시한다. Wiseman(*1 & 2 Kings*, 136)은 솔로몬에게 나라의 분열이 예언될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로 합쳐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왕국 분열이란 심판이 선언될 당시 시므온은 북쪽 10 지파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베냐민은 온전한 한 지파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 같다.]

¹⁷ 나는 여호와께서 왕상 11:38 에서 “겔치레의” 제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은 여로보암에게 그가 충성하면 “영원히, אָדָם-עוֹלָם [아드-올람] (삼하 7:13, 16)”는 아니지만 “견고한 왕조,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다윗 계보의 온전한 회복을 암시적으로 시사한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약속은 가려질 수는 있지만 제거되지는 않는다. 왕상 11:39 은 간단명료하게 고난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¹⁸ 희망의 광선이 심판의 구름 뒤에서 번뜩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틀림없이 이 희망의 광선이 남은 신자들을 어떻게 지탱해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대학 시절에 (나중에 아내가 된) 젊은 여성과 데이트했던 기억이 난다. 비교적 관계가 심각했던 3 학년 때, 우리는 약간의 의견 충돌로 입씨름이 있었고 헤어졌다. 그 학기가 흘러 크리스마스 휴가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독일 클럽이 인도하는 특별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모든 장식을 볼 수 있었다. 마침 바바라가 독일 클럽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두세 부분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배정된 자리에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나치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헤어졌었다. 독어 성명인지 영어 성명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바바라가 그것을 발표한 후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바로 그 무렵에 그녀는 청중 속에서 나를 쳐다보았다. 아주 잠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모습을 기억한다. 내 친구가 우연히 이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는 나를 위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었다. 마치 그녀가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본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1 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이다! 아주 흐트러진 관계에서 온갖 종류의 희망을 말해주는 눈길이 그냥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암시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자들에게 가져다주었어야 하는 일종의 효과이다. “내가 괴롭게 할 것이나 ...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왕상 11:39).” 여러분은 여호와의 확약이 그분의 채찍질의 구덩이에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지를 보는가? 황금 시대에 살다가 분열 왕국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재미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뜻으로 견딜 수 있다.

בַּיִתְנוֹ [바이트 네에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모델로 다윗을 들고 있는 것(“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에 유의하라. 그가 다윗과 같은 은택을 누리고 싶으면 그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다.

¹⁸ 역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지만(삼하 7:12-13, 16),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부정하지 않으시며 그의 위협에도 신실하시다(삼하 7:14). 그러므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끈질긴 은혜이다(삼하 7:15).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성경이 사용하는(말하는) 마음과 머리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독립적인가?
2.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게 한 것은 무엇인가?
3. 현대인이 솔로몬에 대한 그분의 대항 방식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여호와께서 하닷과 르손과 여보보암을 일으키시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가?
5.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국을 찢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보장하셨는가?

제 2 부

분열왕국

(THE TORN KINGDOM)

12. 왕국의 오물 (왕상 12:1-24 Kingdom Crud)

지난 여름 우리 가족 중 몇 명이 다코타주들을 여행했다. 그곳에서 나는 천연두가 한때 만단 인디언들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에 대한 관광객 안내문을 보았다. 1837 년에 세인트 피터스 보트를 탄 백인 상인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보트가 클락 요새에 정박하고 있던 동안, 한 추장이 감염된 갑판원으로부터 담요를 훔쳤다. 장교들은 새 담요를 제공하며 그 담요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추장은 거절했다. 그는 그의 "담요"를 고집했다. 약 3 일 만에 만단인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갈 때까지 사태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살을 선호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한때 1,700 명이었던 한 부족에서 살아남는 만단인은 30 명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담요가 도난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열왕기상 12 장의 상황은 그와 같다. 정치적 토론과 기자 회견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보였던 것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옹고집이 왕국을 분열시켰다. 우리는 르호보암이 세겜 집회를 대체로 형식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보았을 때 위기를 인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첫 번째 반란의 물결 이후에도 그는 아도람을 보냈고 아도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왕상 12:18). 우리는 르호보암이 정말로 사태의 진상에 대해 귀땀을 받았더라면 르호보암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내러티브는 이해하기 쉽다. 두 개의 주요 부분(왕상 12:1-15 과 왕상 12:16-24)이 있으며, 각 부분은 동일한 신학적 논평을 갖고 있는 절(왕상 12:15, 24)로 끝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집회(왕상 12:1-15)

왕에게 호소, 1-5 절

자문 위원들과의 상의, 6-11 절

백성에게 선언, 12-14 절

사건에 대한 설명, 15 절

여파(왕상 12:16-24)

반란, 16-20 절

제지, 21-24 절

I.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어리석음 (왕상 12:1-15 Stupidity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이다. 북쪽 지파들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이전 정권의 가혹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어야만 하는 양보를 조건 삼아 그의 왕권을 시인하겠다고 한다. 솔로몬의 조치가 너무 가혹했다는 것이다(왕상 12:4).¹ 르호보암은 자문위원들과 상의할 시간을 원하고, 삼 일 후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한다(왕상 12:5, 12).

이중 자문(왕상 12:6-11)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다. 르호보암의 질문과 노인들의 충고를 연결하는 데는 두 절만 있으면 된다(왕상 12:6-7). 그들은 “오늘(왕상 12:7a)” 조금 자제하면 “영원히(직역: 모든 날 동안, 왕상 12:7b)” 반체제 인사들의 충성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요컨대, 양보는 불만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즉시 뉴스 기자의 특종을 여러분에게 준다.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왕상 12:8a).” 그러므로 여러분은 르호보암의 머리가 어디에 있고, 그의 입이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은연중에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너희는 무엇을 조언하여 우리가[1 인칭 복수]

¹ 일부 구약 역사가들은 왕상 12:4 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한다. 여기 북쪽 지파들의 말을 복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파생하는 것은 솔로몬의 정권이 매우 강압적이었다는 결론이다! 근원을 고려해 보기 위해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왕상 12:4 이 반드시 내레이터의 견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견해이다. 이미 반란의 소동이 있었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왕상 11:40). 이제 그들은 르호보암 편에서의 변화를 강요한다. 그들은 이런 탄원을 하기 위해 그럴듯한 불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이미 그들이 기울고 있는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예리해야 한다. 왕상 12:4 은 적어도 역사적 진실만큼이나 정치적인 선전이다.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상 4-5 장과 9-10 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를 검토할 때 솔로몬의 모든 성공 밑에 숨어 있는 억압과 탄압을 찾아내며 매우 의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겜에 이르러서는 왕상 12:4 의 정서를 마치 당연히 잡물이 섞이지 않은 진리인 것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다. 르호보암의 답변(왕상 12:14)이 솔로몬의 엄중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논증을 위해 언급하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요컨대, 이 문제에는 더 많은 균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후광 없이 세겜에 이르렀다.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하겠느냐(왕상 12:9)?”² 왕이 사용한 “우리”는 그가 누구와 동일시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젊은 친구들은 협박만큼 인상적인 것이 없고 위협만큼 길들이는 데 좋은 것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내 작은 것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왕상 12:10b).”라는 한 줄의 사용하기 좋은 기억할 만한 말을 주었다.³ 누구든지 당황하게 했을 것을 대비하여 그들은 부연 설명을 제공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로 너희를 징계하리라(왕상 12:11).”⁴ 그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한 치의 양보를 할 때가 아니라 왕의 위엄을 부과할 때였다. 그들은 제임스 1 세가 그의 아들에 준

² [역자 주]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하는 질문인 왕상 12:6(וְהָיָה לְהָשִׁיב אֶת־הָעָם־הַזֶּה דְּבָרִי)과 왕상 12:9(וְהָיָה לְהָשִׁיב אֶת־הָעָם־הַזֶּה דְּבָרִי)은 조금 다르다. 노인들의 경우에 [르하시브]란 부정사를 사용하고 젊은이들의 경우 [브나시브]란 1 인칭 복수 동사를 사용한다. 후자에서 르호보암은 자신을 젊은이들과 동일시하는 “우리”를 쓴다. ESV 는 각각 “How do you advise [me 원문에는 없으나 의미상 주어를 넣어 번역함] to answer this people?”와 “What do you advise that **we** answer this people?”로 번역한다. 개역개정판은 대답하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각각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와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로 번역한다. 왕상 12:9 의 경우 “우리”를 넣어 번역한 한글 성경은 없다. 개역개정판과 공동번역과 우리말성경은 주어 없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처럼 번역했고, 새번역과 쉬운성경과 현대어성경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를 주어로 하여 “내가 뭐라고/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처럼 번역했다.

³ 대부분의 번역은 “작은 것”을 작은 손가락[한글 성경: 새끼 손가락]으로 이해한다. 물론 그것은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러나 어떤 해석자들은 몸의 중간을 가리키는 “허리/요부”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면서 “작은 것”이 음경을 가리키는 의미였다고 제안한다.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07 그리고 NIDOTTE, 3:911 을 참고하라. 우리는 젊은 층이 그런 거친 답변을 지어내는 것을 즐거워했을 것임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⁴ 패터슨과 오스텔(Patterson and Austel, “1,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16)은 여기 “전갈”이 “여러 갈래의 꼬리에 가시나 갈고리가 붙어 있는 채찍”을 가리키며 이것으로 채찍질 당하는 희생자는 전갈이 찌르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역자 주: 영어성경의 “whips 대 scorpions”처럼 개역과 우리말성경은 “채찍 대 전갈”로 번역했으나, 개역개정판은 “가죽 채찍 대 전갈 채찍”으로,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현대어성경은 “가죽 채찍 대 쇠 채찍”으로, 쉬운 성경은 “가죽 채찍 대 가시 돋친 채찍”으로 번역했다.]

가르침, 곧 하나님께서 그 어린 왕자를 “자신의 보좌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작은 하나님”으로⁵ 삼으셨다는 가르침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역사이다(모두가 다 안다). 저자는 왕상 12:16 까지 백성이 한 일을 말해주지 않지만, 여러분은 왕상 12:13-14 에 나오는 왕의 무모하고 고압적인 선언을 듣자마자 접착제가 왕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본문을 도덕화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더 현명하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잠언에서 증거 본문들을 모을 수 있다. 아니면, 좀 지나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동료 압박의 위험”에 대하여 다루며 청소년들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문 자체가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왕상 12:15 에서 저자는 여러분에게 이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렌즈를 다음과 같이 준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본문의 초점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저자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니면 노인들이 얼마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탄하지 말라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날 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부엌에 들어가서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는 얼룩말을 봤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부엌,” “접시,” 혹은 “싱크대”를 강조할 것인가? 그게 정말 적절한 것인가? “얼룩말”(흑백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이 두드러지지 않는가? 강조점이 그 이상한 요리 도우미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성경 이야기가 그렇다. 저자가 심지어 “여기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여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의** 강조점에 일차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왕상 12:15 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이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서 염두에 두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란 절에 주목하라. 이 본문은 왕상 11:31-39 에 나오는 아히야의 예언, 곧 무엇보다도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언급한다. 본문은

⁵ J. D. Douglas, *Light in the North* (Grand Rapids: Eerdmans, 1964), 17.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날 세겜에서 있었던 일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럼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셨는가?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상황(circumstance)”이었다. “둘러싸다”는 의미의 어근 [싸바브]는 자주 사용되지만, 이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씨바]는 여기 왕상 12:15 에서만 나오고 병행 본문인 대하 10:15 에서는 [느씨바]로 나온다.⁶ 영어 성경들은 자주 그것을 “사태, 사건의 전환(turn of affairs)”으로 번역한다. 좋은 번역이다.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의 반전(twist from Yahweh)”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용어는 여호와의 주권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미묘한 점을 시사한다. 여기에 기계적인 것은 없다. 여호와의 주권은 르호보암의 자유로운 결정과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유를 통해 이루어졌다.⁷ 주권은 매우 ... 자연스러워 보인다. 여기 르호보암이 있다. 그의 아버지의 고문들의 온건하고 화해적인 태도가 불만족스러웠지만, 그의 동료들이 말을 지어내자 그의 피가 솟구친다. 그는 그들이 던지는 개념, 그들이 띄우는 새로운 용어, 즉 단호한 지도력, 힘의 통치, 최후 통첩을 좋아한다.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그들이 가야하는 길이었다.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반전이었다.

왕상 12:15 절을 통해 여과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양 무리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어야 한다. 왕국의 분열은 슬픈 일인가? 그렇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고,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고 있다. 르호보암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건방지며 멍청한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상 12:15 은 인간의 오만이 결코 여호와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큰 사람들(특히 왕실의 오만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종에 불과하다. 우리의 두려움과는 달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느슨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끈에 묶여 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온전한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⁶ 역자 주: BDB 685-686, **בָּבַב**[싸바브] “turn about, go around, surround” > **בִּבְבָּ**[씨바] 혹은 **נִבְבָּ**[느씨바] “turn of affairs”

⁷ 참고로, 월러스(R. S.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80)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미 걱정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II.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는 비극 (왕상 12:16-20 Tragedy in view of the Promise of God)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었다. 어쩌면 “어리석음”은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첫째로, 그는 무모하고 오만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뱉는다(왕상 12:1-15, 특히 8 절과 13 절). 둘째로, 여전히 왕의 멍청함에 빠져서, 르호보암은 아도람을 북쪽 지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왕이 “자기 말(참조, 왕상 12:14)대로 실행할” 뜻을 갖고 (일부) 북쪽 신하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⁸ 아무도 르호보암을 난폭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도람은 험악하고 치명적인 대접을 받았다(왕상 12:18b). 셋째로,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유다로 도망하여 돌아온 후(왕상 12:18c),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군대를 모았다(왕상 12:21). 선지자 스마야는 이 계획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왕상 12:22-24).

어리석음이 주권 아래 있을지라도(왕상 12:15), 그것은 여전히 슬프다. 왕상 12:16-20 은 그 슬픔을 강조한다. 다윗이 4 번 언급되는 것에 유의하라. 반역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왕상 12:16a)?”라는⁹ 수사 의문문을 던지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왕상 12:16b)”는 반항적인 충고를 한다. 내레이터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왕상 12:19)”고 요약하고, 우리에게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다윗”과 “다윗의 집”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증하신 다윗 언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7 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개역개정)¹⁰

⁸ 와이즈만(Donald Wiseman, *1 &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142)은 아도람의 임무가 외교적인 노력이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가혹함을 능가하겠다는 자신의 말(왕상 12:13-14)을 지키려는 시도였다는 프로반(Provan, *1 and 2 Kings*, 107)의 주장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는 자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처럼 대하려고 했다(참조, 왕상 9:20-22). 그래서 아도람이 “역꾼의 감독”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설명이 있다(왕상 12:18).

⁹ 생생한 NLT 의 “Down with David and his dynasty! 다윗과 그의 왕조를 타도하라!”는 번역을 참조하라.

¹⁰ 저자가 인용한 TEV 의 삼하 7:16 은 이렇다.

You will always have descendants,
and I will make your kingdom last forever.

다윗 언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변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더 큰 (메시아적) 다윗의 확실한 도래(호 3:5; 겔 34:23-24)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다윗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웅대한가!

좋은 소식은 르호보암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르호보암이 그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없지만 탈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르호보암 아래서 다윗 언약이 모범으로 예시되는 것을 보는 대신 그것이 퇴색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것이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발견한다.

맥아더 장군의 군사 참모인 보너 펠러스 대령은 1945 년 일본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냉철한 설명을 남겼다. 히로히토 천황과 스즈키 총리는 1945 년 초에 일본의 항복 준비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천황은 군국주의자들이 모든 통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통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소련 정부를 통해 연합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소련은 이 문제에 이상하게도 냉정하였고,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일본은 줄곧 시들해 가고 있었다. 도쿄에 대한 B-29 의 공격으로 185,000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그런 다음 8 월 6 일과 9 일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다. 그러자 이상하게 침묵하던 소련이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펠러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 사실들은

명백히 소련이 일본이 항복하기 전 6 개월 동안 연합국과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제의를 번번이 묵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은 동양에서 영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기로 결심했고, 따라서 러시아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전쟁에 참여하기로 계획했다.¹¹

그 당시 일본의 패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의 항복은 와야만 할 것이었다. 천황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 슬픈 그림자를 드리우는 역사의 “만약 -했더라면”이 또 하나 있다. 만약 천황이 직접 통신하여 더 일찍 항복할 수 있었다면, 그 무시무시한 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다. 그는 결코 다윗에 대한 여호와와의 계획을 해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 중 어느

Your dynasty will never end.

다윗 언약에 관하여는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69-89[= 사무엘하 주해, 67-88(8 장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9 장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앉고 서라)]에 나오는 강해를 참고하라.

¹¹ Bonner Fellers, *Secrets and Spies: Behind-the-Scenes Stories of World War II*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Assoc., 1964), 556.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 광택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슬프다.

III. 여호와와 말씀 앞에서의 겸손 (왕상 12:21-24 Humility before the Word of God)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자동반사적으로 움직이며 계획을 다시 세우고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다(왕상 12:21).” 그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말과 계획을 멈추게 한다. 스마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여기 여호와와 말씀이 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¹² 것이기 때문이다. (왕상 12:24a)

나는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다소 놀랍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왕상 12:24b).” 이것은 열왕기상 12 장 전체에서 르호보암의 첫 번째 현명한 처사였다.

우리는 여기서 신의 주도권을 고백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르호보암의 더 이상의 어리석음을 끊으신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발자취이다.¹³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르호보암과 유다가 지혜를 얻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었다. 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여호와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에 너무 익숙해서 이 작은 알림이 나를 다소 놀라게 한다. 여하튼 여기서 그들은 복종한다. 여호와와 모든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래서 왕과 군대는 싸움을 포기한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옳다. 미국 대통령직에 (세 번 도전하여) 세 번 다 실패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명백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의 동료가 개인 클럽에 들어가려고 세 번 시도했으나 매번 거절당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세 번째 시도를 마치고 거리 위에 내렸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의 먼지를 털어내며 반성하듯이 “그들은 나를 속일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¹⁴

¹² 볼드체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강조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¹³ 나에게 이 점을 강조해 준 나의 학생 제임스 하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¹⁴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Campaigns* (New York: Oxford, 1985), 190.

어쩌면 그것은 왕상 12:21-14 이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주는 권고의 적절한 요점이 아닐까? 우리가 엉망진창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거나 여호와께서 부과하신 고된 섭리라고 체념하는 때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적어도 서양에서는 현대 남성과 여성에게 반가운 말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모든 것을 “고칠” 어떤 방법, 곧 모든 딜레마에 대한 반창고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 많고 사려 깊은 신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선택, 어리석음, 무모함 또는 완고함이 그들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네트워크에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삶은 메울 수 없는 갈라진 틈이나 고칠 수 없어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허락하는 대로 그 왕국에서 계속 사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나약함인가, 아니면 마침내 지혜인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르호보암의 결정은 여호와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2. 저자는 우리에게 르호보암의 결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해주는가?
3. 르호보암에 의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4. 왜 르호보암은 다윗 언약을 말소시킬 수 없는가?
5. 르호보암은 마침내 어떻게 지혜를 보여주는가?

13. 사이비 종교 (왕상 12:25-33 Bootleg Religion)

1920 년대 미국에서는 주류의 제조, 운송, 판매를 금지하였다. 이것은 금지 시대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토지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밀주업자들은 비밀리에 밀주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그래서 밀주, 곧 자신의 집에서 만든 약주를 생산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종교와 관련하여 한 일이다. 그는 자신의 사이비/해적판 종교를 만든다.

아, 그런데, 상당수의 구약 학자들은 그것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가짜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예배 의식에 대한 쇄신을 옹호하는 성 여로보암으로 자주 칭찬받는다.¹ 더욱이, 우리는 이 본문이 여로보암과 북 왕국의 종교를 가장 끔찍한 어조로 묘사하고 싶어했던 유다 사람들(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남 왕국의 사람들)에 의해 작성/편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은 진정한 진실을 얻기 위해 본문을 재구성해야 한다. 단순히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순진하고 잘못된 인상을 받게 된다.² 여러분은 또한 여로보암의 송아지들(왕상 12:28 에 나오는 단어는 남성이므로 수 송아지들)이 다른 신이나 심지어 여호와도 상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근동의 도상학은 때때로 황소 뒤에 서있는 신을 묘사한다. 그러나 히브리 종교에서 여호와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단순히 송아지(아니면 굳이 말해 비어 있는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여호와를 위한 발판이었고 아무도 언약궤를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위한 받침대로만 의도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의 송아지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구약의 역사와 핸드북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성우(聖牛: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관례)가 되었다.

나는 이 재구성된 여로보암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송아지로 시작해보자. 근동의 도상학은 이중 증거를 갖고 있다. 그것은 때때로 황소를 그 자체로 신의 상징이요 예배의 대상으로

¹ 내가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259-61 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개혁" 부분을 보라.

²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256-59 의 논평을 분석하라.

묘사하기도 하고, 때때로 신에 대한 받침대로 묘사하기도 한다.³ 여로보암의 경우 우리는 후자의 입장, 곧 받침대 이론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작해보거나 시험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교도의 신들이 황소의 등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만약 그 패러다임이 여로보암의 송아지들에게 적용되어 그것들이 볼 수 없는 여호와를 위한 받침대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벤엘의 송아지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도록 의도되었는지 아니면 단지 많은 송아지들을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이론은 너무 안전해서 의심스럽다.

그리고 본문이라고 불리는 것의 증언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복수형 동사!] 너희의 신들이라(왕상 12:28)”고 말하는 여로보암의 예배로의 부름을 듣든지, 아니면 “벤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왕상 12:32)”라고 하는 내레이터의 말을 읽든지, 우리는 이 송아지들이 하나님을 위한 단순한 받침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선지자 아히야도 받침대를 보지 못했다. 그는 여로보암에 대한 여호와의 비난을 왕상 14:9 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other gods* 데이비스 저자의 강조]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me* 히브리어 본문의 강조]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내가 보기에는 이 신들은 여호와보다는 가나안의 풍요 의식과 더 많은 연관이 있었다(왕상 14:15 의 “아세림[복수, 아세라

³ 예를 들어, Amihai Mazar, ‘The “Bull Site” – An Iron Age I Open Cult Plac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47 (1982): 30-32 을 보라.

상들]”에 주목하라).⁴ 따라서 나는 여로보암이 왕상 12:25-33 에서 이스라엘에 거짓된 종교를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⁵ 계속해서 본문의 증거를 더 살펴보자.

I. 보안: 거짓 종교의 필요성 (왕상 12:25-27 Security: The Need for False Religion)

보안에 대한 여로보암의 열정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가 방어 목적으로 세겜과 브누엘을 개조한(왕상 12:25 의 “건축하다”는 “재건축하다” 혹은 “정비하다”는 의미로 보임) 것은 현명한 처사이었을 것이다. 압복강과 요단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요새화된 브누엘은 여로보암의 왕국을 동쪽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할 때 곤경에 빠졌다. 본문은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왕상 12:26). 모든 것이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에 달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 행위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11 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⁴ 이 문제에 대한 Iain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11-12 에 나오는 탁월한 설명을 보라. 또한 John N. Oswalt, ‘The Golden Calves and the Egyptian Concept of Deity,’ *The Evangelical Quarterly* 45/1 (1973): 13-20 도 참고하라. 호세아(주전 740 년경)는 송아지들을 제의의 보조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호 8:6).”고 주장했겠는가? 호 8:5-6 에 대해서는 Duane A. Garrett, *Hosea, Joel*, New American Commentary (n.p.: Broadman & Holman, 1997), 182-84 을 보라. 여로보암의 의도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혼합주의이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송아지 숭배를 통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즉 일계명 위반이 아니라 이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방법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제 2 계명 위반)은 필연적으로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제 1 계명 위반)으로 이어진다. 아히야를 통한 말씀(왕상 14:9)은 그것을 “강화된 여호와주의”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⁵ 나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본문의 증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좋지 않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학문적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관점이 극도로 반 여로보암적인 편견을 지닌 후기 유대 편집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본문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충실한 불가지론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증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로보암의 숭배에 대해 정확한 어떤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본문의 신빙성을 부인하면서도 여로보암에 대한 성형 수술을 진행해 나간다. 본문이 믿을 수 없다면, 그들은 본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시 작성된 본문에 근거한 재구성 작업을 진행해 간다. 이것은 나쁜 역사와 왜곡된 신학을 낳는다.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왕상 11:2, 3, 4, 9)고 하는 마음에 대한 커다란 문제를 접한 후에 열왕기상 12 장에서 또 여로보암의 “마음”에 대한 언급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말한다. 그리고 두 개의 절도 지나지 않아서 종교가 우둔해진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거짓 종교가 시작되는지 볼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영원한 우상 공장이다.”라고⁶ 말한 칼빈이 옳았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할 필요 없이, 그러한 내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구약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통 신앙이었다. 그의 마음 속 혼잣말을 들어보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왕상 12:26-27)

그의 문제는 정통 신앙이 무미건조하거나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정통 신앙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분명히 그것은 (르호보암이 현재 대표, 곧 왕으로 있는 “다윗의 집”인)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집”인)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신앙은 한 왕적 인물과 한 속죄 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⁷ 여호와께서는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약속하셨다(왕상 11:31, 35, 37-38). 그러나 그 말씀, 그 약속이 여로보암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와의 약속보다 더 안전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여로보암은 정통 신앙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의 생각을 알게 된다. 그는 “그의” 왕국을 붙잡아야 하며, 그것에 대한 여호와와의 말씀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⁶ Calvin, *Institutes*, 1.11.8.

⁷ 우리는 이 인물-장소 구조를 올바르게 추적하여 신약의 정통 신앙에까지 이른다. 다윗 왕조는 그 악한 르호보암의 최고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그러므로 기독교는 정통 신앙의 핵심에 있음)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와의 성전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십자가에서 그것의 성취에 이른다. 정통 신앙은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는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거짓된 종교가 항상 왜곡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다.

그것이 여기서 거짓 종교에 대한 자극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종교를 이용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위, 곧 그의 지위였다.

물론 정치인들은 종교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한, 특히 종교를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⁸ 그러나 나는 여로보암만이 홀로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한다. 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종교를 이용할 권위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그의 죄, 곧 보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죄를 공유한다. 자주 나는 믿음의 아님 논리로, 헌신이 아님 계산으로 살아가며 여로보암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

II. 호소: 거짓 종교의 미묘함 (왕상 12:28-30 Appeal: The Subtlety of False Religion)

여로보암은 전략실에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왕상 12:28)”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 물론, 새로운 정책과 함께 사용할 새로운 인공물(송아지 우상들)이 있었지만, 아래에 논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많은 역본들이 여로보암의 발표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무 번거로운/어려운/큰 일이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여로보암이 편리함에 호소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연관된 것들, 모든 거리와 모든 비용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교를 그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여기 문법이 의도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여기 히브리어 관용구는 영어의 “이제 그것을 그만하라”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⁹ 룬비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주장은 ‘너희는 새로운 왕을 선택했으니, 또한

⁸ 찰스 2 세가 스코틀랜드를 쟁취하기 위해 기꺼이 했던 엄숙한 맹세와 그 후 그의 경박한 배신을 목격하라. Thomas M'Crie, *The Story of the Scottish Church from the Reformation to the Disruption* (1825; reprint ed., Glasgow: Free Presbyterian, n.d.), 232-38 을 참조하라.

⁹ 여기 관용 어구는 רַב־לָמָּה [라브 라헴]이다. 신 1:6; 2:3; 3:26 에서 동일한 어구가 사용된 것은 분명히 “long enough 이제에는 그만”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료를 위해 Gesenius-Kautzsch, *Hebrew Grammar*, 133c 그리고 J. R. Lumby,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the Kings*,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UP, 1909), 143 그리고 Joseph Hammond, *I. Kings*, Pulpit Commentary (Chicago: Wilcox & Follett, n.d.), 270-71 을 참고하라.

[역자 주] 한글 성경도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KJV/NIV/NASB: “It is too much for you to go up to Jerusalem.”

= 새번역/공동번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 쉬운성경/우리말성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큰 일이다.”

ESV/NJPS: “You have gone up to Jerusalem long enough.”

= 개역개정: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변화의 진짜 이유(두려움, 왕상 12:26-27)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정치인이었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선전을 했다.

지리는 어떤가? 송아지들은 왜 벰엘과 단에 두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위치 때문에 열 지파의 영토 중 남쪽에 있는 벰엘과 북쪽 끝에 있는 단에 두었다고 말한다. 접근성을 고려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전통과 연관성이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벰엘은 족장들, 곧 아브라함(창 12:8; 13:3-4)과 특히 야곱(창 28:10-22; 31:13; 35:1-16)과 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잘못 볼 수 있겠는가(참조, 삿 20:26-28)? 그러면 단은 어떤가? 사사 시대에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흠친 신상을 단에 세우고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또는 후손)를 제사장으로 삼고 대안 숭배를 했다(삿 17-18 장, 특히 18:30-31).¹⁰ 이처럼 벰엘과 단은 한때 후광을 입은 적이 있었다.¹¹

여로보암이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왕상 12:28)”고 한 말에 특별히 주목하라. 제의를 위한 여로보암의 외침은 인용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출애굽한 후 배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 만들게 한 송아지 숭배를 받아들이며 외쳤던 것(출 32:4)을 반복하고 있다.¹² 이 모든 것의 미묘한 점이 여기에 있다.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숭배가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엉뚱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과거에 행해졌지만 슬프게도 시야에서 묻혀 버렸던 다른 “전통”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여로보암은 급진적인 혁신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요로운 유산”을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는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의 흐름이 더 넓고 더 포용적일 때이고 믿음과 신실함의 문제가 그렇게 좁게 해석되지 않을 때라고 제안할 수 있었다.

배교의 악취 여부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1930 년대에 압소빈(Absorbine)이라는 말 연고(horse liniment)의 판매량이 급감했다. 오비 윈터스(Obie

= 현대어성경: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¹⁰ 삿 18:30 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는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7), 201, n. 10 [= **사사기 주해**, 167(20 장 II. 이야기 전달의 미묘한 방식), 각주 10]을 참고하라.

¹¹ 이 입장을 보려면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199 그리고 Carl D. Evans, “Jeroboam,” ABD, 3:744 을 참고하라.

¹² 왕상 12:28 그리고/혹은 출 32:4 에 나오는 [엘로힘]을 복수인 “신들, gods”로 번역하든, 단수인 “신, god”로 번역하든, 논의 중인 요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Winters)라는 광고 담당자가 실험실에서 연고를 실험해 본 결과 발의 백선(ringworm)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윈터스는 천재적인 기지를 발휘해 그러한 백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인 무좀(athlete's foot)을 생각해냈다.¹³ 병에 대하여 알리는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설령 치료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자기에게 백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선수의 발(무좀)”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그것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거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긍정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비극적이지만 여로보암의 천재적 기지였다. 그가 그의 새로운 숭배를 시내산 아래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와 연결시킨 것은 그의 혁신에 대하여 정당성의 외투를 걸치게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배교가 아니라 다양성이었다. 그것은 참신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뿌리와 선례를 갖고 있었다. 아주 많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달려있다. 거짓 종교는 그러한 미묘함에 있어서 전문적이다. 거짓 종교는 감성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위해 구속, 화목, 속죄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성경적 내용은 전혀 없다. 물몬교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가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단언하거나, 예수가 루시퍼의 영적 형제라고 주장하거나, 예수 자신이 두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자기 결혼을 축하했다고 증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들은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함께 필요한 시간을 보내라고 촉구하면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귀여운 광고를 할 것이다. 거짓 종교는 거의 항상 친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참고 삼아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본문은 아주 비극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기 32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일탈, 그리고 사사기 17-18 장에 나오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일탈이 수년 후에 어떤 사람(여로보암)에게 거짓을 옹호할 변명의 구실을 주었고 마침내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이 우리 자신만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결국 전체 세대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시내산 아래서 저지른 작은 언약 파기, 단에서 자행된 일탈적 숭배, 그리고 엉망이 된 미래를 연관지어 생각해보라.

III. 조작: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 (왕상 12:31-33 The Stupidity of False Religion)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그의 일탈적인 사이비 종교를 시작했다. 새로운 “교회의 해”는 여덟째 달, 곧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장막절을 지키게 하였다(왕상 12:33). 이 절은 여로보암의 사이비 종교의 모든 함정을 묘사할 수 있다.

¹³ Eric Clark, *The Want Makers* (New York: Viking, 1988), 54.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시하는 계시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공적 예배를 위한 **직분자들**(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함, 왕상 12:31b, 32b), **절기들**(예: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 왕상 12:32a, 33b), **장소**(벧엘이 아닌 예루살렘, 왕상 12:33a)를 규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은 이 모든 규정을 어겼다. 여로보암에게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변형시킬 수 있는 유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단순히 여로보암의 종교적 기발함을 묘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객관적인 역사가가 결코 아니다. 그는 오히려 왕의 사이비 종교를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조롱하는 여호와의 제자이다. 저자는 여로보암의 사이비 종교가 다르고 어리석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미묘하지만 분명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왕상 12:28 에서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여기 히브리어 동사는 흔히 사용되는 [아싸]로 영어의 “make, do(만들다, 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왕상 12:31-33 에 이르렀을 때, 저자는 이 동사를 세 구절에서 여덟 번이나 거듭거듭 사용한다. 이 사실을 간단히 살펴보자. 여로보암은 “산당을 만들고(**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만들었다(**삼았다**, 왕상 12:31).” 왕상 12:32 에서 그는 “여덟째 달로 절기를 만들었고(**정했고**, 왕상 12:32a)” “제단으로 올라가서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아싸]이지만 “만들어”라고 번역할 수 없음),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왕상 12:32b).” “그는 또한 그가 만든(**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다(왕상 12:32c).” 이렇게 그는 벧엘에 만든(**쌓은**) 제단에 올라갔고(왕상 12:33a),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만들었다(**정했다**, 왕상 12:33b).”¹⁴

¹⁴ [역자 주]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은 왕상 12:31-33 에 나오는 [아싸]에 대한 개역개정版的 번역을 나타내고 있다. 총 8 번 중 7 번은 “만들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1 번은 “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개역개정版的 왕상 12:31-33 을 그대로 옮겨서 [아싸]를 번역한 부분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벧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벧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바다, “고안하다”]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의 왕상 12:33 은 [바야알 알-하미즈베아흐] “그가 제단에 올라갔다”라는 절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공동번역을 제외한 한글 성경들은 개역개정처럼 한 번만 번역하였다. Cf. ESV: **He went up to the altar** that he had made in Bethel on the fifteenth day in the eighth month, in the month that he had devised from his own heart. And he instituted a feast for the people of Israel **and went up to the**

[아싸]는 흔한 동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가 단지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는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않는가? 저자는 독필(毒筆)을 휘둘렀다. 그는 여로보암의 종교가 여로보암의 혼합물이라고 말한다. 혼합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939 년 8 월 31 일 밤, 폴란드-독일 국경에서 폴란드 군인과 게릴라들이 삼림 방송국을 공격하고, 독일 세관 건물을 파괴하고, 글라이비츠에 있는 독일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폴란드인들은 반독일 구호를 마이크에 대고 외치며 독일 희생자들의 시신들로 그곳을 어지럽혔다. 나치 독일이 다음날 폴란드를 침략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가? 나는 여러분이 믿지 않기를 바란다. 독일 보안대 분견대는 폴란드 군인으로 위장해 모든 혼란을 야기했다. 그럼 주변에 널려 있던 독일 시체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통조림들”로 독일 포로수용소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는 표본들이었다. 라인홀드 하이드리히는 히틀러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폴란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계획을 고안했다.¹⁵ 거기에는 진실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종교에 대한 저자의 요점이다. 그것은 순전히 지어낸 것이다. 그것에 신뢰를 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규정하는 것이나 인간의 마음이 선호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것은 단순히 들리지만 성경적이다. 우리의 현대 서구 문화는 금송아지에 매료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의 종교적 주관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 그것은 로버트 벨라의 마음의 습관을 위해 인터뷰한 샤일라라는 한 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것은 ‘샤일라주의’이고, 그저 내 작은 목소리이다.”¹⁶ 그것은 사이비 종교이다. 그것은 지어낸 것, 곧 조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로보암은 백성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는가?

altar to make offerings. 공동번역: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제팔월 십오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다.

¹⁵ John Toland, *Adolf Hitler*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7), 567-68.

¹⁶ 이것은 Charles Colson, *Against the Night* (Ann Arbor: Vine Books, 1989), 98 에 인용되어 있다.

2. 여러분은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여로보암의 전략이 "사이비" 종교였다고 생각하는가?
3. 여로보암이 다시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한 논증은 무엇인가?
4. 거짓 종교의 미묘함이 주는 매력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은 이것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가?
5. 여로보암은 자신의 새로운 종교에 대한 추종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멀리 갔는가? 그는 여호와와의 참된 계시의 종교를 복제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가"?

14. 두 선지자의 이야기 (왕상 13 장 A Tale of Two Prophets)

이 장의 제목으로 "이야기(tal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이 이야기의 역사성, 곧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이야기의 이상함을 강조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이상한 느낌을 준다. 저자가 그것을 다 썼을 때, 가벼운 미소가 그의 신성한 얼굴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그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 저자들은 결코 심술궂은 예술가가 아니다. 이 저자는 역사를 비유만큼이나 어렵게 만들었다.

I. 이야기 (Story)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열왕기상 12 장과 13 장의 구분을 무시해야 한다. 12 장은 바로 13 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벧엘 성소의 제단 옆에 서서 혹은 제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의식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을 신성함의 기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나가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라고 말할 때 모인 숭배자들은 이리저리 비켜선다. 제단 앞에서 그는 갑자기 제단을 반대하는 장광설을 시작하며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야라 이름하는 후손이 그 위에서 분향할 미래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고 그 위에 사람의 뼈를 사름으로써 그것을 모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왕상 13:2). 완벽하게 엄숙한 제사 의식을 중단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의 위협적인 예언을 입증할 임박한 표징으로 제단이 찢어지며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왕상 13:3). 분노의 표정이 집회 전체에 퍼졌다. 그들은 그가 유다에서 온 남 왕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왕상 13:1). 당연히 그는 북 왕국의 새로운 물결을 뼈뺀 시선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왕은 이 침입자를 처리할 것이다. 왕의 검지 손가락이 하나님의 사람을 겨냥했다. 여로보암의 부하들이 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얼굴에 있던 권위와 분노가 혼란과 공포로 변했다. 아무리 애써도 그는 그의 편 손과 팔을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것들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마비가 일어났던 것이다(왕상 13:4). 그러나 제단의 재가 여로보암의 잿빛 얼굴을 가렸다. 그 약오르게 한 유다의 설교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제단이 **정말** 갈라지며 재가 쏟아졌다(왕상 13:5).

여로보암은 그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마비로 인해 왕은 그렇게 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사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여기 이 대명사에 유의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다(왕상 13:6).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했고 왕의 손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여로보암은 진정된 것 그 이상이었다. 왕은 그가 평화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하는 대신, 이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한다. 왕은 그에게 식사하러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물어본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외교를 통해 예언의 힘을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초대를 통명스럽게 거절한다. 그는 벰엘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여호와와 명령 아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교제도 해서는 안 되었다(왕상 13:8-9). 그는 후대의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떠났다(왕상 13:10).

한 늙은 선지자가 벰엘에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민지-못할-오늘-교회에서-일어난-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아버지는 유다의 설교자를 추적해 내려가고 싶어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우연히 보았었다(왕상 13:12b). 이 작은 일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달려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나귀에 안장을 지우게 하여 그것을 타고 뒤따라가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추어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왕상 13:14). 그가 그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는 여로보암처럼 동일한 거절을 당했고 그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늙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선지자 자격 증명을 들이대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 유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대접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갔다(왕상 13:19).

식사 도중에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는 여호와로부터 진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심으로써 "여호와와 말씀(직역: 입)을 어겼기" 때문이었다(왕상 13:21).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로운 죽음을 누리지 못할 것이었다(왕상 13:22). 이 이상한 돌발 상황 후에 성취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빌린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선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를 죽인다. 그러나 사자는 갑자기 사람과 나귀에 대한 식욕을 잃는다(왕상 13:23-25). 이에 대한 소문이 성읍으로 퍼진다. 늙은 선지자는 다시 나귀에 안장을 지우게 하여 그것을 타고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한 말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킨다(왕상 13:27-32). 사자가 불순종한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청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호와와 확실한 말씀을 탈선시킬 수 없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전과 같이 계속 행한다(왕상 13:33-34).

II. 질문들 (Questions)

우리는 열왕기상 13 장을 읽으며 반복해서 “그런데 왜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우리의 물음표들이 이 성경 페이지의 여백을 뒤덮는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대도 거절했는가(왕상 13:8-10)? 우리는 합리적으로 잘 추측할 수 있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항들이 왕상 13:11-32 에서 제기된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이 이상한 선지자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왕상 13:11)? 그들은 왕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에 동조하였는가? 아니면 그것에 단지 호기심만 보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왜 국경상 아직 북 왕국에 속한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가(왕상 13:14)?¹ 그가 유다로 돌아오는 일에 어떤 긴급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국경이 벳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러한 휴식이 그에게 그렇게 필요했는가?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왕상 13:11, 15-32)? 그는 왜 그렇게 이상한가?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는 여로보암의 사이비 종교를 비난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추측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한 명령(왕상 13:8-9, 16-17)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논쟁이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갔는가(왕상 13:19)? 거짓말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임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왕상 13:18, 20)?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올 법한 그의 파멸에 대한 어떤 항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왜 그가 돌연 화내는 것이 없는가? 왜 그는 자기를 속인 악한 사람인 늙은 선지자에게 폭언을 퍼붓지 않았는가? 그는 왜 말이 없었는가? 왜 그의 형벌은 그렇게 가혹했는가? 심지어 우리는 사자가 평화롭게 현장을 떠났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늙은 선지자는 도착하자마자 사자에게 “저리 가!”라고만 말했는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내러티브의 이상한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자가 우리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모든 대답에 주목하라. 그것은 계시적인 침묵이다. 그것은 그러한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¹ 왕상 13:16 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곳에서”라고 말한 것은 그가 벳엘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III. 가르침 (Teaching)

저자가 감질나게 하면서 비답변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좌절시킬지라도, 적어도 그는 그의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저자나 등장 인물들을 통해 9 번이나 “여호와와 말씀[드바르 아도나이]”이 언급된다(왕상 13:1, 2, 5, 9, 17, 18, 20, 26, 32). 이 어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왕상 13:1, 5[?], 9, 17), 혹은 그의 설교 내용(왕상 13:2, 32), 혹은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왕상 13:18), 혹은 벤엘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거나 그가 말한 참된 말씀(왕상 13:20, 26)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들 외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디베르 아도나이] 왕상 13:3, 26), 그분이 “명령하신” 것([치바] 왕상 13:9, 2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공식([코 아마르 아도나이] 왕상 13:2, 21), “여호와와 입(→ 말씀)”([피 아도나이] 왕상 13:21, 26) 등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말씀이 이 이야기의 주제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나침반 포인트로 유지한다면, 우리의 연구에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 질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내러티브의 세 주요 인물들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어떤 “전기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 세 주요 인물이 각각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정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²

² 열왕기상 13 장의 구조와 문예적 기교에 대해서는 James K. Mead, “Kings and Prophets, Donkeys and Lions: Dramatic Shape and Deuteronomistic Rhetoric in 1 Kings XIII,” *Vetus Testamentum* 49 (1999): 191-205 을 참고하라. 그는 이 내러티브를 두 개의 주요 부분(1-19 절과 20-32 절)과 총 네 개의 장면으로 나눈다. 이 단락의 참고 문헌에 대한 그의 각주에 유의하라. 이 이야기는 읽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장면과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제단 곁에서, 왕상 13:1-10

나무 아래서, 왕상 13:11-19

식탁에서, 왕상 13:20-23

길에서, 왕상 13:24-28

무덤에서, 왕상 13:29-32

후기, 왕상 13:33-34

열왕기상 13 장을 왕상 12:25-33 과 연관해서 문학적으로 다룬 탁월한 연구를 위해 D. W. Van Winkle, “1 Kings XII 25 – XIII 34: Jeroboam’s Cultic Innovations and the Man of God from Judah,” *Vetus Testamentum* 46 (1996): 101-114 을 보라.

i.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자비였다—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왕상 13:1-10, 33-34 Jeroboam: The word of God was his mercy – and he despised it)

그것은 자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혼란에 가까웠다. 완벽하게 훌륭한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제단 앞으로 나와 가운데 서서 제단에 대항하여 고함을 쳤다(왕상 13:1-2).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쑥 끼어드신다. 그것은 “만물이 처음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벧후 3:4)”고 하품하며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이다. 그날 벧엘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끄럽게 진행 중인 제사를 박살냈다. 그것이 자비라면, 그것은 **갑작스러운** 자비였다.

그리고 그것은 **준엄한** 자비였다. 여로보암은 이 달갑지 않은 사도의 대담함과 메시지에 화가 나서, 그를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고함쳤다(왕상 13:4). 즉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왕은 그를 잡으라 하며 찢던 자기 손을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왕들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을 강하게 제압하시며 유다에서 온 그분의 종을 보호하고 계셨다. 마치 여호와께서 왕의 귀에 “여로보암아, 원한다면 이대로 계속 있거라. 그러나 너는 몇 개의 사지나 멀쩡하게 간직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속삭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여로보암은 이해하고서 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다(왕상 13:6).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팔과 그의 제단을 거의 동시에 치셨음이 틀림없다. “제단이 찢어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왔다(왕상 13:5a).” 여기에 **분명한** 자비가 있었다. 여로보암이 아마도 자비를 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명료함을 놓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왕상 13:3 에서 이 표징 혹은 기적을 알려주었다. 왕상 13:2 에 있는 그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미래일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더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로 제단이 찢어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왕상 13:3).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일어났을 때, 생각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예언된 기적이 일어났듯이(왕상 13:3, 5), 그 예언된 말씀(왕상 13:2)도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확실히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³

³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13.

여로보암이 더 많은 것을 보았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 말했다(왕상 13:3, 5). “찢다”는 의미의 동사 [카라]는 의미심장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분이 그로부터 왕국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동사를 사용하셨다(왕상 11:11, 12, 13). 이 동사는 왕상 11:30 에도 나온다.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는 그의 새 옷을 “찢어” 12 개의 “찢어진 조각(동족 명사)”으로 나눈 후 그것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을 “찢으실”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왕상 11:31).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기억하고 그 요점을 파악하였을까? 찢어진 새 옷은 찢어진 왕국, 곧 심판 아래 있는 왕국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벤엘에서 찢어진 제단은 찢어진 종교, 즉 심판 아래 있는 종교를 상징했다.

여호와께서 그날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증거를 그에게 주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나는 잠시 논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일련의 표징들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표징을 주시며 왕의 손이 마비되게 하셨다(왕상 13:4). 그것은 마치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네가 그를 해치려고 한다면, 너는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는 **진실**의 표징을 주시며 제단을 찢으셨다(왕상 13:3, 5).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미래의 성취(왕상 13:2)에 대한 현재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제단을 공격했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표징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은 왕의 손을 회복시키셨다(왕상 13:6). 그것은 여호와와의 엄청난 친절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위하여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징표가 아니었는가? 돌아와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초대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여로보암이 조종하려고 한 것은 되돌아오는 길이 아니었다(왕상 13:7). 그래서 여로보암의 부드러운 전술은 직접적인 거절을 만났다(왕상 13:8-9). 이것은 **절연**의 표징이었다. 식사를 나누지 않고 떠나는 것은 일종의 행동화된 출교이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배교한 정권과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교제도 즐겨서는 안 되고,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었다.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행동화된 설교는 선포된 설교만큼이나 분명했다.

우리의 주된 논점은 자비가 왕상 13:1-10 위에 온통 쓰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선지자의 침입은 사회적으로 불쾌한 것이었고, 모든 적절한 종교적 예의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왕은 여호와의 무자비한 힘의 공개적인 표적이 되었고, 갑자기 그의 방문객인 선지자에 의해 거절당했다. 여로보암이 기뻐하였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것은 자비였다. 여로보암과 같은 어떤

사람이 왜곡된 예배의 길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침입하시어 그의 길을 막으실 때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닌가?

찰스 스펔전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는 스텐번에 있는 예배당의 목사였다. 어린 찰스는 그의 할아버지가 특히 로우즈라는 교회 신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술집을 즐기고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서 맥주를 꿀꺽꿀꺽 마셨다. 어느 날 어린 찰스가 그의 결심을 발표했다. "나는 늙은 로우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하고 말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후 그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고 말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는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서 "저는 늙은 로우즈를 죽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일에 관해서"만 하였다고 장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스 로우즈는 명백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그의 목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로우즈는 그의 담뱃대와 머그잔을 들고 술집에 앉아 있었다. 어린 찰스가 성큼성큼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엘리야,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고, 교회의 신자로서 당신의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아이는 걸어나갔다. 로우즈는 자기가 정말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담뱃대와 맥주를 버렸고, 외딴 곳으로 가서 주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하였다.⁴ "제가 늙은 로우즈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의미에서 자비로운 살인이었다. 그는 대담무쌍한 비난에 화가 났고, 남들 앞에서 당혹스러운 것에 화가 났으며, 그에게 열왕기상 19 장 말씀을 인용할 용기를 가진 한 아이의 찌름에 화가 났다. 그것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했다.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따라 가시며 여러분의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대면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던지실 것이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불쾌한 하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⁴ C. H. Spurgeon *Autobiography*, vol. 1, *The Early Yea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2), 11-12.

금송아지들로부터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파도를 일으킨다.

여로보암은 어떠했는가? 그는 그저 그 제단을 수리하고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왕상 13:33-34).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자비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ii.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안전 보장이었다—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다 (왕상 13:11-24 The man of God from Judah: the word of God was his safety – and he abandoned it)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신비로운 인물이다. 분명히 그는 여호와의 “음식 자제 명령”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단호하게 두 번이나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이다(왕상 13:8-9, 16-17).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같은 선지자라고 밝히고(왕상 13:18a),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반대되는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왕상 13:18b), 하나님의 사람은 죽임당할 양처럼 그를 따라갔다(왕상 13:19).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항의도, 토론도, 질문도, 의심도 없다.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저자는 우리의 “왜? 그리고 ...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대답해줄 의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왕상 13:19 에 “여러분은 그렇게 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여백의 주를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궁금하다. 늙은 선지자가 그의 거주지에 의해서만이라도 배교하는 북 왕국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⁵ 그는 이미 받은 명확한 말씀에 반대되는 계시-주장을 경솔히 믿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의 레시피이다.

1915 년 야구 시즌 동안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홈 구장에서 브루클린과 경기를 하고 있었다. 세인트 루이스의 감독인 밀러 허킨스는 3 루 코치석에서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7 회 동점을 이룬 가운데 2 아웃 상황에서 한 카디널스 선수가 3 루, 즉 득점하는 데 90 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다. 허킨스가 브루클린의 투수 에드 애플턴에게 “이봐, 친구, 자네 공 좀 보세!”라고 외쳤다. 애플턴은 23 살의 신인이었다. 모든 필요한 존경심을 담아 그는 그 공을 허킨스에게 던졌다. 그러나 세인트 루이스 감독은 타임 아웃을 부르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옆으로 물러나서 공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었고, 그의 카디널 주자가 홈 플레이트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⁵ 피히트너(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208)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결승점이 되었다.⁶ 허긴스의 요구에는 감독의 권위가 보이는 어조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애플턴은 이에 응했다. 그래서 지고 말았다.

야구는 중요하지 않지만 신실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에서든 본문에서든 문제는 동일하다. 그 문제란 권위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권위의 어조에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이 “영을 시험하라(요일 4:1)”고 외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다. 왕상 13:18 보다 더 현대적인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른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껄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기독교인 그룹에 있거나 예수님과 직접 면담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말씀”을 인용하는 교사들과 함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경솔히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확실한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가(벧후 2장에 비추어 벧후 3:2을 참조할 것)? 분명히, 열왕기상 13 장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말씀이 그의 종들에게 적합하며 그 말씀을 넘어서거나 벗어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말았다. 거짓말쟁이였던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입(말씀)을 어겼다(왕상 13:21, 26).”라고 말이다. 이 본문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있지 않은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에서 우리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⁷ 웃사(삼하 6:6-8)의 시신처럼, 벧엘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던 시신(왕상 13:24)은 여호와의 명백한 말씀의 은신처 밖으로 감히 나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다.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대할 때 얼마나 일관되고 확고했는지(왕상 13:1-10) 알아챘는가? 그는 왕의 협박이나 감언이설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 사기꾼의 허튼 소리에 직면하였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 이 패튼은 교훈적이다. 때때로 우리는 큰 위기에 잘 대처하는 용기가 있지만 미묘한 딜레마에 대한 감각이

⁶ Daniel Okrent and Steve Wulf, *Basebal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89), 72.

⁷ 참조,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24: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믿을지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혼한 잘못이다. 이것이 여기 이 선지자의 경우인 것 같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보여주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자신과 벧엘 사이에 한 언덕이 있게 되자마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며 생각해 보고 어쩌면 그가 포기해야 했던 축제의 식사와 보상을 아쉬워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벧엘에서 유다 국경까지 불과 6 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부족하다. 우리는 시간의 위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지만 순간의 책략에 대한 분별력을 찾을 수 없다.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도 근거해야 한다.

iii.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전문 업이었다—그러나 그는 그것을 남용했다
(왕상 13:18-32 The old prophet: the word of God was his profession – and he abused it)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왕상 13:18)

이것이 벤엘의 선지자의 초대였다. 왕상 13:18 의 끝에 저자가 추가한 “그가 그를 속였다[키헤시로].”라는 논평은 대부분의 번역본에 나오는 것보다 더 갑작스럽다. 여기에는 “그러나” 혹은 “하지만”과 같은 어떤 접속사도 없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만 나온다.

조금 후에 늙은 선지자는 재앙의 현장으로 간다. 열렬히 일하는 구급 대원은 없다. 비상 차량에서 빨간색 및 파란색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는다. 그렇게 길들여진 징표들보다 훨씬 더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있는 나귀와 사자이다. 사자는 냉담했다. 그것은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았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왕상 13:24-25). 그 이상한 사자는 하나님의 서명이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사자가 시체를 훼손하며 포식하고, 적어도 나귀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더라면,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⁸ 그랬더라면 그것은 사자들이 연루되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공격 후에 여호와와 목줄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사자가 있었다. 그 괴상한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였다. 이것은 사자의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심판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종이 죽임을 당하여 누워 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사건은 그 위에 온통 “초자연적”이라고 쓰여 있었다.

늙은 선지자는 장례식을 치렀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늙은 선지자의 동기를 밝히는 데 너무 말을 아낀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이유로든 그는

⁸ 다시 한번 엘리슨(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25)의 말에 주목하라: “우리는 이 기적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발견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 발견된다. 여로보암이 종교를 그의 목적에 맞게 개조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죽은 사람 곁에 서서 보고 있는 사자와 나귀가 필요한 것은 누구라도 어깨를 으쓱하며 “솔로몬이 죽은 이후 도로가 얼마나 위험해졌는가!”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을 사고로 치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거짓말을 했다. 여호와께서 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의 참된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왕상 13:20-22 절), 그것이 그의 이전 거짓말, 그의 속임수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알아보고 거절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사실은 여기에 그의 거짓말로 여호와의 종을 멸망시킨 선지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다.⁹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었다고 해서 그 늙은 예언자가 무죄하였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늙은 선지자는 놀라운 조합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나(왕상 13:20-22) 하나님의 종을 파멸시킨다(왕상 13:18). 우리는 이것을 “원리”로 만들어 그가 성화가 없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21-23). 사실, **많은 사람들이**(마 7:22) 마지막 날에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에게 자랑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마 7:23)”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고, 통제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늙은 선지자에게 진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재미 삼아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나도 선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전문 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남용했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열왕기상 13 장에서 생기는 질문들은 무엇인가?
2. 그런 질문들에 대한 무답변이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가?
3. 이 본문의 핵심 어구는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표징들은 무엇인가?
5.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⁹ 여기 양날의 상황은 나에게 막 14:21 을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의도를 성취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이지만 본문에 나와 있다.

15.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왕상 14:1-20 The Beginning Has Been the Beginning of the End)

디르사에 문제가 있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매우 심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준 것은 왕조의 희망이 세자에게 달려 있었을(참조, 왕상 11:38)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다. 금송아지 숭배자들도 자기 자식에 대하여 염려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왕은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 곧 그들이 살면서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성직자를 찾는 일을 했다. 여로보암에게 그 성직자는 아히야 선지자(왕상 11:29-40)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긴다. 여기서 능수능란한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이 본문의 가르침은 다음에 나오는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속임수를 폭로하는 말씀의 자유 (왕상 14:1-6 The Freedom of the Word that Exposes Trickery)

아비야가 병들었다(왕상 14:1). 여로보암은 그가 회복될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는 왜 아내 뒤에 숨는가? 그는 왜 선지자 아히야에게 직접 가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의 아내는 자신이 여로보암 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변장해야 하는가(왕상 14:2)?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1 장부터 여로보암 이야기를 죽 읽어왔다면, 우리는 여기 왕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표준(왕상 11:37-38)에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였었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새로운 금송아지 숭배가 언약의 정통 신앙보다 왕실의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의 금송아지 숭배가 자행되었다(왕상 12:25-33). 아마도 그는 아비야가 자신의 종교적 혁신에 대해서 “비뚤어진” 견해를 보일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감히 아히야에게 직접 다가갈 수도 없고, 그의 아내도 왕비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었다.¹ 그것은 예언자의 나쁜 말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왕비가 단지 병든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인다면, 그 선지자는 그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십상일 것이다. 확실히 예물(왕상 14:3, 봉사의 댓가?)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상황은 여로보암이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나았다. 왜냐하면 아히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¹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자마자/첫눈에 실제로 알아보았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당시에는 널리 유포된 뉴스 잡지나 사진이 실린 타블로이드 신문은 없었다. 요점은 여로보암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가 진정한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치장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없었기 때문이다(왕상 14:4b)!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백내장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선지자와 귀중한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아히야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지만(왕상 14:2), 현재 아히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왕상 14:4).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와와 말씀에 대해 마법적인 견해를 가진 왕이 있다. 만약 그가 선지자로부터 긍정적인 선언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의 아들은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다. 조종당한 말씀이라도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히야는 그의 눈이 필요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왕상 14:5)

거기엔 누가, 왜, 무엇, 그리고 어떻게 등등,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아히야가 발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급소를 찌르는 말을 시작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흥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왕상 14:6).”

여로보암의 전술은 나로 찰스 슐츠의 만화 **피너츠(땅콩)**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한다. 루시와 라이너스가 손을 잡고 웃으며 찰리 브라운 앞에 나타난다. 루시는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서로 사랑한다”고 발표한다. 찰리 브라운은 첫눈에 그런 노골적인 위선을 인식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화를 낸다. 그는 이렇게 최고의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정말 너희가 산타클로스를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루시의 단호한 반박은 이렇다. “왜 안돼? 우리는 예리한 애들 둘이고, 그는 단지 한 노인일 뿐이야!” 그게 여로보암의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노인(아히야)을 다루는 예리한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짜내기 위해 거기 있는 어떤 부착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항상 따뜻하다.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으신다. 여로보암과 다른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배우고 당혹스러워한다. 그 말씀은 나의 것으로 포획되지 않으며 자유롭다. 그것은 나를 폭로하여 내 숨겨진 동기까지 드러나게 한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본문은 사람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찰스 스펔전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를 알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1864 년 7 월 31 일 일요일 저녁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내클에서 일어났다. 뉴잉턴에 사는 한 남자는 스펀전의 설교를 통해 회심했고 정기적으로 태버내클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에 대해 그의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국 국교회의 열렬한 신봉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주일 저녁 남편이 예배를 드리러 떠난 후,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는 스펀전의 설교를 들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꺼운 베일과 무거운 술을 두르고 가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쪽 갤러리로 올라감으로써 자신을 위장하려고 애썼다. 물론 그녀는 예배당에 늦게 도착했다. 그녀가 막 들어갔을 때, 설교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흥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왕상 14:6)”는 그의 본문을 선포했다. 그녀는 스펀전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녀를 직접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교는 분명히 그녀의 경우와 잘 맞아떨어졌다. 스펀전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장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참된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²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극적인 노출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자신을 거울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이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시 50:15 참조). 그러나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3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두운 날이 닥쳤을 때, 그는 자기가 무시해버렸던 것을 찾게 되었다. 여로보암은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의 도움을 원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말씀의 지배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 그는 자신의 위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지만, 자신의 일상이나 실행을 위해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곤경 속에서는 빛을 열망하지만 자신의 길에서는 열망하지 않았다. 그는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방문만 했다. 마치 사람들이 창녀를 방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초상화는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보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라고 말씀하셨다.

² 그 부인의 첫 번째 반응은 남편이 스펀전에게 그녀의 존재를 어떻게든 귀띔해 주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단언했다. 이 일화를 위해 C. H. Spurgeon, *Autobiography*, vol. 2, *The Full Harves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59-60 을 보라.

II. 우상 숭배를 공격하는 말씀의 엄중함 (왕상 14:7-11 The Severity of the Word that Attacks Idolatry)

아히야가 옳았다. 그는 여로보암 부인에게 전할 가혹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왕상 14:7-11 에서 그 메시지를 선언한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라.

사자 공식, 왕상 14:7a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소, 왕상 14:7b-9 (“... 때문에”)

은혜의 반복 언급, 왕상 14:7b-8a (“내가 ... 내가 ... 내가 ... 내가 ...”)

범죄의 반복 언급, 왕상 14:7b-8a (“그러나 너는 ... 너는 ... 너는 ... 너는 ...”)

심판의 선언, 왕상 14:10-11a (“그러므로 ...”)

확인 조항, 11b (“...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히야는 분명히 왕의 죄를 배은망덕의 죄로 규정한다.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매우 잘해 주셨다. “내가 너를 일으켰다 ... 그리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 그리고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다(왕상 14:7b-8a).”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 그러나 너는 악을 행했다 ...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 그러나 너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왕상 14: 8b-9).” 여로보암은 은혜를 입었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이 그의 왕조가 전멸될 이유이다(왕상 14:10-11).³

³대부분의 현대 번역은 왕상 14:10 에 나오는 아히야의 “오줌 누는 자에 대한 예언(toilet prophecy)”을 소독하여(sanitize) 완곡하게 번역한다. 왕상 14:10 을 직역하면 이렇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종이든 자유인이든[그의 삶의 조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John Gray, *I & II Kings*, 337-38 도 참조할 것] 벽에 대고 오줌을 누는 자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똥을 소멸될 때까지 불 태우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불 태울 것이다.” “모든 남자”는 “벽에 대고 오줌 누는 자”가 갖지 못하는 세련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이런 표백된(bleached) 번역은 아히야의 언어의 신랄한 맛을 놓치고 있다(그래서 KJV 의 “him that pisseth against the wall”로 돌아가야 함). 프로반(Iain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19)의 말이 옳다. “[번역자들의] 신중하기를 바라는 태도는 오줌과 (하나님께서 파괴의 불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시는) 똥 곧 배설물 사이의 명백한 연결을 흐리게 한다.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냄새가 난다. 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히야의 고소, 곧 여호와와 그의 고소의 핵심은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강조] 네 등 뒤에 버렸도다.”라는 왕상 14:9 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들을 비교적 무해한 제의적 보조물로 보신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른 신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여호와를 노엽게 한다. 여기 “노엽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카아스]이다. 이 단어는 삼상 1:6-7 에도 나온다. 거기서 그것은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 가서 제사드릴 때마다 자식이 있고 말이 많은 브닌나가 자식이 없어 가련한 한나에게 했던 짓을 묘사한다. 브닌나는 한나를 비웃고 깔보고,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약오르게 하고 몹시 화나게 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것이 [카아스]이다.⁴ 브닌나는 한나를 성나게 하여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우리가 말하듯이) 그녀를 미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의 “다른 신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지게 하는가? 왜 그것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왕상 14:9 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신들”의 필연적인 결과로 “그러나 나를 네가 네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여호와만 그렇게 화를 내셔야 하는가? 고대 근동의 다른 남신들이나 여신들 중 누구도 신자들에게 **배타적인** 숭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그분의 비이성적인 분노를 다루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들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역기능적 신인가? 아니다. 이 점에서 여호와와 같은 다른 신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평범한 “신”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단서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 곧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결혼과 같은 관계를 맺으셨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 관계가 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다른 배우자는 망연자실하고, 짓밟히고, (바라건대) 분노할 것이다. 왜 그런가? 질투하는 것, 전적으로 배우자의 것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을 정당하게 소유하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고유한 성격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침해당한 배우자가 냉담이나 무관심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여호와는 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레적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출 20:3). 그것을 어기는 것은 그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최근에 한 유명한 불가지론자와의 인터뷰를 읽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매주 그 앞에 와서 당신으로 무릎 꿇기를 바라는 어떤

⁴ Jerome F. D. Creach, NIDOTTE, 2:684-86 그리고 Gerard Van Groningen, TWOT, 1:451 을 보라.

권위있는 존재로 보는 견해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배후에 속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실재하신다고 해도 예배는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분노를 직면하거나 해야 한다. 여호와와는 정말로 그분이 어떤 것은 용인하시지 않기 때문에 독특하시다. 여러분은 눅 14:26(“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기주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

III. 역사에 지속되는 말씀의 저주 (왕상 14:12-18 The Curse of the Word that Hangs over History)

아히야는 자기 병든 아들(왕상 14:11)에 대한 왕비의 관심사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로보암의 왕조의 예언된 진멸(왕상 14:10-11) 가운데 멸절될 것이었는가? 아니다. 아비야가 말을 마친 것이 아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부인을 향하여 보충 예언을 한다(왕상 14:12-16).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과 여로보암 때문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아들의 죽음, 왕상 14:12-13

왕조의 전복, 왕상 14:14

땅에서 추방, 왕상 14:15-16

따라서 여로보암의 부인은 틀림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녀의 아들의 죽음은 그녀가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과 일치할 것이다(왕상 14:12). 이 아이는 진정한 경건의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어쨌든 그는 여로보암의 나머지 후손에게 작성된 폭력적인 종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장례를 받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여로보암의 왕조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곧 시작될 것이다(왕상 14:14).⁵ 설상가상으로,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안정하게 하시고(왕상 14:15a), 뽑으시고(왕상 14:15b),

⁵ 이것이 왕상 14:14b 에 나오는 “הַיּוֹם וְהַיּוֹם הַזֶּה” [제 하욤 우메 감-아타], 직역: This today! And what? – Even now!]라는 간결한 표현의 전반적인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역자 주: 몇 가지 번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새번역: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쉬운성경: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우리말성경: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NIV: Even now this is beginning to happen; ESV: (Moreover, the LORD will raise up for himself a king over Israel who shall cut off the house of Jeroboam) today. And henceforth: NSAB: ... this day and from now on; HCSB: This is the day, yes, even today.]

흘으시고(왕상 14:15c), 버리실(왕상 14:16a)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위협은 모두 성취되었다.

왕상 14:17-18, 아들의 죽음

왕상 15:25-30, 왕조의 파멸

왕하 17:21-23, 땅에서 추방

이 이야기에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전혀 말이 없다. 그녀는 그냥 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히야가 말했던 그대로 그녀의 아들은 죽는다(왕상 14:17-18). 이 구절들과 이 에피소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히야의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막 일어난 것처럼 그것의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독자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 아들의 죽음은 왕조와 나라가 멸망될 것에 대한 표징이자 예고이다.

여러분이 읽어 내려온 열왕기상 14 장에서 조금 물러나서 아히야가 6 절에서 16 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의 예언이 이 장을 지배하고 있다. 아히야의 심판의 말이 아들과 왕조와 나라를 포괄하며 열왕기하 17 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열왕기상 14 장에 나오는 아히야의 예언이 북 왕국의 모든 역사를 통제하는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상 14 장을 읽을 때 이해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자는 여러분이 아히야의 예언을 잊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 예언의 꼬리 부분을 취해 그것을 후렴구로 만들어 라디오 광고의 노래(시엠송)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주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은 “그도 범죄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왕상 14:16 + 왕상 15:26, 30, 34; 16:19, 26; 22:52; 왕하 10:31; 13:6, 11; 14:24; 15:18, 24, 28; 17:21-23). 열 지파의 초대 왕은 열 지파를 끝장냈다.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했고 온 백성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아히야가 선언한 저주는 다음 180 년 동안 계속 남아 있었다.

단 하나의 정책이 수년 동안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전제 군주 루이 14 세는 그의 모든 국민이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1685 년에 낭트 칙령(앙리 4 세의 1598 년 칙령)을 폐지하는 [퐁텐블로] 칙령을 반포하고 프랑스 위그노들의 권리와 보호를 박탈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수천 명이 이민을 갔다. 8 만 명이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프러시아 선제후는 2 만 명의 위그노들에게 베를린 근처의 자유 토지를 주었다. 프랑스를 탈출한 위그노들의 수는 20 만에서 50 만쯤 된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교사, 철학자, 장인, 예술가, 직공, 농부, 석공업자, 상인, 총 제작자, 철공업자, 조각가, 작가, 건축가 등 간단히 말해서 “지성인과 근면한 중산층”이었다.⁶ 그들의 탈출은 프랑스에 경제적 재앙을 가져왔다. 루이 14 세는 그의 권위를 주장하며 그의 왕국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런 파멸을 퍼뜨리기 위해 왕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시대는 정통 신앙과 일계명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참지 못한다. 우리의 자애적(自愛的) 동시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성경에 얽매인 그런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확신시킨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선택하고 대대로 여러분의 후손을 망칠 수 있다.

IV.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의 초점 (왕상 14:19-20 The Focus of the Word that Emphasizes Priorities)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한 왕의 통치를 마감하는 이러한 짧은 요약들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것들은 자주 왕상 14:19 처럼 참고 문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이 문헌은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왕상 14:19a),” 즉 저자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럼 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가?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즉 군사 및 정치 문제가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그의 언론과의 관계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일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그러한 관심사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저자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찰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세상과는 반대로) 여로보암의 업적에 별로 감명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로보암의 군사적인 성공이나 정치적 성공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왕이 언약의 기본 요구 사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그의 모든 잉크를 사용했다. 업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신실함은 중요하다. 왕상 14:19 은 무섭다. 여러분의 소명에서 여러분의 명성을 얻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정력과 노력이 커다란 헛수고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단 한가지 일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숭배했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참

⁶ Janet Glenn Gray, *The French Huguenots: Anatomy of Courage* (Grand Rapids: Baker, 1981), 244 을 보라. 또한 S. M. Houghton, *Sketches from Church Histor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0), 134-37 그리고 Barbara W. Tuchman, *The March of Folly* (New York: Knopf, 1984), 19-23 을 보라.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했는가? 우리는 왕상 14:19 이 특 던져진 참고 문헌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말하면, 그것은 불온(不穩) 세계관이다.

게리 라슨(Gary Larson)의 “**먼 쪽**(Far Side)” 만화 중 하나는 동료가 모래 구덩이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준다. 개 한 마리가 모래 사장 옆의 단단한 땅에 서 있다. 남자는 “래시, 가서 도와줘! 도와줘, 래시!”라고 소리친다. 개는 급히 떠나며 나무들을 지나고 통나무를 뛰어 넘고 비행기(!)를 타고 가듯 길을 질주한다. 갑자기, 그 개는 멈춰 서서 생각한다. “**내** 이름은 ‘래시’가 아니다.” 당연히 만화는 (의도된 것처럼) 이상하지만, 개의 이의 제기는 별 연관이 없다. 모래 사장에서 동료가 사라지고 있는데 개가 왜 자기 이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 본문에서 저자의 요점이다. 언약의 재앙이 불안스럽게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에 그렇게 넋을 잃을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그것이 여러분의 부고라면, 맨땅에서 시작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었거나, 30 년 동안 뛰어난 근무를 하고 회사를 은퇴했거나, 로타리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공상 과학 영화를 좋아했거나, 매주 월요일 밤 사교 클럽에서 브리지 게임을 했거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중요한 것이 있을까?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아히야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왜 그는 자신이 새로 만든 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는가?
2. 왜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일상의 삶에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만 개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는가?
3. 여로보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핵심은 무엇인가?
4. 이 저주는 이스라엘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5.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에서 저자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인가? 아니면 그가 이론 정치적 업적인가?

16. 예루살렘에 있는 등불 (왕상 14:21-15:24 A Lamp in Jerusalem)

텔레비전 방송국이 스포츠 경기를 보도할 때,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를 다루려고 한다. 지금은 2 월이고 미국에서 대학 농구가 텔레비전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 많이 선전된 경기가 한 팀이 죽을 쓰는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경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점수가 한 팀으로 기울어져 그 불운한 팀은 패배뿐만 아니라 불명예도 겪고 있다. 그런 경우에 나는 TV 방송사들이 때때로 예정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진행 중인 다른 경기, 즉 일방적인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동일한 현상을 우리는 열왕기상 14:21-15:24 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저자는 방금 우리에게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남왕국으로 전환하여 약 60 년의 유다 모습(주전 931-870,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을 묘사한다. 아마도 일들이 여기서 더 희망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저자는 세 왕의 통치에 각각 뚜렷한 신학적인 강조를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에 주목하는 것은 본문의 가르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I. 오고야 마는 심판 (르호보암, 왕상 14:21-31 The judgment that must come)

유다에는 다른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더 나은 경기는 아니다. 저자는 르호보암을 소개하고 예루살렘을 언급하자마자 후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왕상 14:21)”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다. 적어도 정통 신앙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아마도 그는 벤엘과 단의 엉망진창인 금송아지 숭배(왕상 12:25-14:20)와 대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는 다음 절과 함께 어떤 낙관론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실, 저자는 이 르호보암 부분을 왕의 암몬 출신 어머니에 대한 언급으로 감싸고 있다(왕상 14:21, 31).¹ 르호보암 기사에 이러한 틀은 독자들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를 안겨줄 것이다. 왕좌의 배후에 있는 그러한 이교도적 영향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참조, 왕상 11:1-2)?

¹ 몽고메리(James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Scribners, 1951], 267-68)는 왕상 14:31 에 나오는 나아마에 대한 언급이 왕상 14:21 에서 “실수로 잘못 반복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왕상 14:31 에서 나아마의 언급을 생략한 칠십인역을 따른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나아마를 언급한 것이 르호보암 통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인 문예적 장치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문예적 암시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왕상 14:22-24 처럼 인정사정없는 공격을 퍼붓기도 한다.

(왕상 14:22-24) 22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24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우리는 숭배와 관련된 기구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산당(왕상 14:23; 언덕 위에 있을 필요가 없음, 렘 7:31[히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은 대체 신당이였다. “우상(돌기둥)”은 가나안의 다산 숭배에서 남신을 상징했다. 나무로 된 아세라 상/기둥은 엘이나 바알의 배우자, 곧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신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색하는 자들(왕상 14:24; 남성 복수로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할 의도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다산을 위한 신당에서 숭배자들을 섬겼던 성 행위자들 가리킨다. (호세아는 어느 날 캄코더를 들고 북부 산당들 중 한 곳에서 끔찍한 장면 전체를 포착했다[호 4:14]). 우리는 정말 여기서 저자가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산당을 짓고 석상과 목상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르호보암을 특별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전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왕상 14:24 의 위협은 거의 가려지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를 흥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운명, 곧 그 땅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르호보암 개인보다 유다 백성 전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왕상 14:22-24 은 르호보암의 통치만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저자는 르호보암에서 시작된 유다 왕국의 전반적인 풍조와 그 왕국이 만나게 될 어두운 종말에 대한 요약물 주하고자 한다. 왕상 14:22-24 은 프로그램적 본문이 된다. 왕상 14:15-16 이 초대 왕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북왕국의 비극적 종말을 묘사하듯이, 왕상 14:22-24 은 초대 왕 르호보암에서 시작된 남왕국의 치명적인 잘못들을 설명한다.² 두 경우 모두, 파멸의 씨앗이 시작 부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역사는 행복한 역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 분열 왕국은 처음부터 우울한 이야기이다.

² 비슷한 견해를 위해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21 을 보라.

이 우울한 세 개의 절(왕상 14:22-24) 직후에 우리는 애굽 왕 시삭(쇼생크 1 세, 주전 945-924, 제 22 왕조 설립자)이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침공해 왔다는 것에 대해 듣는다. 그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왕상 14:26).

분명히, 우리는 시삭의 약탈 원정을 유다의 불충에 대한 여호와와 심판의 첫 타격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더 많은 심판(참조, 왕상 14:24b)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실제로 공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르호보암이 모든 약탈물로 그를 매수했었을지도 모른다.³ 어쨌든, 이전 시대의 모든 광채와 영광이 애굽으로 운반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그분 마음대로 부리실 애굽의 바로들과 다른 온갖 종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단락은 또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시삭이 다른 전리품과 함께 솔로몬이 만든 의전용 금 방패들을 빼앗아간(왕상 14:26b) 후,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왕상 14:27a).”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금 방패들은 왕을 호위하여 성전으로 모실 때마다 왕실 경비대가 지니고 있었다. 금 방패들이 놋 방패들로 대체되었다. 화려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예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백화점 품질의 방패들을 가질 수 없다면 할인점의 다양한 방패들을 갖게 될 것이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예배(왕상 14:22-24)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도 우리의 값싼 장신구와 반짝이 조각으로 옛 영광을 모방하려는 안타까운 시도들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1973 년 캘리포니아 주 노스 할리우드에서 있는 한 교회는 소위 교회의 존속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이 교회에는 2,000 명의 교인과 150 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위 “환난 전 휴거” 관점, 즉 재림의 첫 번째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는 이 견해의 일관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아니다.) 이제 지도부는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휴거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분명히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소망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휴거”가 일어나면 남은 교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³ 시삭/쇼생크 그리고 그의 성경적 연관성에 대한 명쾌한 토론을 위해 John D. Curri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7), 172-89 을 보라. 쇼생크의 팔레스타인 원정은 카르낙에 있는 그의 전쟁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교회 조례를 변경했다. 그러면 임시 회장이 공동 의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었다.⁴ 나는 그것이 기괴하다는 것과 그것이 또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기독교인없이 교회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들의 전제에 따라) 본질적인 실체가 없을 때도 공허한 겉모습을 유지해야 하는가? 여전히 낯 방패를 들고 뿔내며 걷지만 충실한 예배를 내던져버린 왕국과 같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통치는 오고야 마는 심판을 예표한다.

II.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 (아비암, 왕상 15:1-8 The grace that still remains)

아비암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없다. 사실, 아비암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일반적인 공식⁵ 외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⁶ 그러나 왕상 15:3-5 은 아비암 기사의 뚜렷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통치에 대한 신학적인 논평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⁷

⁴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의심스러우면 *The Presbyterian Journal* (April 11, 1973), 5 을 보라.

⁵ [역자 주] 분열 왕국의 왕들의 묘사는 서두와 말미에 **등극** 공식과 **사망** 공식을 가지며 두 공식 **중간**에 혹은 각 공식 **중간**에 필요하면 *이야기*가 삽입된 형태로 되어 있다. 아비암 기사(왕상 15:1-8)는 등극 공식(왕상 15:1-5)과 삽입 이야기(왕상 15:6-7a)와 사망 공식(왕상 15:7b-8)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왕기에서 가장 긴 아합의 기사(왕상 16:29-22:40)에서 등극 공식은 왕상 16:29-33 에 나오고 사망 공식은 왕상 22:39-40 에 나오며 그 사이에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⁶ 역대기 저자는 아비암/아비야에게 훨씬 더 많은 분량, 곧 실제로 한 장 전체(대하 13:1-22)를 할애하며 뚜렷하게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는 서로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대기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정통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 열왕기는 아비암이 다윗과 비교할 때 언약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말한다.

⁷ 일부 주석가들은 이러한 신학적 설명이 원래 저자의 것일 리 없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왕상 15:3b-5 은 한 "후대 신명기적 편집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 (존즈[G. H. Jones]는 또한 왕상 15:3-5 을 만드는 데 세 명의 다른 편집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결론은 이런 자료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이, 후대의 신명기적 편집자가 자신의 신학적 물고기를 가지고 튀겨낸 것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거의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평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판단이 인간의 편파적인 의견들에 의해 아예 취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자 주] 신학적 평가는 왕의 치세에 대한 주된 평가로서 저자가 일관되게 사용한 등극 공식의 중요한 요소였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선택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예배 중앙화(신 12 장)가 왕들의 신학적 평가의 중심축이었다. 유다 왕들은 다윗 혹은 부왕과 비교되고 산당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벰엘과 단에 성소를 세운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언급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 상태에 대한 관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아비얌의] 마음이 그의 조상[직역: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왕상 15:3b).” 사실, 이 하반절 말씀은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르호보암**]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왕상 15:3a).”라고 말하는 상반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마음의 상태(3b)가 발의 행보(3a)를 결정한다. 르호보암과 다윗이 둘 다 “그의 아버지[아비브]”로 불리기 때문에 아비얌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왕상 15:13 에 두 번 나오는 “그의 아버지[아비브]”를 통해 “아버지”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 즉 “친부(親父)”와 “선조(先祖)”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조상은 또한 두 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비얌은 다윗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그의 본보기로 삼았다.

등극 공식의 요소는 ①상대국 왕의 연대 언급, ②등극 나이(유다 왕만, 아비얌과 아사 제외), ③통치 기간, ④수도, ⑤모친 이름(유다 왕만, 요람과 아하스 제외), ⑥치세 평가이다. 사망 공식의 요소는 ◇문서 출처, ◇사망과 장례, ◇승계이다.

예 1: 이스라엘 왕 (왕하 13:10-13)

- **등극 공식:** (왕하 13:10-12) (10) ①**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삼십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④**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③**십육 년간** 다스리며 (11)⑥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 **사망 공식:** (왕하 13:12-13) (12)◇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예 2: 유다 왕 (왕하 15:1-7)

- **등극 공식:** (왕하 15:1-4) (1)①**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칠 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②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십육 세**라 ④**예루살렘**에서 ③**오십이 년간** 다스리니라 ⑤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⑥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 **중간 삽입 이야기:** (왕하 15:5) (5)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 **사망 공식:** (왕하 15:6-7) (6)◇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 되지 아니하였느냐 (7)◇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설명해야 할 일이 있다. 아비얌이 솔로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왕상 15:3; 참조, 왕상 11:4)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 왜곡 행위(우상 숭배; 참조, 왕상 14:22-24)를 계속 유지할지라도, 여전히 유다에 왕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왜 다윗의 영토 위에 “끝!”이라고 쓰지 않으시는가? 왕상 15:4-5 이 답을 준다.

(왕상 15:4-5) 4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왕상 15:4a 에 나오는) “다윗 때문에, 혹은 다윗을 위하여”라는 어구가 (왕상 15:5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충성 때문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삼하 7:12-16 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 때문에”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왕하 8:19(참조, 왕상 11:13, 32, 34)이 후자의 의미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왕국이 지속되는 것에는 이중적인 근거가 있다. 하나는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헌신(왕상 15:4)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에 대한 다윗의 일관된 충성(왕상 15:5)이다. 후자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이란 절이 암시하듯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것이었다. 여로보암이 그의 왕국에 독과 죽음이었다면(왕상 14:15-16), 다윗은 그의 왕국에 복과 생명이었다.⁸ 프로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애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왕상 11:11-13, 31-39; 14:21)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는 예상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지 못했다. 아비얌의 경우도 결코 다르지 않다. 여로보암의 왕조와 달리, 이 왕조는 안전하다. 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⁹

유다에 여전히 왕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다(왕상 15:5).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이다(왕상 15:4). 그분은 약속을 하셨고, 바로 그 약속에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 악한 자들도 있을 것임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다(삼하 7:14b). 그러나 왕국은 남아있다. 그것은 인간이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⁸ 다윗의 자손(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의로운 순종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롬 5:18-19)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숙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⁹ Provan, *1 and 2 Kings*, 124(강조 표시는 그가 한 것임).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을 결정하셨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끈질기다.

III. 나타날 수 있는 소망 (아사, 왕상 15:9-24 The hope that may appear)

왕상 15:9-24 은 새로운 왕 아사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개혁자로서 아사는 11-15 절에 묘사되어 있고, 정치가로 아사는 16-22 절에 묘사되어 있다. 나는 이것들을 차례로 각각 살펴보고 몇 가지 추론을 하고 싶다.

아사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주전 910 년경) 분위기가 새롭게 변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에 대해 읽는다(왕상 15:11). 그래서 아사의 의는 독특했다. 그리고 아사의 의는 또한 파괴적이었다. 아사는 풍요 의식을 담당하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왕상 15:12a)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왕상 15:12b) 태후가 원래 아세라 여신 숭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 불살랐다(왕상 15:13). 이 마지막 사건은 아사의 의가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개혁은 왕실에까지 확대되며 애지중지하는 예외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마아가를 대비([그비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했다.¹⁰ 물론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지만(왕상 15:14a), 아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아비얌의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왕상 15:3)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므로 그 지향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왕상 15:14b). 이제 잠시 종교 문제를 떠나서 정치 문제를 살펴보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 행위들(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왕상 15:16). 독자로서 여러분이 아직 정식으로 바아사를 소개받지 못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열왕기 저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는 왕상 15:27 에서 정식으로 바아사를 소개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아사는 정치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베냐민의 라마까지 내려와 그것을 요새화했다(직역: 건축했다, 왕상 15:17a). 라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아사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남북 간선 도로에 자리잡고 있었고, 벧호론을 통해

¹⁰ 마아가는 왕상 15:2 에서 아비얌의 어머니로 지칭되므로 아사의 할머니일 것이다. [그비라] (“대비, 태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5), 1:117-18 을 참고하라.

해안 평야로 가는 유다의 가장 좋은 서부 통로를 통제하고 있었다. 바아사의 계획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봉쇄를 위한 것이었다(왕상 15:17b).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국고를 비우고(왕상 15:18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참조, 왕상 15:15 그가 성별하여 드린 것 중에 은금이 있는 것에 유의할 것) 사절단과 예물을 다메섹의 벤하닷에게 보내며 조약 체결을 요청했다(왕상 15:19a).¹¹ 조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왕상 15:19b)”는 역 제안이었다. 벤하닷은 금고를 채우는 손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서 북 이스라엘로 군대를 파견하여 이윤과 단과 아벨벤마아가를 공격하게 하여 실제로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신약의 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북쪽)을 파괴했다(왕상 15:20).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 이 지역들을 통제함으로써 다메섹은 지중해로 가는 동서 캐러밴 경로를 지배하게 되었다.¹² 경제는 모든 국가의 위인들 안에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아사는 자기 왕국의 다른 극단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라마에서 건축 감독 역할을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사가 의도했었던 대로 그는 라마를 떠났다(왕상 15:21). 아사는 애국적인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징집령을 내렸고, 그의 백성은 바아사의 건축 자재를 운반하였다. 그 절취한 자재는 게바와 미스바를 유다의 방어 기지로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왕상 15:22).

아사가 바아사의 허를 찌른 것은 교과서적 외교로 능숙한 조치였고 심지어 재미있기도 하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성공을 누리는가?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아사의 책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대기 기사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아람을 신뢰한 일로 아사를 몹시 꾸짖기 때문이다(대하 16:7-10). 하지만 열왕기에는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는다. 열왕기 기사는 아사의 아람과의 연계에 대하여 더 객관적이고 더 아리송하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비판이 없다. 그럼 열왕기가 아사의 책략을 승인한다는 뜻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사에 대한 비판은 역대기에서보다 더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저자가 어떻게 아사 자신의 무신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벤하닷에게 전달하는지 주목하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쇼하드, “뇌물”]을 보냅니다.” 명사 [쇼하드]는 구약에 23 번 나오며 거의 항상 혐오스러운 의미로 사용된다. 역본들이 아사의 돈을 왕상 15:19(그리고 왕하 16:8)에서 “선물(NIV gift)” 혹은

¹¹ 이 벤하닷은 벤하닷 1 세(주전 900-860 년경)일 것이다. 다양한 벤하닷에 대하여 K. A. Kitchen, NBD, 3rd ed., 129 을 보라.

¹²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9), 127 그리고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54 을 보라.

“예물(NASB present)”로 번역하며 왜 그를 위해 세탁하는지 좀 당혹스럽다. 그것은 뇌물이다. 게다가, 아사는 벤하닷이 바아사와의 조약이나 언약을 파기하기[파라르]를 원한다(왕상 15:19b). 성경은 깨진 언약에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이교도 왕에게 한 언약 맹세라도 지켜야 한다. 유다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맺은 그의 언약을 배반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겔 17:11-21).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을 청한 것은 잘못되었고 어리석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겔 29:6-9). 이러한 성경적 사고방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열왕기가 아사의 벤하닷에 대한 투구를 단지 다소 중립적인 정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추론들을 해볼 시간이 되었다. 이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로 무엇을 보도록 하는가? 첫째로, 그것은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은 성공**이다(왕상 15:16-22). 막 언급하였듯이, 열왕기는 아사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아사 자신의 말을 통해 그 정책에 드리운 부정적인 색채를 드러나게 한다. 아사는 원만한 정치인이었고 그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실용주의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충격적인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이 충성의 증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황적 성공과 언약적 실패는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본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이자 긍정적인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의 가능성**이다(왕상 15:11-15). 아사에 대한 열왕기상 15 장의 묘사는 역대하 16 장의 묘사처럼 암울하거나 비판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우리가 아사의 통치에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는가? 왕상 15:11 을 기억하라. 왕국이 분열된 후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첫 번째 왕이다.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배의 순수성이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다. 희망과 개혁의 시대가 재앙으로 추락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부흥의 역사에서 이러한 패턴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1859 년 웨일즈 부흥 이전에 발라의 T. C. 에드워즈 교장은 “우리 나라에서 교회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영적인 무관심과 실질적인 불륜의 물결이 웨일즈 전역에 퍼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흥 후 1 년 동안 웨일즈 법원에 제소된 형사 사건은 1,809 건에서 1,228 건으로 줄었고, 부흥은 10 만 명(인구의 십 분의

¹³ 나의 책 *1 Samuel: Looking on the Heart*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118-19[= 사무엘상 주해, 102-104(10 장 II.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변화); 143-148(14 장 II. 최우선 순위인 순종)]도 참고하라.

일)에게 확고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도 견딜 수 있었다.¹⁴ 나는 아사의 일이 주로 부흥이라기보다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점은 여전하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집단적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할 수 있다. 교회의 전망이 너무 암울하고, 교회의 증언이 매우 불분명하고, 교회의 변절이 매우 놀라게 하고, 교회의 관심사가 너무 하찮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분의 자비로 아사 시대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사의 통치는 여호와와의 자비 중 하나였다. 그분은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배교로 미끄러지는 속도를 늦추게 하셨다. 여기에 교회의 걱정스러운 정도로 점점 더 불충실해지는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운명론에 반대할 논쟁이 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개혁과 갱신과 회복을 위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항상 등불을 유지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에게서 그 밖에 다른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르호보암의 통치 하에 유다의 풍조는 어떠했는가?
2. 왜 르호보암은 금 방패들을 놋 방패들로 대체했는가? 왜 어떤 방패라도 갖고 있으려고 했는가?
3. 유다가 보존된 것은 여호와께 대한 다윗의 신실함 때문인가 아니면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 때문인가?
4. 여호와께서 유지하시려는 “예루살렘에 있는 등불”은 무엇인가?
5. 아사의 통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아사의 통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두 관점이 합쳐지는가?

¹⁴ J. Edwin Orr, *The Light of the Na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141. 그리고 18 세기 부흥 이전의 영국 상황에 대해서 Earle E. Cairns, *An Endless Line of Splendor* (Wheaton, IL: Tyndale House, 1986), 53-55 도 참조하라.

17.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악한 사람들 (왕상 15:25-16:7 Evil Men in the Hand of a Good God)

몇 년 전 가을 저녁에 아내와 나는 지역 고등학교 축구 경기에 참석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이웃인 게리와 페기가 거기에 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딸은 중간 휴식 시간에 공연하는 홈팀 응원단에 속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축구 팀에서 뛰었다. 나는 우리를 알아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어리둥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에도 자녀가 없었다. 왜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두 팀을 보며 비를 맞으며 앉아있곤 했는가? 내 아내가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있는 경우 바바라는 가능한 한 그 경기에 가까이 있곤 했다. 그녀는 그저 그런 종류의 여성이었다.

우리가 살펴볼 단락이 이와 비슷하다. 저자는 다시 북왕국으로 시선을 돌려 여로보암이 죽은 직후에 있었던 북왕국 이야기를 계속한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주전 909 년경 통치를 시작했으나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죽이고서 왕이 되었다. 이 단락(왕상 15:25-16:7)은 두 명의 악한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지만, 세 가지 진술(왕상 15:29-30; 16:1-4; 16:7)이 이야기를 지배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분이 거기에 계신 것은 악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그분은 악을 싫어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계신 것은 그분이 그저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아무리 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역사상 어떤 순간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만난다.

I. 악의 유용성 (왕상 15:29-30, 34 The Usefulness of Evil)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고 2 년 동안 다스렸다(왕상 15:25). 그의 종교적 정책에 관한 한 그는 여로보암 2 세와 같았다(왕상 15:26). 이것은 중요했던 것의 전부이다. 나답과 이스라엘은 겐브돈(게셀에서 서쪽으로 3 마일)을 포위하고 있었다(왕상 15:27). (겐브돈은 원래 단 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수 19:44] 그 당시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 때 바아사는 나답을 모반하여 그를 암살하고 왕좌를 차지했다(왕상 15:27-28). 바아사가 개혁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저자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왕상 15:34a).”라고 평가한다. 그는 여로보암의 왕좌를 차지하고 여로보암의 종교를 계속 실천했다(왕상 15:34b). 한 악한 왕이 또 다른 악한 왕을 쓰러뜨렸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그분은 왕상 15:29-30 에 계셨다. 그분이 어떻게 거기에 계셨는가? 그분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계셨다. 바아사는 나답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후손을 모두 몰살시켰다. 이 모든 유혈 사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왕상 15:29)” 일어났다. 물론, 아히야의 예언은 왕상 14:10-11, 14 에 나오는 것이다. 도살자 바아사는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는 종이였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사용하셨던 악한 도구들을 그들 자신의 악행 때문에 심판하신다(사 10:5-19; 렘 27:1-7).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 신학이다.

1945 년 4 월 베를린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히틀러의 참모 차장인 에리히 데틀레프젠 장군은 총통의 야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를린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상공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루프트바페 비행기의 비행을 보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야간 브리핑에서 데틀레프젠은 한 루프트바페 장교가 히틀러에게 소련 전차들에 대한 성공적인 공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발언은 틀린 것이었다. 그 “소련 전차들”은 실제로 남쪽으로 향하는 독일군 호송대의 버스와 트럭이었다.¹ 독일인들은 그들의 동족들을 날려버렸던 것이었다.

여기가 그렇다. 바아사라는 자가 나답이라는 자를 제거한다. 악한 열망자가 악한 왕조를 학살한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같은 부류의 악한 자들을 멸절시키신다. 악한 바아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 본문은 심오한 요점을 담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악이 실제로 얼마나 종속적인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일뿐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악에게는 얼마나 큰 낙담이 되고 교회에게는 얼마나 상쾌한 격려가 되는가!

II. 악의 지루함 (왕상 15:33-34 The Tedium of Evil)

나는 여러분이 바아사에 당신의 희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패터슨과 오스텔은 바아사의 왕권 찬탈에 대하여 “정치적 변화가 영적인 전망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다”고 잘 요약했다.² 바아사의

¹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13.

² Richard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32. 오늘날 교회에서 이들의 요점을 놓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만약 ...이라면” 이단에 잘 빠지는가! 우리가 다른 정권이 집권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행정부가 선출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정당이 지배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 그러면 어쨌든 말인가? 그렇다 해도

통치는 그저 똑같았던 것이었다. 왕상 15:34 은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말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과 같았다(왕상 16:7).”

잠시 물려서서 바아사의 통치 전체를 읽어보라(왕상 15:33-16:7). 여기에 그의 24 년의 통치가 있지만, “그의 권세”에 대한 것은 없고(왕상 16:5), 다만 최소한의 사실 자료(왕상 15:33), 부정적인 평가(왕상 15:34), 그를 꾸짖는 설교(왕상 16:1-4), 저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왕상 16:5), 부고 통지서(왕상 16:6), 그가 비난받은 이유(왕상 16:7)가 들어있다. 9 개의 절 중 6 개의 절이 선지자적 비난(왕상 15:34, 16:1-4, 7)이고, 3 개의 절이 최소한의 필요 사항(왕상 15:33; 16:5-6)을 담고 있다.³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여러분은 바아사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그는 여로보암과 같았다. 동일한 사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여러분은 이 본문처럼 성경의 일부분이 왜 지루한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의 일부분이 지루한 것은 단순히 이전 사람들의 죄와 악을 반복하는 죄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는 결코 창의적이지 않고 단지 모방적이고 반복적이다. 아마 여러분은 숨쉴 수 있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신선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이미 저질러졌던 것을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선에는 악이 갖지 못하는 독창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악은 왜곡하고 파괴하고 타락시키고 재연할 수 있지만, 독창적일 수도 없고 심지어 변칙적일 수도 없다. 악은 내장된 하품을 지니고 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왕상 15:34).” 얼마나 지루한 것인가! 만약 성경이 지루하다면, 바아사의 탓으로 돌려라. 그건 그의 잘못이다.

아마도 거의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다음 선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요점을 파악하는데 느리다. 교회는 반복적으로 변화의 이상 숭배를 실천한다.

³ [역자 주] 바아사의 기사(총 9 절) 중 6 개의 절이 신학적 평가(치세 평가)에 할애된다(왕상 15:34; 16:1-4, 7). 나머지 3 절에 언급된 최소한의 필요 사항은 등극 공식의 요소로 언급된 상대 왕의 연대, 통치 기간, 수도(왕상 15:33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십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사망 공식의 요소로 언급된 문서 출처, 사망과 장례, 승계이다(왕상 16:5-6 “5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학적 평가는 등극 공식의 요소로 나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바아사의 경우 신학적 평가가 등극 공식 부분에도 나오고(왕상 15:34; 16:1-4) 사망 공식 부분에도 나온다(왕상 16:7).

알베르트 슈페어는 히틀러의 수행원으로 오베르살츠베르크에서의 시절을 회상했다. 슈페어는 매일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아침 11 시경에 나타나곤 했다. 그는 보고를 들은 후 장시간의 오후 만찬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만찬 후에 가장 그림 같은 전망대에 위치한 찻집까지 30 분 정도 걸었다. 그 일행은 항상 동일한 어구를 쓰며 풍경에 감탄했다. 히틀러는 항상 동의로 대꾸했다. 거기서 디저트와 음료수를 들며 총통의 독백을 들었다. 두 시간 후에,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두 시간 후, 약 8 시쯤 저녁 식사가 있었고 계속 비슷한 일과가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를 소화시키면서, 같은 일행은 살롱으로 들어가서 사소한 토론이 있는 영화나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선택한 것을 보았다. 아마도 새벽 2 시쯤 그의 정부가 먼저, 그리고 조금 후에 히틀러 자신이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하곤 했다. 남아있는 해방된 자들은 삼페인과 코냑을 마실 수도 있었다. 슈페어는 이렇게 썼다. “아침의 이른 시간에 우리는 무료함으로 인해 몹시 지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갔다.” 슈페어 자신은 “지속적인 시간 낭비로 지치고 공허하다고 느꼈다.”⁴

이 본문은 그러한 단조로움이 악의 특징임을 암시한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전도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아사가 바로 여기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불경건)이 따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III. 악에서 돌아설 기회 (왕상 16:1-4 The Opportunity of Evil)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이력에 대해 잘 모르지만(참고, 대하 19:2; 20:34), 그의 예언(왕상 16:1-4)은 바아사의 취임식(왕상 15:33-34)이 그의 부고(왕상 16:5-6)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바아사를 꾸짖는 말씀을 주셨다(왕상 16:1).

(왕상 16:2-4) 2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4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⁵

여러분이 개나 새가 아니라면 이 예언에 즐거운 것이 거의 없다.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으니(왕상 16:2), 너는 여로보암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왕상 16:3-4)”라고 예언했을 때, 예후는

⁴ Albert Speer, *Inside the Third Reich* (New York: Avon Books, 1971), 133-37(인용된 글은 137 쪽에 있음).

⁵ 나는 왕상 16:3 의 [바아르]가 “불태우다, 사르다”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숙청하다, 제거하다”는 의미의 병행 어근을 가정한다. DCH, 2:242-43 을 참고하라. 이 동사는 왕상 14:10 에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된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아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의 서론(왕상 15:33-34 등극 공식)과 그의 결론(16:5-6 사망 공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왕상 16:1-4)이 서 있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다른 것과 구별하여 바아사의 통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아사의 기회가 아니었는가?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지라도, 그는 축복의 심연에서 망설였다.

잠시 후 우리는 엘리야가 적그리스도 아합에 대한 여호와의 통렬한 심판을 알리는 것들을 것이다(왕상 21:21-24). 그러나 아합이 눈에 띄는 반성의 징후를 보였을 때—적어도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왕상 21:27),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조절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위협에 대해 아주 미미한 반응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보여주지 않는가? 그러므로 바아사가 그것을 깨닫기만 했다면 그는 여호와의 채찍질하시는 친절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겔 18:23).

IV. 악에 대한 책임 (왕상 16:7 The Responsibility for Evil)

새 예루살렘 성경(NJB)은 왕상 16:7 에 대한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히 분명한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⁶

⁶ [역자 주: 원문 직역] 덧붙여 말하면[וְגַם] 브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에 임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וְהָיָה לְהִזְעִיזוֹ] 르하흐이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었기[וְהָיָה לְהִזְעִיזוֹ] 리흐요트] 때문이다[וְעַל] 브알]. 또한 그가 그것[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וְעַל אֲשֶׁר] 브알 아세르].

ESV: **Moreover**, the word of the Lord came by the prophet Jehu the son of Hanani against Baasha and his house, **both because of** all the evil that he did in the sight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with the work of his hands, in being like the house of Jeroboam, **and also because** he destroyed it.

개역개정: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

더욱이 바아사와 그의 집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 전달되었다. 첫째로,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는 많은 길로 행하고, 그의 행동으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그가 그[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왕상 16:7 의 마지막 절은 “그리고 또한 그가 그것을 쳐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은 여로보암의 집/왕조를 가리킨다. 여호와와 말씀이 바아사에게 임하여 그 자신의 악행과 여로보암을 흉내낸 것에 대하여 꾸짖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전에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는 것을 승인하셨음(왕상 15:29 참조)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바아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는지 의아해한다.⁷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다. 여호와와 말씀은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할 것이라고 예언한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 바아사는 비난받아야 했다. 거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본문에서 이 문제의 전개 과정을 추적해 보자.

(1) 왕상 14:10-11

아히야를 통한 여호와와 말씀: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갱게 쓸어버릴 것이다

(2) 왕상 15:27, 29

바아사는 여호와와 말씀이 예언했던 것을 실행한다

(3) 왕상 16:7

바아사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말성경: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그가 지은 죄로 여호와와 진노를 자아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⁷ 일부 주석가(예: 몽고메리 및 그레이)는 왕상 16:7 의 마지막 절의 전치사와 불변화사[알-아세르]가 “그가 그것을 쳤을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바아사는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왕상 16:7 에서 동일한 전치사 [알]이 먼저 이유/원인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 유의하면 우리는 마지막 절에 다시 나오는 전치사 [알]이 이유/원인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주석가들(예: G. H. 존즈)은 왕상 16:7 이 가려 있지만 편재하는 신명기적 편집자의 기민한 펜에 의해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신명기적 편집자는 바아사의 행위를 왕상 15:29b-30 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최악된 것으로 보았다. 분명히 신명기적 편집자의 신학적 마음은 둘 다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유연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키겠다고 선언하셨고(왕상 14:10-11) 바아사는 사악하게(왕상 16:7)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것을 수행했다(왕상 15:27, 29). 그래서 바아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전적으로 사실이며 그 자신이 살벌한 권력 찬탈자임을 드러낸다. 이것은 신비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문제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난제는 단순히 기본적인 성경 신학이다. 막 14:21 에 나오는 예수님의 엄숙하고 슬픈 한탄을 들어보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악한 행위(“파는, 배신하는”)에 의해 지원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기록된 대로”)의 문제이다. 이것은 무시무시하다(“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크랜필드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유다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의 일부이다.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행위이고 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를 그분의 찬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분노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⁸

아니면, 사 47:6 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비난을 생각해보라.

내가 전에 내 백성에게 진노하였다.
내가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늙은이에게도
너는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벨론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사 47:8-9).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다룸으로써 자신을 여호와의 심판 아래 두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신다. 그분은 국가들이나 개인들이 그분의 정당한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한 방식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자동 면제는 결코 없다.

⁸ C. E. B. Cranfield,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Cambridge Greek Testament Commentary (Cambridge: CUP, 1966), 424. 이 문제에 대하여 행 2:23 도 숙고해보라.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상스터가 1 차 세계대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다. 1918 년이었다. 플릭스톤이라는 이름의 작은 선체 증기선이 영국 해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감시자는 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는 하얀 선을 간파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미사일이 가져올 재앙을 맛보기 위해 바로 그 순간에 떠오르는 독일 잠수함의 어뢰였다. 감시자는 소리쳤다. 모두가 소리치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은 절망적이었다. 배를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몇 초 안에 그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목표물로부터 몇 야드 이내에, 어뢰 작동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물 위로 코를 들어 올려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지나왔던 길로 곧장 되(돌아서) 쏘았다. 불운할 뻔했던 영국 선원들은 어뢰가 독일 잠수함을 격추시켜 해저로(바다의 무덤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보았다.⁹ 나는 독일 선원들이 그들이 일으켰던 대혼란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와 심판의 도구들도 그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왕상 16:7 의 주요 증언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의 종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악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아마도 이 신학적 수수께끼에 더 매료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명료성 앞에서 떨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아사와 왕상 16:7 은 마 7:21-23 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같은 원칙이 더 폭넓게 그리고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도구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바아사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을 쓰러뜨리고 이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고 결국 영원을 그것들과 함께 보내는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엄숙한 문제다.¹⁰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 단락(왕상 15:25-16:7)에서 여호와와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서 그분의 말씀은 어떠한가?

⁹ Robert J. Smithson, ed., *My Way of Preaching* (London: Pickering & Inglis, n.d.), 137-38.

¹⁰ 이 단락(왕상 15:25-16:7)은 가장 활기차고 즐거운 본문이 아니지만 결코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왕상 15:29; 16:1; 16:7 은 여호와와 말씀이 역사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돈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항상 악을 이기는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벌어지는 역사가 있다.

2. 여호와께서는 왜 악인들을 처벌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다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3. 여러분은 “죄는 창의적이지 않고 단지 모방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바아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놓쳐 버린 기회는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그런 다음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설명하라.

18. 우리 세 왕 (왕상 16:8-28 We Three Kings)

이 본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과음과 모반, 암살과 내란 등 저녁 뉴스에 그 존재 이유를 주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북왕국은 역사의 물살 아래로 기울어져 자신의 자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때 갑자기 북왕국은 사마리아 언덕에 자리잡고 오므리의 통치하에서 약간의 안정을 누린다. 왕들마다 그들 자신의 관심사가 있다. 한 사람은 마시고 취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든다(왕상 16:9). 또 다른 사람은 모반하여 왕이 된 후 극적인 자살을 한다(왕상 16:10, 18). 또 다른 사람은 왕권 경쟁에서 이긴 후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왕상 16:22, 24).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 정치인들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점이다.

이 단락(왕상 16:8-28)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엘라의 통치, 왕상 16:8-14

시므리의 통치, 왕상 16:15-20

정치적 불안정, 왕상 16:21-22

오므리의 통치, 왕상 16:23-28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강해를 하려고 한다.

1. 당신의 기분 전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엘라, 왕상 16:8-14 How Stupid Your Diversions Are)

엘라의 2 년(왕상 16:8)은 (한 해의 일부가 한 해 전체로 계산되었으므로)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아사의 왕조는 엘라의 암살로 멸망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칠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왕상 16:9-10a)

본문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 시므리는 군대와 함께 깃브돈에 있지 않고 디르사와 더 가까운 곳에서 근무 중이었던가(왕상 16:15-16)? 그랬던 것 같다. 아르사는 음모에 가담했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엘라는 한 가지 열정, 곧 자신을 술에 빠져 정신 못

¹ 이 왕들에 대한 대략적인 연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엘라, 주전 886-885; 시므리, 주전 885; 오므리, 주전 885-874. 오므리는 12 동안 통치했지만(왕상 16:15-16, 29), 그 중 3-4 년을 디브니를 진압하는 데 보냈다(왕상 16:23).

차리는 미친 사람처럼 되는 버릇이 있었다. 본문은 금주에 관한 글이 아니다. 엘라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문은 실망으로 한숨을 쉬지 않는가? 이것은 왕국의 지도자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인가? 왕의 집착이 만취하여 자신을 굶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치욕이 아닌가? 이것이 통치자가 남겨야 할 유산인가? “엘라? 아, 확실히, 나는 그를 기억한다. 그는 정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었다!” 나는 왕상 16:9 을 통해 저자는 여러분이 엘라 왕의 모든 어리석은 짓을 보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찰스 12 세는 스웨덴의 왕으로 절대 군주였다. 그는 차갑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었으며, 힘들고 위험한 모든 신체 운동과 활동에 열성적인 참여자였다. 1698 년, 찰스가 16 살이었을 때, 그의 사촌이며 홀스타인-고토프 공작인 프레데릭 4 세가 찰스의 누나와 결혼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5 개월 동안 공작과 찰스는 종들과 함께 난폭한 행동을 했다. 그들은 말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까지 말을 타고 달렸다. 그들은 권총 공으로 궁궐 창문을 부수고, 탁자와 의자를 궁전 뜰로 내던졌다. 저녁 식사 중에 그들은 왕의 대신들 얼굴에 체리 씨들을 던지고, 신하들의 손에서 접시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들은 거리를 질주하며 검을 휘두르고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모자와 가발을 핵 잡아당겼다. 한번은, 찰스가 말을 타고 그의 할머니가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방으로 그의 마적들을 안내했다. 그녀는 놀라서 즉시 쓰러졌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이런 난투극의 와중에, 세 명의 스톡홀름 성직자들은 모두 “왕이 어린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전 10:16)!”라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이 비판은 찰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분명히 그의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²

엘라가 스톡홀름에서 사용된 그 전체 본문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전 10:16-17)

왕이 엘라처럼 술에 취하든, 찰스처럼 불량한 짓을 하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래의 치안 판사 역할을 해야 하는 그의 소명에 대한 왜곡이다. 잠재적인 피해는 통치자가 기분 전환을

² 이 이야기를 위하여 Robert K. Massie, *Peter the Great: His Life and Worl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1), 326-29 을 보라.

일상으로 하는 일로 바꿀 때 더 크지만, 슬프게도, 그것이 그저 왕의 질병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복음주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묘비명을 이미 얻었다. 그들의 삶 중 하나가 어떻게 요약될 것인가? “그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다! 글쎄, 그는 ... 동안 잠시도 컴퓨터를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 교회에는 뉴욕 제트의 모든 라인 배커(상대팀 선수들에게 태클을 걸며 방어하는 수비수)들의 이름을 알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기분 전환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소명을 손상시키는가! 여러분이 엘라가 술에 탐닉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 것이 좋다.

II. 당신의 성공은 얼마나 덧없는가 (시므리, 왕상 16:15-20 How Fleeting Your Success Is)

시므리는 무자비하고 효율적이었다. 그가 술에 취한 엘라를 쳐죽이고(왕상 16:9-10),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아사의 온 집안을 말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왕상 16:11).³ 시므리가 세겔에서 북동쪽으로 6 마일 떨어진 디르사에서 7 일 동안 왕이 될 때(왕상 16:15), 군대는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남서쪽으로 가는 좋은 길인 깃브돈(왕상 16:15b; 참고, 왕상 15:27)을 공격하고 있었다. 시므리는 군인이었지만(왕상 16:9), 깃브돈 진영에 있는 군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곳의 야전군은 오므리 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시므리는 군대의 지원 없이는 쿠데타를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므리의 행위에 대한 소식이 깃브돈에 이르렀을 때, 군대는 한 쿠데타가 다른 쿠데타를 받을 만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오므리를 왕으로 선언했다(왕상 16:16).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므리와 디르사를 향해 진군하여 외곽 도시를 점령했다(왕상 16:17-18a). 시므리는 왕궁 요새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절망의 불길에 휩싸여 죽었다(왕상 16:18b).

이 시므리 부분(왕상 16:15-20)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개의 진술이 있다. 첫 번째는 왕상 16:15b 에 나오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왕이 되니라”는 진술이다. 얼마나 일시적인 재임인가! 두 번째는 왕상 16:19 에 나오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는 진술로 시므리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7 일 동안 다스렸고

³ 왕상 16:11 의 언어는 왕상 14:10 의 언어와 유사하다. 개역개정에는 나오는 14:10 의 “사내”와 16:11 의 “남자”는 모두 [마스틴 브키르] (“벽에 대고 오줌을 누는 자”)란 원문 어구를 의역한 것이다. 이 어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앞에 있는 15 강의 각주 3 을 보라. 시므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계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평민이었을 것이다.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이 7 일 더 계속된 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왜곡에 대하여 7 일의 통치 안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심판하실 만큼 큰 과실로 여기시는 것 같다! 7 일은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7 일은 책임을 지는 시간이다.⁴ 그것은 당신의 색깔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왕이 되니라(왕상 16:15b).” 이것은 정말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기록이 아닌가! 엘라의 피를 그의 손에서 씻을 겨를도 없이 시므리 자신이 끝장나버렸다. 시므리는 우리의 최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닌가?

리터 폰 그라임 장군은 베를린의 총리로 부름받았다. 1945 년 4 월 28 일이었다. 폰 그라임이 도착하자 히틀러는 바로 그를 야전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는 루프트바페의 수장으로 “반역적인” 헤르만 괴링을 대신할 것이다.⁵ 물론, 루프트바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틀 후에 히틀러는 권총을 자신의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일은 정부가 없는데 고위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적어도 폰 그라임은 그 당시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시므리는 그의 지위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7 일이 걸렸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기념물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배우는 데 상당히 더딘 편이다(참조, 시 39:6). 시므리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진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이 순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시므리는 “한 주 동안” 왕이었다!

⁴ 어떤 주석가들은 왕상 16:19 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존즈(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1:294)는 이의를 제기하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진술은 그렇게 짧은 통치에 적합하지 않으며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존즈의 논평은 어떤 저자라도 제 정신을 가졌다면 왕상 16:19 이 시므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만큼 분별력이 없는 후대 편집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저자가 이 분명한 변칙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어쩔 것인가? 그가 우리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왕상 16:19 을 배치하였다면 어쩔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 정기적으로 그가 어떤 형태의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메샤룸-칙령을 반포했다면, 시므리는 자신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계속 유지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을 것이다. 메샤룸-칙령에 대하여는 D. J. Wiseman, “Books in the Ancient Worl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3 vols. (Cambridge: CUP, 1970), 1:43-44 그리고 그의 논문 “Law and Order in the Old Testament,” *Vox Evangelica* 8 (1973): 11-12 을 보라. 그리고 Hannes Olivier, NIDOTTE, 2:563-64 도 참고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특정 제안을 확신할 수 없다.

⁵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82-83.

III. 당신의 추구는 얼마나 하찮은가 (오므리, 왕상 16:21-28 How Trivial Your Pursuits Are)

시므리의 화장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딜레마를 해소하지 못했다. 백성은 분열되어, 일부는 오므리를 따르고, 일부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다(왕상 16:21).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진 "기낫의 아들 디브니"란 성명에 유의하면) 디브니는 오므리보다 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약 4 년 동안 계속되었다(왕상 16:15[아사 27 년]과 왕상 16:23[아사 31 년]을 비교하라).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디브니의 추종자들보다 우세하였다(왕상 16:22a). 그런 다음 우리는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왕상 16:22b)."라는 놀랍도록 간결한 진술을 읽게 된다. 디브니는 살해되었는가? 아니면 폐렴이나 맹장 파열로 죽었는가? 어느 쪽이든 확실하지 않다. 오직 확실한 것은 디브니는 장례식을 하고 오므리는 대관식을 했다는 사실이다.

오므리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6 개의 절(왕상 16:23-28)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12 년 동안 다스렸다(왕상 16:23). 오므리는 엘라와 같은 불행한 술꾼도 아니고, 시므리와 같은 한 주간 반짝이는 불빛도 아니다. 그는 진정한 왕국을 세우고 안정된 정권을 확립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오므리에게 단 6 개의 절만 할애하여 보고한다. 그것도 **거의 모든 절이 일반적인 공식(등극 공식과 사망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한 개의 절(왕상 16:24)만이 오므리의 독특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절은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고 부르며 그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것을 전한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악을 행했다. 물어볼 질문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사실, 오므리는 그 당대의 역사에 그의 흔적을 남겼다. 왕상 16:24 이 말하듯이, 그는 세멜의 산을 사서 그것을 요새화하여 이스라엘에게 새 수도를 주었다. 디르사에서 서쪽으로 12 마일,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7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300 피트 높이의 언덕에 있었고, 그 아래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였고, 포위 공격을 제외하고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렇다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은 우선 방어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에스들랴론 평원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선전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 몇 년의 세월과 단절하고 어딘가로 가는 정권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모압 왕 메사가 그의 비문에서 오므리가 "수년 동안 모압을 욱보였다"고 인정한 것을 통해 오므리가 모압 북부에 군사력을 휘둘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외교적으로 오므리는 아마도 그의 아들 아합과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함으로써(참조,

왕상 16:31) 페니키아인들과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오므리는 페니키아 하면 곧 무역을 뜻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황소 시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치적으로, 오므리는 다음 100 년 동안 앗수르인들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부르는 유산을 남겼다.⁶ 그는 성취자였다. 그는 일을 성사시켰다. 오므리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가락 하는 야무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상 16:24 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굿모닝, 이스라엘”의 카메라 제작진은 오므리의 예비 시찰 투어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방송국 스튜디오의 앵커맨은 왕이 수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처럼 눈부신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지나가는 논평 후에, 오므리는 왜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도시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향수의 횡포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장황한 발언을 한다. 물론, 최고의 여성 기자가 세멜과 함께 그의 집 옥상에 앉아 오므리에게 언덕을 판 소감을 묻는다. 아침하는 언론은 오므리에게 적절한 미디어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강조가 아니다. 저자는 위대한 오므리에 대해 지나치게 감동하지 않는다. 오므리는 그 산을 샀고 오므리는 악을 행했다. 여기에 상당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왕이 있지만,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일반적인 공식을 통해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는 통치했고, 악을 행했고, 장사되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역 도서관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을 검색해보라(왕상 16:27). 성경의 설명은 부고처럼 재치가 있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왕상 16:25-26).” 여러분은 전에 이 모든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저자는 자신이 오므리의 업적들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오므리의 추구를 엘라와 그의 술잔처럼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며, 시므리의 부상처럼 덧없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오므리는 실질적인 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일계명과 이계명(출 20:3-6)이 무시되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⁶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요약들을 위하여 Walter C. Kaiser, Jr., *A History of Israel from the Bronze Age through the Jewish War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8), 323-26 그리고 Merrill F. Unger, *Israel and the Aramaeans of Damascus* (1957;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1980), 62-64 을 보라.

이것은 우리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본문이 아닌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 13:44-46 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⁷ 여러분이 삶에서 집착하는 것 중에 궁극적으로 사소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이끄는 열정은 하늘로부터 하품을 이끌어 낼 뿐이 아닌가?

IV. 당신의 책임은 얼마나 엄숙한가 (왕상 16:12-13, 19, 25-26 How Solemn Your Responsibility Is)

이 전체 단락(왕상 16:8-28)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자멸하기로 결정했음을 거의 추측할 수 있다. 왕상 16:8-22 에서 우리는 혼란, 음모, 무질서만을 만난다. 시므리가 한 줌의 재로 변한 후에도 해결책이 없다. 디브니와 오므리는 왕권을 경쟁하고 백성의 분열로 인해 땅에 재앙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역사의 뒤죽박죽인 겉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 이 배신이 가득한 영역에서조차도 역사는 단순히 재앙의 연속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지배한다. 여러분은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할(왕상 16:9-10) 뿐만 아니라 바아사에 속한 남자를 전부 말살하는(왕상 16:11-12a) 무시무시한 피의 숙청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시므리는 디르사를 피로 물들였다. 그렇다. 그것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와 말씀 같이 된 것이었다(왕상 16:12b).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왕상 16:13a).” 여호와께서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말씀하셨다(왕상 16:1-4). 그리고 그분은 시므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셨다. 참으로 신비이지만(이에 대하여 앞서 논의한 바 있는 17 강을 참고하라), 또한 명료한 것은 시므리의 땀샘이 아니라 여호와와 작정이 역사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다스리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정의하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는 쉽게 놓칠 수 있다. 시므리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여로보암의 길과 그의 죄 중에 행한 것(왕상 16:19)”이었다. 오므리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새로운 악의 깊이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왕상 16:26; 여기 마지막 절은 왕상 16:13 에도 나왔었음)”는 같은 범주에 남아 있었다. 바아사와 엘라의 죄, 그리고 시므리와 오므리의 죄는

⁷ (마 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행위들은 일계명과 이계명의 위반이다(출 20:3-6).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마치 여호와를 노엽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았다.

내가 “to exasperate 노엽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아스]이다. 일반적으로 역본들은 이 단어를 “to provoke, 도발하다, 화나게 하다”로 번역한다.⁸ 그것은 삼상 1:6-7 에서 사용된 동사이다. 거기서 그것은 한나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값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것을 묘사한다. 브닌나는 한나를 노엽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저자는 그것이 우리가 일계명과 이계명을 거역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계명과 이계명을 위반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노엽게 하고 격분시키며, 그 결과로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실 정도로 밀어붙인다.

반복된 우상 숭배를 통해 여호와의 계명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자기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저자는 왜 이 문제를 되풀이해야 했겠는가? 주전 560 년에 이스라엘은 거짓된 숭배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알 수 없었는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으려면 회개할 책임, 곧 여호와만을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행할 책임을 볼 수 없었는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의 통치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는 이스라엘에게 이 왕들이 매달린 가짜 종교를 부인하라는 엄숙한 요구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서양 문화에 너무 이질적이다. 우리 문화는 정치를 주된 장면으로 보며, 종교를 좋기는 하지만 별로 관계가 없고 어쨌든 민주 사회의 다원적 기대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의 문화는 한 신이 어떻게 다양한 종교적 선호에 대해 화를 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에 대해 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신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문화의 판단을 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태도를 충분히 흡수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며 듣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때로 고급 수준의 성경 공부가 이와 같은 본문에서 심각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 주석들은 자주 열왕기에서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본문(즉,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⁸ 이 논의는 위의 15 강에 나오는 삼상 14:1-20 에 대한 나의 설명과 비슷하다.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고 말하는 본문)을 “신명기 사가적”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본문은 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의 본문을 항상 다루고 있던 가상의 편집자 그룹 중 한 사람의 작업이거나 삽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열왕기상 16 장 13 절과 26 절을 “신명기 사가적”이라고 표시하고 즉시 그것을 길들인다. 사실상 여러분은 이것들이 이 편집자들의 마음에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여기에 반영된 그들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은 인간의 의견이다. 그 아이디어는 이 신명기 사가적 편집자들이 그들의 특별한 관심사들, 그들의 선호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들이 열왕기 전반에 걸쳐 그것들을 삽입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들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편집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그분으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시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당신님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사가적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⁹

나는 최근에 켄터키 주 제퍼슨 카운티(루이스빌) 순회 법원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읽었다. 28 세의 피고인은 지난 5 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성 5 명과 여성 7 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틀에 걸쳐 9 시간 동안 심의를 했지만 평결을 내릴 수 없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들은 동전을 던져 결정했다. 피고가 졌다. 그들은 그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판사는 배심원이 어떻게 평결에 도달했는지 들었을 때 그는 오심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잘 모른다. 아마도 그 친구는 유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배심원은 잘못된 절차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전 던지기로 결정합시다.” 그러니 본문의 경고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괴롭히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시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은유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엘라는 그의 소명을 어떻게 손상시켰는가?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는가?

⁹ 비평주의자들은 내가 여기서 너무 단순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반드시 폄훼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확실히 대부분 폄훼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의 주석들을 읽은 적이 있다.

2. 시므리의 짧은 통치는 그의 사악함의 강도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3. 오므리는 그의 통치에 있어서 두 명의 전임자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4. 이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어떻게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가?
5.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는가?

19. 적그리스도가 그림자를 드리우다 (왕상 16:29-17:1 Antichrist Casts His Shadow)

그들은 1698 년 9 월 5 일 아침에 깜짝 놀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황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터 대제는 18 개월 동안 선박 건조 방법을 배우고 다른 기술적 업적들을 견본 삼아 살펴보기 위해 서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피터 대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모스크바에 퍼지자 귀족들과 친구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바탕 포옹을 한 후, 피터는 갑자기 길고 날카로운 이발사의 면도칼을 휘두르며 모인 그룹의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터의 6 피트 7 인치 육중한 몸에 눌러 저항하지 못했다.) 모여든 모든 사람이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턱과 뺨이 맨살이 되고 많은 수염털이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깎이는 것을 차례로 복종해야 했다. 그것은 사회적 지진이었다—어떤 사람들은 면도를 치명적인 죄로 여겼다. 그러나 피터는 서 유럽을 다녀왔다. 그는 그러한 전통과 관습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러시아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터는 소위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바싹 자른 수염은 러시아가 피터 대제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¹

그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합의 통치(주전 874-852 년경)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 확실한 노선 변경이었다. 매우 선별적인 내러티브에서 아합이 (여기서부터 거의 열왕기상 끝까지) 총 여섯 장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합 정권은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독특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적그리스도가 미리 도착한 것과 같았다.

내 생각으로는 이 짧은 단락(왕상 16:29-17:1)은 그 자체로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합 왕의 재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이한 위험을 안겨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단락의 메시지는 두 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I. 시대가 악하다 (왕상 16:29-34 The Days Are Evil)

그들은 그렇게 사악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이 정치인이거나 경제 고문이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아합은 “이십이 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왕상 16:29). 이는 안정을 의미한다. 쿠데타도 없었고, 암살 기술을 연마한 거친 시므리(참조, 왕상 16:9-10) 같은 유형도 없었다. 그리고 아합이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혼인을 한(왕상 16:31) 결혼 동맹도 있었다. 아마도 오므리가 이러한 주선을 했을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상품은 이제 페니키아 선원을 통해 세계 항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¹ Robert K. Massie, *Peter the Great: His Life and Worl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243-45.

이익이 되었다.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누가 번영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는가? 모든 상인이 가방에 랩탑 컴퓨터를 넣고 벨트에 휴대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본문은 정치적 관점보다는 예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왕상 16:30)”고 하며 아합이 독특하게 악했다고 단언한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지금까지 악의 절정으로 평가받았지만(왕상 16:25), 갑자기 그 상이 그에게서 떼어져서 아합에게 넘겨졌다. 아합은 분명히 그 범주에서 그의 아버지를 능가했다. 저자는 왕상 16:33 에서 강조적으로 그의 평가를 되풀이하며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말한다. 아합은 이 특별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왕상 16:31-33a)

바알 숭배—이것은 제일 먼저 아합의 이름을 배교의 기념비에 새기는 것이다. 본문은 상당히 바알 위에서 튼다. 우리는 이세벨의 아버지인 옛바알을² 통해 처음으로 이 용어를 만난다. 그런 다음 스타카토처럼 우리는 아합의 바알 숭배, 바알 제단, 바알 신전에 대하여 듣는다. 본문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보다 아합의 바알 숭배가 더 개탄스럽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 비교해 보면 여로보암의 것은 색분필 색조의 악이고, 바알의 것은 더 어둡고 더 짙은 색조의 악이다. 여로보암의 자국산 숭배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아합의 수입산 이교 숭배는 생하수(미처리 하수)를 빨아먹는 것과 같다. 둘 다 좋지 않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더 나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알이 두로의 신 멜카트(Melqart)와 동일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제되는 바알인지 논쟁한다.³ 그것은 중요한가?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스라엘의 숭배 호르몬을 가진 삿 2:11-13 로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² 후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참조, *Antiquities* 8.13.2; *Against Apion* 1.18)에 따르면 옛바알은 아스타르트의 제사장이었고 이전 왕을 암살함으로써 왕위를 차지했다. 참고를 위해 Pauline A. Viviano, ‘Ethbaal,’ ABD, 2:645 도 보라.

³ 많은 사람들이 멜카트와의 연관성을 제안하지만, John Day, “Baal (Deity),” ABD, 1:548 의 주장들을 주목하라.

바알 숭배는 어떤 이유에서든 치명적이지만, 그것이 그 자체의 열정적인 집안 전도사와 함께 포장되어 왔을 때 더욱 그렇다. 이세벨은 궁전 예배당의 경계 안에서 개인적으로 외국 미신을 실천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세계적인 바알 숭배”를 실행했다. 그녀는 다산 신학에 능숙하고 왕실의 구내 식당에서 자유 게시판물을 즐기는 바알 광신도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로 왔다(왕상 18:19). 이세벨은 왕국에서 자기 주장을 했다(왕상 21:25). 이것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도살하는(왕상 18:4, 13) 것과 정의를 사칭하여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들을 짓누르는(왕상 21:7-15) 것을 의미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정결한 제단들을 박살내도록 지시한 것은 아마도 아첨하는 이스라엘 개종자들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이세벨의 명령이었을 것이다(왕상 18:30; 19:10, 14). 아합이 완전히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친히 예언적 비판을 미워했으나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압제하지는 않았다(왕상 22:8, 26-27). 그러나 이세벨은 원동력이었고, 열렬한 선전가였으며, 이스라엘 안에 그녀의 조상들의 신앙을 위한 교두보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몸에 에큐메니컬한(세계교회주의적인) 뼈가 없었다. 그녀는 바알 숭배를 두 배로 치명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당연히 저자는 아합의 통치와 그것을 특징짓는 과도한 악에 대한 요약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합 소개” 부분을 떠나기 전에, 그는 왕상 16:34 을 통해 아합 시대의 상황에 대한 한 예를 덧붙인다.

(왕상 16:34) 그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⁴

이것은 건설 공사에 관한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그것을 아합 통치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포함시킨다. 왕상 16:34 을 시작하는 “그의(=아합의) 시대에”라는 어구는 히엘이 자신의 사적인 주도가 아니라 아합의 지시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여기에 나오는 [바나](“건축하다”)는 왕상 15:17 에서와 같이 “재건축하다” 혹은 “요새화하다”는 의미이다. 여리고 멸망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다(수 6:26). 왕상 16:34 의 후반절에서 저자가 언급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 저주를

⁴ 내가 “at the cost of(개역개정: 잃다)”라고 번역한 어구들은 히브리어 전치사 [브]가 값 혹은 교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것을 나타낸다.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An Outlin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76), sect. 246 을 참고하라.

⁵ 참조, 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247.

가리킨다. 그 저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복 이후 정착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참조, 수 18:21; 사 3:13 [종려나무 성읍 = 여리고]; 삼하 10:5). 그렇다면 그 저주는 여리고를 요새로 재건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왕국이 분열된 후(주전 931 년) 여리고는 분명히 북왕국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 그곳은 요르단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토의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전략적 장소였다. 아합은 방어 수단과 모압을 통제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요새화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 감히 여호수아의 저주에 도전하기를 원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아합 정권이 최초로 도전을 감행했다. 그는 국방부에 그 계약을 벤엘의 히엘에게 주라고 말했다. 히엘이 터를 수리했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다. 히엘이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성문을 세울 때, 그는 그의 막내 아들 세굽의 장례식을 준비했다.⁶

본문은 여러분에게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공공연한 무시**가 아합 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저자는 단지 히엘의 아들들이 여호수아의 저주에 따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여리고는 요새화되었는가? 그렇다. 아합의 국방 전략의 기념물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기념물들도 있었다. 벤엘 밖으로 나와 히엘의 가족 묘지로 가서 아비람과 세굽의 무덤을 보라. 그 무덤들은 여호와와 확실한 심판에 대한 기념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합의 통치였다. 그 시대에 사람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다.⁷

그렇다면 왕상 16:34 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런, 그것은 아합 시대의 징후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대표하고, 그 시대의 풍조를 보여준다.” 바톤 페인이 1942 년에 신학교 훈련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러한 징후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한 신학교에 등록했었다. 그의 첫 번째 구약 수업에서 그는 교수가 자기 반 학생들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자기 성경을 포장 도로에 던지고, 그의 자동차 잭을 성경 위에 올려

⁶ 나는 (시몬 드 브리스와 폴 하우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죽음들이 성읍을 세울 때 기초석에 넣는 유아들의 희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이가 얼마였던 간에 아들들의 죽음으로 여호와께서 가하신 심판의 행위였다.

⁷ 왕상 16:34 에 대한 매우 도움이 되는 신학적인 강해를 위해 M. B. Van't Veer, *My God Is Yahweh* (St. Catharines, Ont.: Paideia, 1980), 9-26 을 보라.

놓고, 그의 차를 그 위에 올려 놓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⁸ 그것은 신학교 신입생들에게 성경이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은 경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화하려는 상징적인 에피소드였다. 사실, 그것은 그 신학교가 성경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상 16:34 은 “이것이 아합의 시대이다.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악이 무슨 선이라도 되는가? 성경(혹은 성경의 주석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합이 지나친 악과 엄청난 불경건으로 일등상을 받았는지를 주입시킴으로써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이라도 있는가? 우선, 이 본문은 그것의 사실주의로 우리를 진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시대를 평가하면서 문화적 퇴폐와 사라지는 표준과 불경건한 정부와 영적인 타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라고 추론하는가! 그런데 이 본문은 (내 생각에, 도움이 되도록)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악은 기하급수적인 “진전”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여로보암 수준의 불경건과 맞서다가 아합 수준의 불경건과 싸울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관 문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 본문은 그것의 희망으로 우리를 지탱해 준다. 어떻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와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대를 묘사하는 여호와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을 항상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열이 오르는 때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계 2:13 의 증언이 아닌가? 버가모의 신자들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위로의 물결이 그들 위로 밀려왔을 것임이 틀림없다.⁹ 주님께서는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II. 방어 준비가 완료되다 (왕상 17:1 The Defense Is Ready)

가끔 우리 집에 저녁 식사 손님이 오면, 내 아내는 여주인으로서는 (내가 인정하는 바) 특권을 행사하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손님들이 바로 디저트까지 먹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디저트를 먹으러 다시 올 것인지 물어본다. 이 즐거운 일은 항상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나는 항상

⁸ Philip Barton Payne, “J. Barton Payne,” *Bible Interpreters of the Twentieth Century*, ed. Walter A. Elwell and J. D. Weaver (Grand Rapids: Baker, 1999), 345.

⁹ 버가모는 아시아 최고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높이 40 피트의) 제우스 제단을 자랑했다. “사탄의 권좌”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를 암시할 수 있다. 참조, ISBE, 3:768.

디저트를 바로 먹는 쪽에 표를 던지고, 예상된 중립을 표시하는 손님들이 나와 뜻이 같음을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아주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가장 좋은 부분에 이르려고 할 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자주 성경을 읽는 방식에 적용된다. 우리는 한 장의 끝에 와서 휴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들의 구분이 여러 경우에 해석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석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디저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들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 장을 읽었으면 바로 다음 장으로 뛰어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열왕기상 16 장의 끝이 이에 대한 적절한 경우이다. 여러분은 장들 사이에 있는 하품을 유발하는 몇 센티미터의 빈 공간을 부인하고서 바로 열왕기상 17 장 1 절로 돌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왕상 17:1 은 왕상 16:29-34 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왕상 17:1 은 인상적이다. 우리는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모든 것이 바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다(왕상 16:31-33a). 그 때 갑자기 우리는 한 선지자를 보게 된다. 그의 이름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 성경에서조차도 우리는 약간의 준비, 혹은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KJV 나 RSV 의 문체를 따른 글을 읽기를 기대한다. “자, 보라!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선지자이고, 이름은 디셉 사람 엘리야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몇 줄 더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왕상 17:1 은 다음과 같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왕상 17:1, 개역개정)¹⁰

너무 갑작스럽다. 소개가 없다. 그의 이력서에서 가져온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가?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가? 그는 스포츠 팬인가? 그는 어떤 취미를 즐기는가? 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적어도 북미인들은 이 모든 무의미한 질문들을 몹시 알고

¹⁰ 어떤 이들은 “the Tishbite from Tishbi in Gilead, 길르앗에 있는 디셉 출신 디셉 사람”이라고 번역한다. 본문은 어렵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는 것에 유의하라. 저자는 동일한 용어를 왕상 16:33 에서 사용했다. 그러므로 아합이 노하시게 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다.

싫어한다. 우리는 엘리야가 아합을 어디에서 만났는지조차도 모른다.¹¹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메시지가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은 억제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신 11:15-17; 참조, 신 28:23-34). 게다가 엘리야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발표한다. 그러한 예측적인 예언은 변명하는 자들이나 다른 세속주의자들의 의표를 찌른다. 지속적으로 우로(雨露)가 없는 것은 “불운”이나 불가사의한 신비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그것을 아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행위로 발표했기 때문이다.¹² 그러므로 결핍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¹³

비의 지연은 또한 그의 것이라고 주장되는 바알의 기량에 타격을 줄 것이다. 아무리 줄이더라도 최소한 바알은 다른 생명을 주는 활동과 더불어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비를 보내는 다산의 신, 폭풍의 신이었다. 가나안 신화에서 여신 아세라는 바알이 자신의 궁전을 갖도록 허락한 것에 대하여 엘에게 감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제 바알은 우기를 시작할 것이다.

수로에 물이 넘치는 계절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구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의 번개를 땅에 번쩍일 것이다.¹⁴

그러한 기상학적 과시는 바알의 힘의 표시였다. 엘리야의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음(우로 부재)”은 바알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이 어떤 종류의 다산의 신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전문 기술과 전문 분야에서 생산할 수 없다면, 그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바알의 신성은 밭의 갈라진 틈이 넓어질수록 쪼그라들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¹¹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252.

¹² 참조, M. B. Van't Veer, *My God Is Yahweh*, 51.

¹³ 이슬과 비에 대해서는 Mark D. Futato, NIDOTTE, 1:900-902([게셈]) 및 2:363-64([탈])를 참조하라. 그리고 Frank S. Frick, “Palestine, Climate of,” ABD, 5:122-25 도 참조하라. 이슬([탈])은 우리가 이슬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벼운 비나 가랑비도 포함한다. 건기(5 월-9 월)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은 중요하다. [역자 주: 왕상 17:1 에 나오는 “비”는 [마타르]이고, “이슬”은 [탈]이다.]

¹⁴ Michael David Coogan, ed./trans., *Stories from Ancient Canaa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101.

바알의 수도꼭지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조차 한다. 여호와께서는 바알이 창백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제 나는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한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의 개입에 들어 있는 격려**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나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 요점으로 가게 하라.

1865 년,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 북군과 남군의 전열은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 남쪽과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조지 피켓은 북군의 원편 군대에 대항하여 움직였고, 그의 부하들은 1,800 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켓은 그 후 파이프 포크스라는 곳으로 철수했다. 분명 로버트 E 리 장군은 원통해 하였다. 그는 파이프 포크스가 남부 연합의 철도 수송을 보호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곳을 보유하라고 들었다. 피켓 장군은 전날 그의 공격이 북군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하들을 적절한 수비 위치에 배치했고 필 세리단이 공격하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운 좋게 노토웨이 강에서 청어를 잡은 동료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피켓은 기병대장 피츠휴 리와 함께 기꺼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전선의 뒤로 갔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맛있는 생선을 너무 많이 나눌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세리단이 공격했을 때—정말 그가 공격했을 때—아무도 피켓이나 피츠휴 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청어 구이를 즐기며 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피켓이 자신의 사단으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의 절반이 총에 맞거나 사로잡혀 갔다.¹⁵

나는 그것이 우리가 종종 왕국의 종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상상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선가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적절한 경계가 부족하므로 목숨을 잃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도록 남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상 왕상 17:1 이 제시하는 그림이 아니다. 우리는 로널드 월러스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을 더 낫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가[엘리야가] 이렇게[너무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악의 큰 움직임을 볼 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미 은밀히 반격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악의 안정을 훼손하기 위해 지하에서 일하시는

¹⁵ Shelby Foote, *The Civil War: A Narrative*, vol. 3, *Red River to Appomattox* (New York: Vintage Books, 1986), 870.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선지 모르는 곳에서 그분을 섬길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경우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악이 번성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피상적인 번성이다. 악이 승리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의 명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보장해줄 그분의 사람과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시고 거기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¹⁶

나는 윌러스가 이 본문에 대해 문맥적으로 환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교신앙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입하고 있고 바알 숭배가 득세하여 여호와와 남은 자들을 소멸시킬 것처럼 보인다. “그 때 엘리야는 ... 아합에게 ... 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밀히 그분의 반격을 준비해 두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사탄의 권좌가 사마리아에 세워졌지만 “악이 승리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시고 거기에 계셨다.”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여호와께는 항상 방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뼈에 철을 넣고 여러분의 내장에 강철을 넣는 것이 아닌가?¹⁷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아합의 죄는 그의 아버지의 죄보다 어떻게 더 나쁜가?
2.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가?
3. 이 본문은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4. 아합이 바알 숭배를 추구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한 것보다 더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5. 엘리야의 가뭄 선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알 숭배의 중심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¹⁶ Ronald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3.

¹⁷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에 대한 알렉산더 맥클라렌의 고무적인 강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그것은 그의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vol. 2 of the Baker reprint edition, part 2, pp. 240-44 에서 볼 수 있다.

20. 하나님 전쟁의 시작 (왕상 17:2-16 The Beginning of a God War)

1863 년 말, 남북 전쟁이 있던 때 두 어린 애들이 백악관의 난로 앞에 있는 양탄자에 앉아 있었다. 한 아이가 저녁 여흥을 위해 다른 아이에게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드 링컨은 뽐내며 그의 어린 사촌 캐서린 헬름을 위해 그의 아버지의 사진 하나를 들어올리며 “이분이 대통령이야.”라고 외쳤다. 캐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니야,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야. 데이비스씨가 대통령이야.” 태드는 분개하며 “에이브 링컨 만세!”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그의 사촌은 “제프 데이비스 만세!”라고 대꾸했다.¹ 캐서린은 켄터키 출신이었다. 그녀는 에이브 링컨이 그녀의 삼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녀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것은 열왕기상 17 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흡사했다. 전위적(前衛的, 혁신적) 전도자들은 “바알이 신이다.”라고 외치는 한편 정통적 전도자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다. 우리는 하나님 전쟁의 시작을 본다.

나는 이 강해를 어느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지 않고 오히려 각 단락이 일차적으로 주는 교훈들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I. 여호와의 말씀의 부재 (왕상 17:2-3 The Absence of Yahweh's Word)

열왕기상 17 장에 중심 주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엘리야는 왕상 17:1 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슬이나 비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할 때 이것을 암시한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은 확실히 여호와의 말씀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2 절)”은 엘리야의 여정을 지시하고(2-4 절), 엘리야 자신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을 한다(5 절). 변화된 상황 아래서(7 절) 여호와의 말씀은 엘리야의 다음 행동을 명령하고(8-9 절) 소망이 없는 과부가 그의 전 생계를 걸고 모험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13 절) 재확신을 제공한다(14 절). 그 결과로 그녀는 매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한 예언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16 절). 여호와의 말씀(24 절)은 비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실에 직면해서도(17 절 이하) 믿을 만한 것으로 판명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17 장 전체에 배어 있고 17 장을 하나로 묶는 주제이다. 잠시 이 사실을 접어두기로 하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는 분명하였다.

¹ Ruth Painter Randall, *Mary Lincoln: Biography of a Marriage*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3), 300.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근처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왕상 17:3).² 그런데 왜 엘리야는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가정하는 강해자들이 대다수다.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었고(왕상 18:4)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면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악의로부터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안하신 그분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 진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최고의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존 에프 케네디의 **왜 영국이 잠들었는가(Why England Slept?)**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 그것은 베스트 셀러의 목록에 올랐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23 세의 청년이 쓴 책이 어떻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는가? 글쎄, 당연히, 많은 부수가 팔렸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셉 케네디가 3 만과 4 만 사이의 부수의 책들을 사 줌으로써 문학적 성공의 길을 원활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³ 이 명백한 설명은 너무 간단하다.

나는 엘리야의 사라짐에 대하여 왕실의 분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반트 베르는 큰 도움을 준다. 그는 우리가 엘리야를 보는 바른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엘리야가 일반적인 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 오히려 “엘리야의 역할은 이 이야기에서 직분자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느 지역을 떠날 때 여느 톰, 딕, 해리, 혹은 아사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라지는

² 그릿 시냇가의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것은 요단강 근처에 있었다. 그렇다고 NASB, NIV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는 것처럼 반드시 요단강의 동쪽이라고 할 수 없다. 히브리어 전치사구 [알 프네]는 그렇게 번역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 Joel Drinkard, “*al pēnê as 'East of,'*”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1979): 285-86 을 보라.

³ Marvin Olasky, *The American Leadership Tradition* (Wheaton, IL: Crossway, 2000), 233-34.

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왕상 18:1-2) 본문은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우려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시몬 드 브리스(Simon 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18)는 왕상 17 장에서 그가 숨은 것은 “상징적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것이다.”⁵ 엘리야의 사라짐은 이스라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초래한다.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은 땅의 가뭄과 주님의 침묵이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사라짐과 그분 목소리의 침묵을 몹시 괴로운 심판으로 여긴다(삼상 28:6, 15; 시 74:9; 암 8:11-12). 서구의 교회는 이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른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제한된 수의 성경 사본이나 활동하는 선지자의 현존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그 이후에 살며 우리 손끝에 성경을 두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월터 카이저는 그가 동부 연안의 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한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 교수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앙큼한 학생들이 그 교수로 하여금 로마서 1-5 장에 대한 그의 이해를 논의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얼마동안 주의깊게 그리고 웅변적으로 그 본문을 설명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비참한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판결을 받기 위해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이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대담하고 공정하게 다루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 표면상 신랄한 공격이 학생들의 참을성을 풀어놓기 시작했다(분명 재털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학생들 중 하나가 “이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이 본문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교수는 냉소적으로 “누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⁶ 그는 로마서를 갖고 있었고, 로마서를 이해했고, 로마서를 설명했다. 요점을 말하면,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 개의 번역본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복음주의 교파들을 위해 내놓은 58 개의 스터디 바이블 중의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 그 이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으로부터 사라져 버린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경악할 사건이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더욱 더 그렇다.

⁵ Van't Veer, *My God Is Yahweh* (St. Catharines, Ont.: Paideia, 1980), 65.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246-47 도 참고하라.

⁶ Walter C. Kaiser, Jr., and Moises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167-68.

II. 여호와와 습성의 기묘함 (왕상 17:4-9 The Strangeness of Yahweh's Habits)

“매일 밤낮으로 그것은 동일한 이야기였다: ‘하늘은 하나님의 화를 말하고 있고, 궁창은 그분의 분노의 열기를 선언하고 있다.’”⁷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보복으로 주어진 가뭄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다. 여호와와 그는 그에게 그분이 까마귀를 명하여 그릿 시내에서 그를 먹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4 하반절).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6 절).” 까마귀들은 꾸준히 그렇게 했지만 시내가 말라버렸다(7 절). 걱정할 것이 없었다. 여호와와 말씀은 이 변화된 환경에도 적절했다(8 절).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한 과부를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주도록 주선해 둔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9 절). 여기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위한 여호와와 기묘한 공급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보증을 의도한다고 추론해 버린다. 동일한 방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빨리 추가한다. 바라는 바이지만 여호와와 실제 까마귀들을 사용하시어 치여 죽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동물을 우리 발 밑에 떨어뜨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직 혹은 재정적 위기 혹은 장래의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곧장 뒷받침해 줄 근거 구절을 찾으려 마 6:25-34 혹은 눅 12:22-34 로 간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이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본문을 “원리화하기(principilize)” 때문이다. (여담으로, 본문으로부터 지지받는 어떤 원리를 찾아 내는 일은 매우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을 말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쉽게 그러나 미묘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엘리야와 동일시할 때 일어난다. 엘리야가 신자였고 나도 신자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하셨던 것을 동일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르게 동일시하면, 엘리야는 주님의 종이었고, 나도 주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⁸ 그렇지만 무슨 근거로 나는 엘리야와 나를 동일시하는가? 무슨 근거로 나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 있던 신자들(왕상 19:18)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가? 그 남아 있던 신자들은 왕국 종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⁷ Van't Veer, *My God Is Yahweh*, 84.

⁸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적적으로 공급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분이 틀림없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것이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의문시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사람들과 함께 가뭄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까마귀나 음식을 제공하는 과부를 만난 적이 없었다.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보통 백성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특별한 사역자와 동일시할 권리를 주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배교자들처럼 여호와와의 일시적 심판이 주었던 황폐와 핍절을 당하고 있었다.⁹ 이 단락은 나에게 굶주림이나 다른 재앙들을 막아주는 예방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까마귀들을 결코 만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한 사건에 일반 신자 개개인을 위한 위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가? 아니, 분명히 들어 있다. 나는 반트 베르가 적절하게 원리화했다고 생각한다.

엘리야의 생명은 그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되어야만 했다. 그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보존되도록 돌보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다루시는 패턴의 특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도록 하신 일이 끝나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가 보존되도록 돌보실 것이다. (조지 힛필드는 그의 일이 마칠 때까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임무가 끝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가 택하신 방법—질병 혹은 사고 혹은 역병 혹은 기근—을 통해 데려가실 것이다.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문제는 죽음을 주님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들의 구원주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기 때문이다.¹⁰

나의 소명이 완수되지 않는 한, 나는 보존될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원리에 대해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한 후에도 나는 이 본문에 더 탁월한 해석학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⁹ 이 부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나는 M. B. Van't Veer, *My God Is Yahweh*, 73-79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는 한 두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의 전반적인 논의가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¹⁰ Van't Veer, *My God Is Yahweh*, 79.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방법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에는 전형적으로 창조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에게 먹이게 할 것이다(왕상 17:4).”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약간 움츠러들지도 모른다. 까마귀들은 그 자체로 부정한 동물이었다(레 11:15; 신 14:14).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뉴와 관한 한, 까마귀들은 먹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썩은 고기를 먹는 이 하늘 동물들이 엘리야에게 하루에 두 번 떡(음식)과 고기를 계속 가져왔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을까? 묻지 마라. 그저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닌가! 그리고 그릇 시내가 말랐을 때 여호와와 말씀은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새로운 지시를 한다. 엘리야는 “내가 그 곳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려는(왕상 17:9)” 사르밧으로 가야 했다. “과부”와 “음식을 주게 하다, 부양하게 하다”를 단숨에 연결하면 모순되는(oxymoronic) 것처럼 들린다.¹¹ “과부”란 거의 확실하게 “가난”과 “절망적 궁핍”을 내포하는 단어이다.¹² 철기 시대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야간 학교를 다니거나 컴퓨터 기술을 습득하거나 지역 병원의 직원 자리를 얻지 못했다. 과부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돌보아 줄 자신의 탁아소를 자기 집에 열지 못했다. 과부가 되는 것은 대개 막다른 길이고 손톱 아래 있는 찌꺼기 같고 최저한의 생활필수품을 긁어모으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의존할 대상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까마귀들이 과부보다 더 믿을 만하게 들렸다.

이것이 고전적인 여호와와 방식이 아닌가? 여호와 이외에 누가 그의 종의 부양자들로 **부정한(unclean)** 대상(까마귀들)과 **예상 밖의(unlikely)** 대상(과부)을 사용할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께서 부정한 새들과 가망 없는 과부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알아채지도 못할 통로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창의성을 찬양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우리 지역 신문에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도널드 맥도너프 판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주어진 어느 금요일이든, 맥도너프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150 건의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분쟁들을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 금요일의 오전 10 시에 어떤 일로 인해 그는 휴정을 선언했다. 250 불의 렌트비가 밀린 것 때문에 퇴거를 해야 하는 중년의 맹인 부부가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집주인은

¹¹ [역자 주] oxymoron 은 모순 어법 혹은 당착 어법으로 “공개연한 비밀 an open secret”이나 “애늙은이 a young-old man”처럼 뜻이 대립되는 어구를 나열함으로써 새로운 뜻이나 효과를 노리는 수사법이다.

¹² ISBE, 4:1060-61 혹은 C. van Leeuwen in NIDOTTE, 1:413-415 을 참고하라.

그 부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맥도너프 판사는 갑자기 법정을 떠났다가 파삭파삭 소리나는 100 불짜리 지폐 두 장과 50 불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곧 돌아왔다. 그는 의자 위로 몸을 구부려 그 집주인의 (충격 받아 어안이 병병한) 변호사에게 그 자신의 돈을 건네며 “밀린 렌트비가 지불된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그 판사로부터 도움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추측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주의깊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사에게는 예외적인 것이 여호와에게는 전형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부양하기 위해 과부들과 까마귀들 그리고 다른 예상 밖의 행위자들을 사용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III. 여호와의 선하심의 범위 (17:8-12 The Circle of Yahweh's Goodness)

이 과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참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그녀의 주소이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왕상 17:9).”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8 마일 그리고 두로에서 북쪽으로 13 마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80 마일) 떨어져 있었고,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었다(왕상 16:31).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방의 땅 바알의 마을로 향하고 있다. 여기서 바알의 숭배자들의 하나가¹³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고(왕상 17:14, 15), 바알이 그녀를 절망의 구덩이와 죽음의 벼랑에 내버려두었을지라도(왕상 17:12) 여호와께서 날마다 그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왕상 17:16). 여호와와는 그녀를 밀어붙여 그의 선지자를 위해 시중을 들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방인 과부가 있다. 여기에 언약 백성의 경계선을 넘어 움직이며 바알의 가장 가망 없는 인질들 중의 하나를 꺼안은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녀의 주소는 알지만 그녀의 이름은 모른다. 그러나 이 이름없는 과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모든 인간 쓰레기(이방인)들에게¹⁴ 임한(행 10-11 장) 즐거운 날이 오기 오래 전에, 여호와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게 된 사람들 중의 하나로서, 멜기세덱(창 14 장), 이드로(출 18 장), 라합(수 2, 6 장), 롯, 나아만(왕하 5 장), 그리고 에벳멜렉(렘 38 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합류한다. 왕상 17 장에

¹³ 나는 어떤이들(예를 들어, 카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이미 그녀가 여호와의 숭배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왕상 17:12 에 나오는 그녀의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¹⁴ 나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 하층민, 잡동사니”를 뜻하며 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riffraff[리프래프]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오는 사르밧에 있는 그 거리와 집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행 11:18)”를 주실 그 날의 전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르밧이 전적으로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심으로써 거의 치명적인 어려움에 자신을 빠뜨리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눅 4:25-26, 개역개정).

단순한 구약의 암시가 그의 고향 사람들을 왜 그토록 격분하게 했는가(눅 4:28)?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요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엘리야 시대에 집과 음식을 제공할 적절한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대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땅에 있는 그 절박한 과부를 구하기 위해 보내셨다. 그렇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쳐 버리고 계셨다**. 이 이방 여인에게 그의 호의를 베푸실 때,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의 행위**이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논리를 재빠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빚대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했다.¹⁵

여기에 포함된 원리는 파악하기 쉽다. 해딩톤의 존 브라운의 두 아들들이 목회를 준비하였고, 아버지처럼 존 브라운으로 부르는 형은 1776 년 혹은 바로 그 후에 런던에 있는 회중 가운데서 봉사하고 있었다. 존 브라운 2 세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미천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젊은 여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국경 지역 출신이었고 런던에서 이모(/고모)와 함께 머물며 양재사로 일하고 있었다. 성직자인 큰 아들의 돕는 배필로서 그녀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명코 회의적이었던 아버지 존 브라운은 성직자인 작은 아들 에벤에셀을 보내며 그 배후자 후보를 만나 보고 평가하도록 했다. 에벤에셀이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몹시 궁금해하며 그에게 그 젊은 여인을 만나 보았는지 물었다. 그 자신도

¹⁵ 피히트너(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255)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안에서 아합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이스라엘 과부에 보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틀림없이 엘리야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었던 눈에 띄지 않는 곳들에 과부들이 충분히 있었다. 예수님께서 열왕기상 17 장 본문에서 추론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녀에게 매료된 에벤에셀은 거의 위협적으로 “아버지, 형이 그녀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형이 정말 어리석어 그러한 보석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간다면 형의 어리석음이 동생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간단히 말하면, 거부된 특권은 다른 곳으로 확장된 특권이다(참조, 롬 11:11).

IV. 여호와와의 요구의 도전 (왕상 17:10b-16 The Challenge of Yahweh's Demand)

낮선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왕상 17:10b)과 낮선 사람이 여러분의 마지막 식사 일부를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 것(왕상 17:11)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그 과부는 맹세를 하며(그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기에게 떡이 없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을 겨우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는 것의 전부임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켰다(왕상 17:12).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 이상 더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였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왕상 17:12b).” 그녀는 그녀의 자원이 다 떨어져가는 지점에 있었다.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 그리고 문자 그대로, 마지막 식사. 거의 잔인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는 그 마지막 식사의 처음 떡을 달라고 요청한다(왕상 17:13).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무정한 요청을 잠시 그대로 놔 두고 본문의 전개를 개관해 보기로 하자.

왕상 17:13, 보증과 요구

왕상 17:14, 설명과 약속

왕상 17:15-16, 순종과 성취

엘리야의 요구는 보기보다 그렇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왕상 17:13a)!”는 관습적이고 신선하며 여호와께서 선호하시는 머리말로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왕상 17:14a 에 있는 이유의 접속사는 흔히 말하듯이 **엄청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실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 왜냐하면 ...”과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 왜냐하면 ...”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주목하라. 여기에 엘리야가 요구하는 순종을 위한 **기초**가 있고, 여기에 그 여인이 더 큰 모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해도 좋다는 **격려**가 있다.¹⁶ “그래서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왕상 17:15).” 본질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부를 맡기며 오로지 여호와와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왕상 17:15b-16).¹⁷ 그것은 과부의 부엌의 벽에 25 파운드의 가루 자루들이 여러 개 놓여진 것과 다르다. 그 대신에 그것은 통과 병에 일어난 조용한 일일극이었다. 그녀가 월요일에 찬장으로 갔을 때 그 날에 충분할 만큼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여호와와 신실하심의 새로운 에피소드였다. 그분은 “가루 통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물을 가져왔던(왕상 17:1) 여호와와 말씀은 동시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보다 더 맛이 좋은 떡은 결코 없었다.

우리 신자들의 대부분은 결코 이 페니키아 과부보다 더 세련될 수 없다. 우리 중 일부는 그녀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변증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무게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빛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요 6:37b)”와 같은 말씀이외에 우리를 부양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삶의 막다른 판국을 넘어 영원의 직전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나이 많은 로버트 브루스가 그의 마지막 조반 때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 때 그는 그의 주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작은 딸에게 “나를 부축하여 로마서 8 장을 보게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눈은 희미해졌지만 그가 로마서 8 장의 후반부를 반복할 때 그의 기억력은 살아 있었다. 그가 롬 8:38-39 을 암송할 때 그는 그의 딸에게 “나의 손가락을 이 말씀들 위에 놓아 달라”고 명했다. 그는 “나는 이 말씀들을

¹⁶ 반트 베르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달라(왕상 17:13).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것은 요구와 선물에 대한 여호와와 역설이다. Van't Veer, *My God Is Yahweh*, 99-103 을 보라.

¹⁷ 내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사과할 생각이 없다. 그레이(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81)는 “사실적 근거는 과부의 관대함이 더 부유한 이웃들의 양심을 일깨운 것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레이는 과부의 비이기심이 더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들의 식료 저장실을 열고 과부와 그녀의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합리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것은 꽤 한심하다.

믿으며 죽는다.”라고 말했다.¹⁸ 죽어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식사를 대하든지, 믿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갖고 있는가?¹⁹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는가?
2. 엘리야의 부재가 어떻게 아합과 그의 왕국에 대한 심판임을 암시하는가?
3. 하나님께서 까마귀들과 과부를 준비하신 것이 어떻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예상 밖의 은혜를 증명해 보이는가?
4. 그 과부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림인가?
5. 그 과부는 여호와와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¹⁸ Marcus L. Loane, *The Hope of Glory* (Waco: Word, 1968), 160.

¹⁹ 복음서들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마 15:21-28; 막 7:24-30)은 사르밧 과부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여인이다. 열왕기상에서 이방인 과부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심한 질책인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앞선 문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주목하라.

21.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왕상 17:17-24 Dare We Trust God?)

매일 아침 그녀는 식료품 저장실 선반으로 가서 충분한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녀와 그녀의 식구가 또 한 날을 살도록 뜻하신 것을 알리는 매일의 삶의 기적이었다. 여러 날 동안 아마도 그녀는 통과 병을 향해 천천히 가면서 조용히 “오, 신실하신 주”란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오늘 아침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전히 그러했다. 가루와 기름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병에 걸렸다. 병이 악화되더니 그는 그만 죽고 말았다.¹ 생명을 부지할 양식은 그녀의 선반에 있었지만 죽음의 사실이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이 본문의 강해로 바로 들어가 강해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문학적인 문제들도 다루려고 한다.

I.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난국: 새 신자들을 위한 입문서 (왕상 17:17-18 The Perplexity Yahweh Causes: A Primer for New Converts)

성경 독자들은 열왕기상 17 장에서 17-18 절(또는 실제로 17-24 절)에 이르면 위기를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17-18 절(혹은 17-24 절)을 2-16 절과 연관지어 읽기 때문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7-24 절이 2-16 절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독립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17 절이 “이 일 후에”로 시작하며 17-24 절이 2-16 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그 어구가 후대의 편집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 어구가 여러분으로 17 절의 여인이 9-16 절의 과부와 같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20 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라고 언급한 것이 그녀를 9-16 절의 여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학자는 21 절이 엘리야의 원래(진짜) 기도이고 여기에는 그러한 동일시가 없다고 지적하며 20 절이 “이차적인”(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순진한” 견해가 옳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 장의

¹ 나는 그 아이가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한다. 과부와 엘리야의 말(왕상 17:18, 20)은 그것을 더 자연스러운 가정으로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혼수 상태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인 배르(K. C. W. F. Bähr, *The Books of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95)는 후자를 주장한다.

² 사람들은 매우 왜곡되고 무지막지한 이런 종류의 분석을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307 그리고 Simon J. 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21-22 에서 볼 수 있다.

전체의 문학적 패턴이 17-24 절이 2-16 절과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 개요에 유의하라.

열왕기상 17 장의 패턴

여호와와 말씀: 지시(2-3절)와 설명(4절)

선지자의 순종(5절)

성취(6절)

불충분/변화(7절)

여호와와 말씀: 지시(8-9a절)와 설명(9b절)

선지자의 순종(10a절)

성취(10b절)

불충분(10c-12절)

여호와와 말씀: 지시(13절)와 설명(14절)

과부의 순종(15a절)

성취(15b-16절)

불충분/변화(17-18절)

이 개요에서 우리는 본문/이야기의 대칭적인 전개를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각 부분에서 약간의 좌절과 장애물이 발생한다. 그것들은 그분의 일을 막으려는 위협이 된다. 시내가 말라버리고(왕상 17:7), 공급의 통로인 과부 자신이 궁핍하고(왕상 17:10b-12), 죽음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생명들 중 하나를 공격한다(왕상 17:17-18). 17-24 절을 장의 나머지 부분(2-16 절)에서 떼어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의도적이고 일관된 문학적 패턴으로 보이는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 17-18 절에서 죽음 자체는 생명을 주시는 자로서 여호와와 명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전의 장애물이 해결되었던(왕상 17:7, 10b-12) 것처럼 이 절정적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왕상 17:19-22). 이렇게 17-24 절은 2-16 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보통 이와 같은 강해를 할 때 “고등 비평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의 고등 비평이 아무리 정교해 보이더라도 통일된 본문을 조각으로써 본문의 신학적 심오함을 파괴하는 것은 비극이다. 열왕기상 17 장을 읽는 경각심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15-16 절의 꾸준한 공급과 17-18 절의 갑작스러운 상실 사이의 대조에 머리가 팽 돈다. 그는(혹은 그녀는) 신자들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섭리의 심한 요동을 만나는지 제대로 숙고할 것이다. 이 본문의 순서를 관찰하는 목사는 즉시 그의 교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문제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두 가정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7-24 절이 “독립적인” 내러티브이고 원래 2-16 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등 비평주의자들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역설과 딜레마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비평주의자들은 본문의 문학적 성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혼란스럽고 체험적인 신학을 모호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comforting)”이란 기이하게 위로를 주는 그분의 단어를 강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 단어가 그들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본문으로 돌아가자. 여기 한 과부가 있다. 그녀는 여호와와 말씀만 믿고 행동했고 그분이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다(왕상 17:15-16). 매일 매일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조용한 기적을 누리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러다가 그녀의 아들이 죽어버렸다. 여호와께는 공급하시기도 하고 당황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는 신실하시기도 하고 변덕스러우시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생명을 지탱해 주시다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신다. 이러하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욥 1:21).” 그분은 자신이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실 완전한 권리가 있으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그것의 일부나 전부를 도로 가져가신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불평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의 약속(왕상 17:14)과 공급(왕상 17:15-16)은 과부와 그 식구를 지탱하시겠다는 그분의 의도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목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분은 식사를 위해 지속되어온 공급(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다음에 아들의 끔찍한 죽음이 따라오게 하셨는가? 그분이 선을 행하신 것은 오히려 고통만 더 심하게 하시기 위한 것에 불과했는가? 그분이 생명을 지탱할 수단을 제공하신 것은 그분이 지탱해 오신 생명을 빼앗아 가시기 위한 것에 불과했는가?

그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모른 것은 당연하다(왕상 17:18). 그녀는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왔고 아들의 죽음이 그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 화창한 날에 그들은 요 9:3 을 기억할 수 있다.³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하는 온갖 종류의 죄과를 파헤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친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바알 숭배에서 막 탈출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고 알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은 그녀를 짓누르셨다. 왜 그분은 그녀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는가? 왜

³ [요 9:3 개역개정]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분은 새로운 개종자를 어두운 미스터리로 산산이 부수셨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녀가 여호와께서 지탱하시기도 하고 당황하게 하시기도 하며 많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엄청난 충격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 일찍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과부를 보며 그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처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당시 여러분도 당황해했고, 미로에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죄 때문에 벌을 주고 계시는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은 “왜 그분께서 자신의 호의의 표로 나의 길을 비추시더니 그렇게 큰 고난으로 나를 짓누르셨는가?”라고 한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성경의 투박한 정직함에는 일종의 돌려서 말하는 위로가 있다. 성경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당황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II.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종: 노련한 제자들을 위한 복습 (왕상 17:19-22 The Servant Yahweh Hears: A Review for Veteran Disciples)

이제 왕상 17:17-24의 구조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과부의 고소, 왕상 17:18

엘리야가 과부에게서 그녀의 아들을 죽은 채로 데려감, 왕상 17:19

엘리야의 기도, 왕상 17:20 [고소]

엘리야의 행동, 왕상 17:21a

엘리야의 기도, 왕상 17:21b [청원]

여호와의 응답, 왕상 17:22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녀의 아들을 산 채로 돌려줌, 왕상 17:23

과부의 신앙 고백, 왕상 17:24

에피소드 중간에 엘리야의 기도가 두 번 나오고 매번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왕상 17:20a, 21b)”라는 동일한 공식으로 시작되는 것에 유의하라. 그러나 두 기도는 위의 개요에서 보듯이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다. 전자는 엘리야가 과부의 참 괴로움을 토로하는 고소이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왕상 17:20b)?” 그가 어떻게 18 절에 나오는 과부의 고소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그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지 주목하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두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토로하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응을 공식화하여 괴로움에 처한 사람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나아가 그들을 위해 토로할 은혜의 보좌가 있다.

그런 다음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의 명백한 간청(왕상 17:21b)을 하기 전에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왕상 17:21a)을 한다.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전체 이야기가 달려있는 기적의 말인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난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이중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앞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될지라도), 그는 거룩한 주문(아브라카다브라)을 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 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재능이 없다. 그는 과부의 괴로움에 발을 들여놓으며 언제나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적인 현란한 연기를 해대는 종교적 마술사가 아니다. 그는 초자연적 선지자의 후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 최근의 개종자(과부)의 고통에 대하여 여호와께 간청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을 연약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반복 가능한 패턴 중 하나인 것 같다. 존 스토틀이 1958년 시드니에 있는 대학 선교부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선교 사역이 끝날 무렵부터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지막 일요일 저녁 예배에 앞서 스토틀은 선교위원장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의 “육체의 가시” 구절을 읽어 달라고 속삭였다. 낭독이 끝난 후, 그 위원장은 스토틀을 위해 기도했다. 설교할 시간이 되었을 때 스토틀은 “마이크를 통해 단조로운 목소리로 복음을 꺾꺾거리듯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조절하거나 태도를 바꿀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스토틀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고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고, 상당히 큰 반응이 있었다. 스토틀이 호주로 돌아올 때마다 누군가가 항상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대학 대강당에서 있었던 1958년 선교 사역의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그 때 선생님은 목소리를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⁵

⁴ 나는 드 브리스(De Vries, *1 Kings*, 222)가 왕상 17:21a 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엘리야는 세 번 그 아이 ‘위로(out over, 몸이 닿지 않게)’ 혹은 ‘위에(upon, 몸이 닿도록)’ 자기 몸을 뻗는다.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행동에 익숙한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그의 생명 없는 몸이 나의 살아 있는 몸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방식이고 거기에 수반된 기도[21b]는 이 상징을 강화한다.”

⁵ Timothy Dudley-Smith, *John Stott: The Making of a Lead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9), 404-405.

여호와와 방식은 엘리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그분은 엘리야를 무력감에 가두시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저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간청할** 뿐이었다.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고(약 5:13),⁶ 우리가 미로를 통과할 때 취해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노련한 종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III.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생명: 죽을 운명의 신자들에 대한 예언 (왕상 17:23-24 The Life Yahweh Restores: A Prophecy for Mortal Believers)

엘리야는 숨이 멎은(죽은) 아이를 받아 자기 다락으로 올라갔지만(왕상 17:19), 이제 그는 살아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온다(왕상 17:23). 그는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받아 안고 갔지만 이제 그는 그 아이를 의심할 여지없이 같은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려준다.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달라(왕상 17:19)”는 이제 똑같이 간절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왕상 17:23b).”로 바뀐다. 우리는 열왕기상 17 장의 주제, 곧 여호와와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주제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왕상 17:1, 12), 이 아이도 살아 있다(왕상 17:22, 23).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⁷ 줄 아노라(왕상 17:24)”는 과부의 신앙 고백은 이 장을 그것의 절정에 이르게 한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구할[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바로 여호와와 신뢰성이 아니었는가? 그분은 사전의 약속(왕상 17:14)과 매일의 공급(왕상 17:15b-16)을 통하여 그분이 그녀와 그녀의 식구를 보존하시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녀의 아들의 죽음(왕상 17:17)은 여호와와 말씀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것 같았다. 여호와도 결국 이방 신들처럼 돌발적이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었는가? 약속들을 하셨지만 그것들을 지키시는 데 무능력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은 아니었는가? 그러나 이제 밝혀진 대로 그녀는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와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시련의 끝에서 여호와는 자신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계시는 페니키아 과부들에게만 유효한가? 이 사르밧 과부의 조그만 신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당혹스럽고 겉보기에 터무니없고 모순적인 방식에 직면한 자기 백성의 시련의 끝에서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임을 증언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⁶ 칼빈의 주석에서 약 5:13 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설명을 참고하라.

⁷ 나는 [에메트](직역: “진리, truth”)를 형용사(“reliable, 믿을 만한, 진실한”)로 보고 있다. 그것이 이야기의 관심사에 더 명확하게 부합한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저자의 강조]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 8:6).” 때때로 이 증언이 우리를 분별이 있도록 유지시키는 전부이다.

그러나 이 단락의 사명은 일반적인 시련을 훨씬 넘어서 특별한 하나의 큰 시련을 다룬다. 그것의 초점은 디로 시작하는 단어(죽음, death)이다.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여호와와 적절성과 권위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일어난다. 프로반은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죽음이 그 턱을 꼭 조이고 그 희생자를 삼켜 버릴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분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돈에서 활동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궁극적으로 넘으실 수 없는 “경계,” 곧 그분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왕국이 있는가? “모트(죽음,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지하 세계의 신)”와 마주할 때 여호와께서도 바알처럼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하는가?⁸

열왕기상 17 장은 그 답을 자랑스럽게 알린다. 여호와께서는 기근(왕상 17:1-16) 뿐만 아니라 죽음(왕상 17:17-24)도 이기신 분이라고 열렬히 알린다. 어떤 재앙도, 특히 죽음도, 여호와와 주권에 수갑을 채울 수 없다. 죽음의 영토에 있는 그 누구도 여호와와 불가항력적 힘의 당김을 능가할 수 없다. 그것이 이 본문의 증언이다.

나는 이 이야기의 함축적 의미가 지각 있는 이스라엘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열왕기상 17 장은 마가복음 16 장과 같은 빈 무덤이나, 누가복음 24 장과 같은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또는 요한복음 21 장과 같은 갈릴리에서의 아침 식사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본문은 부활의 내려티브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막 5:21-24, 35-43(야이로의 딸), 눅 7:11-17(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요한 복음 11 장(나사로)과 같은 “표적” 단락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죽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분 마음대로 먹이감들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상 17:17-24 와 같은 표적 단락들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적들은 결국 의미가 있고, 그래서 더 섬세하고,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1841 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헝가리 페스트(부다페스트)로 4 명의 남자들을 보내 진정한 선교 활동을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영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 사피르였다. 스코틀랜드 성직자 중 한 명은 히브리어의 모든 것에 능통한 것으로 인해 랍비

⁸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34.

던컨으로 알려진 존 던컨 박사였다. 이스라엘 사피르는 처음에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열망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선교사들, 특히 랍비 던컨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피르의 관심은 깊어졌다. 그는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히브리어 학자이고 교육자였다. 그는 40 년 동안 유대교를 공부했고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배운 유대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랍비 던컨은 그에게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 신앙 사이의 조화를 잘 보여주었고 빛이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피르는 결코 혼자 오지 않고 항상 그의 어린 아들 아돌프를 데리고 왔다. 63 세의 이스라엘은 그의 허약하지만 의지가 있는 열한 살의 아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대단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돌프는 그들의 식사 전에 그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며 기도를 마감했다. 그것은 그 영토 주변에서 들리는 총성이었다. 이스라엘은 랍비 수장과의 친밀한 우정을 잃었고 회당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새로운 믿음—그리고 그의 아들의 믿음—이 공개되었다.⁹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도에 불과했다. 식사 시간에 드린 감사 기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공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단지 표시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표시였다. 그러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 이야기는 표시, 힌트일 뿐이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으로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참조, 계 1:18).”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그분의 손의 꼭 붙잡음, 그분의 목소리의 음성, 그분의 힘의 접촉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¹⁰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와께서 과부에게 가져오시는 당혹감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이 당혹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엘리야의 기도에는 포함된 간청은 과부의 무거운 마음에 어떻게 공감하는가?
4. 엘리야의 기도에는 포함된 간청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5.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빈 무덤을 가리키는가?

⁹ Faith Cook, *Singing in the Fir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5), 166-69.

¹⁰ 열왕기상 16 장은 이스라엘에 의해 무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반면, 열왕기상 17 장은 이방인에 의해 열렬히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방식에 유의하라.

22. 참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인가? (왕상 18:1-40 Will the Real God Please Stand Up?)

윌리엄 그림쇼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워스 마을의 한 부부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목사 그림쇼는 그 부부의 인색함과 무정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에 대하여 의심했다. 그림쇼(1740 년경)는 한 직공의 낡아빠진 상의와 모자를 빌려 입고 남루한 거지로 가장하고 그의 교구에 속한 그 부부의 집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집 남편은 거절했다. 그 “거지”는 자신의 필요와 궁핍을 말하며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계속 간청했다. 그 남편은 굽히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그림쇼는 변장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 남자에게 탐욕과 몰인정에 대하여 강론했다. 왜 그런 극단적인 목회 조치를 취했는가?¹ 그건 때때로 극단적인 조치만이 온전한 진실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열왕기상 18 장의 상황이었다. 약 3 년 동안 이슬도 없고 비도 없었다. 바알과 그의 풍요 보장에 대한 주장이 불리하게 내몰리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참되시고 유일한 풍요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비를 다시 내리기로 결정하셨다(왕상 18:1). 그렇지만 그분은 곧바로 그것을 시행하실 수 없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것을 시행하실 수 없었다. 3 년 동안 백성은 바알이 그의 무능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그저 다시 비를 내리신다면 그들은 바알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바알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에 대하여 떠들어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심하고 비를 내리실 수 있기 전에 바알은 신용을 잃어야 했다. 그것도 분명하게, 공적으로, 명백하게, 결정적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에, 바알은 불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이다. 바알이 신이 아닌 것이 밝혀진 후에, 명석한 누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가 바알에 의해 내려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경연 대회가 있을 것이다.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문학적 “구조 분석”은 유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말하는 1-2 절은 열왕기상 18 장의 기초를 이루고, 41-46 절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¹ Faith Cook, *William Grimshaw of Haworth*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7), 106.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 장의 대부분은 이 복된 비 내림의 결언에 대한 서곡을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있다.

왕상 18:3-40 의 흐름

준비 (왕상 18:3-19)

아합과 오바다, 왕상 18:3-6

오바다와 엘리야, 왕상 18:7-15

아합과 엘리야, 왕상 18:16-19

대결 (왕상 18:20-29)

도전, 왕상 18:21a

침묵, 왕상 18:21b

제안, 왕상 18:22-24a

수용, 왕상 18:24b (히브리어로 단지 2 단어 [토브 하다바르])

지시, 왕상 18:25

울부짖음과 침묵, 왕상 18:26

조롱, 왕상 18:27

울부짖음, 피흘림, 그리고 침묵, 왕상 18:28-29

결말 (왕상 18:30-40)

제단과 물, 왕상 18:30-35

기도와 응답, 왕상 18:36-38

고백과 격멸, 왕상 18:39-40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본문을 지배하는 질문이다(왕상 18:21, 24, 36, 37, 39 을 주목하라). 여호와와 그분 자신을 참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분의 계시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발견들을 확신한다. 나는 이러한 발견들이 다음 강해의 구조를 이루게 할 것이다.

I. 참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매우 다양하다 (왕상 18:3-15 The service of the real God is so diverse.)

오바다는 저자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두 장면에 등장한다. 한 장면은 아합과 함께 나오고(왕상 18:3-6), 다른 한 장면은 엘리야와 함께 나온다(왕상 18:7-15). 첫 번째 장면에서 저자는 오바다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왕상 18:3a, “왕궁 맡은 자, 궁내 대신”) 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시적인 설명도 포함시킨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왕상 18:3b-4)

여기 왕상 18:3-6 에는 아합과 오바다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가 있다.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살린다.² 아합은 노새와 말을 살리고 싶어한다(왕상 18:5).³ 왕과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들에게겐 경제가 전부이다. 오바다에 관하여 주목할 것은 저자가 우리에게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알려주는(왕상 18:3b) 즉시로 이 경외함이 단지 사사로운 감정이나 실생활과 무관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왕상 18:4)는 점이다. 그의 행동(왕상 18:4)은 그의 경외함(왕상 18:3b)의 열매이다. 오바다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긴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공무원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그의 지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부연 설명은 어떤 힘찬 신학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바다의 사역이 이세벨의 실패에 대한 조용한 기념비**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용기는 그녀의 여호와주의자 청산 정책의 완전한 성공을 방해한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상대방을 대면하는 스타일로 악을 공격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눈에 띄지 않는 행위자의 단순한 전복으로 악을 좌절시키기도 하신다. 여러분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찾을 수 있다(다시 계 2:13 참조). 만약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본문의 이러한 부연 설명은 상당한 소망을 안겨줄 것이다.

오바다는 아합뿐만 아니라 엘리야와도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왕상 18:7-15 이 관료와 선지자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대담하고 대립적이며 참견하는 모습인 반면, 오바다는 주저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내 의견으로는 이 때문에 일부 해석자들이 오바다를 잘못 판단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바다를 본질적으로 타협하는 자(왕상 18:21 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곧 보스를 섬기고 경력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² 오바다는 까마귀(왕상 17:4)와 과부(왕상 17:9)의 부양 사역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동사([쿨] 필펠 어간)가 오바다(왕상 18:4, 13)의 사역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³ 저자는 동사 [카라트] (“자르다, 잘라내다”)를 두 번 사용하여 깔끔한 대조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잘라내는(멸하는, 왕상 18:4 הִכְרִית[하크리트], 히프일 부정사) 반면, 아합은 가축이 잘리지(잃지, 왕상 18:5 נִכְרְתָּ[나크리트], 히프일 미완료 1 인칭 복수) 않도록 관심을 기울인다. 아합은 이세벨의 숙청으로 여호와의 종들이 죽을 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좋은 노새들을 잃어야 하는 것에 대해 후회한다. Robert L. Cohn, “The Literary Logic of 1 Kings 17-19,”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1 (1982): 338 을 참고하라. 이와 비슷한 취지로 매튜 헨리는 아합이 “꿀을 찾는 데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찾는 데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재치 있게 말한다.

기회주의자(fence straddler)이라고 생각한다.⁴ 이제 분명히 오바다는 자신이 엘리야의 귀환을 알리면 아합이 자기를 처형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그러한 운명을 세 번 암시한다(왕상 18:9, 12, 14). 죽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주님의 종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가? 그러나 오바다의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보라, 엘리야[=엘리야가 여기 있다](왕상 18:8, 11, 14)!"라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귀환을 발표한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그의 추정에서 비롯된다. 그는 왕상 18:11-12 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오바다가 엘리야의 소재를 알리면 아합은 그를 만나러 갈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아합의 계획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 재빨리 "채어 가실(spirit)"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처형될 것이다(참조, 왕하 2:16).⁶ 그것은 정당화되든 아니든 오바다의 의심이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본문은 오바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확실히, 오바다는 그의 여호와에 대한 평생의 헌신(왕상 18:12)과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은밀한 구출(왕상 18:13)을 (그가 아합에게 엘리야의 소재를 알린 후) 그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엘리야가 준 임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엘리야라면 적은 그러한 위협 아래 둘 수도 있지만 확실히 동포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다의 이력서에서 나온 이러한 항목들은 오바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부풀린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 내레이터 자신이 이미 그의 "부연 설명(왕상 18:3b-4)"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것이 오바다에 대한 저자의 견해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 오바다가 한 일을 하는 데는 배짱이 필요했다(왕상 18:4,

⁴ 이에 대한 예로 Choon-Leong Seow,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New Interpreter's Bible*, 12 vols. (Nashville: Abingdon, 1999), 3:133, 138 을 보라. 오바다에 대한 그러한 견해의 배후에 있는 논쟁을 위하여 Jerome T. Walsh, *1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6), 239-42, 259-60 을 보라.

⁵ 엘리야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자들은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선언하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마치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합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왕상 18:11-12 에 나오는 오바다의 진술은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그의 주저함을 설명하고 있다.

⁶ 오바다의 시나리오에 공항 보안 구역의 주변에 폭탄이나 총기에 대한 현명한 단속이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오바다의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 빈 말로 판명되면, 그는 재앙을 치를 것이다. 공항 보안과 마찬가지로 아합은 "엘리야에 대한 농담"을 용납하지 않았다.

13). 그의 선지자 보존 프로그램이 밝혀진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그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배짱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왕상 18:9-12). 우리는 편안한 서재 의자에 앉아서 오바다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 2 세가 아니기 때문이다.⁷

우리는 이 논의에 기초해서 합법적인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바다는 분명히 엘리야와 매우 다르다. 엘리야의 사역은 더 공개적이고 대립적인 반면, 오바다는 은밀한 방식으로 조용히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영역에서 충실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종류의 신실한 종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전 12:4-6). 성경은 결코 여러분이 엘리야의 복제품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모델들은 도움이 되지만 그들을 맹종하듯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다. 남북 전쟁에서 컴벌랜드 군대는 미셔너리 리지(채터누가)를 포위하고 적의 강력한 진지를 제압함으로써 남부연합 수비대와 그들의 장교들을 놀라게 했다. 필 셰리던 소장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금 탈취한 남군 대포들 중 하나에 뛰어올라 모자를 빙빙 돌리며 말을 타듯이 총 위에 "올라탔다." 셰리던의 준장 중 한 명인 찰스 하커는 셰리던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주목했고, 그도 장난을 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커는 또 다른 대포를 올라탄 후 즉시로 후회했다. 분명히 그의 대포는 셰리던의 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최근에 발사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커의 등을 아주 심하게 태웠기 때문에 그는 2 주 동안 말의 안장에 앉을 수가 없었다.⁸

그렇다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유일한 신실한 종이 아니라는 사실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신실함은 한 가지 맛으로만 나올 정도로 무미건조하지 않다. 게다가,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은 이 이야기가 줄 수 있는 교정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현란한 사역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을 하도록, 근사한 종이 아니라 다만 헌신적인 종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엘리야와 오바다는 두 명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서로 다른 종이였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II. 참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당혹스럽다 (왕상 18: 20-21 The demand of the real God is so disturbing.)

이제 우리는 갈멜산(이 산에 대해서는 아래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임) 정상에 있고 거기서 엘리야가 했던 처음 말을 듣는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go on limping

⁷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A. W. Pink, *The Life of Elijah* (London: Banner of Truth, 1963), 99-100 는 정확하다.

⁸ Clint Johnson, *Civil War Blunders* (Winston-Salem, NC: John F. Blair, 1997), 202-203.

upon two options)⁹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 엘리야의 도전이 우리를 조금 냉랭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바알 숭배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그리고 바라건대—우리는 바알보다 여호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바알 숭배의 유혹과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잠시 여담으로 바알 숭배가 주전 9 세기 이스라엘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알 숭배의 사유”를 추적해 보자. 첫째로, 그것은 왕실의 재가라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신봉자요 그들의 대의를 위한 열심있는 전도자였다. 아합에게 이세벨의 광신적인 성향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녀의 신앙을 확실히 지지했다(왕상 16:31-33). 권력은 설득력이 있는 경향이 있다. “성공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력 엘리트들의 종교적 취향에 자신들을 맞추라는 조언을 받았다. 둘째로, 바알 숭배에는 전통과 역사의 매력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여러 해 전부터 바알 숭배는 살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개종하는 것을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삿 2:11-13). 바알 숭배는 시도되지 않은 혁신이나 최근 유행이 아니었다. 그것의 제의와 관습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셋째로, 바알 숭배는 적실성, 곧 느끼는 필요를 채워줄 능력의 매력이 있었다. 결국, 바알 신학은 그것의 최고의 신에 대해 무엇을 주장했는가? 바알은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 사람과 땅에 열매 맺는 복을 제공했다. 그는 번개, 불, 비를 보내주었다. 그는 곡식, 기름, 포도주를 주었다.

⁹ 본문의 어려움은 그 명확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여기 “go limping (개역개정, 머뭇거리다)”는 왕상 18:26 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제의 의식에서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 것을 묘사할 때도 나오는 동사 פסס[파싸흐]를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opinions(한글 성경, 번역 생략)”은 דְּבָרִים[다이빔]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다. 이 용어는 또한 (나무의) 가지 혹은 확장해서 목발을 가리킬 수도 있다.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317-18 을 참고하라.

[역자 주] אֲדָמָה מַתַּי אֲתָם פִּסְסִים עַל־שְׁתֵּי הַדְּבָרִים[아드-마타이 아템 포스힘 알-시테 하스이빔]에 대한 번역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NIV: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NASB: How long will you **hesitate** between two opinions?

ESV: How long will you **go limping** between two different opinions?

개역개정: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새번역: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공동번역: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그는 죽은 자를 되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며, 자손의 복을 베풀어 줄 수 있었다.¹⁰ 밀 수확과 가축 헛간에 대해 염려하는 가나안 농부의 삶과 더 연관이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바알이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은 생명으로 넘쳐났다. 여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가려워하는 곳을 적절히 긁어주는 믿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알 숭배는 관능적인 매력이 있었다. 성적 의식이 전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바알은 여러분이 모든 분비샘을 가지고 그를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 결혼 생활이 형편없고, 아내에게 흥미가 없고, 삶이 전반적으로 지루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바알 신전에는 항상 “신성한” 창녀가 있었다.¹¹ 아마도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어떻게 바알 숭배가 매력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변증학이 바알을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불타오르는 질문은 전체 에피소드를 점화시키고, 엘리야는 왕상 18:21 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그것을 압박한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살펴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직역: 뒤따라 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니다. 엘리야의 공식화는 **신학이 제자도를 낳는다**고 가정한다. 헌신은 결과를 갖는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신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가?”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성경, 여호와 자신은 여러분이 그러한 분리의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르라!**” 진짜 하나님의 존재는 무심한 문제가 아니라 요구가 많은 문제이다.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할지도 모른다—그들은 그 함의들을 냄새 맡은 것이 아닌가?)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룹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종해야 하는 왕이시다. 여러분은 관련된 모든 것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워렌 G. 하딩은 1920 년에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는 돌아다니지 않고 오하이오 주 마리온에 있는 그의 집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때때로 그의 참모들은 몇몇 대필(ghost-written) 연설과 함께 그를 유세장으로 내보냈다. 이 포장된 연설문 중 하나의

¹⁰ Leah Bronner, *The Stories of Elijah and Elisha as Polemics against Baal Worship*, Pretoria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1968), 54. 바알과 바알 숭배에 대한 공평한 논의를 위해 TDOT, 2:181-200 에 나오는 드무어와 몰더(DeMoor and Mulder)의 글을 보라.

¹¹ 어떤 이들은 가나안 종교의 일부로서 제의적/신성한 매춘을 폄하하거나 부인한다. 그러한 예로 Karel van der Toorn, ABD, 5:510-13 을 보라. 나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중간에서 그는 한 구절을 우연히 발견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청중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글쎄요, 저는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연설을 쓰지 않았습시다. 저는 방금 읽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¹² 사람들은 그러한 솔직함이 정답기도 하지만 어리석기도 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대필 연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대필한(ghostly) 것이 섬뜩한(ghastly) 것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미리 그 문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딩이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매우 직설적이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길들여진 신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나의 삶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침략하시고, 내가 그분을 그분의 종교 상자 안에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길들여온 신을 선호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신성을 태우는 (침상) 가마를 그에게 보여주고 그를 그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여러분은 왕상 18:21 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본문을 신약 신학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그 본문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당신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신다.

III. 참 하나님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왕상 18:19-39 The nature of the real God is so different.)

갈멜산 대회 전체가 여호와와 바알을 차이점들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중 하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아마도 이것들을 요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여호와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i. 여호와와는 지리에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왕상 18:19, 20 Yahweh is the God with whom geography is no hindrance).

엘리아가 갈멜산을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갈멜은 현대 하이파 근처의 지중해로 돌출해 있는 석회암 산맥으로 남동쪽으로 약 11 마일 정도 뻗어 있다. 주전 2 천년기 이집트 문헌에 갈멜산은 “거룩한 머리(성두)”라고 불린다. 이것은 그것이 성소였음을 암시한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 3 세(주전 841 년)의 연대기에 갈멜산은 “꽃의 바알 산”으로 나온다.¹³ 간단히 말하면 “바알의 절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갈멜은 바알에게 성스러운 땅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아는 갈멜산을 선택했을 것이다. 갈멜산이 바알의 영역이었다면(왕상 18:30 에

¹²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Campaigns* (New York: Oxford, 1985), 213.

¹³ M. C. Astour, “Carmel, Mount,” IDBS, 141; see also Henry O. Thompson, ABD, 1:874-75.

의하면 거기에 있던 여호와와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에 유의하라), 바알은 현대 운동 경기로 말하면 "홈 구장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홈"에서 경기하는 팀은 자기의 경기장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편파적인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심리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바알 자신의 영역에서 바알을 후려치신다면, 그것은 여호와와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바알의 무능함을 확대할 뿐이다.

ii. 여호와와 숫자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이다 (왕상 18:22, 25 *Yahweh is the God for whom numbers are of no consequence*).

여호와와 유일한 대표인 엘리야에 비해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 명이나 되었다. 신 경연 대회에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너희는 많으니(왕상 18:25)" 먼저 하라고 제안한다. 만약 오늘의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여호와와 추락하는 "지지율"이 나열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와 힘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응원자를 갖고 계시는지에 결코 달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갈멜산의 날은 인기가 현실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ii. 여호와와 행동이 유인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왕상 18:26-29, 36-38 *Yahweh is the God for whom activity is no inducement*).

이 진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바알 선지자들의 익살스러운 행동은 종교적 열정의 규모에 따라 매우 높게 측정된다고 말해두자.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없다. 그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광란하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iv. 여호와와 불리한 조건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왕상 18:32-35 *Yahweh is the God for whom handicaps are no obstacle*).

나는 엘리야가 바알이나 그의 예언자들보다 여호와와 훨씬 더 강력한 상대였다고 말하고 싶다. 다소 이교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은 엘리야가 여호와와 성공 가능성을 망쳤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했다. 사실, 그는 세 번이나 그렇게 하도록 했다.¹⁴ 그런 다음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흠뻑 젖은 번제물과 나무를 불태우실 것을 기도한다(왕상 18:36-37).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들은 젖은 물질이 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불리한 상황을 조성해 놓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불이

¹⁴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 너무 심했을 때 갈멜산에서 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에 당황해한다. 갈멜산에는 몇 개의 샘이 있었고 (누군가 수고하기를 원한다면) 지중해가 멀지 않았다. 후자는 기근에 말라 버린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H. H. Rowley, *Men of God* (London: Thomas Nelson & Sons, 1963), 55 을 참고하라.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창 18:14 을 중얼거리며 걸어 다녔을 것이다.

이제 나는 여호와에 대한 세 번째 긍정적인 진술, 곧 여호와는 행동이 유인책이 되지 않는 하나님(왕상 18:26-29, 36-38)이시라는 주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바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적어도 그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대해 논의해보자.

아침 내내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개입을 위해 울부짖으며 제의적 야단법석을 떨었다(왕상 18:26).¹⁵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조롱을 섞으며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촉구한다.

더 큰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불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왕상 18:27 새번역)

엘리야의 추론(“바알은 신이니까”)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교도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교에서 남신들과 여신들은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부르는 활동의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 엘리야는 그것을 비웃기 위해 이 관점을 채택한다. 그는 바알이 묵상하고 있거나 말하고 있기 때문에¹⁶ “다른 불 일을 보고(occupied) 있을지,” 즉 다른 일에 사로잡혀(preoccupied) 있을지 모른다고 제안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불 일을 보는(occupied, [씨아흐])” 것을 뒤따라 나오는 “잠깐 나간(gone aside, [씨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 바알이 왜 잠깐 나갔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¹⁵ 저자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는(왕상 18:26)” 결과를 보고하는 데 통명스럽다. 월시(Jerome T. Walsh, *1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6], 248)는 이렇게 지적한다. “첫째로, 내레이터는 마치 바알이 존재해서 대답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는 것처럼 ‘바알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레이터는 현존이 아니라 부재([엔] “there is no, 없음”)의 관점에서 문을 표현함으로써 바알의 비실체(nonentity)를 암시한다. 월시는 계속해서 “이 문의 순서, 곧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엔 콜 브엔 오네, no voice and no answerer]’는 순서는 바알이 호출될 때 응답할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고 하는 인과 관계를 암시한다.”라고 말한다.

¹⁶ 참조, BDB, 967(첫 번째 항목).

엘리야는 바알이 용변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¹⁷ 아니면 바알이 성읍을 떠나 여행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가릿 문헌에서 바알의 여동생 아낏은 그를 찾으러 그의 집에 왔는데 바알이 사냥을 가서 집에 없다는 말만 듣는다.¹⁸ 안타깝게도 바알에게는 무선 호출기가 없다. 아니면 바알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른다. 이교에서처럼 신이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신의 규칙적인 수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¹⁹

¹⁷ Gary A. Rendsburg, "The Mock of Baal in 1 Kings 18:27,"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414-17 을 보라.

¹⁸ George E. Saint-Laurent, "Light from Ras Shamra on Elijah's Ordeal upon Mount Carmel," *Scripture in Context: Essays on the Comparative Method* (Pittsburgh: Pickwick, 1980), 133.

¹⁹ "Prayer to the Gods of the Night," ANET, 390-91 을 본 후에 시편 121 편을 읽어보라.

[역자 주] ANET, 391 는 다음과 같다.

They are lying down, the great ones.
The bolts are fallen; the fastenings are placed.
The crowds and people are quiet.
The open gates are (now) closed.
The gods of the land and the goddesses of the land,
Shamash, Sin, Adad, and Ishtar,
Have betaken themselves to sleep in heaven.
They are not pronouncing judgment;
They are not deciding things.
Veiled is the night;
The temple and the most holy places are quiet and dark.
The traveler calls on (his) god;
And the litigant is tarrying in sleep.
The judge of truth, the father of the fatherless,
Shamash, has betaken himself to his chamber.
O great ones, gods of the night,
O bright one, Gibil, O warrior, Irra,
O bow (star) and yoke (star),
O pleiades, Orion, and the dragon,
O Ursa major, goat (star), and the bison,
Stand by and then,
In the divination which I am making,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더 열광적으로 크게 소리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했다. 이 야단법석은 적어도 오후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비극과 안도감이 동시에 왕상 18:29b 에 나온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의 과격한 광란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야의 접근은 아주 간단하다. 그는 기도한다(왕상 18:36-37). 불이 내린다(왕상 18:38).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으로 했던 반면 엘리야는 건성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는 열중했고 진지했다(왕상 18:37a 에 나오는 반복에 주목하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를 졸라대고 강압하고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들어주심을 확보하기 위해 반나절 동안 계속 소리지르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땅에 있는 그을린 발화 지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우리는 이교도의 그 모든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는다고 항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이교 열간이가 아니다. 나는 우리가 더 세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가정 하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유의하라. 우리가 열렬한 종교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음적 바알 주의”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구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더 오래 갖고 개인 기도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가정 성경 공부 그룹에 속하거나 또래 책임 그룹을 만드는 것, 우리의 방문 전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 주말 결혼 강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독신자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 아이들을 위한 이웃 클럽을 시작하거나 이른 아침 남성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어머니들의 아침 외출을 제공하는 것, 더 많은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신앙 약속” 기부를 늘리는 것, 봄 성경 사경회를 추가하는 것, 누군가에게 5, 6 학년 합창단을 지휘하도록 권유하는 것, 지역 대학 캠퍼스에 있는 기독교 단체(패러처치 사역)에 참여하거나 자메이카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거나 스키 여행을 위해 청소년들을 콜로라도에 데려가는 것, 교회 버스 사역을 시작하고 기독교 학교의 시작을 주도하는 것,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소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든 기독교의 분주함은 상처를 내는 것을 빼더라도 바알 숭배만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나 선교 여행에 더 많은

In the lamb which I am offering,

Put truth for me.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이론적 근거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나 속임수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감동시키거나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알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바알의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 하실 것이다.”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마 6:7-9 에서 같은 요점을 지적하신다. 이방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 하나님, 곧 여러분이 그분에게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달라진다.²⁰ 그러면 여러분은 마 6:9b-13 에 나오는 기도처럼 간단하고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심리학이 아니라 신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단순함을 설명한다(왕상 18:36-37). 그는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예언자들의 익살스러운 행동과 야단법석을 흉내낼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들어오는 **안도감**을 보는가?

IV. 참 하나님의 공급은 은혜롭다 (왕상 18:30-38 The provision of the real God is gracious.)

전반적으로, 열왕기상 18 장에는 심한 어조가 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꿰고 정통적인 1 계명 수준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원시적인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몸을 굽히셔야 한다면 이스라엘은 끔찍한 형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자비의 기미가 있고 희망의 빛이 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검사일지라도, 그는 또한 그분의 전도사이기도 하다.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비난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이기도 하다. 나는 이 점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본문의 일부를 되짚어보려고 한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왕상 18:30)”을 수축했다(직역, “고쳤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는 수축을 위해 12 개의 돌을 사용했다. 저자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12 지파(왕상 18:31; 또한 출 24:4 와 수 4:1-10 참조)를 상징하고 그래서 “북 왕국 존재에 대한 암시적인 비난”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다.²¹

²⁰ 마 6:9 에 나오는 헬라어 [운], 곧 “그러므로” 혹은 논리적 “그렇다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마 6:8b 의 신학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²¹ H. L. Ellison, “I and II Kings,” *The New Bible Commentar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54), 315.

온 이스라엘은 하나이고, 함께 속한다. 열 지파가 무엇이든, 그들은 올바른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똑같이 의미심장한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즉 그분의 권위와 승인 아래 제단을 수축했다는 사실이다.²² 그는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았다(왕상 18:33). 불이 내릴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왕상 18:36a), 여호와께서는 번제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을 보내신다(왕상 18:38).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이 첫 번째 성막 예배에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레 9:24).

레 9:24 에 나오는 번제물, 불, 엎드린 백성은 왕상 18:38-39 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레위기 9 장은 성막 예배의 개시를 전한다. (분명히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불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규정하신 예배의 희생 제사 제도를 승인하시고 비준하시는 신호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리는 동안 다윗이 명령받은 대로 아라우나(역대기에서는 오르난으로 불림)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대상 21:26).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제사를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신 바로 그 장소가 미래의 성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대상 22:1). 솔로몬의 정권에서 그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고 봉헌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대하 7:1).

²² 이 승인은 엘리야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외딴 제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열왕기의 편집자들이 그러한 비 중앙화 제단에 대해 매우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이 출 20:24-26 과 신명기 12 장을 어떻게 결합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Richard E. Averbeck, NIDOTTE, 2:890-97, 4:1006-7 을 참조하라. 어쨌든 북 왕국의 신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살았다. “사실, 주전 930 년경 남북 왕국의 분열은 북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절되는 것을 초래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북 왕국에 있는 여호와만을 위한 외딴 제단들(예를 들어, 왕상 18:30 을 왕상 19:10 과 함께 보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조성했다(Averbeck, NIDOTTE, 2:897).”

구약 시대의 삶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제의적 순간에, 곧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개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 불은 여호와께서 이런 예배를 받아들이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청신호였다.²³

이제 맹렬한 불꽃과 연기나는 잿불이 있는 열왕기상 18 장으로 돌아가자. 구약의 유사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 기적적인 불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왕상 18:36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닌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가?²⁴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미 제공하신 은혜와 화목의 수단으로 말이다. 오래된 험한 제단으로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용납할 속죄의 장소인 제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면, 갈멜산 대회는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증명한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불은 명백한 증거이자 미묘한 초대이다.²⁵

확실히 나는 똑같은, 아니 더 나은, 제공이 지금도 언약 백성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노골적으로 반항하든 어리석게 방황하든, 회복으로 가는 길은 곧장 골고다의 제단으로 이어진다. 나의 동료 녹스 챔벌린이 지적하기를 기뻐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거나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가신다.

V. 참 하나님의 엄중하심은 매우 정죄적이다 (18:40 The severity of the real God is so condemning.)

연기가 걷히고(왕상 18:38), 이스라엘 사람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한다(왕상 18:39).

²³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와 **선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레 17:11). 사실, 레위기는 “죄 지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²⁴ 왕상 18:37b(“**주는**[강조, 당신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이 긍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할 것이다. 몽고메리(Montgomery, *The Books of King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305)는 이것을 부인하지만, 하우저(Alan J. Hauser, *From Carmel to Horeb* [Sheffield: Almond, 1990], 49-50)는 이것을 시인한다.

²⁵ 나는 골즈워디에게 감사드린다. 그의 책(Graeme Goldsworthy, *Gospel and Kingdom* [Carlisle: Paternoster, 1994], 117) 에서 얻은 힌트는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왕상 18:40)

일부 독자들은 지금 실망하여 한숨을 내쉰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아주 멋진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모든 것을 망친다. 여기서 우리는 야만적인 구약에 나오는 “도덕적
문제”의 공포 속으로 애쓰며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인가? 엘리야는 서슴지
않고 양값음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의 “광신적 경향”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²⁶

그러나 이 기손에서의 학살은 개인적인 복수 행위가 아니라 율법에 따른 사형 행위였다.
엘리야는 신명기 13 장의 제재를 실행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을
유인하는 자들은 (성공적으로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이든지, 일가친척의 한 사람이든지, 온 성읍의
주민들이든지 모두) 목숨을 잃도록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교회와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기능을 했다. 여기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헌법, 곧 배도
권유와 관련된 여호와의 언약법의 규정을 실행한 것뿐이다.²⁷

이 부분의 표제, 곧 참 하나님의 엄중하심은 매우 정죄적이라는 표제를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이나 엘리야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한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왕상 18:40 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한다.

[노동자와 농민의] 붉은 군대(노농적군, 소련 군대)가 1945 년 봄에 베를린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군대 중 일부는 현대 생활의 편의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 농민들이었다. 육식
배관은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들은 때때로 감자를 씻고 껍질을 벗기기 위해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들은 화장실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고 옥외 화장실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²⁶ 이런 입장을 위해 John J. Bimson, “1 and 2 King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
Varsity, 1994), 359 을 보라. 월러스(Ronald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24)는 엘리야를 과소 평가하지는 않지만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다소 사과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께서서 계획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 시대의 미신과 증오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²⁷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09 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세들(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63)도 역시
“금송아지 숭배를 한 자들을 칼과 피로 전멸한 것은 이미 모세의 선례가 있다(문맥상 출 32:27 참조).”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엘리야는 “위대한 모세의 열심을 흉내내고 있었을 뿐이다.”

배설물과 소변을 곳곳에 남겨두었다.²⁸ 소련 병사가 독일식 화장실을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자주 왕상 18:40 을 보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도덕적 히스테리를 일으킨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엘리야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잠재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배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와 폭력적 처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은 암에 박하 사탕이 아니라 수술을 사용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의 세련되심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부족이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본문을 이해할 것이다. 기손에서 있었던 고약한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음을 증언하고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

참 하나님은 그날 갈멜산에서 일어서셨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또한 내려오셔서(요 1:1, 14) 그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동일한 사역을 발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그렇게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당혹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것, 반복되는 이교도 생각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것, 그분의 엄중하심을 은혜로 묶으시는 것, 여러분의 형편없는 거룩함의 수준을 드러내시는 것 등을 발견할 것이다.

V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엘리야가 바알을 망신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년간의 가뭄은 이스라엘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가?
2. 오바다는 타협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가?
3.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 엘리야는 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가?
5. 교회는 하나님을 자극하거나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어떻게 “바알 숭배식” 광신주의에 빠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²⁸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94.

23. 기도하고 달리는 선지자 (왕상 18:41-46 In Prayer and on the Run)

갈멜산의 신 경연 대회는 열왕기상 18 장의 주요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 거기서 여호와와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왕상 18:1 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와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것을 그분은 왕상 18:41-46 에서 하신다. 이 단락은 두 가지 대조를 묘사하고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대조들은 왕과 선지자 사이에 있다. 첫째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반면, 아합은 먹고 마신다(왕상 18:42). 둘째로, 엘리야는 달려가는 반면,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간다(왕상 18:45-46). 엘리야는 아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왕상 18:41-45a)에서 우리는 기도의 학교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분(왕상 18:45b-46)에서 우리는 은혜의 드라마를 본다. 강해는 이 두 주제를 따라 전개될 것이다.

1. 예언 가능한 기도 (왕상 18:41-45 Prophetable Prayer)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고(왕상 18:41), 왕은 그대로 따른다(왕상 18:42a).¹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왕상 18:42b).” 본문은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몸짓 언어는 기도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강렬하고 집중된 기도의 자세이다.

i. 그것의 겸손 (Its Humiliation)

자신만만한 바알 파괴자(왕상 18:21-40)가 겸손히 간구하는 자(왕상 18:42)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엘리야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명령법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자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낮추며 여호와와 호의를 간청하고 있다.

놀랍기는 하지만, 그는 그것에 익숙해 있다. 열왕기상 17-18 장에서 엘리야는 반복해서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것을 독자들은 주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엘리야는 왕상 17:20-21 에서 생명을 위해, 왕상 18:36-37 에서 불을 위해, 그리고 여기

¹ 나는 아합의 먹고 마시는 것이 언약 식사 그리고/혹은 출 24:4, 11 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뭄의 끝(참조, 왕상 18:41b)과 언약의 복의 갱신을 예상하며 축하하는(참조, 전 5:18; 9:7) 신호일 것이다. [역자 주] (전 5: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 9: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왕상 18:42 에서 비를 위해 기도한다. 모티어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왕상 19:4 에서 자기 "목숨을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한 것을 상기시킨다.² 엘리야는 이러한 변화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일으킬 힘이 없다. 우리는 그가 초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문의 모든 증언을 무시할 때만 가능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결코 가져올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 간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그림을 고수해야 한다. 모든 그의 외견상의 역동성과 카리스마, 그의 자기 주장과 통제력, 그리고 그의 충만함과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마법이 없고, 여차하면 써먹을 비장의 에이스도 없다. 그는 궁지와 막다른 골목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손재주를 떠올릴 수 없다. 엘리야는 그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는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기도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임하는 일이다.

ii. 그것의 원리 (Its Principle)

엘리야는 매우 확신했던 것 같다. 그는 아합에게 "저녁을 먹으소서. 왜냐하면 [다가오는]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왕상 18:41). 엘리야의 확신은 주제넘은 것인가? 너무 자신만만한 것인가? 비가 오고 있다고 그토록 확신한다면, 어찌하여 그는 왕상 18:42 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엘리야가 확신하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는 왕상 8:35-36 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왕상 8:35-36)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거기 솔로몬의 기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는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왕상 18:1 에서 여호와는 그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확인하셨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므로(왕상

² Alec Motyer, *The Message of James, The Bible Speaks Today* (Leicester: InterVarsity, 1985), 205-206 에 나오는 훌륭한 토론을 참고하라.

18:1)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한다(왕상 18:42). 이것을 합치면, 여호와께서는 비를 내리시길 원하시며 그분의 뜻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더 일반화한다면, 우리는 “예언 가능한”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 응답하여 자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행하시는 정해진 통로를 구성한다. 그분이 이 통로에 국한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이 그것을 매우 선호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겔 36:37-38 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겔 36:37-38) 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 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구 폭발이 확실히 올 것이지만(겔 36:38)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분께 구하도록 하실 것이다(겔 37:37). 계 22:20 에서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의 뒷부분을 거의 오려낼 정도로 바싹 따라 나온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선언하시자마자, 그분의 백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는 말씀은 교리적이지만, “주[=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마 6:10)”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계속된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의 문제이다. 오늘날 농부들은 거대한 둥근 짐짝에 알팔파를 올려놓고, 밭에 남겨두거나 트랙터와 리프트로 옮긴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루기 쉬운 직사각형 짐짝이 일반적이었다. 건초 마차는 트랙터와 베일러 뒤에 매여져 있었고 건초는 꾸러져 마차 위에 쌓이곤 했다. 그런 다음 마차는 헛간으로 당겨질 수 있고 꾸러미들은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졌다. 그것들은 땀에 젖은 동료들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는 건초 더미로 옮겨지곤 했다. 만약 한 농부가 그런 때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내 건초를 헛간에 들여놓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세 명의 대학생을 고용할 것이다.” 여기에 목적과 수단이 들어 있다. 아둔하게 들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제 나는 내 백성을 움직여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³ 그것이

³ 맨턴(Thomas Manton,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James* [Marshalltown, DE: National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n.d.], 471)은 약 5:18 에 대해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기로 뜻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한 William Greenhill, *An Exposition*

갈멜산에 있었던 방식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작업 방식**은 기도에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취해 그것을 기도로 바꾸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종인 것을 곰곰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예를 주고 계시는가!

iii. 그것의 신비 (Its Mystery)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만큼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왕상 18:43-44a)

모든 독자가 자연스럽게 감지하는 것처럼, 이 구절(왕상 18:43-44a)은 이 에피소드의 긴장 지점을 형성한다. 종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전하자마자, 긴장감이 팽배해진다. 이 긴장 지점은 다음 분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단락(왕상 18:41-46)의 중앙에 서 있다.

왕상 18:41-46 의 분해

선지자의 명령, 왕상 18:41

왕이 식사하다, 왕상 18:42a

기도가 시작되다, 왕상 18:42b

올라가서 표징을 보라, 왕상 18:43a

실망과 반복적인 돌아옴, 왕상 18:43b

of Ezekiel (1645-47;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4), 737-38 도 보라. 열왕기상 18 장에 대하여 월러스(Ronald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25)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었고 그렇게 하실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엘리야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항상 즐겁고 보람된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므로 심지어 인간의 기도에도 못 이기는 것도 좋아하신다. 심지어 그분은 때때로 실제로 밀어붙임을 당해 자기 백성이 위하여 기도한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으신다(창 18:22-23; 32:26-30; 출 32:9-10, 14).”

일곱 번째—작은 구름, 왕상 18:44a

올라가서 왕에게 말하라, 왕상 18:44b

비가 내리다, 왕상 18:45a

왕이 마차를 타다, 왕상 18:45b

선지자의 봉사, 왕상 18:46

그러나 딜레마를 알아채기 위해 구조적인 개요가 필요한 사람은 없다. 엘리야는 몸을 웅크렸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보고, 즉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만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한 종의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시는가! 그분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처음 기도(왕상 18:36-37)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불의 응답(왕상 18:38)을 주셨지만, 여기서는 그분의 지연된 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로 고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우리는 왕상 18:38의 순간적인 응답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알을 위한 주장들을 넘어서는 여호와의 명성은 눈에 띄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확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왕상 18:42-44a에서는 왜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나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방식에는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스톤월 잭슨 장군이 “스톤월” 또는 “장군”이 되기 전에, 그는 렉싱턴의 버지니아 군사 연구소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잭슨 소령이었다. 그는 우리의 물리학과 비슷한 “자연 철학과 경험 철학”을 가르쳤다. 이 과정에는 전기, 자기, 음향, 광학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잭슨의 교육 방법은 영감을 주지 못했다. 매일 오후 그는 다음 날의 강의 자료(예: 교과서를 한 줄씩 풀어 설명하기)를 암기했다. 저녁 식사 후 적어도 두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똑바로 앉거나 벽을 마주 보고 굳게 서서 그가 가르칠 자료를 검토했다. 분명히, 그의 발표는 융통성이 전혀 없었다. 만약 생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잭슨은 그것을 한 줄 한 줄 반복할 뿐이었다. 유추에 의존하거나 즉석 설명을 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다.⁴ 왜냐하면 잭슨의 가르침은 이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특히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더 많은 다양성으로 그들을 즐겁게 해 주신다. 이것은 더 흥미롭고 더 신비로운 것으로 판명된다. 그분은 한 경우에 엘리야에게 즉시 응답하셨고(왕상 18:36-38), 다른 한 경우에 분명히 예상보다 길어진 엘리야의 간구 후에 응답하셨다(왕상 18:42-44a). 또 다른 한 경우에는 엘리야의 요청을 아예 거절하실 것이다(왕상 19:4). 우리는 이 신비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⁴ James I. Robertson, Jr., *Stonewall Jackson: The Man, the Soldier, the Legend* (New York: Macmillan, 1997), 118-20.

조심(주의)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특별히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기를 열망하며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 같은 성도들이다. 그들은 그분이 천편일률적인 “개종 경험”을 주시거나, 그분이 (기도하는 자가 믿음만 충분하다면) 기도 응답에 획일적인 방식을 갖고 계시거나, 그분이 상황적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주실 때 한 가지 패턴을 따르시거나 하신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렇게 지루하신 분이 아니다. 때때로 기도는 비교적 수월하고(왕상 18:36-38), 때때로 기도는 극도로 고통스럽다(왕상 18:42-44a). 누가 그 이유를 정말로 알 수 있겠는가?

iv. 그것의 유익 (Its Benefits)

“그러자 큰 비가 내렸다.” 비는 생명, 곧 땅과 사람과 가축을 위한 물, 식량을 위한 곡식, 동물을 위한 풀을 의미했다(왕상 18:5 참조). 그렇다면 여호와와는 극적인 개입(왕상 18:31-39)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공급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나누어진 마음은 이러한 물질적인 혜택들을 상실하게 했다(신 11:16-17; 28:23-24; 레 26:19-20).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은혜롭게 회복시키신다. 윌러스의 말이 옳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불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상쾌하게 하고 먹이시기 위해 비 또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배워야 한다.”⁵ 여호와와는 극적인 것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는 불뿐만 아니라 곡식[비]도 보내신다(참조, 시 65:9-13). 우리가 후자, 즉 현실적 공급을 여호와의 선물로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배도하여 자연주의(더 현대적이고 정교한 형태의 바알 숭배)에 빠진다. 우리가 그것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의해 우리의 것이라고 가정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에 눈먼 자들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1800년대 후반에 시골 주민들이 벌레들로 인해 겪었던 비참함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름에 파리, 모기, 그것들과 비슷한 종류의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낮선 수많은 곤충들이 농가의 열린 창문으로 몰려 들어와 난로와 천장 주위에 모이고, 과일에 달라붙고, 우유곽에서 수영하고, 국에 떠다니고 있었다. 밤도 다르지 않았다. 땀을 흘리고 몸이 끓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창문을 열었고, 그러면 해충이 들어왔다. 그런데 1880년대에 창에 망을 치는 새로운 것이 도입되었다. 어떤 이는 그러한 망을 치는 일이 “19 세기가 제 정신 및 선한 기질을 유지하는 데 주었던 가장 인도적인 기여”라고 철학적으로 설명했다.⁶ 누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창에 망을 치는 것은 매우 평범한 것이지만 대단한 선물이었다.

⁵ Ronald S.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41.

⁶ Otto L. Bettmann, *The Good Old Days – They Were Terrible!* (New York: Random House, 1974), 52.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여호와와 기본적인 은사를 보아야 하는 방식이다. 여호와와 은혜로운 의도(왕상 18:1)와 엘리야의 끈질긴 중보기도(왕상 18:42 절)에 의해, 거칠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이 다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 거룩함과 추수가 모두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이 제단을 불로 태우실 뿐만 아니라 곡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⁷

II. 믿을 수 없는 은혜 (왕상 18:45b-46 Incredible Grace)

기도하기 위해 구부렸던 무릎은 이제 달리고 있다. 엘리야는 예배에서 운동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은 아합의 마차 앞에서 17 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가며 땅을 쿵쿵 두드리고 있다.⁸ 본문은 이것이 단지 발의 위업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Ahab mounted his chariot and made for Jezreel. But the hand of Yahweh had come on Elijah and, hitching up his clothes, he ran ahead of Ahab all the way to Jezreel (vv. 45b-46, njb).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왕상 18:45b-46)

Let's step back a moment and take in all that Ahab receives on Carmel Day. From Carmel Ahab has:

잠시 뒤로 물러나서 아합이 갈멜산의 날에서 받은 것을 살펴보자. 갈멜산의 날에 아합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

(1) 증명된 여호와와 실체(왕상 18:1-40)

⁷ 나는 이 부분을 기도라는 주제 아래 전개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도에 대한 암시적인 신학이 있고 그것이 약 5:16b-18 이 부각시키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고보서 5 장을 명시적으로 강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고보서 5 장의 강해가 아니라 열왕기상 18 장의 강해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 장에 대한 명쾌하고 도움이 되는 강해를 위해 각주 2 에 인용된 알렉 모티어의 강해를 참고하라. 아마도 보다 더 적절한 본문의 주제는 "회복된 언약의 은택들"일 것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회개를 보여주었기(참조, 왕상 18:39)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와 은혜(왕상 18:1)와 엘리야의 기도(왕상 18:42) 때문에 비롯되었다. 여기서 엘리야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러나 열왕기상 19 장에서 그는 언약의 기소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약의 은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확장하기(왕상 18:1) 때문이고 중보자(중재자?)가 그것을 획득했기(왕상 18:42-44a)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신약처럼 들린다.

⁸ 역사성을 지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James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Scribners, 1951), 307 을 보라.

(2) 회복된 여호와와 복들(왕상 18:41-45a)

(3) 확장된 여호와와 호소(왕상 18:45b-46)

이 부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을 세 번째 항목, 곧 확장된 여호와와 호소이다.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위업을 위해 엘리야를 준비시킨 것은 “여호와와 손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한 달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는가?⁹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달리는 선지자를 통해 아합을 위해 묘사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 것 같은가?

나는 우리가 여기 엘리야와 아합을 일차적으로 각자의 직분, 곧 선지와 왕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뱀 비어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여호와께서 제의(提議)와 요구와 결정을 아합 앞에 제시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안한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전령이나 선구자로 달려 간다는 사실은 여호와와 선지자가 왕의 반대자라기보다 왕의 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왕과 선지자는 진행 중인 개혁에 협력할 수도 있었다. 선지자가 항상 아합의 안장에 깔쭉깔쭉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왕은 선지자를 그의 빛나는 적이 아니라 그의 자발적인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과 **함께** 그리고 왕 **앞에서 가며**, (왕은) 타고/(선지자는) 달리며 그들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요한가?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마차를 탄 왕 앞에 발로 달리는 선지자의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에서의 올바른 질서, 곧 왕이 선지자를 따르는 질서의 회복을 상징한다.”¹⁰ 뱀 비어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원하셨던 정확한 관계였다. 즉 그의 거처, 즉 그의 보좌로 가는 길에 있는 왕 앞에 여호와와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선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길을 인도한다! 예언의 말씀은 왕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¹¹

⁹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뱀 비어(Van't Veer, *My God Is Yahweh* [St. Catharines, Ont.: Paideia, 1980], 314-15)가 옳다고 생각한다.

¹⁰ Robert L. Cohn, “The Literary Logic of 1 Kings 17-19,”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1 (1982): 341.

¹¹ Van't Veer, *My God Is Yahweh*, 317.

이러한 추론들이 타당하다면, 여호와께서는 아합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 왕은 자신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왕권은 예언적인 지시를 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아합의 결정만 남겨둔다. 백성은 그날 결정에 직면했었다(왕상 18:21, 39). 이제 아합의 차례다. 여기 그에게 기회의 순간이 있다. 여기에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그림 같은 호소가 있다.

나는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는/놀라운 은혜(incredible grace)”라고 불렀다. 나는 이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 시대에 실제로는 놀랍지 않은 것들을 묘사하는 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여기 여호와와 호소, 여호와와 은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지 않은가?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여러분을 화나게 할지 모르겠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허용하고, 바알의 제단과 신전에 대한 건축 계약을 승인하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바알 숭배에도 참여했던 자이다(왕상 16:31-32). 아합은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도살하고(왕상 18:4) 분명히 그녀의 악당들이 여호와와 제단을 무너뜨리도록(왕상 19:10, 14) 허락한 겁쟁이다. 아합은 최고의 여호와와 종에게 살인적인 증오심을 품은 자이다(왕상 18:10, 17).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돼지 같은 자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종의 도움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딩턴의 존 브라운이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 나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이다니! 나는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차라리 바로 마왕(바알세불)을 사랑하신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¹²

그렇다면 은혜가 아합에게 확장될 때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다른 종류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중요하면서도 순간적인 장면을 상상해보라. 엘리야는 멈추어 서서 몸을 좀 구부리며 가쁜 숨을 쉰다. 순간적으로, 아합의 마차가 손살같이 달려와 지나가며 그의 여름 별궁으로 향하는 길로 내려간다. 엘리야와 아합은 둘 다 왕비의 거처에 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합은 그의 손에 은혜의 제의(提議)를 갖고 있지만 그의 발은 곧 그 악마의 방에 서게 될 것이다.

¹² Robert Mackenzie, *John Brown of Haddingt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18), 297.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갈멜산에서의 승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2.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이미 말해 놓고, 어찌하여 그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가?
3. 불에 대한 간구에 즉각 응답하신 것에 비하여 비에 대한 간구에 응답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땀을 들으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4. 비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5.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 달려간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해보라.

24. 심리치료사들이 이길 것인가? (왕상 19:1-18 Shall the Psychotherapists Win?)

그의 유명한 설교 제목을 훼손한 것에 대해 해리 에머슨 포스딕에게 사과한다.¹ 그러나 이 변조된 제목은 열왕기상 19 장의 적절한 해석 방법에 대한 나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내 관점에서는 열왕기상 19 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다시 내 의견으로는, 열왕기상 19 장은 가장 지속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온 장이다.

나는 이 단락을 조금 다르게 다룰 것이다. 보통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강해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단락의 통속적인 취급과 학문적인 취급을 지배하며 널리 퍼진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경 연구가 중요한 단서들을 무시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여러분을 해석학적인 진흙탕과 수렁에서 끌어낼 계획이다. 주권적인 독자로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강해적 논평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논평이 이루어진 근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1. 역사적 엘리야를 위한 탐구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Elijah)

이상하게도, 어쩌면 짓궂게도, 우리는 저명한 사람들의 약점에 매료된다. 피터 대제는 암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바퀴벌레로 인해 겁에 질렸다. (암살자들처럼) 바퀴벌레는 분명히 비열한 생물이지만, 그런 괴상한 표본 앞에서 피터가 엄청나게 떨고 있는 것을 숙고하면 좀 재미있다. 그러나 우리 하찮은 인간들은 전설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약점을 보며 은밀한 위안을 얻는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온갖 유형의 해석자들이 이 단락에 대해 갖는 매력의 이유가 될 것이다. 어쨌든, 갈멜산의 제단에서 불이 죽기가 바쁘게 수많은 강해자들과 학자들이 기세 좋게 엘리야를 호되게 꾸짖는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호렙산의 엘리야 사이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는 것 같다. 강해자들은 이를 재빠르게 이용한다.

월러스가 승리(왕상 18 장)의 한 가운데 있는 패배(왕상 19 장)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라.

¹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은 뉴욕 시에 있는 제일 장로 교회(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1922년 5월 21일에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New York: Oxford, 1991), 9-11 을 참고하라.

엘리야가 무너졌다. 계속 읽어가며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용기에 감탄했던 그 사람이 [한날 여자에 불과한]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투에서 도울 천사 군단을 보내실 것처럼 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받침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허탈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빠져드는 것을 본다.²

마찬가지로 A. W. 핑크는 엘리야가 이 시점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 의해 지탱되어 왔지만, 이제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분노한 여자만을 보았다.”라고 단언한다. 이것은 단지 “보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의 끔찍한 결과들”을 강조할 뿐이다. 핑크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 갔다**(왕상 19:3)”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가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

때때로 논평들은 풍자나 경멸에 가깝다. 브루게만은 왕상 19:10 에 나오는 엘리야의 반응에 대해 “그 반응은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충성을 축하하기 위해 호렙에 왔다고 상상할 것이다.”라고 반응한다.⁴ 메릴 F. 엉거는 이렇게 외친다. “얼마나 큰 대조인가! 바알 숭배를 이긴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 자기 일만 생각하고, 완전히 낙담하고,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리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기도를 하는, 호렙산의 불신하는 겁쟁이 엘리야!”⁵

그러나 이것들은 다소 통속적인 강해들이다. 우리가 “자세히 읽기”에 몰두하는 문학 평론가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림이 바뀌지 않는가? 특별히 그런 건 없다. 러셀 그레고리는 “오직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왕상 19:10, 14).”와 같은 말들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오만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한다.⁶ 같은 책에서 앨런 하우저는 이렇게 주장한다.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

² Ronald S.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45. 분명 이세벨은 파렴치하고 사악한 여인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한날 여자에 불과한 여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러스가 그의 나중에 출간된 책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29-31 에서 그의 견해를 수정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가 열왕기의 본문보다는 엘리야의 마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³ A. W. Pink, *The Life of Elijah* (London: Banner of Truth, 1963), 197.

⁴ Walter Brueggemann, *1 Kings*,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89.

⁵ Ronald Barclay Allen, “Elijah the Broken Prophe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2 (1979): 196 에서 재인용.

⁶ Alan J. Hauser and Russell Gregory, *From Carmel to Horeb* (Sheffield: Almond, 1990), 124.

변덕스러운 패배주의자로 변모했고," 그는 "여호와와 뜻을 행하기 위해 호렙에 온 것이 아니고 이세벨에게서 도망치고 있고 여호와와 동정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불평하며 호렙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신이 원래 하도록 보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⁷ 버나드 로빈슨은 엘리야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

... 이세벨이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했을 때, 그를 덮친 공포는 그의 과장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그는 항상 자신을 **독특하다고** 여겨왔으므로, 그가 도망할 때 그에게 임한 깨달음, 곧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⁸

그러나 이들은 문학적 비평가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적 주석가들에게 달려가서 더 균형 잡힌 견해를 찾을 수 없는가? 거의 그렇다. 도널드 와이즈먼은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는 조울증 증상을 보이며 식욕 부진, 관리 능력 상실, 과도한 연민에 빠졌다."라고 말한다.⁹ 존 빔슨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호렙산에서

우리는 그가 나약하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질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자신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었을지라도 엘리야가 실제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리야의 대답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평가절하했다. 그는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무시했다. 암시적으로 그는 사람들을 완전히 신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신실한 오바다를 무시했고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¹⁰

⁷ Pp. 60, 67, 71.

⁸ Bernard P. Robinson, "Elijah at Horeb, 1 Kings 19:1-18: A Coherent Narrative?," *Revue Biblique* 98 (1991): 517.

⁹ Donald J. Wiseman, *1 and 2 King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93), 171. 넬슨(Richard D.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7], 126)은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동기를 추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석의상의 실수"라고 경고하고서 엘리야의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한다! 너무 많은 명시적인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해석자가 무심결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¹⁰ John J. Bimson, "1 and 2 King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360.

패터슨과 오스텔은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에 의해 훈련을 받은 선지자가 주목할 만한 실패자로 판명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한탄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부드럽게 대하신 것은 그의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성공은 그가 자신의 중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지나친 자부심(참조, 왕상 19:4, 10, 14)을 키워주었다. 더욱이 엘리야는 눈부신 광채를 즐기기 위해 왔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이세벨이 항복하고 이교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끝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향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가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이 사막의 황무지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바로 낭비된 삶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북왕국, 곧 “그의 영적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다.¹¹

나는 우리가 역사적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계속하되 다른 길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한다.

II. 해석학적 온당함에 이르는 길 (The Path to Hermeneutical Sanity)

나는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 에피소드에 다른 빛을 던져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제 그것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i. 본문을 따져보라 (Weigh the text)

전통적 히브리어 본문에서 왕상 19:3의 첫 단어는 “보다”는 뜻의 어근 [라아]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 동사형으로 “그리고/그때 그가 보았다” 혹은 “그가 보았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히브리어 사본들은 “두려워하다”는 뜻의 어근 [야레]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 동사형을 갖고 있다. 칠십인역과 파생 역본들[예: 시리아역, 라틴어역]은 소수 히브리어 사본의 독법을 따른다. 이 독법(“그때 그가 두려워했다”)은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므로, 대부분의 현대 영어 성경들(예: NIV, NASB, NRSV)에서 채택된다. (NIV, NASB와 달리 NRSV는 대안 독법으로 “그리고 그가 보았다”가 있음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이 두 동사는 특히

¹¹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48, 149, 150-51.

여기 사용된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에서 매우 비슷하므로 쉽게 혼동될 수 있다.¹² 어느 것이 원래의 독법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느 독법이 다른 독법을 더 잘 설명하는지 물어보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다”가 원래의 독법인데 “보다”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는 것과 원래의 독법 “보다”가 “두려워하다”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가? 만약 “[바이라], 그가 두려워했다”가 원래의 독법이었다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상 19:2 에 나오는 이세벨의 위협 이후에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므로, 우리가 어느 서기관이 그것을 “[바야르], 그가 보았다”로 바꾸었을 것이고 그 바뀐 독법이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야르], 그가 보았다”가 원래의 독법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본문이 그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바이라], 그가 두려워했다”를 사용하려고 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결론은 [쉬운 독법인 “그가 두려워했다”보다 더 어려운 독법인] “그가 보았다”가 원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¹³

¹² [역자 주] 어근 **הָרָא**[라아] (“보다”)의 미완료형은 **הָרָאִי**[이르에]이고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은 **הָרָאִי**[바야르]이다. 어근 **יָרָא**[야레] (“두려워하다”)의 미완료형은 **יָרָאִי**[이라]이고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은 **יָרָאִי/יָרָאִי**[바이라]이다. 이 두 동사의 바브 계속법 미완료형은 ([야레]의 두근 요드가 생략될 경우) 자음이 똑같고(**וִירָא**) 모음만 다를 뿐이다(**הָרָאִי/יָרָאִי**). 왕상 19:3a 에 대한 몇 가지 번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KJV: And when he **saw** that, he arose, and went for his life,

JPS Tanakh 1917: And when he **saw** that, he arose, and went for his life,

새번역: 엘리야는 두려워서(또는 ‘보고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공동번역: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NIV: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NASB: And he *was afraid*, and got up and ran for his life ...

ESV: Then he *was afraid*, and he arose and ran for his life ...

Brenton Septuagint Translation: And Eliu *feared*, and rose, and departed for his life:

Douay-Rheims Bible: Then Elias *was afraid*, and rising up he went whithersoever he had a mind:

¹³ [역자 주] 이문들 중에서 원본을 결정하는 원리들에는 본문 변화의 방향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의 선호, 필사자들이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더 쉽게 만들려는 경향에 근거한 “더 어려운 독법”의 선호, 필사자들이 본문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 추가 확대하는 경향에 근거하여 “더 짧은 독법”의 선호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브로츠만 저, 이창배 역,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122-125 를 참조하라.

그렇다면 “그가 보았다”가 원래의 독법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은 왕상 19:2 의 이세벨의 위협과 왕상 19:3 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그가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해 갔다”) 사이에 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문맥에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열왕기상 18 장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신성하다고 알려진 영역에서 생생하게 바알이 신이 아닌 것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불과 비를 통해 여호와와 자신은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셨다. 백성은 그렇다고 고백했다(왕상 18:39). 아합은 이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처형한 일(왕상 18:40)에 대해 이세벨에게 말하였다(왕상 19:1). 그때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왕상 19:2). 그러므로 엘리야는 갈멜산의 변증(辨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세벨은 여전히 왕국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명령을 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단두대 아래서 온순한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왕국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왕국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죽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의 손에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승리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 그러나 남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유명한 성읍(브엘세바)의 남쪽, 유다의 광야에서, 즉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이세벨의 공로로 여길 수 없는 곳에서, 바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간청했다.¹⁴

나는 알렌이 옳다고 생각한다. 엘리야는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병(조울증) 없이도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다.

ii. 지도를 보라 (Watch the map)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약 100 마일 떨어진 곳에, 즉 유다의 영토에, 그리고 확실히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안전한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간 것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였을 리가 없다. 그가 간청하는 죽음 대신, 여호와와 그의 생명을 지속시키시고(왕상 19:5-7a; 참조, 왕상 17:4, 9), 여호와의 천사 자신은 엘리야에게 임박한 여정(왕상 19:7b), 곧 때가 되면 호렙산에 이르게 될 여정(왕상 19:8)을 암시한다. 우리가 남쪽에 있는 시내산의 전통적인 위치를 받아들이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 마일 떨어진 호렙산에 있다. 지리학은 공포로 인한

¹⁴ Allen, “Elijah the Broken Prophet,” 200. 이런 알렌의 주장은 엘리야가 진정으로 죽기를 원했다면 이세벨이 기꺼이 그의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녀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월시와 같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답한다.

도망으로 해석하는 것을 많이 약화시킨다. 미국의 지리를 들어 대충 비유를 하자면, 이세벨이 필라델피아에 있다면, 엘리야가 수도 워싱턴으로 도망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세벨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왜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수도 롤리까지 줄곧 가야 하는가? 지도는 우리가 극심한 공포(공황 상태)가 아니라 계획을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유사점들을 숙고하라 (Ponder parallels)

엘리야는 모세의 산이요 언약의 산인 호렘산에 도착한다(왕상 19:8). 모세와 엘리야의 유사점은 느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다. 호렘산/시내산은 언약이 주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한 곳이었다(참조, 출 32-33 장; 왕상 19:10, 14). “사십 주 사십 야(왕상 19:8)”¹⁵ 이스라엘이 불충을 보였던 기간이고(출 24:18; 신 9:9, 11), 모세의 중보 기도의 기간이다(신 9:18, 25; 참조, 신 10:10, 출 34:28).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나가셨던(출 33:19, 22) 것처럼 “지나가신다([아바르], 왕상 19:11).¹⁶ 이 두 경우 모두 언약의 일에 초점을 맞춘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언약 중보(출 32-33 장)는 언약의 갱신과 회복으로 이어지고, 열왕기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언약의 고소(왕상 19:9-14)는 언약의 심판과 제재를 낳는다(왕상 19:15-18). 그러한 유사점들은 적어도 우리가 단지 불평하는 선지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iv. 천사들의 말을 믿으라 (Believe angels)

왕상 19:7 을 통해 우리는 왕상 19:5 의 “천사”가 실제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듣는다. 그는 엘리야에게 다시 먹고 마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여정이 엘리야에게 너무 힘들 것이 때문이었다(왕상 19:7).” 왕상 19:8 은 그 천사가 호렘산으로 여정을 예상하고 있고 이스라엘로부터 왔던 여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호렘산으로 간 것이다. 이것은 왕상 19:9b, 13 에 나오는 여호와의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통제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여 선택들을 고려할 필요를 갖게 한다.

v. 선택들을 고려하라 (Consider options)

이 본문의 해석은 존 웨슬리가 한 때 그의 설교를 반성했던 방식을 생각나게 한다. 세 번이나 설교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웨슬리는 “나는 첫 설교가 가장 큰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에

¹⁵ [역자 주] [아르바임 욥 브아르바임 라일라]에 대해 개역개정은 “사십 주 사십 야(신 9:9, 11, 18, 25; 10:10; 왕상 19:8),” 혹은 “사십 일 사십 야(출 24:18; 34:28),” 혹은 “사십 주야(창 7:4, 12)”로 번역한다.

¹⁶ 어떤 사람들은 왕상 19:13 의 “굴”이 출 33:21-22 에서 모세가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첫 설교를 가장 복되게 하셨다고 믿는다.”라고 선언했다.¹⁷ 그 불쾌감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계셨다는 표시인가 아니면 단지 웨슬리 자신이 아주 불쾌했다는 표시인가? 웨슬리는 후자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우리는-이것이-무슨-의미인지-알고-있다는 태도가 이 단락을 괴롭혀 왔다. 여호와와 질문(왕상 19:9b, 13)은 일관되게 엘리야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으로 간주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연약한 마음을 꾸짖고” 계시거나¹⁸ “선지자에게 그가 현재 실제로 있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을 전달하고” 계신다.¹⁹ 로빈슨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 그에게 그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²⁰ 그러므로 로빈슨은 여호와와 그분의 사자(천사) 모두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추론한다. 로빈슨은 천사가 염두에 둔 여정은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왠지 다른 방향으로 감히 가버린 것이라고 추론한다.²¹ 누구도 여호와와 질문을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로 간주할 수는 없는가? 문맥(위의 항목 2, 3, 4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서 초대가 올바른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모세의 산에서, 언약과 연관된 곳에서, 내 자신이 너를 이끌어 오게 한(왕상 19:7)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²² 그러므로 멘켄이 여호와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올바른 것일 수 있다.

¹⁷ Arnold A. Dallimore, *George Whitefield*, 2 vols. (Westchester, IL: Cornerstone Books, 1979), 1:197.

¹⁸ James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King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Scribners, 1951), 314.

¹⁹ W. J. Dumbrell,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at Horeb [1 Kgs 19],” *Crux* 22/1 (1986): 12.

²⁰ Robinson, “Elijah at Horeb,” 518.

²¹ Robinson, 519, 522. 월시(Jerome Walsh, *1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6], 270, 272)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것이 본문을 읽는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이 어떻게 “너에게 너무 힘든 여정(왕상 19:7)”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가 브엘세바 남쪽에서 시작했지 않는가? 확실히 길을 따라 정착촌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특별한 지탱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기간(사십 주야)” 동안 황무하고 황량한 지역을 통해 모세의 산(호렙산)까지 줄곧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²² [역자 주] 사 1:14 에서 발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리는 딸 악사에게 갈렙은 מָה־לָּךְ[마-라흐] “YLT: What—to thee?”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NASB/ESV/HCSV/KJV 등은 “What do you want?”라고 번역하고 NLT 는 “What’s the matter?”라고 번역하고 NIV 는 “What can I do for you?”로 의역한다.

이것은 선지자의 몹시 부담스러운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부드러운 친절에서 비롯된 질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의 슬픔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큰 특권이 오랫동안 거부당해 왔던 그가 그의 소원을 드러내고 여호와 앞에 그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질문이다.²³

vi.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라 (Listen to prophets)

나는 엘리야가 왕상 19:10, 14 에서 냉철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순진하고 참신한 제안을 한다. 일반적인 진단은 그를 “융통성 없음과 자기 중심주의”라고 비난한다.²⁴ 여담이지만, 나는 왕상 19:9-10 과 왕상 19:13-14 에 질문-응답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애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 장은 엘리야의 여정의 두 단계(왕상 19:3, 4), 천사의 공급에 대한 두 에피소드(왕상 19:5-7)와 같이 이중으로 다루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왕상 19:9-10 을 일종의 예비 심리로 받아들이고, 왕상 19:13-14 을 고소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로 받아들이는다.²⁵ 그러나 엘리야의 답변으로 돌아가보자. 엘리야가 전능하신 분 앞에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가?

개역개정/쉬운성경/우리말성경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번역하고, 새번역은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의역하고 공동번역은 “왜 그러느냐?”라고 번역하고 현대어성경은 “무슨 일로 그러니?”라고 번역한다. 왕상 19:9, 13 에 나오는 여호와와 질문 **הֲלָכָה לְפָנַי**[마-르하 포]에 대하여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라고 번역한다. YLT 는 “What – to thee, here?”로 직역하고, NET Bible 은 “Why are you here?”로 의역한다. 사 1:14 과 왕상 19:9, 13 에 공통되는 의문사 [마]와 전치사 [르]에 유의하면 왕상 19:9, 13 의 여호와와 질문은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초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NET Bible 의 “Why are you here?”나 개역개정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초대가 아니라 질책인 것처럼 느껴진다. 영어 성경의 “What are you doing here?”나 새번역/공동번역의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초대의 뉘앙스는 약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사 1:14 처럼 왕상 19:9, 13 도 “엘리야야, 여기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혹은 “엘리야야,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네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말해보라”고 초대하는 느낌이 잘 표현될 것이다.

²³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19 에서 재인용

²⁴ Gregory, *From Carmel to Horeb*, 134.

²⁵ 왕상 19:9-10 은 굴에 머문 엘리야가 여호와와의 면전에는 있지 않은 것을 묘사하는 것과 달리, 왕상 19:11a 이 암시하는 것은 왕상 19:11b-12 에 나오는 신현 이후에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의 면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에 “공식적으로” 고소가 성립된다.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질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당신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을 그들이 헐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목숨마저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왕상 19:14)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화가 났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어 본문은 특히 “주의 제단들”과 “주의 선지자들”이란 직접 목적어를 [문의 앞에 두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실을 부각시킨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례를 예시하고 일반적인 선지자 청산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으로서 자신의 사례만을 예시로 언급한 점에 유의하라.²⁶ 이것은 엘리야가 실패한 사역 때문에 울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배교 혐의로 고소하는 것처럼 들린다. 사실 나는 왕상 19:13-14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언약의 주님이 오신 후에, 그분은 공식적인 질문을 검사에게 던지시고(왕상 19:13b), 검사는 피고인에게 공식적인 혐의를 씌운다(왕상 19:14). 내 견해로는 **호렘산에서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언약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었다.**²⁷

²⁶ 강해자들은 엘리야를 징징거리고 부정확한 것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도 “나만 홀로”라는 동일한 진술을 했지만(왕상 18:22),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는 엘리야의 자기 연민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야는, 예를 들어, 오바다가 보호하고 부양한 100 명의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왕상 18:4, 13)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둥굴에 있었다. 왕상 18:22; 19:10, 14 에 나오는 엘리야의 진술을 “나는 바알 체계에 공개적으로 눈의 띄게 반대하는 유일한 선지자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소하는데 있어서 자비롭지 않다(Walsh, *1 Kings*, 273).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그가 왕상 18:39 에 나오는 그들의 회심을 무시하며 틀림없이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이 갈멜산 이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고 이세벨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왕상 19:3) 백성 사이에 대규모 또는 공개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모든 증거는 이세벨의 지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분고분한 아침꾼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왕상 21:11-14).

²⁷ 언약의 기소자로서 엘리야에 대해서는 W. A. VanGem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 257-58, 449-50 그리고 W. A. VanGem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36-38 을 보라.

vii. 문맥을 연결하라 (Connect the context)

다음 문맥(왕상 19:15-18)은 왕상 19:9-14 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준다. 왕상 19:15-18 에서 여호와와 엘리야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책임을 맡기신다. 이 두 왕들과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도구가 될 것이다(왕상 19:17 에 나오는 "칼"과 "죽이다"라는 용어에 유의하라). 그러나 이러한 진노 속에서도 여호와와 자비를 기억하실 것이다(왕상 19:18).²⁸ 그렇다면 왕상 19:15-18 은 엘리야의 고소(왕상 19:14)에 대한 여호와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풀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풀어 설명하면 그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엘리야야, 네 말이 전적으로 옳다! 나는 너의 평가에 동의한다. 네 고소는 진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약의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 나는 네가 돌아가 나의 심판의 도구들을 따로 챙겨두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지켜줄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동의하신다. 그분은 엘리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단을 **시인하신다!**²⁹ 세들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신현은 선지자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와 유일한 왕권을 위한 그의 열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다.³⁰

²⁸ VanGeme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37: "심판은 (1) 예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 세력, (2) 아람의 하사엘로 대표되는 외부 군사력, (3) 엘리사로 상징되는 예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²⁹ 그러나 강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왕상 19 장에서 14 절과 15-18 절 사이의 이러한 연결을 무시한다. 그들은 15-18 절을 따로 떼어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우울증에 대해 현실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프레타임(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9], 110)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동정을 구하는 파티를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 소수의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직감은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왕상 19:14 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엘리야를 그 참된 성질에 의해 문제들을 분명하게 평가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엘리야와 같은 노이로제(신경증) 환자에게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러나 해석자들이 한 번만 그들의 임상적 흰 가운을 벗고 엘리야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분의 반응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심리치료사들은 여간해서 죽지 않는다.

³⁰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4:67.

이 일곱 가지 고려 사항이 이 본문의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 곧 엘리야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켜준다.

III. 해석학적 산들이 옮겨질 수 있는가? (Can Hermeneutical Mountains Be Moved?)

우리는 짜릿하지만 괴롭히는 본문을 접하게 된다. 내가 말하는 본문은 왕상 19:11-12 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문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구절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 구절들은 읽을 때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절정이 사로잡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직관적으로 여기에 훌륭한 본문이 있다고 느낀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냐는 문제이다.

나는 왕상 19:12 의 마지막 어구 [콜 드마마 다카]를 “목소리, 낮은 속삭임”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 조용함 혹은 침묵은 절대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다(왕상 19:13a). [콜]이 또한 “소리” 혹은 “소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것을 “목소리”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³¹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교훈적** 견해를 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신현은 엘리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엘리야의 방법들에 있는 많은 것에 대한 암시적인 책망”이라는 것이다.³² 드 브리스는 적용을 확대하며 호렙산의 경험이 “성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조용한 사랑, 순전한 경건, 설득력 있는 친절의 방식을 무시하면서 고함과 부당한 행동에 의존하는 모든 종교가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주장한다.³³ 워필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명백한 심판의 기적의 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³¹ 러스트(J. Lust)는 왕상 19:12b 을 “분쇄하고 표호하는 소리”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Gentle Breeze or a Roaring Thunderous Sound: Elijah at Horeb, 1 Kings 19:12,” *Vetus Testamentum* 25 (1975): 110-15 그리고 “Elijah and the Theophany on Mount Horeb,” in *La notion biblique de Dieu* (Leuven: LUP, 1985), 91-99 을 보라. Jeffrey Niehaus,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48 는 여기서 그를 따른다. 나는 여전히 본문이 대조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러스트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

³²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32.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것은 그 방법들에 있는 과장된 것에 대한 책망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를 근본적으로 옳은 것으로 즉각 받아들이셨다(32-33 쪽).”라고 말했다.

³³ S. J. De Vries, *1 King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5), 237.

바로잡으셨다.”라고 주장했다.³⁴ 이러한 견해에는 약간의 진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주님은 단지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한 예언이나 선지자만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박적 견해**를 내세운다. 여호와께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꽃 놀이는 폭풍과 자연의 신인 바알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들 “안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바알의 이러한 계시 방식을 사용하길 거부하고 계셨다. 여기서 이러한 현상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을 예고할 뿐이다. 그러므로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조용한 목소리를 대조하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비와 폭풍의 신이 갖는 모든 속성을 소유하시지만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오히려 자연 위에 계시며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³⁵ 나는 논박적 견해가 매력적임을 알지만, 그것이 본문보다는 배경에서 더 많은 자료를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논박이 열왕기상 17 장과 18 장과 관련해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논박적 견해를 무시하고 **계시적 견해**를 옹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여호와께서 특히 그분의 말씀(다음 문맥이 심판과 은혜의 말씀으로 보여줄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왕상 19:11b-12a). 바람은 가장 광범위하게 묘사되었다. 그것은 “크고 강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런데 바람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했다. 이 마지막 묘사는 지진과 불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현상들은 여호와의 도래의 전조이지만, 그분은 이것들 중 어느 것 “안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불 후에 “목소리, 낮은 속삭임”이 있었다(왕상 19:12b). 본문은 여호와께서 목소리 “안에” 계셨다고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한 신호였다(왕상 19:13a). 본문은 엘리야가 더 온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본문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선지자가 그분과 다룰 것들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온화해야 하신다고 말한다. 선지자가 어떻게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자제해야 하신다. 그래서 “목소리, 낮은 속삭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얼굴을 가려야 했다. 마치 여호와의 “여파(개역 개정: 등)”를 얼핏 본 것이 모세에게 충분한 외상이 된 것이 틀림없던 것처럼 말이다(출 33:23).

³⁴ B. B. Warfield, *Faith and Life* (1916;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4), 12.

³⁵ Leah Bronner, *The Stories of Elijah and Elisha as Polemics against Baal Worship*, Pretoria Oriental Series (Leiden: Brill, 1968), 63;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MA: Harvard, 1973), 190-94.

이제 본문의 흐름을 추적해 보자. 열왕기상 19 장에서 12 절 하반절에 나오는 “[콜], 목소리”가 13 절에 다시 나온다. 여기서 [콜]은 엘리야에게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9 절 하반절에서는 동일한 질문이 “여호와와 말씀”에 의해 던져진다. 그렇다면 13 절 하반절에 나오는 “목소리”는 9 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과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추정한다. 다음 문맥이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13 절 하반절에서 목소리([콜])가 질문을 하고 14 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한 후에, 15 절은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하며 심판(15-17 절)과 은혜(18 절)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우리는 대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의 장엄한 폭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조용한 말씀, 즉 역사를 지시하고(15-17 절) 백성을 보존하는(18 절) 말씀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³⁶ 이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도록 허용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IV. 호렙산에서 설교학으로(From Horeb to Homiletics)

지금까지 열왕기상 19 장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과 해석을 주장하면서 많은 논의를 해 왔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이 단락이—대부분 그리고 내 견해로는—크게 잘못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독자로서 우리는 엘리야의 상황 그리고 아마도 틀림없이 느꼈을

³⁶ 왕상 19:9-18 의 구조는 두 개의 대칭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동굴에 머문 엘리야, 9a

여호와와 질문, 9b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

엘리야의 대답, 10

여호와와 명령, 11a (그분이 이르시되, 나가서 서라)

세 가지 파괴적 전조들, 11b-12a

놀랍게 대조되는 것, 12b

동굴 어귀에 선 엘리야, 13a

여호와와 질문, 13b (보라! 그에게 목소리가 임하여, 이르기를 ...)

엘리야의 대답, 14

여호와와 명령, 15a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돌이켜 가라)

세 가지 심판의 도구들, 15b-17

신실한 남은 자, 18

우리는 대칭 부분의 관련성을 너무 멀리 밀고 가서는 안 된다. 반 게메렌(VanGemer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37)은 바람, 지진, 불(왕상 19:11b-12)을 세 심판의 도구(예후, 하사엘, 엘리사, 왕상 19:15-17)와 연관지으려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승인하신 심판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원할 것인가?

그의 감정과 너무 기꺼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거의 확신한다. 그래서 거의 즉시 우리는 성경 본문보다는 선지자의 감정에 집착하게 된다.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첫 번째 목회지에서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우울증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성경 내러티브에서 세례 받은 유용한 심리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그러나 나는 회개했다. 나는 여러분을 이끌며 여러 페이지에 걸쳐 더 훌륭한 방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 장은 가르침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가르침과 설교 요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우리의 “언약적” 해석이 일반적인 “심리적” 접근보다 더 풍부한 적용들을 산출한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의 취지를 기억하라. 나는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교도주의와 전국에 걸쳐 지속되는 그녀의 권력에 의해 마음이 상했다는 로널드 바클레이 엘렌의 말에 동의했다. 구속사의 상황, 특히 호렙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라. 엘리야는 모세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여호와 자신의 손길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였다. 거기서 엘리야의 사명은 지속적인 언약 위반으로 이스라엘을 기소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본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가르치고 있다.

i. 증거의 한계, 즉 계시의 “좌절”(왕상 19:1-3 The limitations of evidence, or, the ‘frustration’ of revelation)

단지 갈멜산의 명확한 증거(왕상 18 장)가 있다고 해서, 이세벨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명백한 증거가 그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외경적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합은 가볍게 항의하며 “여보, 이세벨이여,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라고 말한다. 왕비는 마스크라가 가득한 속눈썹을 통해 아합을 노력하며 레블론을 칠한 입술의 익숙한 비웃는 듯한 움직임을 가지고 “그래서요?”라고 대꾸한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우리 문화와 정부에 만연한 교육 오류, 즉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교육 오류를 삼켜왔다면,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정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칼럼 중 하나에서 돈 페더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다시 짚어보았다. 그는 많은 미국 군인들의 영웅주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그는 증거를 인용했다. 미국의 암호학자들이 일본의 외교 암호를 해독하여 1941년 11월 22일 루즈벨트와 협상하는 일본 사절단에게 주어진 약 일주일 후에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로챘다. 1941년 1월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이 미국과의 단절시에 “진주만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보고했다. 일본이 공격하기 며칠 전에 FBI는

호놀룰루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외교 문서를 소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 많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든 징후들이 있었고, 이 모든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가장 엄격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그러면”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이세벨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게 하라. 갈멜산에 빛의 불꽃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외부 빛을 볼 수 있도록 내부 빛을 주시지 않는 한 어둠은 남아 있다. 여호와의 불은 이세벨의 마음에 있는 맹목과 그녀의 의지에 있는 완고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웠다(왕상 18:38).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전도, 상담, 설교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ii. 낙담하는 자기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움(왕상 19:9, 13 The tenderness of God toward his desponding servants)

많은 해석자들은 왕상 19:9, 13 에 나오는 질문을 오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그분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으로 보곤 했다. 내가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옹호하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해석학적 매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왕상 19:4-8 은 선지자의 필요에 대한 여호와의 친절한 부양을 이미 보여주었다.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우가]과 한 병[차파하트] 물이 있더라(왕상 19:6).” [우가]와 [차파하트]라는 용어들은 열왕기상 17 장에 나오는 공급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거기서 우리는 동일한 용어들을 접한 적이 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작은 떡(왕상 17:13 [우가])”를 달라고 부탁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병(왕상 17:12, 14, 16 [차파하트])”에 항상 기름이 있을 것임을 보증하셨다. 그러나 나는 엘리야가 공급뿐만 아니라 이해도 받았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엘리야야,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왕상 19:9, 13)?”라는 여호와의 유명한 질문에는 암묵적인 부드러움이 있다. 나는 여호와의 질문이 비난이 아니라 초대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중의 초대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사건을 진술해 보라는 초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대이다. 여호와의 질문은 언약적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그의 관심사를 털어놓을 기회를 제공하시는 친절의 행위이다. 왕상 19:15-18 은 선지자의 고소에 대한 여호와의 동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더욱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물론 이 친절하심은 여호와의 최고의

성품이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절망 속에서 나는 엘리야에 대한 해석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엘리야의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고 싶다.

iii. 하나님의 종들을 자극해야 하는 단 하나의 거룩한 열심(왕상 19:10, 14 The one holy passion that should stir God's servants)

설명했듯이, 보편적인 견해는 왕상 19:10, 14 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이 명명백백하게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나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종류의 선지자적 불평을 해대는 엘리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엘리야가 징징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개인적 흥미를 느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엘리야가 신중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나 나나 진지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³⁷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불충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교회의 교리적 무관심과 우상 숭배적인 실용주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화를 낸 적이 있는가? 그러나 엘리야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심리적 대혼란에 빠진 사람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질문에 직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1781 년 9 월 말, 윌리엄 헨리 왕자(윌리엄 4 세로 통치할 조지 3 세의 아들)가 뉴욕에 도착했다. 그의 도착은 영국인들을 흥분시켰다. 21 발의 예포가 있었다. 파티, 리셉션, 퍼레이드, 도시 투어, 독일 및 영국 연대 분열식, 저명한 시민들과의 만찬, 군악대의 저녁 연주회가 있었다. 아래 요크타운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경박하지 않았다. 콘월리스 경은 그의 전방에는 식민지군과 프랑스군에 의해, 그의 후방에는 항만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에 의해 갇혀서 뉴욕으로부터의 구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에서 클린턴 장군은 전쟁 평의회를 열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해군은 배를 수리했지만 출항하지 않았다.³⁸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권태가 뉴욕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자를 즐겁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분명히 엘리야는 중요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는 우울한가? 그는 낙담하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 여호와와의 이해 관계, 즉 그분의 언약, 그분의 제단, 그분의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강렬함과 하나님 중심은 우리에게 이상해 보인다. 사실상 그것은 비교를 통해

³⁷ 일반적인 해석은 이미 엘리야의 “토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³⁸ Barbara W. Tuchman, *The First Salute* (New York: Knopf, 1988), 278-79.

우리의 경박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를 반쯤 미친 “언약주의자”로 간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우울해진 적이 있는가?

iv.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의 숨겨짐(왕상 19:9-14 The hiddenness of Yahweh's work and presence)

나는 여호와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과 고요한 목소리에 있는 그분의 명백한 현존(왕상 19:11-12) 사이의 감미로운 대조를 놓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러한 계시가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처럼 그분의 실체에 대한 극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주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 대신에, 그의 존재와 실체는 진행하실 그분의 심판의 사역(왕상 19:15-17)과 은혜의 사역(왕상 19:18)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선지자에게 심판과 은혜의 사역을 계시하셨다(참조, 암 3:7-8). 여호와와 사역의 “고요함”은 그분이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다.³⁹ 몇 주 전에 우리가 공중 예배에서 마가렛 클락슨의 찬송가를 불렀을 때 나는 이것을 상기했다.

이 아침의 하나님이시여, 기쁘게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신뢰하며 절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알도록 해 주십시오. 주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요히 군림하시는, 우리의 지금의 주님이시여.⁴⁰

본문에서 우리 자신의 시대로 파급되는 여파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표적을 갈망할지 모르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좀처럼 찾지 못할 것이다. 오르가즘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바알 숭배이다(참조, 왕상 18:28-29).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말씀으로 만족한다.

³⁹ 참조,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33: “우리가 시내산의 엘리야의 내부적 중요성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왜냐하면 7 천을 상징적인 숫자 이외의 것으로 간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⁴⁰ “God of the Ages,”의 2 절 (강조는 저자가 표시한 것임).

v.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완강하심(왕상 19:18 The stubbornness of the covenant-keeping God)

“그리고/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7 천을 남길 것이다.”라는⁴¹ 절정의 이 선언은 사람들의 신학적 뼈에 짜릿함을 넣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마 16:18).”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이다. 은혜는 남은 자를 가질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것을 고집하신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지상에서 그분을 경배할 백성을 항상 가지실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인 백성(롬 11:1-6)도 가지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분은 자신이 참 백성을 가지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가지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어느 이세벨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것은 우리 중 일부를 일어서게 하는 이 본문이 주는 전파력 강한 보증, 도전적인 확신, 거룩한 독단(주장)이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다. 이 새 언약의 시대에도 역시 그런 종들이 있다. 그것은 전혀 탐탁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열왕기상 19 장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하시고 적절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상한 심령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V. 연구를 위한 질문(Study Questions)

1. 이 단락에서 주석가들이 엘리야와 관해 내린 통속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2. 이 단락에서 엘리야의 “마음 자세와 감정 상태”가 자주 주석가들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여러분은 왕상 19:3 에서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라기보다 “엘리야가 보았다”가 문맥에 맞고 엘리야의 빠른 퇴장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가?
4. 여러분은 엘리야에 대한 여호와의 질문이 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가?
5. 이 단락에 대한 “언약적” 관점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가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가?

⁴¹ 동사 **יִשְׁמְרֵנִי**[브히시아르티]는 영어의 미래로 번역되어야 하고 NIV 처럼 현재나 NKJV 처럼 과거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상 19:18 은 왕상 19:15-17 의 모든 일처럼 앞으로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점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실 때 그분은 **그 심판 중에라도**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다. [역자 주] [브히시아르티]의 종음절에 악센트 메르하가 있는 것은 보통 과거로 번역하는 완료에 연결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미래로 번역하는 바브 계속법 완료라는 것을 말해준다(GBH 119a; GKC 49h).

25. 농장 떠나기 (왕상 19:19-21 Leaving the Farms)

이 단락(왕상 19:19-21)이 가족 농장에 대한 향수 어린 방문을 즐기도록 초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이 묘사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 에피소드는 자신의 집 온수기 아래 팬이나 바닥에서 약간의 습기나 약간의 물방울을 발견하는 집주인과 같다. 당황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녹이 돌아다니는 작은 웅덩이가 될 수 있으므로 감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온수기가 녹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방치할 경우 수도꼭지가 무너지고 집에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절정의 날이 올 것이다. 엘리사의 부름은 흘러내리는 첫 물방울들에 해당한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판명될 운명인 것을 기억하라(왕상 19:16-17).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엘리사를 부르는 것은 (왕상 19:15-17 에 요약된) 여호와의 작정된 심판 과정의 최초의 작은 성취에 해당한다.¹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엘리사의 부름 뒤에 달려 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막 그 부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갑자기 올 수 있는가 (왕상 19:19 How Suddenly God's Call May Come)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겔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왕상 19:19)

하워드 해머는 오레곤 주의 높은 사막 마을인 칠로퀸의 비행장에서 국내산 비행기를 타고 방금 이륙했다. 거의 즉시 단일 엔진 비행기가 동력을 잃었고 해머는 미국 97 번 북행 노선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베르토 코로나 암브리즈는 이번 목요일에 있을 자기 자신의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미국 97 번 노선 북쪽에서 자신의 장비인 평상형(平床型) 트럭을

¹ Burke O. Long, *1 Kings*,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206 의 “의도(Intention)” 아래 부분을 참조하라. 왕상 19:15-17 에 따르면, 엘리야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다. 엘리야는 실제로 그들 중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았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외투를 던졌고(왕상 19:19),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대리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왕하 9:1-10), 엘리사는 (분명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과 별개로) 하사엘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다(왕하 8:7-15).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엘리야를 보여준다고 말할 것이지만, 나는 엘리슨(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33)의 다음과 같은 말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했던 대리인을 통해 했든, 엘리야가 그의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심판과 멸망을 가져올 때 어떤 권위로 행동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몰고 있었다. 해머가 고속도로에 자신의 항공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암브리즈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평상형 트럭을 해머의 비행기 아래로 몰았다. 조종사인 해머는 남쪽으로 가는 교통 상황을 경계하고 비행기의 기수를 위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트럭을 결코 볼 수 없었다. 암브리즈는 충돌을 느끼고 큰 굉음을 듣기 전까지는 비행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프로펠러는 트럭의 평상 위에 걸리고 비행기의 기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꼬리는 평상형 트레일러에 내려앉았다. 착륙은 성공적이었고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았다.²

그런 일은 대부분의 트럭 운전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암브리즈 씨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늘 미국 97 번을 타고 북쪽으로 운전하는 동안 어떤 비행기가 내 평상형 트럭을 활주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장담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갑자기 비행기가 그의 트럭에 착륙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이 날을 기억했었을 방식이다. 그는 단지 농부들이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벨메홀라 근처의 샤밧의 농장에 있는 땅을³ 갈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들판을 가로질러 와서 그에게 그의 겹옷을 그의 위에 던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엘리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왕상 19:20a),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 윌러스는 우리에게 엘리사처럼 매우 놀란 적이 있는 다른 사람들, 곧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출 3:1-2)와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마태(마 9:9)를 상기시켜 주었다.⁴

부르심이 갑작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한 신경 접합부(시냅스)에서 다른 신경 접합부로 부딪치는 반사적인 작동처럼 그것이 계획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여호와와 호렘산에서 엘리사를 사용하기로 하신 자신의 결정을 공개하셨었다(왕상 19:16).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갑작스럽게 보였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 결정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었다.”⁵ 갑작스러움은 때때로 주권이 도래하는 포장지이다.

² 우리 지역 신문에 실린 2000 년 8 월 12 일자 연합 통신(AP) 이야기

³ 위치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 벳산에서 남쪽으로 10 마일 떨어진 강 서쪽의 요단 계곡에 있는 것으로 본다.

⁴ Ronald S.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6.

⁵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56.

(우리가 신중하려고 애쓰듯) 신중한 성경 독자들은 엘리사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의 소명은 독특하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던 것처럼(참조, 민 11:28; 신 31:14; 수 1:1)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사를 선지자 직분과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특별 자격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평범한 기독교인 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측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엘리사의 소명은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실(우리의 순종을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과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그분이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엘리사의 부르심과 같은) 특정한 부르심은 한 독특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배어 있어야 할 일반적인 태도, 즉 그들이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임을 극적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

II.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즐겁게 순종되는가 (왕상 19:20-21a How Joyfully God's Call Is Obeyed)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왕상 19:20-21a)

엘리사의 반응은 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구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과 그에 응하고 싶은 분명한 욕망을 나타낸다.⁶ 뒤따르는 그의 행동은 그의 이전 일과 완전히 단절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왜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장작으로 사용했는가?

⁶ 엘리사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의 마지막 부분, 즉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는 어렵다. 이 말은 "어서 돌아가라"에 들어있는 허락을 강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카일이 설명한 것처럼) "물론 그래도 좋다.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뜻이거나, (그레이처럼 변화사 [키]를 역접의 의미로 보며) "그럼, 그래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역자 주] לָךְ שׁוּב [레흐 슈브]는 "가라, 돌아가라"가 아니고 "어서 돌아가라"는 뜻이다(이사일의, 二詞一意, hendiadys). כִּי מָה-עָשִׂיתִי לָךְ [키 메-아씨티 라흐]에 대한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그룹 1

개역개정: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우리말성경: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NIV/ESV/KJV/NASB: "(Go back) (For) What have I done to you?"

물론 수중에 다른 목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전의 소명을 영원히 포기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⁷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스테이크를 먹었다.

때때로 엘리사가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눅 9:61-62 에 비추어 이 단락을 읽기 때문이다. 두 본문의 비슷한 장식과 문채(文彩) 때문에 사람들은 해석자들이 눅 9:61-62 의 자원봉사자를 엘리야의 분신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엘리사가 열등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⁸ 누가 복음 9 장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와는 많이 다르다. 눅 9:62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과업을 맡은(쟁기를 잡은) 사람이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새번역: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그룹 2

공동번역: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쉬운성경: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GWT: (Go back,) I am not stopping you.

GNT: (All right, go back.) I'm not stopping you!

Amplified Bible: (Go on back;) for what have I done to [stop] you?

그룹 3

현대어성경: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NLT: (Go on back,) but think about what I have done to you.

CEV: (You can go,) But remember what I've done for you."

⁷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23. 월러스(R. S. Wallace, *Readings in 1 Kings* [Grand Rapids: Eerdmans, 1996], 137)도 비슷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를 죽인 것은 그가 이전 생활 방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소의 멍에들을 파괴한 것은 그가 다시는 돌아와 이 일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⁸ Darrell L. Bock, *Luk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4), 186 그리고 F. W. Danker, *Jesus and the New Age* (Philadelphia: Fortress, 1988), 211 에 나오는 설명들을 참조하라. 나는 누가복음 9 장이 예수님 안에 "이미" 왕국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헌신의 절박함을 밀어붙이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엘리사의 요청을 (당커의 말대로) "미루는 것"이라고 부를 이유는 아니다. 시간을 들여 구약 성경 본문을 그 자체의 관점과 그 자체의 문맥에서 숙고하는 것은 종종 그러한 의심스러운 비교를 막아준다.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⁹ 다시 말하면, 그는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눅 9:61 은 왕상 19:20 과 형식적으로 유사할 뿐이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 9 장에서는 왕국의 헌신에 걸림돌이 되는 반면, 열왕기상 19 장에서는 왕국 봉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엘리사는 그의 헌신을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연줄을 끊기 위해 돌아간다. 엘리사는 보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끊기 위해 돌아간다.¹⁰

본문은 엘리사가 애정의 영역에서 그의 부름에 따른 희생에 직면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왕상 19:20).” 그는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그러한 관계들을 영구히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참조, 눅 14:25-26). 그러나 그는 또한 안전 보장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사밧이 열두 거리(쌍)의 소를 가졌다는 사실은 생가의 터전에 안락한 수준의 부가 있음을 시사한다. 설사 이 소들의 일부가 “도움을 주기 위한 이웃의 것이었을지라도, 발은 그렇게 갈아야만 하는 커다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¹¹ 사밧의 농장은 엘리야의 외투가 만질 수 없는 지상의 위안을 제공한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친숙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친숙함에 의해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루함과 일상이 기쁨의 사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 일부는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이상하게도 안심할 수 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익숙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인생이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 농장, 토양, 가축, 농작물 등 관습의 질서 있는 전통이었다. 엘리야는 그렇게 안정된 어떤 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엘리야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다른 관할 구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정말 방해가 되는 걸림돌, 장애, 난관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반복해서 애정, 안전 보장, 친숙함 등 이 엘리사의 영역에서 희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바알 숭배에 매료된 적은 한 번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들을 찾고 있지 않는가?

⁹ M. Zerwick and Mary Grosvenor,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3), 217. 눅 9:62 에 나오는 단순 과거 분사 ἐπιβαλὼν[에피발론] (“having put”)에 암시된 결정적인 행동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현재 분사 βλέπων[블레폰] (“[keeping/continuously] looking”)의 지속적인 행동에 유의하라.

¹⁰ 이에 대한 더 참된 신약의 병행은 눅 5:29 과 그 문맥일 것이다. 거기서 레위의 잔치는 그 이전에 제자로 부름 받은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¹¹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43.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와 부르심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 좀 뼈뺀 이유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주장은 워커 퍼시가 그의 소설 중 한 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찝박한 부분을 생각나게 한다.

우주 탐사, 신, 인간, 죽음, 자살 등에 관한 웅대한 생각을 위한 한 가지 확실한 치료법이 있다. 그것은 구역질이다. 나는 구역질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 방대한 주제들에 대하여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것을 도전한다. 구역질하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다. 구역질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¹²

좀 역겹지만 명쾌하다. 상황을 감안하면, 구역질은 모든 다른 고려 사항들보다 선수를 친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는 구역질을 잘 하는 사람이고 내 구역질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나는 그 밖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메스꺼운 유추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엘리사의 경우에 그러했다. 엘리야의 겹옷을 그의 어깨 위에 걸치고, 여호와와 부르심을 그의 앞에 두며, 어쩌면 그를 지켜줄 많은 것을 남겨두고서, 그는 기꺼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라고 외쳤다.

III.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시작되는가 (왕상 19:21b How Ingloriously God’s Call Begins)

작별 만찬이 끝났다. 이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수종 들었다.” 나는 본문의 모든 세행에서 그 의미를 우려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여호와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왕상 19:16) 사람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할 만하지 않는가? 엘리야의 승천 후 몇 년이 지나서, [모압 왕과 싸우기 위해] 연합한 왕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재촉으로 인해 여호와와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지시를 얻고자 했다.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서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왕하 3:11).”라고 말했다.¹³ 엘리사는 발을 갈곤 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 그다지 뛰어난 사역은 아니었다. 단지 엘리야의 개인적인 종이었을 뿐이다.

¹² Walker Percy, *The Second Coming*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80), 213.

¹³ G. H. Jones, *1 and 2 King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4], 2:395: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관습은 잘 증명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손에 물을 붓는 것은 하인이 주인에게 또는 주인이 손님에게 보여주는 존경의 표시였다.”

그러나 이 짧은 왕상 19:21 이 왕하 3:11 과 더불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지금 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수표가 아닌가? 우리가 사역의 규모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 반드시 보수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뒤틀린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최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 있어서 야고보와 요한(막 10:35-37)의 형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실 때, 나는 인자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창 3:5 의 유혹이 여전히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깨닫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종이 되기 싫어한다(참조, 막 10:43-45).

그러나 우리의 우상 숭배가 이 본문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실망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부르셨고 “그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꽤 평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은 여호와와 부르심이었다. 그것이 여호와와 부르심이라면, 어쩌면 후미진 곳의 어딘가에서 “꼭 필요한 요소만 있는” 사역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중요한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엘리사의 부르심은 특이한 부르심인가?
2. 왜 엘리사는 소들을 잡고 소들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았는가?
3. 엘리사의 에피소드는 눅 9:61-62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4. 엘리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5. 왜 엘리사는 기꺼이 엘리야와 대등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종이 되려고 했는가?

26.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0 장 Getting Clear about God)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일 주일 정도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지역을 떠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집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여러분의 친구들의 유일한 친구일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숙박비를 절약하는 것을 즐길 것이다.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라면 다르게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이 벽에 더 밝은 색상, 다른 스타일의 가구, 그리고 역도 기구를 식당 밖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들을 배치했을 것이므로, 임시 손님으로서 여러분은 그들의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른 배열을 선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가 열왕기상의 마지막 세 장을 어떻게 배열했는지 인식해야 한다. 왕상 17-19 장을 “신들의 전쟁”이란 주제로 통합한 것처럼, 저자는 왕상 20-22 장을 또 다른 삼부 구조로 결합한다. 여기서 각 장은 **아합의 실패**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대립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아합의 짓대 없는 타협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은 파멸할 운명에 처해 있고(왕상 20:42), 그의 무자비한 압제 때문에 그의 집안이 멸절될 것이고(왕상 21:21-24), 그의 멍청한 둔감함 때문에 그의 목숨이 박탈당한다(왕상 22:19-23, 29-38). 다른 어떤 왕도 성경 저자로부터 그러한 문학적 구타를 받지 않았다. 다른 어떤 왕도 아합과 같이 악한 길을 걷지는 않았다(왕상 21:20, 25; 참조, 왕상 16:30, 33). 그렇다면 열왕기상 20-22 장은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아합의 반복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반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열왕기상 20-22 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열왕기상 20 장과 그것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가? 우리는 20 장에 관련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람의 침공은 벤하닷 2 세의 주도 아래 주전 860 년경이나 그 직후에 일어났다고 가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¹ 열왕기상 20 장의 고등 비평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쓸모가 없지만,² 그 구조를 살피는 것은 이 이야기의 통일성과 전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열왕기상 20 장의 전체 구조

아람의 위협(사마리아에 대한), 왕상 20:1-12

선지자의 개입, 왕상 20:13-14

이스라엘의 승리, 왕상 20:15-21

여파: 선지자의 조언, 왕상 20:22

아람 사람들의 실패, 왕상 20:23-25

아람의 위협(아벡에서), 왕상 20:26-27

선지자의 개입, 왕상 20:28

이스라엘의 승리, 왕상 20:29-30

여파: 아람 사람들의 탐색, 왕상 20:31-32a

왕의 관대한 처분, 왕상 20:32b-34

준비: 위험스러운 말씀, 왕상 20:35-37

대면: 선지자의 계략, 왕상 20:38-40

공개: 하나님의 결정, 왕상 20:41-42

여파: 왕의 반응, 왕상 20:43

¹ 벤하닷 2 세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K. A. Kitchen, NBD, 3rd ed. (1996), 129 을 참고하라. 라솔(W. S. LaSor, "1 and 2 Kings," *New Bible Commentary*, 3rd ed. [Leicester: Inter-Varsity, 1970], 345-46)은 그럴듯한 재구성을 제공한다. "이 장(왕상 20 장)의 연대는 문제이다. 카르카르(Qarqar) 전투는 주전 853 년에 일어났다. 그 때 아합은 앗수르의 살만에셀 3 세와 맞서 다메섹과 다른 9 개의 도시 국가와 동맹을 맺었다. 아합은 주전 852 년경(왕상 22 장) 길르앗 라못에서 다메섹 왕과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아람 왕 벤하닷에 대한 승리들은 그보다 몇 년 전이었고 벤하닷과의 조약(왕상 20:34)은 앗수르에 대항하는 연맹을 위한 한 단계이었던 것 같다. 카르카르 전투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다시 전쟁을 벌였다고 가정한다."

² 나는 일부 학자들이 열왕기상 20 장의 사건은 50 여 년 후 요아스(Jehoash) 시대에 일어났으므로 아합은 그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가(왕상 20:2, 13, 14)? 그러면 그들은 후대의 한 편집자가 그의 이름을 삽입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본문상의** 증거가 있는가? 아니, 없다. 그러면 비평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문학적 분석(편리한 주문)에 의해서이다. Wayne T. Pitard, ABD, 1:339-40 그리고 W. Thiel, ABD, 1:101 을 참조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자료를 결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본문상의 증거가 없이 본문을 조작하는 것은 진전의 길이 아니다.

지금은 이 구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처음 두 주요 부분은 분량에 있어서 (각각 총 25 절과 총 9 절로) 크게 다르지만, 패턴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에 유의하라. 우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두 주요 부분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의 끝에 이르러 모든 것이 해결되고 통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상 20 장의 “급소를 찌르는” 부분(35-43 절)에 의해 찢어지고 만다. 여기서 한 무명의 선지자는 “병거 정상 회담”의 설계자를 비난한다. 이제 강해로 나아가자.

1. 여호와와 은혜의 경이로움 (왕상 20:1-22 The Marvel of Yahweh's Grace)

그것은 절망적이고 애처롭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투하여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아합의 수도를 포위했다.³ 벤하닷은 32 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연합군, 즉 부족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각각 소집한 군대를 결속시켰고, 따라서 그의 지휘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 자신의 유리한 점을 즐기며 그는 자신의 조건을 강요하고(왕상 20:3) 아합은 순순히 묵인한다(왕상 20:4). 벤하닷은 자신이 너무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단지 아합의 복종보다 아합의 굴욕을 선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또 다른 전갈을 가지고 아합에게 다시 왔다.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왕상 20:5-6)

일부 해석자들은 벤하닷의 첫 번째 요구(왕상 20:3)가 아합이 기꺼이 받아들일려 했던(왕상 20:4) 봉신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벤하닷은 곧바로 요식 행위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왕상 20:5-6). 아합은 회의 후에 벤하닷의 새로운 요구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왕상 20:9).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당돌한 반대에 불쾌감을 느낀 아람 왕은 위협을 하고 맹세를 결들인다. 벤하닷은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이

³ 야딘(Yigael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3], 2:304-310)은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봉쇄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멀리서 그것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왕상 20:12, 16 에 나오는 용어 [쑤코트](보통 “장막, booths” 혹은 “대피소 shelters”로 번역됨)에서 그 단서를 얻는다. 야딘은 이것이 요단 동편 숙곳이란 지명이었고, 보통 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헤르조그와 기촌(Chaim Herzog and Mordechai Gichon, *Battles of the Bible* [New York: Random House, 1978], 232)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전화가 없던 시대에 지휘관이 작전 현장에서 39 마일 떨어진 본부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헤르조그와 기촌은 그들의 *Battles of the Bible*, 107-115 에서 열왕기상 20 장에 나오는 책략들에 대해 전부 다루고 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의 각각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다(왕상 20:10).⁴ 아합은 무력하다. 그는 단지 "그 일에 대해 지껄이기 전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재담을 할 수 있을 뿐이다(왕상 20:11). 무력한 백성에게 황량한 날이다.

갑자기 소망이 **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 이 무력한 상황에 찾아온다(왕상 20:13-21). 느닷없이(out of the blue)⁵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다가온다.

[Why, "아니, 이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왕상 20:13)

당연히 아합은 한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 선지자는 "여호와와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한다(왕상 20:14a). 이 청년들은 (NIV의 "The junior officers"와 달리)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⁶ 아합 자신이 전투 계획을 조정하거나 "취합해야" 한다.⁷

⁴ Jerome T. Walsh, *1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6), 298: "위협은 두 가지이다. 그것은 벤하닷의 군대의 규모를 알려주고, 아합의 수도의 완전한 파괴를 예고한다."

⁵ 이것은 왕상 20:13의 첫 히브리어 단어 [브히네]에 의해 암시된다. [브히네]는 전통적으로 "보라!"(NASB: "Now behold,")로 번역된다. NIV의 "meanwhile 그 사이에"은 너무 약하다. 나는 놀람의 요소를 포착하려고 "Why, ..."로 번역했다. NKJV의 "suddenly, 갑자기"는 여기에 잘 어울린다.

⁶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55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⁷ 아합의 두 번째 질문은 직역하면 "누가 전투를 묶을(혹은, 결속할, bind or tie up) 것인가?"이다. 여기 동사 [예쓰르]는 흔히 "시작하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아합이 누가 전투를 "함께 묶는(tying together)" 책임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문자적 의미가 적절할 수 있다.

[역자 주] 동사 [아싸르]가 "전쟁, 전투"를 뜻하는 명사 [밀하마]를 목적으로 취할 때 KB(75)는 "to begin the battle, 전투를 시작하다"로 풀이하고 그 예로 왕상 20:14와 대하 13:3을 들었다. 한편 Provan(*1 and 2 Kings*, 155)은 이 어구에 대하여 전투를 끝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NIV's **who will start the battle?** is, in fact, much better translated as 'who will finish (lit. 'tie up') the battle?': cf. also 2 Chron. 13:2-19, where Abijah 'brings to an end' the war with Jeroboam." 그러나 대하 13:3에서 [아싸르 밀하마]는 [아라흐 밀하마]("대진하다"; KB, 885: "to draw up a battle formation, line up for the battle"; cf. 창 14:8; 사 20:20, 22; 삼상 17:2, 8; 대상 12:34, 36; 19:9, 27; 대하 13:3; 14:9)와 병행되는 어구인 것을 고려하면 프로반의 "bring to an end 전투를 끝내다"는 너무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영어 성경들은 왕상 20:14의 경우 대개 "start/begin the battle" 혹은 "order/set in order/command/direct/lead the battle"로 번역하고, 대하

몇 가지 관찰을 위해 잠시 쉬자. 먼저, 청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온 것에 유의하라. 아합은 이 선지자를 찾지 않았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주도적으로 아합에게 와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벤하닷의 오만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에 유의하라. 아람 왕은 아합에 대한 그의 요구들을 발표할 때 두 번이나 그는 “이렇게 벤하닷이 말한다(왕상 20:2, 5)”라고 시작했다. 그런데 여호와와 선지자도 아람 왕의 공식을 반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왕상 20:13, 14).”라는 공식을 두 번 사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벤하닷이 말한다[코 아마르 벤하닷드]”와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코 아마르 아도나이]” 중에서 누구의 말이 이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잘난 체하는 아람 왕의 건방진 주장이 아니라 역사를 결정하는 여호와와 말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상 20:13 의 이 놀랍고 “비현실적인” 약속은 **미리 선언된**(즉 “예측적” 예언인) 점에 유의하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일어날 때 누가 그것을 가져왔는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석학적인 추측이 필요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대승리를 즐긴다(왕상 20:19-21). 아람의 휴식처가 기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벤하닷과 그의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왕상 20:16). 그의 감시조가 벤하닷에게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할 때, 아람 왕은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다(왕상 20:18).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는 그의 후반부 명령에 특히 유의하라. 그 명령은 뇌에 돌연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말을 타고서야 그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왕상 20:20b).

언급했듯이 소망이 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 온다면, 왕상 20:22 은 안전이 **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동일한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다가와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다시 치러 올” 것이라는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승리는 달콤하지만 경계는 필수적이다.

13:3 의 경우 “go into battle, go out to battle, set the battle in array/order, begin the battle” 등으로 번역한다.

⁸ [역자 주] 레닌그라드 사본은 [코 아마르 벤하닷드]가 왕상 20:3, 5 에 나온다. ESV 와 YLT 의 왕상 20:2-3 을 비교하라. 한글 성경들에서 이 어구는 ESV 처럼 20:2, 5 에 나온다.

ESV: **2** And he sent messengers into the city to Ahab king of Israel and said to him, “**Thus says Ben-hadad: 3** ‘Your silver and your gold are mine; your best wives and children also are mine.’”

YLT: **2** and sendeth messengers unto Ahab king of Israel, to the city, **3** and saith to him, ‘**Thus said Ben-Hadad,** ‘Thy silver and thy gold are mine, and thy wives and thy sons — the best — are mine.’

“벤하닷이 돌아올 것이니, 그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경고에는 더 많은 은혜, 곧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계시가 있다.

약속, 지시, 경고—이 모든 도우심은 순전히 여호와의 선물이다. 아합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주시고 후에 선지자가 전달한 것이다. 정말 당혹스럽다.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왜 그러한 친절이 왕상 17-19 장에 묘사된 아합과 같은 왕에게 베풀어지는가? 왕상 16:29-34 에 묘사된 이 왕이 어찌하여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는가?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채언(贅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 될 것이다. 은혜(grace)는 정의상 놀라운(amazing)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면 가장 역겨운 형태로 은혜가 있다.

열왕기상 20 장의 은혜는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요구가 많은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이 은혜에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지자는 왕상 20:13 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한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you, 너”는 단수이다. 즉 “너, 아합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이다. 다음 부분, 곧 왕상 20:28 의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에 나오는 “you, 너희”는 복수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여기 13 절과 28 절의 사고방식은 아합이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갈멜산(왕상 18 장)의 문제였다. 여기 “너/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내가 이미 예언한 것을 시행하면, 너/너희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 여호와가 경우에 따라 은혜나 심판을 베풀 것뿐만 아니라 너/너희가 나에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는 뜻이다.⁹ 아람에 대한 승리를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요청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구원의 도우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둘 모두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현장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품하며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계속하겠는가?

존 크롬비는 아마도 1770 년대 (스코틀랜드) 해딩턴의 상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게 아래 지하실에 화약을 넣어두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가게 창문 옆에서 그의 장부를 뒤지고 있을 때, 한 견습생이 촛불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펄펄 하는 불길의 불뚝이 노출된 통 위에

⁹ 출 7:1-7 에 나오는 바로의 경우에서 이것을 보라. 이 “인식 공식”은 에스겔의 예언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39 에 나오는 간결한 요약을 보라.

떨어졌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 청년은 즉시 죽임을 당했고, 크롬비는 공중으로 날려서 약 30 야드 떨어진 거리 위로 옮겨져 그 잔해들 사이에 상처 하나 없이 떨어졌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는 잊지 않았다. 크롬비는 남은 생애 동안 매년 “기념일을 꼼꼼하게 지켰고, 하루 종일 침실 안에 틀어박혀 그의 보존에 대한 감사를 쏟아냈다.”¹⁰ 그는 감명받았고, 은혜는 그 흔적을 남겼다. 크롬비는 은혜의 주장을 이해했다. 아합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볼 때, 다른 과정이 보인다. 즉 아합에게 은혜는 받을 자격 없고, 요청되지 않고, 인정(감사)받지 못한 것이다.

II. 여호와와 권능의 범위 (왕상 20:23-30 The Scope of Yahweh's Power)

모든 아람인들은 이제 정신이 들었다. 전투 후 수행 보고를 하며 그들은 다음 전투를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질 것이다. 왜 그런가? 잘못된 신학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포위가 중단된 후 실제로 종교와 정치가 전쟁에 대한 조언 속으로 들어왔다. 벤하닷의 고문들은 그에게 군부 구조를 개편하여 명령 체계에서 군소 왕들을 제거하고 지역 군사령관들로 대체하라고 역설했다(왕상 20:24).¹¹ 그들은 이러한 배치가 보다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명령 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최근의 패배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사람과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총동원이 필요했다(왕상 20:25). 그러나 이 고문들은 전쟁 대학 학위 이외에도 신성에 대한 통찰력을 내세웠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왕상 20:23)

사람들은 그들의 통합된 세계관에 감탄한다. 이 아람인들은 무신경한 세속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전략과 신학적 통찰력을 결합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그릇된 신학은 재앙을 재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아람인들의 신학을 곧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믿을 만한 조언을 주었었다(왕상 20:22). 봄이 오자 아람인들은 전투를 위해 아베크에 모인다(왕상 20:26). 구약에는 여러 아베크가 있었다. 여기 아베크는 일반적으로 다메섹과 벤산 사이의 주요 도로를 따라 긴네렛/갈릴리 바다의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¹⁰ Robert Mackenzie, *John Brown of Haddingt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18), 163-64.

¹¹ G. H. Johnston, NIDOTTE, 3:602.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¹² 이스라엘도 거기에 소집되었으나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가득할 정도로) 수많은 아람인들 앞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이” 진영을 쳤다(왕상 20:27). 인간적인 약점이 다시 대두된다.

바로 이 시점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보장을 받는다. 이 내러티브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곧 선지자)이 아합에게 격려의 약속 혹은 보호의 조언을 주기 위해 그에게 “나아온다([나가시], 왕상 20:28; 참조, 왕상 20:13, 22).” 이러한 은혜로운 개입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합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와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왕상 20:28)

논거를 고려하라. 다가오는 승리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후자는 왕상 20:28의 주요 관심사이다. 아람인들의 어리석음은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여 여호와를 시시한 이교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그들을 이길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학적 허튼 소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두 번째 대패 이후에(왕상 20:29-30),¹³ 아람인들은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진실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하며 예언과 승리가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을 강조한다. 자주 여호와와 권능과 전능에 대한 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아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계속 빠져들고 있다.

여호와와 권능이 평지와 골짜기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람 출신의 이교도들을 비웃는 것은 너무 쉽다. 우리의 이교도주의는 더 세련되고 덜 드러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결코

¹²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9), 27-28, 129, 그리고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27-28을 참고하라.

¹³ 왕상 20:29-30에 나오는 큰 수(십만과 이만 칠천)에 대해서는 우선 William Sanford LaSor,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illiam Bush, *Old Testament Surve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6), 103-106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다르지 않다. 때때로 아람 사람들의 신학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윌필드에게 다음과 같이 썼을 때처럼 이신론적 긴장 속에 나타난다.

어떤 상황들을 보면, 나는 우주의 일반적인 통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특별한 작은 일들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신중함이나 인간의 경솔함 중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¹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지배하고 통제하시지만 우리 삶의 지저분한 세부 사항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산의-신이지만-골짜기의-신은-아니라는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넓은 필치로 활동하시므로 미시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아람인과 같다. 혹은 때때로 우리는 역이단으로 활동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의 신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 질서의 신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딜레마와 사라 이모의 담낭 수술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 정신이 팔려 시 24:1-2 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

아람사람들의 신학은 여호와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표현된 믿음과 달리 이 사고방식에 쉽게 빠져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일에는 역사하시지만 일상적인 일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긴 비참하고 비뚤어진 과거를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 경험의 매우 큰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변화도,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더 많은 정결한 사람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절망의 뒤틀린 덩어리로 만든 유전, 환경, 어리석음의 터무니없는 혼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와 산의 신이실 뿐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대부분이 60 세 이상인 40-50 명의 교인이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런 태도를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젊은 부부들이나 자녀들이 없다. 우리는 더 큰 교회처럼 초보자용 부흥 도구를 모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분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소년 시절의 부끄러운 일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이 떠오른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나이가 더 많은 소년과 말다툼을 했었다. 나는 그 언쟁의 원인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단지 기억하는 것은 열 살쯤에 내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 어휘를 가지고

¹⁴ Arnold A. Dallimore, *George Whitefield*, 2 vols. (Westchester, IL: Crossway, 1980), 2:452.

있었고 그것을 이 다른 소년에게 열정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는 응징을 염두에 두고 나를 쫓았지만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았을지라도) 나를 붙잡지는 못했다. 나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수요일 초저녁이었고 나는 숲 속의 나의 유리한 지점에서 나의 부모님이 주중 기도 모임을 위해 교회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평소 같으면 그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이 난관에 부딪혀 숲 속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의 집을 지나갈 때 내 적수가 그들을 가로막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사용한 모든 불쾌한 음절들을 줄지어 늘어놓았다. 그는 나를 밀고했다. 나는 내가 망했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우리의 넓고 넓은 목사관의 3 층에 있는 내 침실로 올라가서 침대로 뛰어들었다. 만약 내가 잠들 수 있다면, 나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추론은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수요일 저녁에는 나를 때리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목요일에 나를 다루기로 결정하실 것이고 어쩌면 수요일의 분노는 그때쯤이면 조금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아이들조차도 잠잘 때는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효과가 없었다. 계단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린 다음 아버지는 그의 손이 필요한 곳에 그의 손을 대셨다. 분명히 침대에서 이미 잠들어 있는 아이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유치했다. 아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그렇다.

III. 여호와와 심판의 선포 (왕상 20:31-43 The Announcement of Yahweh's Judgment)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곳 아벡의 잔해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벤하닷이 말한다(왕상 20:2-3, 5)”라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합은 더 이상 나긋나긋한 종이 아니다(왕상 20:9). 오히려 그의 신하들을 통해 대리로 말하는 벤하닷이 자신을 아합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왕상 20:32). 아람의 협상 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몸짓 언어와 복장으로, 곧 회개의 의상인 붉은 베옷과 예속의 표시인 머리카락에 두른 밧줄로, 뒷받침한다. 아합은 벤하닷이 살아남은 것에 조금 놀랐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는 내 형제이니라(왕상 20:32b)”고 선언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벤하닷의 신하들은 더듬이를 세우고 승리한 아합의 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형제”라는 선언은 그들이 찾고 있던 일종의 구원 신호였다. 그래서 벤하닷은 숨은 곳에서 나왔고 아합은 그를 자기 병거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영토의 주권과

경제적 양보에 대하여 회담하였다(왕상 20:34). 그리고 벤하닷은 고국으로 돌아갔다.¹⁵ 아합은 그 원수, 즉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형제를 살려주었다.

사람들은 왕상 20:34 이 그 이야기를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왕상 20:35 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그것도 다소 기괴한 방식으로 말이다.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면, 열왕기상 20 장에서 1-34 절은 이야기의 주요부분(35-43 절)에 대한 긴 서론이다(앞부분에 나오는 구조 개요 참조). 그럼 이 절정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가? 또 다른 선지자이다(왕상 20:35a). 흥미로운 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합보다 먼저 이 선지자를 만난다. 그가 등장하는 맨처음 장면에서 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심각성**을 묘사한다(왕상 20:35-37).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동료에게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다. 본문은 이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왕상 20:35)”에 의해 주어졌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이 명령이 그가 꿈꾸어 온 어떤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승인하시고 명령하신 요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료는 그를 “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선지자는 그가 사려 깊은 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를 꾸짖었다(왕상 20:36). 그는 그 동료에게 임할 심판, 곧 그가 떠나갈 때 사자가 그를 만나 치명적으로 “칠(죽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열왕기상 13 장의 상황과 같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다. 그 다음 동료는 협조하여 그 선지자가 원하는 정도의 강도로(상하도록) 그를 “쳤다(왕상 20:37).”

우리가 원한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기괴하고 이상한지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리가 있기도 하고 요점을 벗어나기도 한다. 대신에 우리는 그 장면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무섭기도 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것이 요점이다. 불순종하는 동료(왕상 20:35-36)는 불순종하는 왕의 예비 패러다임이 된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불순종하는 왕들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¹⁶

다음 장면(왕상 20:38-40)은 적어도 이 사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삼하 12:1-7 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다가가 말을

¹⁵ 왕상 20:34 의 본문이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하다.

¹⁶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56 그리고 B. O. Long, *1 Kings*,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220 을 보라.

건다. 그는 가리개나 봉대로(개역개정: 수건으로)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왕이 돌아오는 길에서서 왕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이른바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해 달라고 외친다. 그는 최근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 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이스라엘 군사가 돌이켜 아람 사람 포로 한 명을 끌고 자기에게 와서 그를 지키라고 하며, “만일 그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¹⁷ 내어야 하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나는 “종이 이리 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왕상 20:40a)”라는 이 선지자의 구차한 변명을 늘 즐겨왔다. 아합이 그런 미미한 사건에 시달리며 틀림없이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쉬운 결정이 내려졌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왕상 20:40b).” 아합은 그 선지자의 계획에 말려들었다. 그것은 판사로 그 문제를 심판하게 하고 그래서 판사 자신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변장이 벗겨지자 왕의 마음은 가라앉는다(왕상 20:41). 왕은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의 말을 듣는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왕상 20:42)

여기서 여호와와 벤하닷을 (직역하면) “나의 진멸[헤렘]의 사람”이라고 명명하신다.¹⁸ 아합은 여호와께서 진멸하기로 의도하셨던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온건하고 온화하며 합리적인 승리자로 꾸미는 데 “이리 저리 분주하게 일을 보았고(왕상 20:40),” 여호와와 포로를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벤하닷에게 정해진 진멸이 아합과 그의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의 의미**이다. 아합은 적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왕상 20:31-34) 그의 백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왕상 20:42). 그 선지자의 상처는 “아합에게 그가 석방했던 벤하닷에게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였다.¹⁹

¹⁷ 은 1 달란트는 약 3,000 세겔이다. 이것은 한 노예의 가격(출 21:32 참조)의 100 배였으며 일반 병사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¹⁸ Jackie A. Naude, NIDOTTE, 2:277 에 의하면, [헤렘] (“진멸”)이란 용어는 “어떤 대상을 인간의 사용이나 남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포함한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거나 여기처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람들이 때때로 [헤렘]이 될 수 있다(신 7:26; 수 6:17; 왕상 20:42).

¹⁹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268.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공평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벤하닷을 청산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사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일로 그를 나무라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아합에게 벤하닷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모든 빛이 있었고, 아합이 벤하닷의 석방을 통해 거룩한 전쟁의 규칙(참조, 신 20:10-18; 삼상 15:17-24)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²⁰ 명확한 사고(思考)가 올바른 길을 가리켜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확한 사고에 호소하는 것을 주저한다. 배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무해한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벤하닷이다. 그는 단지 강탈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방자하게 전쟁을 두 번 일으켰고, ... 사마리아를 폐허 더미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아합이 아니라 여호와가 승자이었듯이, 벤하닷은 아합의 포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포로였다. 그렇다면 아합에게는 그를 풀어주고 처벌을 받지 않게 할 권리가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은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자의적으로 방해했고,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되는 대신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의 장난감이 되었다.²¹

아합이 이 문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분명히 선지자의 인도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신, 약간의 베옷을 보고, 약간의 아부(bootlicking, 혹은 미국 남부의 kissing up)를 듣자마자 아합은 형제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합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그가 그의 관대함으로 벤하닷을 매료시킬 수 있다면, 아람은 아합과 떠오르는 재앙 앗수르 사이의 완충

²⁰ 예를 들어,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9), 114-15 그리고 Provan, *1 and 2 Kings*, 153-54 을 보라.

²¹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38-39. 카일(Keil, *The Books of the Kings*, 267-68)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잔혹하고 믿음 없는 적을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가혹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의 백성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였다. 삼상 15:3 에서 사울이 명시적인 명령을 받은 것과 달리,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벤하닷을 죽이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백성을 위한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이 몫을 원수를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왜냐하면 강제로 그로부터 받아낸 조약을 벤하닷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은 매우 신속하게 입증되고 말았다(왕상 22:1)."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²² 정의가 옳을 수도 있지만, 편의는 설득력이 있다. 아합은 이겨서 기뻐지만 그것에 열광할 필요는 없었다.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아합의 정책은 1862년 헨리 진지와 도넬슨 진지에서 북군이 승리한 후 남군 포로들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 북군은 포로들을 조직하고 무장 해제하고 북군 포로 수요소로 향하는 수송선에 태우려고 노력했다. 남군 포로들은 지시에 따라 무기를 쌓아 두었지만, 칼에 대해선 그들의 개인 재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북군 장교들은 모든 남군이 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이 줄과 톱날로 만들어졌고 일부가 가로 2인치, 세로 18인치 정도의 치명적인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북군은 현명하게 포로들이 수송선에 올라타면서 모든 칼들을 바구니에 넣도록 명령했다.²³ 여러분은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가? “총들은 쌓아두라. 그러나 너희 칼은 모두 보관해도 좋다. 수용소에서 언제 그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아니다. 무장 해제는 총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합은 악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악을 파괴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악을 애지중지하는 우리는 아합을 너무 잘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 독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 이 분이 왕상 20:31-43에 나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아람 왕이 처형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당혹스럽지 않은가? 우리가 그의 계몽된 너그러움과 감탄할 만한 자제에 대해 아합을 칭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²⁴ 우리는 여호와보다 아합이 예수님을 더 닮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예: 막 9:42-43, 45, 47-48)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여러분은 열왕기상 20장의 강한 주사 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20장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왕기상 20장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1-22절)와 하나님의 권능(23-30절)과 하나님의 심판(31-43절)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첫째로, 하나님의

²² 참조, Merrill F. Unger, *Israel and the Aramaeans of Damascus* (Grand Rapids: Baker, 1980), 66-67.

²³ Bruce Catton, *Grant Moves South* (Boston: Little, Brown, 1960), 182.

²⁴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238에서 재인용) 어떤 사람들은 아합의 결정을 “그의 마음에 영예를 준 행위,” “천성적으로 매우 고귀한 마음씨”의 표시라고 부르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친절과 신뢰를 주고받는 기질”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은혜는 나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합과 같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제공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나를 꾸짖는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처럼 내가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아합과 우리 자신의 문화처럼 그것을 무시하려고 할지라도 나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우리는 아합과 여호와의 말씀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삼부 구조(왕상 20-22 장)의 첫 번째 장의 끝 부분에 있다. 그 예후(豫後)는 고무적이지 않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다(왕상 20:43a 새번역).”²⁵ 매튜 헨리가 말한 대로,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자기가 잘못된 일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격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였다.”²⁶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시켰으나 그를 길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 아합의 실패였다.

²⁵ 마지막 어구는 흥미롭다. 나는 (어근 [싸라르], “완고하다, 반항하다, to be stubborn, rebellious”에서 파생된) [싸르]에 대해 다소 딱딱한 “반항하는, 반역적인, rebellious”으로 번역했다. 어쩌면 “분개하는, resentful”이 내적 태도를 더 잘 반영할 수도 있다(BDB, 711 참조). “격노하는, furious”는 [자에프]를 번역한 것이다. 비록 이 어근이 낙담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가리킬 수 있을지라도(창 40:6; 단 1:10), 그것은 보통 어떤 종류의 분노를 나타낸다(참조, BDB, 277). 따라서 RSV의 “침울한, sullen”과 TEV의 “우울한, depressed”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NIV의 “화난, angry”이 더 좋다.

[역자 주] 왕상 20:43에 대한 번역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번역: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현대인성경: 아합왕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우리말성경: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개역개정: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공동번역: 이스라엘 왕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궁으로 돌아갔다.

쉬운성경: 이스라엘 왕은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NIV: **Sullen and angry**, the king of Israel went to his palace in Samaria.

ESV/NASB: And the king of Israel went to his house **vexed and sullen** and came to Samaria.

KJV: And the king of Israel went to his house **heavy and displeased**, and came to Samaria.

HCSB: The king of Israel left for home **resentful and angry**, and he entered Samaria.

ISV: After hearing this, the king of Israel rode back to his palace in Samaria, **frustrated and in a foul mood**.

²⁶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Fleming H. Revell, n. d.), 2:693.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아합의 전반적인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2. 벤하닷이 아합에게 보내는 두 가지 위협은 무엇인가?
3.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다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합에게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4. 아합은 여호와와 은혜를 어떻게 인정했는가? 그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5. 아합은 벤하닷의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은혜나 불순종을 전하는가?

27.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1 장 Getting Clear about God's Justice)

그것들은 단지 발표일 뿐이었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테네시주 파리에서 한 고등학교의 성탄절 연주회가 취소되었다. 헨리 카운티 고등학교의 음악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합창단 교사가 악단장의 얼굴을 의자로 때렸던 것 같다. 합창단 교사는 악단장이 가중 폭행 혐의를 제기한 후 천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런데 왜 음악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는가? 그 남자들은 누가 연주회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를 두고 싸웠다고 한다. 발표에 불과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가 많이 있었다.

그것이 열왕기상 21 장의 사건이 일어난 방식이다. 그것은 단지 포도원일 뿐이다. 왕은 그 포도원을 원한다. 그러나 왕에게 그 포도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 포도원과 결별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토라짐이 권력과 잔인함과 결합되면 압제와 파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한 포도원 때문에 일어난다. 단 하나의 포도원이 그러한 소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본문의 초점은 포도재배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그것은 나뭇의 포도원보다 여호와와 공의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왕기상 21 장에 나오는 이 심각한 불의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공의를 얻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눅 18:7 의 말씀을 통해 열왕기상 21 장의 약속을 잘 요약하신다. 이것이 주요 명제이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로 본문의 가르침을 구체화할 수 있다.

I.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왕상 21:1-16 God's people must expect to suffer injustice in this world)

나는 먼저 이야기의 이 부분(왕상 21:1-16)을 죽 살펴보며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 후에 나는 그것의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강조할 것이다. 왕상 21:1-16 은 그 자체로 거의 독자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전개되는 드라마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감상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 왕상 21:1-4

대화, 왕상 21:5-7

조치, 왕상 21:8-14

해결, 왕상 21:15-16

문제는 아합의 것이다. 다만 나중에 그것은 나봇의 것이 된다.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합도 이스라엘에 두 번째 왕궁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마일, 므깃도에서 (대체로) 동쪽으로 8 마일이 조금 넘는 곳에 있었다. 이 아합의 왕궁에 바로 인접해 있는 포도원을 소유한 것은 나봇의 몫이었다. 아마도 아합의 조경 설계자가 그것을 제안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아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접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채소밭을 위한 훌륭한 부지가 되면 좋을 것이었다. 아합의 제의는 이성의 화신이었다. 곧 그는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제의했다(왕상 21:2). 나봇의 반응은 신경에 거슬렸다.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직역: 당신)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외쳤다(왕상 21:3). 강한 대답이다. 거래가 불가능하다.

나봇이 거절한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나봇의 생각이 레 25:23-28 과 민 36:7-9 에 나오는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¹ 절대적인 금지는 없었다. 특정한 비상 상황에서 이스라엘인은 땅을 팔 수 있었다(레위기 25 장 참조).²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나봇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만약 그가 팔 필요가 없다면, 그는 팔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다. 그는 돈을 벌거나 왕들을 달래는 것보다 그의 조상을 통해 물려받은 여호와와 땅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보기에 나봇은 심술궂은(못된) 것이 아니라 단호하다. 그의 거절은 강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완벽한 권리가 있었다. 그는 그의 생각이 실용적이 아니라 언약적이므로 거절했다. 나봇이 그의 대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분의 율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밝힌 것에 유의하라. 그러나 나봇의 거절은 아합을 격분시킨다. 그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왕상 21:4a; 왕상 20:43 에 나오는 동일한 어구)” 왕궁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왕상 21:4b). 그런데 그것은 포도원일 뿐이었다.

¹ 레위기 25 장에 대한 간략하지만 도움이 되는 설명을 위해 C. J. H. Wright, 'Leviticu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153-54 을 보라.

² Raymond B. Dillard, *Faith in the Face of Apostas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1999), 69: “땅은 백성 구원의 열매를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원래 배정받은 가족들의 손에 계속 남아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되었다. 율법은 땅이 일정 기간 임대될 수 있지만 완전히 팔릴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레 25:13-17, 25-28).”

이세벨이 개입한다. 그녀는 아합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식사하러 내려오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한다(왕상 21:5). 아합은 그녀에게 나봇의 거절에 대하여 말한다(왕상 21:6).³ 이세벨의 대꾸의 문법은 좀 까다롭다. 그것은 질문인가? 감탄문인가? 어쨌든, NJB 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잘 포착한다.

이스라엘의 존재감 있는 왕(some king of Israel)이 되십시오!⁴ 일어나 식사하시고
힘내십시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왕상 21:7)

“아합이여, 당신은 왕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약골입니까? 어느 시골뜨기 포도 따는 자도 이 정권의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합이여,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왕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원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페니키아인들의 세계관이었다. 아합의 행동은 이세벨을 당황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일개 신하에 의한 그런 저항을 참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당신의 뜻에 저항한다면, 당신은 그저 그들을 치시면 됩니다.] **내가**(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왕상 21:7c).” 그래서 아합은 점심을 달라 하고 이세벨은 중역실로 나아간다.

³ 이세벨이 왕을 달래는 동안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대해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고 인용한다. 그는 “내 조상의 유산”이란 나봇 자신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1) 아합은 자신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봇의 말에서 종교적-사회적 논거를 빼내버린 것은 그의 거절이 순전한 왕고집처럼 보이게 한다. (아합은 이것이 이세벨의 피를 끓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이세벨을 “이용하는 것”이 그의 책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또는 (2) 아합은 이세벨이 조상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에게 나봇의 대답을 풀어 설명했을 수도 있다.

⁴ [역자 주] 왕상 21:7 [아타 아타 타아세 물루하 알-이스라엘]에 대한 번역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YLT: Thou now dost execute rule over Israel!

NIV: Is this how you act as king over Israel?

ESV: Do you now govern Israel?

HCSB: Now, exercise your royal power over Israel.

개역개정: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새번역: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공동번역: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쉬운성경: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현대어성경: 임금님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우리말성경: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뭐니까?

그녀는 행동에 들어간다. 그녀는 아합의 편지지를 사용하여 나봇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명시적인 지시들이 들어 있는 편지를 보낸다(왕상 21:8). 그 지시들은 이렇다(왕상 21:9-10).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⁵ 앉히라.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⁶ 비난하게 하라. 그런 다음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세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그녀의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했다(왕상 21:11-13). 그들은 공동체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건 불의이지만 종교적 불의였다. 어쩌면 그 공동체나 국가의 일부가 어떤 재앙 아래 있었는지 모른다. 금식의 날은 그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건 불의지만 법적인 불의였다. 이세벨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신 17:6-7; 19:15; 민 35:30)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을 강력히 요구했다. 적절한 형벌이 뒤따랐다(참조, 레 24:13-16). 움직임이 없는 형체, 분쇄된 살과 뼈의 덩어리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침묵의 증언이었다.

왕상 21:15-16 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나봇이 처리되었고 이제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철저하지 않으면 그건 이세벨이 아니었다. 왕하 9:26 에 의하면 나봇의 아들들도 숙청되었다. 그것은 가족의 간섭으로부터 상속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매끄러운 일 처리였다. 단지 우편 요금이 조금 들었을 뿐이다

왕상 21:8-14 이 묘사된 방식에 대해 어떤 **몰인정**이 느껴지지 않는가? 저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방식이 그 행위의 몰인정에 대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한번 왕상 21:8-14 을 살펴보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무적인지 확인하라. 여기에

⁵ 이 표현은 영예의 지위(그레이) 혹은 피고인의 지위(카일)를 나타낼 수 있다.

⁶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너는 하나님과 왕을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반대 즉 “저주하였다”에 대한 완곡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욥 1:5, 11; 2:5; 시 10:3 의 경우와 비슷해 보인다. [역자 주: NASB(Ps. 10:3) For the wicked boasts of his soul's desire, And the greedy person **curses**[lit. blesses] and shows disrespect to the LORD. 개역개정: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새번역: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그때 나봇이 출 22:28 과 같은 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앤더슨(Francis I. Andersen, “The Socio-juridical Background of the Naboth Incid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5 [1966]: 46-57, 특히 53)은 이세벨의 고소가 왕상 21:3 의 나봇의 맹세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나봇이 포도원을 팔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나 거래를 취소했다고 고소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맹세를 하고 철회하는 것은 맹세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곧 나봇은 중대 혐의가 있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비가 쓴 것이 있다. 여기에 그녀의 아침꾼들이 한 일이 있다. 그저 엄연한 사실들, 그것이 전부다. 중요한 것은 나뭇이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왕상 21:13-16 에서 5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의 실제 모습**을 발견한다. 물론 이야기는 나뭇과 이세벨에 관한 것이지만, 단지 나뭇과 이세벨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내러티브이다. 그것은 “이것이 남은 신자들이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대우의 일종이다.”라고 말해준다. 벰전 4:12 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21 장의 요점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막 13:9-13).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선전에 세뇌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 텔레비전 복음전도자는 이렇게 썼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을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두통도 없고, 부비동 문제도 없고, 치통도 없고, 정말 아무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질병도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⁷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치아 건강으로 돌보기를 원하신다면, 왜 불법 재판이 그분의 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밖에서 때려 죽이는가? 나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그것의 냉철한 사실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성경의 복음에서 삭제되므로 많은 “기독교” 방송 전도에서 볼 수 없는 그것의 사실성 때문에, 매우 생생하다.

둘째로, **그러한 불의는 자주 정부 그리고/혹은 법원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것은 다니엘서 3 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 다니엘서 6 장에서는 메대-바사의 정부와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아니면 그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관리들에 의해 저질러질 것이다(참조, 계 2-3 장).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이 있지만(롬 13:1-7), 역사적으로 통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적과 압제자가 되어 왔다. 존 맥아더는 그들의 거처를 공유할 세 번째 룸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낸 위스콘신의 두 젊은 여학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자신이 여자 동성애자라고 말한 한 지원자를 거절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주 인권위원회에 의해 그 여자 동성애자인 지원자에게 그녀를 괴롭힌 대가로 1,500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주 위원회는 또한 공개 사과 편지를 명령하고 두 여학생에게 동성애자들이 가르치는 “재교육

⁷ Hank Hanegraaff, *Christianity in Crisis* (Eugene, OR: Harvest House, 1993), 242 에 인용된 베니 힌(Benny Hinn)의 말로서 강조는 그의 것이다.

수업”에 참석하도록 요구했다.⁸ 위스콘신 주 인권 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이해하시는 “나봇”같은 분이 계신다.** 신약에 나봇 같은 분이 계신다. 우리는 열왕기상 21 장과 마태복음의 수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봇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 (마 26:59-61a)

두 명의 거짓 증인. 나봇이 걸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다(참조, 사 53:7-8a). 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봇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으시다(참조, 고후 1:5).

II. 하나님의 종들은 정의를 옹호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왕상 21:8-14 God's servants must be prepared to pay the price of standing for justice)

그것은 중지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변경 불능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세벨의 계획은 시계처럼 진행되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어떤 항의나 나봇의 방어 시도에 대한 어떤 것도 읽지 못했다.⁹ 이러한 “생략”은 저자가 그들이 왕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 관리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했어야만 했다. 대신, 관료적인 로봇처럼 그들은 바로 따라서 했다. 왜 그들은 이세벨에게 맞서서 나봇을 격려하며 포도원 사건 전체를 폭로하지 않았는가?

만일 그들이 거절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세벨은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딜레마에 공감할 수 있다. 만약 그들 중 누구라도 나봇의 변호를 고려했다면, 어떤 고려 사항들이 즉시 떠올랐을 것이다. 그들은 가족, 생계, 그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의 마피아가 무슨 일을 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⁸ John F. MacArthur, Jr., *The Vanishing Conscience* (Dallas: Word, 1994), 68-69.

⁹ Johannes Fichtner, *Das erste Buch von den Königen*,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9), 318.

우리가 그 지역 관리들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본문은 불의가 사악함뿐만 아니라 나약함에 의해, 그리고 선함의 부족뿐만 아니라 배짱의 부족에 의해서도 번성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나쁜 사람들은 특히 나봇의 아들들을 전멸시킬 것을 고려하면서(왕하 9:26 을 기억하라) 기꺼이 규칙들을 통째로 왜곡해서 고치려고 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뺏속까지 탈탈 벗기면, 문제가 단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상, 곧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 경우에 여자를 두려워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라(마 10:18).”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확신과 공포의 말씀, 곧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저 우리는 이스라엘 시청에 있는 빌어먹을 관리들과 멀리 떨어져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기도 하다.

III.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실 것이다 (왕상 21:17-26 God will intervene to bring justice to his wronged people)

왕상 21:16 의 끝에서 모든 것이 결말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봇 사건은 종결되었다. 아마도 이세벨은 그러한 깔끔한(이 형용사에 대한 그녀의 정의와 일치된) 일 처리에 대하여 자축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늘 순종적인 남편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¹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침범하고 방해한다(왕상 21:17-18).

나는 잠시 강해를 멈추고 열왕기상 21 장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본문의 배열”을 살펴보고 싶다. 나는 이후의 강해에서 이 부분(왕상 21:17-29)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락 전체의 내용과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주로 (1)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자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맡기심(왕상 21:17-19); (2) 여호와께서 아합의 온 집안에 가져오실 재앙에 대한 엘리야의 선언(왕상 21:20-24);¹¹ (3) 아합과

¹⁰ J. M. Ward, IDB, 3:495: “일부 해석자들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차적인 권리, 즉 그 주인이 사망한 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가 단지 왕실의 몰수에 의해 왕에 의해 전용되었다는 견해에 위배되는 증거가 없다. 엘리야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면서 바르게 이중 범주를 비난했다.”

¹¹ 왕상 21 장에서 19 절과 20 절 사이에 있는 “생략”에 유의하라. 저자는 20 절을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내려갔고 ... 그는 포도원에서 아합을 발견했다. ...”라고 시작하여 19 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의 입을 통해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저자는 여러분이 포도원에 있는 엘리야를 따라잡게 한다. 그는 여러분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19 절의

그의 정권의 비할 데 없는 사악함에 대한 저자 자신의 탄식(왕상 21:25-26);¹² (4) 아합의 후회와 여호와에 의한 그의 집안에 대한 재앙의 연기(왕상 21:27-29) 등이다.

구조적으로 이 단락(왕상 21:17-29)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¹³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아합 자신에 대한 심판, 왕상 21:17-19

아합의 반응: 저항, 왕상 21:20a

악에게 팔림: 아합 집안에 대한 재앙, 왕상 21:20b-24

악에게 팔림: 아합 통치의 왜곡, 왕상 21:25-26

아합의 반응: 후회, 왕상 21:27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연기, 왕상 21:28-29

이 전체 단락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성하게 배열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것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취급한다. 내 직감은 그 통일성이 원래적이었다는 것이다.¹⁴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하는 대신, 그는 아합의 집안을 다루는 메시지의 (분명) 추가 부분에 대한 엘리야의 선언을 전한다(왕상 21:20b-24). 이것은 히브리어 이야기가 때때로 사용하는 절약을 반영한다. 저자는 여러분이 19 절과 20 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는 엘리야가 19 절의 말씀을 생략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열왕기하 1 장에서 4 절과 5 절 사이의 유사한 세부 사항 생략을 보라.

¹²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합의 죄책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합이 사악할 뿐만 아니라 나약했고,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짓대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¹³ 월시(Jerome Walsh, *1 King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6], 328)의 제안이 이 단락을 구조적으로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나의 제안이 월시의 것과 상당히 다르지만 말이다.

¹⁴ 학계의 고등비평은 이 부분을 다양한 기고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본다. 그 견해에 따르면, (이세벨에 관한) 왕상 21:23 은 매우 늦은 시기의 편집적 삽입이고, 왕상 21:21-22, 24 은 (사건 이후 2 세기에 걸쳐 일한 편집자들인) 신명기사가적 편집자들에 의해 심하게 조작되었고, 왕상 21:25-26 과 왕상 21:27-29 은 둘 다 신명기사가적 편집자들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그레이[John Gray]나 존즈[G. H. Jones]를 보라). “신명기사가 학파”의 대변인들은 분명히 엘리야와 아합의 원래의 대결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대단한 사람의 만족에 이를 때까지 계속 보충하고 삽입했다. 구약 학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어느 정도 역사적인 아지랑이 속에서 어떤 신명기사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학술적으로 보이고, 대체로 추측이다. 이런 접근 방식이 신학생들에게 주입되면 우리는 구약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거의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만일 본문이 지금 있는 그대로 통일성을 갖는다면 그러한 일관성은 계속되는 일련의 편집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본문을 조정한 산물이 아니라 한 때의 한 저자의 산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돌아가서 왕상 21:17-26 의 주된 요지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자.¹⁵

왕상 21:16 이 끝날 무렵에는 고전적인 완전 범죄가 행해진 것처럼 보인다. 사마리아 기계는 이스라엘 바보를 덮쳤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능한 예술, 즉 정치를 가르쳤다. 그리고 아합은 그의 새 포도원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아마도 명령 받은 대로 그의 건물 및 부지 감독관이 곧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

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왕상 21:17-18)¹⁶

성경은 얼마나 조용히 가장 방대한 가정들을 하는가! 분명히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 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의 조사와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싫든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왕과 왕비 위에 서 있다. 자신의 지위와 성공이 무엇이든 그 누구도 그 관할권의 경계를 흔들거나, 발버둥치거나, 뛰어 넘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단락이 역사의 시간대를 따라 밀리고 밀침 당하고 짓눌려 온 여호와와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왕상 21:17).”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왕상 21:19a)?”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 흘리라(왕상 21:19b).” 이 말씀들은 인생의 길에서 차이고 맞고 죽은 채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이 왕상 21:17 에서 읽는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이 뉴스 유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왕상 21:17 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보셨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빈틈없는 은폐가 있는 매끄러운 일처럼 보였다. 이세벨의 편지는 이미 시청의 분쇄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늘진 세부 사항은 하나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엘리야 자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던 것 같다.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보시고 개입하셨다(출 3:7-8a). 나봇은 무력한

¹⁵ 우리는 왕상 21:19 말씀의 성취를 왕상 22:38 과 관련지어 논의할 것이다.

¹⁶ 왕상 21:18 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왕상 21:15 에 나오는 아합에게 내린 이세벨의 명령에 대한 아이러니한 언어 유희로 표현되어 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일어나 차지하라([**쿨 레드**])고 명령하는 반면,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내려가라([**쿨 레드**])고 명령하신다.

희생자로 죽었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분의 불행한 나뭇들과 돌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명 없는 형체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¹⁷

나뭇들은 특히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매우 많다. 최근에 세계구호위원회 소식지에는 약 6 년 전에 아름다운 17 살이었던 클레멘타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어느 날 민병대가 그녀의 마을로 내려왔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교회로 피난했다. 거기서 안전하지 못했다. 군대가 그녀의 눈앞에서 사람들을 사살했고, 그들의 피가 바닥에 넘쳐 흘렀다. 그곳은 1994 년 르완다였다. 클레멘타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녀를 차에 태우고 덩불로 가서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도록 내버려두었다. 몇 시간 후, 자비로운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상처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간과 고문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벨기에 의사가 클레멘타인을 유럽으로 보냈고 거기서 그녀는 수술을 받았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클레멘타인이 공포의 일부만을 견뎌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군인들은 그녀에게 HIV 양성 반응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에이즈에 걸렸다.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녀의 죽음은 임박해 있었다. 르완다로 돌아와서, 그녀는 보살핌과 도움을 받았고, 한 기독교인 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왔다. 이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죽을 것이다. 이는 악하고 힘세고 병에 걸린 남자들이 그녀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실화들은 열왕기상 21 장을 아주 빈약한 위로로 줄어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개입하셔서 클레멘타인이 숲속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열왕기상 21 장 자체의 문제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뭇도 역시 보호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심판의 말씀으로 아합을 침노하시고 강타하신다. 그러나 나뭇은 죽었다. 여호와께서 불의에 반대하는 열정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의 공의가 왜 그렇게 늦게 도착했는가? 이것이 성경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제의 신비이다. 왜 여호와께서 바로의 출생한 남아 살해 프로그램에서 그토록 놀라운 정도로 유아 모세를 보존하셨지만(출 2:1-10) 외견상 다른 수많은 경우에는 개입이 없으셨던가(출 1:22)? 또 다시, 갓난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섭리에 의해 탈출하지만(마 2:13-15), 헤롯의 경찰은 더 큰 베들레헴 주변의 다른 어린아이들을 학살한다(마 2:16). 메시아의 선구자(=세례 요한)조차도 배짱없는 또 다른 왕 헤롯 안티파스(막 6:14-29) 때문에 나뭇같은 대우를 받았다.

¹⁷ Jerome T. Walsh, ABD, 4:978: "이야기 전반에 걸쳐 나뭇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는 놀랍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는 세 구절(왕상 21:14-16)에 여섯 번 명명되었다. 그는 마치 잠재울 수 없는 유령처럼 장면을 맴돌고 있다." 나뭇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는 야고보를 처형하는(행 12:1-2) 반면, 베드로는 천사의 감옥 파괴를 즐긴다(12:6-11). 왜 여호와께서는 자주 그분의 손을 거두시는가(시 74:11a)?

그런 질문은 열왕기상 21 장의 독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흐름, 곧 여호와와 말씀이 아합을 추적하는 방식은 여호와께서 나봇의 변호인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시기 선택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지만, 본문은 여전히 엄청난 위기로 남아있다. 나봇 에피소드는 면책의 보장이 아니라 정의의 보장이고, 그것도 반드시 이번 10 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 장은 살후 1:6-7 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21 장에서 우리가 내러티브를 갖는다면 데살로니가후서 1 장에서 우리는 교리를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와 공의의 시기 선택에 대한 우리의 당혹감이 여호와와 공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가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여기 여호와께서 억울한 자기 백성을 위해 용감히 싸우시는 방식은 그분이 그토록 매력적인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유의 일부이다. 몇 년 전에 내가 **테멜리오스**의 사설에서 크리스 라이트가 전한 일화를 읽었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¹⁸ 그는 인도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한 세션 후 동료(현재 과학 박사이자 대학의 화학 강사)가 와서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구약을 읽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라이트가 회의에서 구약 본문을 택하여 설교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나머지는 라이트 박사가 말하게 하라.

그는 인도의 많은 후진적이고 억압된 집단들 중 하나, 곧 조직적으로 착취당하고, 모욕과 불의와 때때로 폭력까지 당하는 공동체의 일부에서 자랐다. 그가 젊은 시절에 받은 영향으로 그는 그와 그의 공동체를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넘어서려는 불타는 욕망으로 자신을 채웠다. 그는 교육을 받는 데 전념했고, 혁명적인 이상과 마르크스주의에 헌신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의 목표는 어떤 종류의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을 얻고 따라서 정의와 복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초기에 일부 기독교 학생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받았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지만 그저 호기심에서 그는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다.

우연히 그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읽은 것은 열왕기상 21 장에 나오는 나봇, 아합, 이세벨의 이야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토지에 대한 탐욕, 권력 남용, 법원의 부패, 가난한

¹⁸ *Themelios*, 17/2 (Jan.-Feb., 1992): 3.

사람들에 대한 폭력, 곧 그 자신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의 편을 드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을 비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도 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진정한 공의의 신이 있었다. 진짜 악당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상대로 진짜 행동을 취한 신이 있었다. "난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는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었고 그의 첫인상이 확인되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신은 항상 억압받는 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다. 여기에 그가 존경할 수 있는 신이 있었다. 비록 그가 아직 그를 알지 못할지라도 매력을 느꼈던 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은 정의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것은 나봇 이야기에 대한 그의 첫 반응이었다. 그는 즉시 요점을 파악했다. 그는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첫 개입은 열왕기상 21 장을 통해 왔다. 원컨대, 개종한지 오래된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명료함과 감동을 가지고 나봇의 하나님이 잔인한 세상에 있는 연약한 교회에 대한 진정한 위로이심을 볼 수 있기를!

IV.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시행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왕상 21:27-29 God delights to exercise mercy while imposing his justice).

지난 번 아합이 왕상 21:16 에서 "들은" 것은 나봇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때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아합이 "이 모든 말씀, 곧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공포의 말씀인 왕상 21:20b-24 을 들었을" 때에(왕상 21:27a), 그는 매우 다르게 반응했다. 그는 "그의 옷을 찢고 굶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굶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돌아다녔다(왕상 21:27b)."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하는 것은 아합의 이런 반응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다.¹⁹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말씀하신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왕상 21:29)."

여호와의 말씀에는 기쁨과 흥분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질문은 거의 감탄에 가깝다. 불경스럽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마치 전능하신 분이 엘리야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¹⁹ 왕상 21:28-29 은 내러티브를 마무리하는 사소한 각주처럼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왕상 21:28 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공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실, 왕상 21:28 은 왕상 21:17 과 동일하다. 왕상 21:17 에서 이 공식은 비난과 심판의 말씀을 소개하는 반면, 왕상 21:28 에서 이 공식은 자제와 자비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것을 넌 보았느냐?” 하고 외치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볼 수 있다. 여호와와 순진하신가? 그분은 잘 속으시는가? 여호와와 부드러워지셨는가? 그분은 일단 당선되면 자기 나라의 수도로 가서는 곧바로 힘없는 “조직을 위하는 선수(팀 플레이어)”가 되어버리는 십자군 정치인과 같은가? 왕상 21:17-24 에서 여호와와는 옳으셨다. 그런데 왜 그분은 여기서 아합에게 너무 관대하게 보이시는가? 왜 그분은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 인육 포장을 해주는 이 사마리아 멍청이에게 그토록 관대하신가? 여호와께서 아합의 찢어진 옷과 축 처진 머리를 진정한 회개로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올 가을 초에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주요 대학 축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다. 조지아 공대는 버지니아 공대와 후자의 경기장에서 경기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를 막는 것은 없다. 그들은 추위, 비, 진흙, 눈 속에서도 경기한다. 하지만 이 경기는 하지 못했다. 범인은 비가 아니라 번개였다. 너무 위험하다. 그런 다음 거의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기가 취소되었다. 그것은 그 경기가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부 사람들은 경기가 연기되어 시즌 후반(말하자면, 12 월 초)에 다시 일정을 잡기를 원했다. 하지만 두 코칭 스태프는 시즌 후반 추가 경기로 일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기는 취소되었다.

버지니아 공대는 아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것, 즉 연기와 취소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왕상 21:29 에서 여호와께서는 아합의 왕조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취소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시간표를 변경하시지만 안건에서 그것을 삭제하지는 않으셨다.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의 도래를 지연시키신다. 요시야 왕에 대한 홀다의 예언(왕하 22:8-20)은 이 현상의 가장 좋은 예이다(참조, 렘 18:7-8).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하신다. 아합의 반응(왕상 21:17)에 비추어 여호와께서는 위협하셨던 대로 바로 그의 온 집안을 말살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열왕기하 9-10 장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그것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지금은 아합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이다.

하지만 누군가 물어볼지도 모른다. 분명히 당신은 아합의 “회개”가 진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왕상 21:27 로 미루어 볼 때, 여호와와 심판의 말씀은 아합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아합이 단지 연기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의 “회개”가 그 순간에는 진지했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심각했지만 일시적이었다.²⁰ 분명히 그는

²⁰ 이와 같은 입장이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273 에 나온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그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여호와와의 위협에 큰 영향을 받았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바라는 바이다. 여기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자비에 대한 여호와와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확언하실 때, 기꺼이 노여움을 푸시려는 그분의 마음이 읽히지 않는가? 돌아다니며 아합이 초라하고 지나가는 회개를 했다고 중얼거리지 말라. 우리 회개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여호와와의 자비(다시 말하면, 여기 이 심판의 연기)는 그 자체로 아합에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도록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초기 회한에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그가 지속적으로 회개했다면 아합은 훨씬 더 큰 자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신이 자비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같으랴? 사람들은 크리스 라이트의 친구(위 참조)와 함께 “나는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²¹ 그리고 그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주위를 맴돌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는가(계 3:20)?²²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나봇이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나봇이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은 것에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가?
3.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은 왕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인가?
4. 이 문제에 대한 이세벨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5. 여호와와의 자비와 공의는 아합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²¹ 한 장(왕상 21 장) 안에서 우리는 공의에 예리하시고(왕상 21:17-26) 동시에 자비에 부드러우신(왕상 21:27-29) 하나님을 만난다.

²² 매튜 헨리는 왕상 21:27-29 에 대해 간결하고 유용한 설명을 했다.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698-99 을 보라.

2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왕상 22:1-40 Getting Clear about God's Word)

그것은 모두 여호사밧의 잘못이다. 적어도 그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다. 그는 그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왕상 22:5). 그 요청은 왕상 22:1-40 을 구성하는 일련의 에피소드 전체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 단락의 주요 주제, 즉 여호와와 말씀이란 주제를 제공한다. 이 단락이 아합의 심판과 그의 하나님 말씀 대면 시리즈의 세 번째 단락임을 기억하라(26 강에 나오는 열왕기상 20 장을 소개하는 나의 설명 참조). 먼저 무명의 선지자가 그를 꾸짖고(왕상 20:35ff.), 다음으로 엘리야가 그를 비난하고(왕상 21:17ff.), 이제 미가야가 그의 파멸을 선언한다(왕상 22:17ff.).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아합의 세 번째 실패를 묘사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이 단락은 두 가지 주요 부분, 즉 (1) 여호와와 말씀의 거부(왕상 22:1-28)와 (2) 여호와와 말씀의 성취(왕상 22:29-40)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락의 주된 논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이 전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신학을 제공하므로 나는 강해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걱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굳이 이유를 말한다면,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곧장 파멸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강해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왕상 22:1-40 의 문학적 구조를 숙지하라.

왕상 22:1-40 의 구조

배경, 왕상 22:1-4

문의, 왕상 22:5-6a

승인, 왕상 22:6b

불만족, 왕상 22:7

미움받는 선지자, 왕상 22:8-9

보좌 장면: 강한 확신, 왕상 22:10-12

참 선지자와 분명한 압력, 왕상 22:13-14

문의, 왕상 22:15a

승인, 왕상 22:15b

불만족, 왕상 22:16

미움받는 메시지, 왕상 22:17-18

보좌 장면: 확실한 재앙, 왕상 22:19-23

참 선지자와 명시적인 고통, 왕상 22:24-28

왕의 **변장**, 왕상 22:29-30 (공포)

아람 왕의 “의도적인” 계획, 왕상 22:31-33

여호와와의 말씀의 “우연한” 성취, 왕상 22:34-36

왕의 **죽음**, 왕상 22:37-38

요약, 왕상 22:39-40

이 내러티브의 처음에 나오는 두 주요 부분(5-14 절과 15-28 절)이 동일한 일반적인 전개 패턴을 따르는 것을 주목하라. 내가 아이러니한 대조라고 부르는 것의 몇몇 요점에도 주목하라. 나는 이것들이 개요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10-12 절과 19-23 절에 나오는 두 개의 “보좌 장면”에서 아이러니한 대조가 드러나고, 31-33 절과 34-36 절에 각각 주어진 제목, 즉 “의도적인” 계획과 “우연한” 성취라는 제목에서 아이러니한 대조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슬프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이제 본문의 신학으로 나아가자.

1. 여호와와의 말씀의 솔직함 (왕상 22:1-8 The Candor of Yahweh's Word)

3 년이란 짧은 시간의 평화(왕상 22:1)는 아마도 아합이 벤하닷과 맺은 이전 조약(왕상 20:32-34)의 결과로 왔을 것이다. 시기는 주전 853/852 년이다. 아합은 카르카르 전투에서 막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그는 앗수르 왕 살만에셀 3 세와 싸워 그를 중지시킨 열두 왕 연합의 일원이었다. 살만에셀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합은 두 번째로 큰 군대와 반 앗수르 진영의 병거의 절반 이상을 지원했다.¹ 아마도 아합의 전투의 피가 끓어올랐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최근의 동맹인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그의 조언자들에게 전투를 제의했다(왕상 22:2). 여호사밧은 경건의 점수는 높았으나 감각의 점수는 낮았다. 그는 아합과 어리석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왕하 8:18; 대하 18:1).² 여호사밧은 자신을 아합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그는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제의한 의제를 듣는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왕상 22:3)!”

사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아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경제가 권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길르앗 라못(아마 지금의 텔 라미스)은

¹ Alfred J. Hoerth,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8), 312-13.

² 아달라는 아합의 딸이지만, 이세벨이 낳았는지 아니면 아합의 다른 아내들(참조, 왕하 10:1) 중 한 명이 낳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어쨌든 열왕기하 11 장은 아달라가 이세벨의 복제품임을 보여준다.

북쪽의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남북 왕의 도로(King's Highway)를 가로 질러 요단강 동쪽으로 25-30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길르앗 라못에서 벳산과 요단강 서쪽의 다른 지점까지 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다. 향과 향신료 대상들은 길르앗 라못을 통과해야 했다. 그것은 그 자리를 장악하는 자마다 “대상 운송 세입”을 챙겼다는 뜻이다.³ 요금소에 앉아 있지 않다면 유료 도로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다음 아합은 여호사밧을 향해 그가 대의를 위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 오는 일에 이스라엘과 합류할 것인지를 묻는다. 여호사밧은 외교적 열정을 가지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왕상 22:4).”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굳이 해석하면 “예”라는 뜻이다. 그런 다음 (일의 순서가 재미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고 청한다(왕상 22:5). 당연히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합은 바로 그런 경우들을 위해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합은 그 성직자 무리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왕상 22:6a)?”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모험을 승인했다(왕상 22:6b). 여호사밧은 불안하다. 그는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아마도 그것이 너무 깔끔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계속 다그치며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말한다(왕상 22:7). 여호사밧은 정통 신앙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며 자기가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아합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여호사밧이 정의하는 바 여호와와 선지자들이 아니다.

잠깐 옆길로 나가보려 한다. 여기 아합의 선지자들에 대한 숫자 400(왕상 22:6)은 갈멜산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400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왕상 18:19, 22)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지만, 이들은 아세라 선지자나 바알 선지자가 아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하고(왕상 22:11), 여호와와 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왕상 22:12; 참조, 왕상 22:6), 여호와와 성공을 약속하고 외견상 여호와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왕상 22:5). 우리는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참고, 왕상 12:25-33)와 혼합된 여호와 경배의 걸치레를 가진 혼합주의적 여로보암식 의식과 관련된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예언을 업으로 실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보수를 받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왕들을 섬기는”⁴ 선지자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³ Carl G. Rasmussen, *Zondervan NIV Atla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 van, 1989), 127.

⁴ C. F. Keil, *The Books of the King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6;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5), 274.

아무튼, 여호사밧은 진실한 여호와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었다. “아합이여, 당신은 아직도 정말 그러한 선지자를 갖고 있습니까?” 아합은 통명스럽게 대답한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왕상 22:8, 강조는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것).” 여호사밧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참조, 왕상 22:8b)”에 해당하는 달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아합이 옳았다. 미가야는 왕의 총애를 갈망하는 아침꾼도 아니고, 그의 사역 동료들에게 존경을 표시해 달라고 구걸하는 협력적인 복음주의자도 아니었다.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다. 아합은 그가 하는 말을 미워했다. 왜 미워했는가? 아합은 그 말의 솔직함, 곧 그것의 진솔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의 관심사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있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습니다(왕상 22:8).” 이렇게 아합은 미가야의 충성을 자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왕상 22:18 에서도 그렇게 해석한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그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잘 보셨지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렇게 명백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왕상 22:8 에 나오는 아합의 말에 들어있는 슬픈 아이러니를 주목하라. 아합은 “아직 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한다.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 아합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직 한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친절인가! 아합은 여호와와 말씀에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는 예언에 대한 적대감이란 연막 뒤에 피난처를 가졌다. 그는 여호와와 말씀의 가차 없는 진실성을 (그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되풀이하여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요하게 신실하심으로 보지 않았다.

말씀의 솔직함이 항상 그렇게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브로더스가 버지니아 대학교의 학생 시절에 한 동료 학생에게 그리스어로 [헨 쉰 휘스테레이](“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메모를 쓴 적이 있다. 그것은 막 10:21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의 상태에 대한 그분의 분석이었다. 이

훈계는 결국 친구의 개종으로 이어졌다.⁵ 그러나 친절했을지라도 그것은 직설적이고 무뚝뚝한 말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아합적 사고 방식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어도 말씀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그것의 솔직함에 적대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나는 교회 광고들을 우편으로 받아왔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나의 시선을 끈 것은 “판단하지 않는(non-judgmental) 분위기”에 대한 광고였다. 나는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부정주의를 회피하거나,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삼가거나, 혹은 자신들에 대하여 나쁘게 느끼도록 하는 것(궁극적인 현대적 죄)을 삼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정직함 가운데 역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것은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아합은 그런 곳을 좋아할 것이다.

II. 여호와와 말씀의 자유로움 (왕상 22:9-14 The Freedom of Yahweh's Word)

우리는 아합이 손가락으로 똑하는 소리를 내며 한 신하에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왕상 22:9)”는 통명스러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전령은 속히 떠나고 여흥은 계속된다. 왕상 22:10-12 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가야가 기득권층(시드기야를 포함한 400 명의 선지자)의 단합된 목소리에 반대할 경우 그가 얼마나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장면은 생생하다.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에서 임시 보좌에 앉아 있다(왕상 22:10a). 모든 사람이 그것이 전쟁을 위한 의회인 것을 안다. 사람들은 근처 불박스에서 “불 전차(Chariots of Fire)”의 영화 음악이 울리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왕들 앞에서 격려하는 선전을 하며 계속 예언하고 있다(왕상 22:10b). 갑자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중앙 무대에 서서 한 쌍의 쇠뿔을 휘두르며 들이받는 황소 제스처를 보인다(왕상 22:11).⁶ 교회는 시드기야가 있을 때 정말 즐거웠다!

⁵ David S. Dockery, “John A. Broadus,” *Bible Interpreters of the Twentieth Century*, ed. Walter A. Elwell and J. D. Weaver (Grand Rapids: Baker, 1999), 39.

⁶ 시드기야가 이 쇠뿔들을 그 자리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게 틀림없다. 분명히 그는 미리 그것들을 만들었거나 만들어지게 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은 그것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H. L. Ellison,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41 을 참조하라.

시드기야가 광신자 집단에서 온 이상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선지자들은 자주 비유적인 행동과 구두 선언을 결합했다(많은 예들 가운데서 왕하 2:19-22; 렘 19:1-13 을 보라). 시드기야는 중뿔나게 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예언의 말에 익살스러운 행동을 동반한다. “여호와와 말씀이 왕[당신]이 이것들로[이 쇠뿔들로] 아람 사람을 **들이받아**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왕상 22:11b).” 아마도 시드기야는 신 33:17 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신 33:17 은 아합 시대에 북 왕국의 심장과 핵심을 이루었던 지파인 요셉 지파(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일부이다. 모세는 이 지파들이 들소의 뿔과 같은 뿔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로[그 뿔들로] 그가[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이]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기야는 왕상 22:11 에 나오는 그의 예언을 아합에게 선언할 때 모세가 신 33:17 에서 사용한 동사 [나가흐]를 그대로 취하여 사용하고 있다.⁷ 그는 자기가 그저 뜬금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언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 시드기야는 성경 본문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모세가 요셉이 민족들을 들이받는 것에 대해 말했다면 오늘날의 아람 사람들이 들이 받히는 대상 중에 속할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시드기야는 날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약속 상자에서 나온 메모 용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합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미가야가 반대 의견을 낼 때 견디어야 할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선지자들, 특히 시드기야는 비유적 행동과 더불어 말하고(왕상 22:11a), 예언의 공식(전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을 사용하고(왕상 22:11b), 성경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고(왕상 22:11c; 참조, 신 33:17),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왕상 22:12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계속 예언했다”) 예언하고 있다.

⁷ [역자 주] 개역개정은 신 33:17 과 왕상 22:11 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신 33:17)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원문, 뿔들)이 들소의 뿔(원문, 뿔들) 같도다 이것으로(원문, 그것들로) 민족들을 **받아**[여나가흐 < 나가흐 to gore, **들이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왕상 22:11)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꺾러**[트나가흐 < 나가흐 to gore, **들이받아**]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신 33:17 과 왕상 22:11 에 나오는 [나가흐]의 피엘 어간의 의미를 “들이받다”로 통일해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가야를 회의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 도착한 왕의 전령과 다시 합류한다. 이 사신은 미가야가 모임의 흥을 깨는 것으로 유명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미 완벽하게 도달한 만장 일치의 예언에 초를 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미가야에게 이번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긍정적으로(길하게) 말하라”고 촉구한다(왕상 22:13b). 그 말을 듣고 미가야는 압력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엄숙한 대꾸로 쏘아붙인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왕상 22:14).”

미가야는 아합과 그의 전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왕상 22:8 에 나오는 아합의 말과 왕상 22:13 에 있는 그 전령의 말을 되돌아보라. 두 사람 모두 여호와와 말씀에 대해 무슨 가정을 하는가? 그들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아합의 발언(왕상 22:8)은 미가야가 파멸을 예언하며 반 아합 정서를 드러내 보이는 전달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합은 미가야가 원한하면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그 전령도 미가야가 원하기만 하면 모인 선지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왕상 22:13). 그들은 미가야가 왕상 22:14 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 있다고 밝히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고 왕들이나 전령들이나 (심지어) 구변 좋은 선지자들에 의해 조작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말해야 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곡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왜곡할 자유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 강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자유롭고, 여호와의 종은 그것에 예속되어 있다.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의 주권적 자유를 이해할 수 없다.

미가야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목사라고 가정해보라. 당신에게 그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온 멋지고 낭만적이고 후현대주의적 남녀가 당신 앞에 앉아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 당신은 후자에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한 다음 그 남녀에게 (예를 들어, 고전 7:39 에서 추론하며) 성경은 당신이 그들의 결혼 주례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린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를 다니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당신은 그 교인의 가족들(역시 당신 교회의 교인들)이 당신의 거절에 대하여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이런 경우에 대해 조금의 거리낌도 갖지 않는 다른 목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것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그것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을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라는 압력이 사마리아의 성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복적으로 목사의 서재에도 온다. 미가야는 이해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로움이 여호와와 말씀의 자유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III. 여호와와 말씀의 무관함 (왕상 22: 15-18, 19-23 The Irrelevance of Yahweh's Word)

미가야가 도착하자 아합은 그에게 라뭏 작전에 대해 묻는다. 마치 타고난 에스맨처럼 미가야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대답한다(왕상 22:15b). 그의 조언은 왕상 22:12 에 나오는 400 명의 조언과 정확히 동일하다.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왕상 22:15 을 두고 불필요하게 머리를 쥐어짤다. 물론 독자로서 우리는 목소리의 어조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미가야가 왕상 22:15b 에서 비꼬며 말한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상 22:16 에 나오는 아합의 반응은 내 견해를 뒷받침한다. 왕상 22:16 의 일반적인 번역은 충분히 명확하지만, 좀 더 완전한 번역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계속해서 너로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느냐?”

다소 거추장스러운 “너로 계속해서 맹세하게 하다”라는 번역은 동사의 분사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처럼 분사는 자주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아합이 계속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고려를 처음의 “몇 번이나”와 결합하면 우리는 모든 단서를 얻게 된다. 이런 종류의 교류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 그것은 미가야와 아합사이에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 자문을 구하고, 미가야는 아합의 아첨꾼들의 집단 의견을 내뱉는다. 아합은 미가야로 맹세하게 하여 진실을 말하게 한다. 그러면 미가야는 빈정거림에서 진지함으로 바꾸고 아합에게 참된 진실을 말한다. “좋습니다. 당신이 진짜 진실을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왕상 22:17 에 기록된 대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라고 아합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목자도 없고 주인도 없다면, 그것은 아합이 전투에서 제거될 것임을 의미한다. 아합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신랄한 암시에도 유의하라. 왕이시여,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왕은 길르앗 라뭏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야는 아합과 왜 이러한 예언적 게임을 했는가? 여호와와 선지자에게 그러한 비꿈은 너무 경솔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경솔한 비꿈이 아니라 슬픈 비꿈이다. 미가야는 왕상 22:15 에서 집단적 의견을 내뱉는다. 왜냐하면 아합이 여호와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무엇인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우회적인 표현을 하든지 하는 것은 아합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합이 진리를 따를 수 없다면 왜 그가 애초에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⁸ 그는 그저 형식적 절차로 그것을 구할 뿐이어서 그것은 그의 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가?

왕상 22:19-23 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것은 미가야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첫 번째 예언은 왕상 22:15 의 비꼬는 말이었다. 두 번째 예언은 왕상 22:17 의 수정된 예언이었다. 이제 왕상 22:17 의 불행한 운명이 왕상 22:19-23 의 이 이상한 환상에서 더 상세하게 구체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왕상 22:19-23 이 왕상 22:15-18 에서 제시된 요점, 즉 아합이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요점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여호와와 천상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들려주겠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저자는 우리가 왕상 22:19-23 을 왕상 22:10-12 의 정반대로 보기를 원한다. 두 부분 모두 왕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궁중” 장면을 묘사한다. 전자에서는 두 지상 왕이 왕복을 입고 시드기야와 선지자들의 격려하는 예언을 듣는다. 후자에서는 만사의 주권적인 왕께서 자신이 아합을 처리하실 방식을 결정하신다. 어떤 왕의 결정이 역사를 형성할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가?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천상의회에서 일종의 경연을 벌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누가 아합을 꺾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물으신다(왕상 22:20). “유인하다, 꺾다,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의 동사 [파타]가 세 번이나 사용된다(왕상 22:20, 21, 22 [모두 피엘 어간]). 누가 아합을 꺾어 죽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몇 가지 부적절한

⁸ 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왕상 22:16 에서 자연인의 이상한 모순을 본다. 그는 진리를 미워하지만 진리를 가져야 한다. 그는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것을 원한다. 이 이야기에서 아합은 진실을 미워하고 진실을 거부하면서도 진실을 두려워한다. 신학적으로, 열왕기상 22 장은 로마서 1-3 장의 옆집 이웃이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매력을 참조하라(막 6:17, 20).

제안들이 제출되었다(왕상 22:20b). 마지막으로, 어떤 영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왕상 22:21). 여호와께서는 그의 계획을 일등 계략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로 일하러 가도록 위임하신다. 미가야는 이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의 실행을 알린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습니다(왕상 22:23a).” 아합이 그 메시지가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미가야는 “또 **여호와께서**[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왕상 22:23b.)”라는 간결한 요약에 덧붙인다.

나는 왕상 22:19-23 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평범한 서구적 상상력을 놀라게 하고 아마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학적 지성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두 “하지만 왜 하나님은 ...”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추측성 질문들은 접어두고 요점을 고수하라. 어떤 질문들은 즉시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합을 속이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지 모른다. 틀린 질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속임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그가 자기 자신의 선지자들에 의해 파멸로 유인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합에게 여호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그분이 그를 속이고 계시는 속임수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만죄로 기소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보다 더 명확하시고 더 투명하실 수 있겠는가? 요점은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하고 충만하고 상세할지라도, 아합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점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왕상 22:15).”라고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정말로 주장하지만(왕상 22:16), 이상하게도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자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다. 아합의 입장은 볼링브로크 경에 대해 전해지는 일화를 떠오르게 한다. 그는 언젠가 헛필드의 설교를 들었지만 악명높은 이교도였다. 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던 어느 날 한 성직자의 심방을 받았다. 볼링브로크는 말하였다. “제가 존 칼빈을 읽고 있는 것을 목사님께 들켰군요. 그는 실로 위대한 재능과 심오한 감각과 방대한 학문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은혜의 교리들을 매우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들”의 친구가 아니었던 그 성직자는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표명했다. 그러자 볼링브로크는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교리들은 분명히 성경의 교리들입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⁹ 하지만 물론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칼빈을 존경하고 교리를 분별할 수 있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지” 누가 알겠는가(살후 2:10-11)? 여호와와 말씀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죽도록 무서워해야 한다.

IV. 여호와와 말씀의 굴욕 (왕상 22:24-28 The Humiliation of Yahweh's Word)

미가야는 그의 맹세(왕상 22:14)를 지키며 여호와께서 그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 신실한 선지자는 어떤 상을 받는가? 그는 라이벌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왕상 22:14) 왕에 의해 가장 빈약한 양식을 주라는 명령과 더불어 옥에 던져진다(왕상 22:26-27). 제왕적 허세와 함께 아합은 자기가 길르앗 라못에서 승리를 거두고 평안히 돌아올 것임을 암시한다(왕상 22:27b). 미가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한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왕상 22:28).” 이렇게 미가야는 아합이 살아있는 왕으로 돌아오면 그 자신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굴욕을 당한다.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굴욕의 부분에서 시드기야가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왕상 22:24)?”라고 말함으로써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¹⁰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와 영이 갑자기 나에게서 너에게로 날아가서 네가 것처럼 모순되는 말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냐?” 시드기야는 자신이 여호와와 영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며 미가야는 그렇지 않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호와와 진정한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는 선지자가 여호와와 참된 말씀을 말하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시드기야처럼 그가 영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인가? 그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인가?

⁹ Arnold A. Dallimore, *George Whitefield*, 2 vols. (Westchester, IL: Crossway, 1980), 2:268n.

¹⁰ 우리는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이전에 언급하였던 거짓 영을 언급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비꼬며 미가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거짓 영을 통해 말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거짓 영이 나를 떠나서 네가 그를 통해 지금 말하게 되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위해 Terence E. Fretheim, *First and Second Kings*,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9), 125 을 보라. 나는 시드기야의 말을 그 자신이 “여호와와 영”으로 말했는데 자기에게 예언을 주신 여호와와 영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신을 떠나서 미가야에게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말씀으로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헤아릴 수 없다는 암묵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한다.

그가 권위있는 어투나 품행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인가? 미가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두고 보라”는 것이다(왕상 22:25).¹¹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합에 대한 미가야의 대답이기도 하다(왕상 22:28). 아합이여, 당신이 숨쉬며 걸어서 돌아온다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상자 안이나 병거의 바닥 안에 돌아온다면,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의 수사적 강도를 높이지 않고 신적 영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말한다.¹² 이렇게 미가야는 선지자 시험에 기꺼이 몸을 맡긴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나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신 18:21-22).¹³

이것은 느린 시험이지만 정확한 시험이다. 아마 1240 년대 후반에 아놀드 형제란 사람이 스와비아에서 선언문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것에 의하면 1260 년은 로마 교회의 부가 몰수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위대한 사회 혁명이 일어날 해로 예상되었다. 프레데릭 황제는 이 일대 반전을 가져올 사람이었다. 불행하게도, 예상된 피날레보다 10 년이나 앞선 1250 년에 프레데릭은 갑자기 죽었다. 두고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토마스 뮌처를 생각해 보라. 그는 1525 년 투링기아의 농민 무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왕자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외투의 소매에 적의 대포알을 붙잡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보다는 차라리 하늘과 땅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점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무지개는 뮌처의 깃발 위에 있는 상징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총애에 대한 명백한 징조로

¹¹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실제로 한 말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왕상 22:25).”는 것이었다. 프로반(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63)에 의하면, “미가야는 그가 예언하고 있는 재앙이 결국 임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그 재앙이 시드기야를 삼킬지 모른다. 아마도 아합의 죽음이 아합에게 충성했던 모든 자들의 제거로 이어지고 시드기야는 반 아합 숙청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왕하 10 장; 참조, R. D. Patterson and Hermann J. Austel, “1 and 2 King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165).

¹² 참조, 렘 28:1-11.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파멸과 암울의 메시지에 반하는 회복의 예언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계속 횡설수설하며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 목의 멍에까지 사용하고 있다(렘 28:10).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는 돌아서 자기 길을 가버린다(렘 28:11).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¹³ 이 부정적인 시험은 유일하게 확실한 시험일 수 있다. 선지자가 무언가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말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거짓 선생일 수 있다(신 13:1-5 참조).

해석되었다. 무엇이 이보다 더 명확하겠는가? 뮌처의 무리는 그들의 상대방이 첫 번째 일제 사격을 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를 부르고 있었다. 농민들은 흠어들며 공포에 떨면서 도망쳤다. 적군 기병대는 그들을 추격해 쓰러뜨리며 수백 명을 학살했다.¹⁴ 하나님께서 뮌처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다려라, 그러면 슬프게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예언의 진실성이란 용액에 담그고 즉각적인 결과, 즉 빨간색으로 변하면 거짓이고 파란색을 변하면 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 편리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미가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고-보자는 관망하는 접근은 현재의 신실한 선지자에게 즉각적인 옹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굴욕은 계속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성직자가 승리한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존경을 받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참조, 왕상 22:14). 고통과 고립은 예언의 영역과 함께 간다(약 5:10).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면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은 좋은 교제의 일원이다. 결국, 여러분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들이 입을 맞출(요 18:22; 행 23:2-3) 것임을 알았더라면 격려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V. 여호와의 말씀의 확실성 (왕상 22:29-38 The Certainty of Yahweh's Word)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왕상 22:29)!¹⁵ 어떻게 결정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다. 왕상 22:18 에 근거하여 우리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미가야가 얼마나 지독하게 비열한지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므로 그들이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여유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을 완전히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미가야의 말이 그렇게 엉터리였다면, 아합은 왜 졸병으로 변장하고 전투에 들어갔겠는가? 아합은 미가야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은밀한 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필요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섭리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했듯이, 아합은 흥미로운 왜곡의 묶음이다. 그는 말씀을 미워하지만(왕상 22:8) 말씀을 원하고(왕상 22:16), 말씀을 두려워하지만(왕상 22:30ab) 말씀을 거역한다(왕상 22:29, 30c). 그의 모든 왜곡 가운데 자연인을 꼭 닮은 이미지가 있다. 열간이처럼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투 계획에 따르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왕상 22:32-33).

¹⁴ 참조,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2nd ed.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1), 106, 268-70. 콘의 작품은 사라진 계시 주장들의 여러 예를 제공한다.

¹⁵ 이 부분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려면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개요를 참조하라.

아람 왕은 자신만의 전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병거 지휘관들은 잔챙이들을 무시하고 급소인 이스라엘 왕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올바르게 그는 아합의 죽음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합의 계략(왕상 22:30)은 그의 상대편 왕의 신중한 계획을 상당히 좌절시켰다(왕상 22:31-33). 여러분은 여러분이 식별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인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맞힌지라(왕상 22:34a).” 저자는 의도적으로 왕상 22:34-36 이 왕상 22:31-33 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게 했다. 아람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목표로 삼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을 맞히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던 한 무명인(본문의 직역,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고 왕의 피가 병거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¹⁶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무심코 이루어졌다. 아합을 처리한 것은 아람왕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작정이었고 그것도 가장 “우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합은 온통 철과 놋쇠로 도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틈은 항상 있다.”¹⁷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무오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투가 끝났고(왕상 22:36) 왕이 죽었다(왕상 22:37a). 장면이 다시 사마리아로 이동한다(왕상 22:37b). 저자는 그의 신학적 논평을 지닌 마지막 묘사를 덧붙인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핏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왕상 22:38)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한다. 아합이 피하려고 한 것과 아람 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실제로 왕상 22:37-38 은 세 가지 구별되는 예언들, 즉 왕상 20:42 에 나오는 익명의 선지자의 예언, 왕상 21:19 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언, 그리고 왕상 22:17, 23 에 나오는 미가야의 예언의 성취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 삼중 성취는 여호와의 말씀 아래서 아합이 실패한 것을 다루는 삼부 구조의 내러티브(왕상 20, 21, 22 장)를 마무리한다. 아마도 미가야는 오늘 밤 집에서 저녁을 즐길 것이지만, 시드기야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할 것이다.

¹⁶ 그 사람이 “무심코” (더 문자적으로 “그의 단순함 가운데”) 그의 활을 당겼다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 활을 조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목표가 어떤 의미에서 특별했음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¹⁷ Alexander Maclaren,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Second Samuel and the Books of Kings* (reprint ed., Grand Rapids: Baker, n.d.), 313.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왕상 22:38 이 정말로 왕상 21:19 의 성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엘리야는 왕상 21:19 에서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핏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고 위협했다. 이 위협을 염두에 두며 저자는 왕상 22:38 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핏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한다. 문제는 나뭇이 이스라엘 성읍의 밖에서(왕상 21:10, 13) 돌에 맞아 죽은 반면, 아합의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일 사마리아 못이 그 성읍 밖에(적어도 요새화된 성채의 벽 밖에) 있다면,¹⁸ 우리는 왕상 21:19 의 “곳”이 정확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다시 말하면, 개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성읍 밖에서가 아니라) 성읍 밖에서 아합의 피를 핏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저자는 왕상 21:19 과 왕상 22:38 사이에 크게 상충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후자가 전자를 성취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들은 모든 피의 흔적을 열렬히 찾고, 창녀들은 조용히 밤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왕이 죽었어도 어떤 일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무명의 선지자가 옳았고(왕상 20 장), 엘리야가 옳았고(왕상 21 장), 미가야가 옳았다(왕상 22 장).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합에게 임했다(왕상 22:38b). 천상 왕의 말씀(왕상 22:19-23 참조)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열왕기 저자에게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 꺼리는(싫어하는) 사람들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성취할 뿐이다. 정확히 여기서 약간의 기쁨이 이 어두운 이야기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말씀이 확실하다면(저자의 요점), 우리는 여호와와 소망의 말씀도 그분의 심판의 말씀만큼 견고함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말씀은 그분의

¹⁸ 발굴자들은 사마리아의 왕실 혹은 성채의 북서쪽 모퉁이에서 (가로 세로가 33 피트와 16 피트쯤 되는) 못을 발견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아합의 병거가 씻겨진 못이라고 제안한다.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왕상 22:38 의 못은 일반 대중, 지저분하고 먹이를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개들, 그리고 일반 창기들(여기 [조노트]는 이교도 신전에서 일하는 ‘성스러운 창기들’가 아닌 것 같음)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런 방문객들이 성채의 벽들 밖에 있는 장소를 자주 찾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사마리아 발굴에 대해서는 N. Avigad, “Samaria,”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4 vol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8), 4:1032-46 을 참고하라.

¹⁹ 이런 입장을 보려면 K. C. W. F. Bähr, *The Books of the King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44 그리고 J. R. Lumby,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the Kings*,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UP, 1909), 225, 238-39 을 참고하라.

찌르는(들이받는) 말씀처럼 확실함에 틀림없다. 왕국의 도래(단 2:44)는 왕(아합)의 죽음만큼이나 확실하다. 벤후 3:13 은 왕상 21:19 만큼이나 확실함에 틀림없다. 이 요점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구덩이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것이다.

VI. 여호와와 말씀의 어리석음 (왕상 22:39-40 The Foolishness of Yahweh's Word)

이제 아합의 사망 공식을 살펴보자. 여섯 장이 넘는 이야기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요약에 위한 상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상적인 종지(終止, 마침표)로 인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왕상 22:39)

지금 이 구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와 미가야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왕상 22:39 에서 그는 그가 자신의 기록에서 생략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자는 아합의 업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것을 오므리 기념 도서관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아합의 업적이라고만 언급함으로써 그는 암시적으로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그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비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의 **땅콩(Peanuts)** 만화 중 한 편에서 찰스 슐츠는 찰리 브라운이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이 매일 끔찍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라이너스에게 불평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찰리는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신문을 걷어차며 “어린 셀리가 그런 세상에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탄한다. 라이너스는 그런 비관 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찰리 브라운에게 더 어두운 발전을 잊으라고 촉구한다. 그는 “밝은 면을 보고, 진보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성장할 때쯤엔 메이저 리그가 3 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열왕기 저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라이너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다. 야구의 진보가 어떻게 광범위한 도덕적 사회적 붕괴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주어진 어느 현상이 놀랍거나 인상적일 수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저자가 아합의 업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여러분은 상아로 장식된 가구와 직책을 자랑하는 그의 궁전에 반했는가? **더 나은 가정과 정원**의 특집 기사를 참조하라. 아합의 국방 정책과 광범위한 요새화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마리아 뉴스와 월드 리포트**의 최근 판을 보라.²⁰ 그것이 저자가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여섯 장이 넘는 아합에 대한 기록을 되돌아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저자의 초점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성을 지닌 아합에 관한 질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옆에 어떻게 계속 쌓여왔는가? 이것은 마 7:24-27 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왕상 22:39 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어리석음(바보스러움)”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구절이 결코 아니다. 왕상 22:39 은 여러분의 성공을 너털너털 해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할 의도로 기록되었다.

V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을 동의했어야만 했는가?
2. 여호사밧은 왜 아합에게 여호와께 물어 보라고 요청했는가? 그는 왜 아합의 선지자 400 명의 “말”에 만족하지 못했는가?
3. 아합은 왜 미가야를 그토록 미워했는가?
4. 시드기야의 실물 교훈은 그의 예언에 무게를 더해주었는가?
5.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의 ‘요점’을 어떻게 얻었는가?

²⁰ 아니, 더 좋은 것은 *Biblical Archaeology Review*에 나오는 스톤의 흥미로운 기사, 즉 Ephraim Stern, “How Bad Was Ahab?,” *BAR* 19/2 (1993): esp. 24-29 을 읽는 것이다.

29. 우매와 우매 (왕상 22:41-53 The Folly and the Folly)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집안의 목공일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일을 끝냈다고 상상해보라. 도구는 수집해서 지정된 공간에 도구를 다시 놓아 둔다. 남은 자재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톱밥과 부스러기, 구부러진 못을 쓸어 쓰레받기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열왕기상의 이 마지막 단락(왕상 22:41-53)은 마치 작업장 바닥에서 쓸어서 모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여기엔 흥미로운 내러티브나 연결된 이야기가 없고, 다만 두 왕에 대한 자투리만 있다. 그 대부분은 친숙하고 흥미롭지 않은 공식의 형태이다. 책을 끝내는 것치고는 지루한 방식이다. 하지만 열왕기상 끝은 그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원래 한 책의 끝이 아니다. 전체 책이나 전체 문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함께 갖고 있었으므로 열왕기하 25 장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분량이 한 두루마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문서는 분할되어야 했고, 그 구분은 이렇게 뼈대만 있는 것 같은 단락 뒤에 온 것이다. 비록 왕상 22:41-53 이 저자에 의해 의도된 결론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목적상 적절한 결론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운명에 대한 중간 보고서로 볼 수 있다. 나는 나의 책 열왕기상 주해의 제목으로 “지혜와 우매”를 택했다. 이것은 열왕기상이 “지혜와 우매”라는 주제 아래 요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왕상 22:41-53 은 나의 책 제목을 수정해 “우매와 우매”로 시도해 보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이번 강해의 제목이 “우매와 우매”가 되었다. 폭풍이 두 왕국을 휩쓸고 있다.

1. 의인의 우매: 타협의 길을 걷는 것 (왕상 22:41-50 The Folly of the Righteous: Walking in Compromise)

유다는 거의 잊혀버린 왕국이 되어 왔다. 왕상 22:41 에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읽을 때, 우리가 되돌아 가보면 왕상 15:24 에서 아사를 떠났음을 알게 된다. 그 이후로 저자는 유다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 짧은 기록이 끝나면 왕하 8:16-29 에 이를 때까지 유다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되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은 열왕기하 11 장이 될 것이다.¹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지금부터

¹[역자 주] 북 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이 번갈아 묘사되고 북 왕국이든 남 왕국이든 한 왕의 이야기는 시작되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교대로 이어서 언급할 상대국 왕(들)의 묘사는 앞서 언급한 상대국 왕의 사망 연도를 넘을 때까지 계속된다. 왕상 12-왕하 12 장에 나오는 왕들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유다		
(1)	1 여로보암 1	930-909(왕상 12:1-14:20)			
			(2)	1 르호보암	930-913(왕상 14:21-31)

당분간 일반적으로 유다나 특히 여호사밧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오므리 왕조(왕상 16:23-왕하 10 장)에 집중되어 있다.²

			(3)	2 아비얌	913-910(15:1-8)
			(4)	3 아사	910- 869 (15:9-24)
(5)	2 나답	909 -908(15:25-32)			
(6)	3 바아사	908-886(15:33-16:7)			
(7)	4 엘라	886-885(16:8-14)			
(8)	5 시므리	885(16:15-20)			
(9)	6 (디브니)	885-880(16:21)			
(10)	7 오므리	885-874(16:22 -28)			
(11)	8 아합	874- 853 (16:29-22:40)			
			(12)	4 여호사밧	872 -848(22:41-50)
(13)	9 아하시야	853 -852(22:51- 왕하 1:18)			
(14)	10 여호람 (요람)	852- 841 (3:1- 8:15)			
			(15)	5 여호람 (요람)	853 -841(왕하 8:16-24)
			(16)	6 아하시야	841 (8:25-29)
(17)	11 예후	841 -814(9:1-10:36)			
			(18)	7 (아달랴)	841 -835(11:1-20)
			(19)	8 요아스	835- 796 (11:21-12:21)

² George Savran, "1 and 2 King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 Robert Alter and Frank Kermode (Cambridge, MA: Belknap, 1987), 148-49 에 나오는 논의와 구조적 개요를 보라.

[역자 주] 오므리 왕조를 중앙 축으로 보는 더 좋은 구조는 Jerome T. Walsh, *1 Kings*, 373 에서 볼 수 있다.

A 솔로몬과 통일 왕국	왕상 1-11
B 북 왕국 이스라엘의 시작	왕상 12
C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왕상 13-16
X 오므리 왕조	왕상 17-왕하 11
C'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왕하 12-16
B'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왕하 17
A' 홀로 남은 남 왕국 유다	왕하 18-25

역대기는 여호사밧과 그의 통치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여호사밧에 초점을 맞추는 네 장의 여유로운 기록은 역대하 17-20 장에서 볼 수 있다.³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열왕기 저자는 25 년간 통치한 여호사밧에게 단 10 개의 절만 할애하고 단 2 년간 통치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무려 21 개의 절(왕상 22:51-53[3 절]+왕하 1:1-18[18 절])이나 할애하는 것을 통해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이 저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관심만 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할애받은 총 10 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이 열개의 절 중 절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공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연대(왕상 22:41-42), 신학적 평가(왕상 22:43), 참고할 문서(왕상 22:45), 사망과 장례 그리고 승계(왕상 22:50)를 언급한다. 이러한 등극 공식과 사망 공식 사이에 이스라엘 왕과의 화친(왕상 22:44), 탐색하는 자들의 추방(왕상 22:46), 선박과 관련된 일(왕상 22:47-49)이 삽입되어 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읽어 내려온 우리는 왕상 22:43 이 신선함을 알게 된다. 바알에게 기울어지지 않은 왕국이 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왕상 22:43a).” 추가된 단서(왕상 22:43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남아 있던 탐색하는 자들(왕상 22:46; 참조, 왕상 14:24; 15:12)을 땅에서 쫓아낸 것은 여호사밧이 명목상의 개혁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3 개의 절이 선박에 대한 것인가? 왕상 22:47 은 도대체 어떻게 여호사밧이 해운업을 열망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그 당시 에돔의 세력은 약화되어 있었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만 있었다. 에돔은 아마도 여호사밧과 유다에 복속되어 있었을 것이다(참조, 왕하 3 장과 대하 20 장). 따라서 여호사밧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카바 만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그의 해상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조선업자들은 완전 고용을 얻었고, 정부는 수익성이 좋은 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왕상 22:48a).⁴ 그러나 후자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배들이 항구에 있는 동안 파선되고 말았다(왕상 22:48b). 아마도 저자는 여호사밧을 솔로몬 수준의 모험(왕상 9:26-28)을 열망했지만 솔로몬 수준의 성공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묘사하길 원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영광의 시대가 쇠퇴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할

³ 분명히 여호사밧은 왕상 22:1-40(대하 20 장과 병행되는 본문)에 등장 인물로 정말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열왕기에 없는 여호사밧에 대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⁴ 다시스의 선박에 대해서는 ABD, 6:331-33, 그리고 ISBE, 4:734 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라. 오빌에 대해서는 NBD, 3rd ed., 849-50 그리고 왕상 9:26-28 에 대한 나의 설명을 참고하라.

수 있었다.⁵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저자가 해운업의 실패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왕상 22:49).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더 큰 기여와 함께 다시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은 바로 선박이 파선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 여호사밧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왕상 22:49). 이러한 이해는 대하 20:35-37 에 나오는 병행 본문과 꼭 들어맞을(맞물릴) 것이다.

합작 해운업 모험은 여호사밧의 화친 정책의 산물이었다(왕상 22:44). 그는 이스라엘 왕, 확실히 아합(왕상 22:1-40)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화친했다. 나는 열왕기 저자가 그 동맹을 위험한 선례로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역대기는 그렇다. 역대기에서 선지자들은 그러한 배교한 왕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여호사밧에게 엄한 질책을 했다(대하 19:2-3; 20:37). 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열왕기도 역시 비판적이다. 이전 내러티브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팔짱을 끼고 있을 때, 이미 여호사밧의 미친 순진함(왕상 22:29-33)을 잘 보여주었다. 몇 장 후에 열왕기는 결혼이 동맹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합의 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왕하 8:18). 그런데 (유다 왕) 여호람은 친부 여호사밧이 아니라 장인 아합을 흥내냈다(왕하 8:18a).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였다(왕하 8:25-27). 저자는 열왕기하 11 장에서 구속사가 주전 841 년에 하마터면 끝날 뻔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왜 끝날 뻔했는가? 왜냐하면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죽은 뒤에도 아합의 딸 아달라는 살아 남아서, 유다의 태후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계보의 왕족을 거의 모조리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비극이 시작되었는가? 왜냐하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배교자들과 세계 교회 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왕상 22:44).” 그것은 예민한 것이 아니고 무모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하마터면 여호와와의 구원 계획을 망치게 할 뻔했는지 주목하라.

몇 달 전에 우리 신문에서 나는 오리건주 코발리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다. 오리건 주 동부에 있는 말허르 국유림의 토양 아래에서 수세기 동안 나무 뿌리를 통해 점차적으로 퍼져 나온 곰팡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다고 한다. 아르밀라리아 오스토야에(AKA 꿀 버섯)는 현미경 없이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작은 단 1 개의 포자에서 시작하여 약 2,400 년 동안 검은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을 숲에 퍼뜨리며 자라서 나무를 죽이고 있다. 이 유기체는 현재 2,200 에이커를 덮고 있다. 여호사밧의 동맹이 이와 같았다. 그저 결혼에 불과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멋진 외교의 일환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12 년쯤 후에

5 Iain W. Provan, *1 and 2 King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 Hendrickson, 1995), 168.

아달라가 예루살렘을 정육점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은 빛이 어둠과 **악간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여호사밧 때문에 일어났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여호사밧의 개인적 경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그의 공공 정책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경우 왕의 개인적 믿음은 그의 정치적 결정이나 언약적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 실수들은 그의 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정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도 여호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겁나게 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해야 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가정 생활이나 재정 문제나 사회적-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이교도와 의 결혼이 그렇게 큰 재앙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지 않았던가? 타협의 길은 의인의 우매이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그것은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왕국에 악영향을 미친다.

II. 악인의 우매: 거역의 길을 걷는 것 (왕상 22:51-53 The Folly of the Wicked: Walking in Rebellion)

아하시야의 해부학에는 타협이 없다. 그는 원초적인 완전한 악에 빠졌다. 그의 통치에 대한 요약 또한 거의 전적으로 익숙한 공식을 통해 주어진다. 저자는 (1)아하시야의 통치기간(왕상 22:51), (2) 그의 전념/신학적 평가(왕상 22:52-53a), (3)그의 위험(왕상 22:53b)을 강조한다. 왕상 22:52 에 의하면, 그는 삼중 전통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축적된 모든 왜곡과 이방 종교, 즉 여로보암의 혼합된 여호와 숭배와 그의 부모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바알 숭배를 간과하지 않도록 저자는 왕상 22:53a 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게 예배했다.”라고 말이다. 이것은 순전한 거역이다. 그런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자는 그의 가장 마지막 문, 곧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왕상 22:53b).”에서 아하시야의 최후를 암시했다. “노하시게 했다”는 다시 [카아스]이다. 저자는 아하시야의 불경건이 여호와를 짜증나시게 만들고 분개하시게 만들고 사실 진노하시게 만들었으므로 결국 여호와께서 아하시야를 멸망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아하시야가 그를 심판하실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악함을 과시하는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는가?

존 세지윅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1864 년 5 월 8 일 (버지니아 주) 스폿실바니아 코트 하우스 근처에 도착했다. 그의 부대에 의해 “존 아저씨”란 애칭으로 알려진 세지윅은 곧 시작될 윌더니스 전투에서 북군을 지휘했다. 다음날 세지윅과 그의 참모장 마틴 맥마흔은 포대 옆에 서서 그 근처에 있는 보병 몇 명을 다른 위치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 시점에 아마도 1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군 저격수들이 발포했고 세지윅의 군대는 포화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움직이며 몸을 움츠렸다. 장군은 “이 정도 거리에서는 코끼리도 맞힐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병사들을 가볍게 꾸짖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장군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를 듣고 땅 바닥으로 엎드렸다. 세지윅이 그의 부츠로 그를 밀쳤다. 그는 그런 식으로 총알을 피해 재빨리 움직인 그 병사를 부끄러워하며, 다시금 그들이 “이 정도 거리에서는 코끼리도 맞힐 수 없다”고 확신시켰다. 그 병사는 서서 경례를 했지만, 그의 경험에 근거하여 “나는 재빨리 피신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의 신념을 되풀이했다. 세지윅은 웃으며 그를 가게 했다. 또 총성이 들렸다. 맥마흔은 둔탁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세지윅과의 대화를 재개하려 할 때 장군이 그를 향해 돌아섰고, 왼쪽 눈 밑에 난 구멍으로 피가 줄줄 솟았다. 세지윅은 맥마흔의 팔에 쓰러졌고, 둘 다 땅바닥에 쓰러졌다. 장군은 죽었다. 세지윅은 남군이 단거리 소총만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자신을 6 각형 45 구경 총알로 쓰러뜨린 저격수가 망원경이 장착된 영국제 휘트워스 저격총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⁶

세지윅은 그가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아하시야는 알고 있었는가? 만약 우리의 거역함으로써, 우리의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신들의 식당에서 신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벤티전 1:18)에 집착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셨다.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마 10:28b)”을 직면하고 있다. 정말로 이것은 주석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공포를 희석시키기 위해 약간의 달콤한 쓸데없는 말을 좀 섞을 수 있지 않는가? 아니, 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왜 저자는 우리에게 여호사밧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주었는가?

⁶ Clint Johnson, *Civil War Blunders* (Winston-Salem, NC: John F. Blair, 1997), 230-31.

2. 여호사밧의 선택이 파선한 것은 그의 이스라엘 왕들과의 동맹에 대한 여호와와 불쾌하심을 시사하는가?
3. 여호사밧의 이스라엘과의 화친은 어떻게 다윗 계보의 왕족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는가?
4. 아하시야의 삼중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인가? 왜 그는 그의 조상들보다 더 악했는가?
5. 아하시야는 어떻게 여호와와 진노를 격발하거나 가중시켰는가? 최악의 범죄는 무엇인가?